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 ▶ 책임연구원 : 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해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유성렬(백석대학교·교수)
박은미(서울장신대학교·교수)
- ▶ 연구보조원 : 장소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 ■ ■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불안정한 구조와 기능을 지닌 가정의 증가는 빈곤가정과 정상적인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은 열악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지원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도 미래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회통합 등과 관련하여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성장과정상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의 대부분이 횡단적이거나 일회성 조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거나 그러한 변화와 정책이 지닌 인과관계 분석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발달의 변화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종단적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차원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 이상의 관찰이나 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종단적 조사방법은 그간의 생활이나 의식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변화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저소득가정이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1,000명을 패넬로 구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분석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정도와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종단조사의 결과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관계자들과 정부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이 조사의 중장기적인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특성이나 생활변화와 더불어 관련정책과 사업이 지닌 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종단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 1,000명을 패널로 구축하여,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전체 아동·청소년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대상 중 저소득층과의 비교분석도 병행하였다. 또한 시설 종사자 517명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및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과 비교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낮고 부모의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교육 이용의 경우 취약계층패널의 76.8%,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2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에서는 11.5%가 전혀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셋째,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모든 집단의 주관적 평가 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이나 생활관리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취약계층패널의 10.4%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의 2.9%, 일반패널 3.5%보다 높게 나타나 정보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과 저소득층의 아동들보다 학교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확인되었다. 여섯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이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방과후 부모가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취약계층패널 아동과 청소년이 봉사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차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장과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의 정책수립과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종단조사,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1. 연구목적

-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심화, 불안정한 구조와 기능을 지닌 가정의 증가는 빈곤가정과 정상적인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음.
- 취약가정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은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발달과업의 성취가 지연되거나 열악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대한 중단조사를 통해 그 변화양상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중단조사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발달과업의 성취도와 욕구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에서 세부적인 조사대상 집단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중단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성장발달과 생활변화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에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단연구 I”을 수행하여 중단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하였음.
- 이 조사의 중장기적인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특성이나 생활변화와 더불어 관련 정책이나 지원시설의 기능과 효과 등에 대한 중단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에 있음[그림 1].

지역아동센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를 통해 종단적 자료를 수집 · 분석하고 정부지원정책 기초자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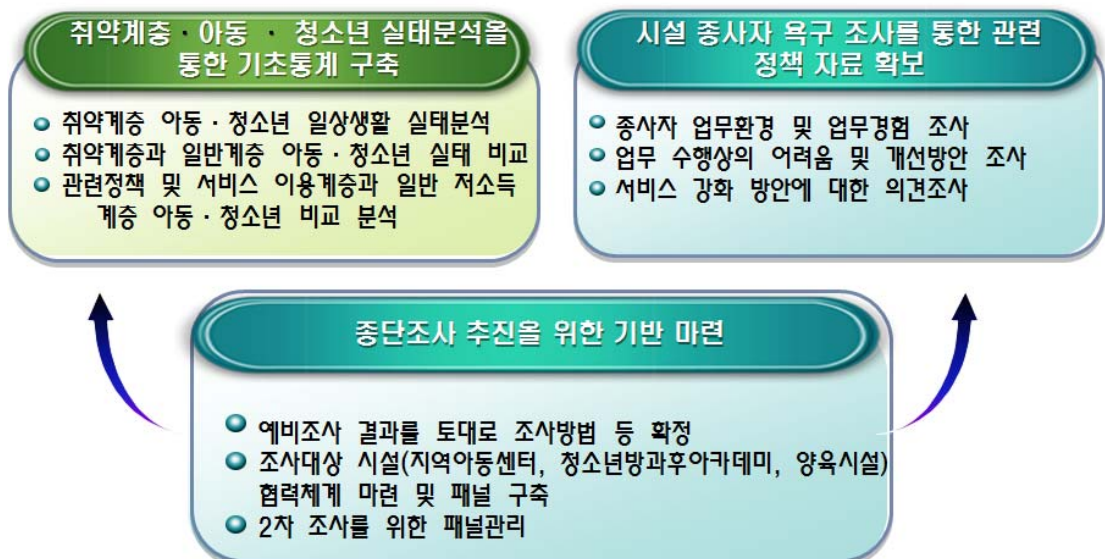
- 종단적 추적조사를 통한 장기적 안목의 기초자료 마련
- 적응 및 발달의 변화양상에 대한 깊이있는 조사 필요
-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깊이있는 조사 부족

취약가정 · 시설 아동 · 청소년 선행연구
- 횡단조사 중심 조사
- 특정 지역 및 개념 중심 조사

관련 선행 종단조사
- 일반 아동 · 청소년 중심
-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관련 조사 전무

【그림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중장기 필요성과 목적

○ 2011년에 실시된 조사의 목적은, 향후 3년간 추진될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의 1차년도로서 종단조사 전반의 내용을 확정하고, 1차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 진행될 조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음[그림 2].



【그림 2】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과 방법

○ 2011년 조사의 주요내용은 [그림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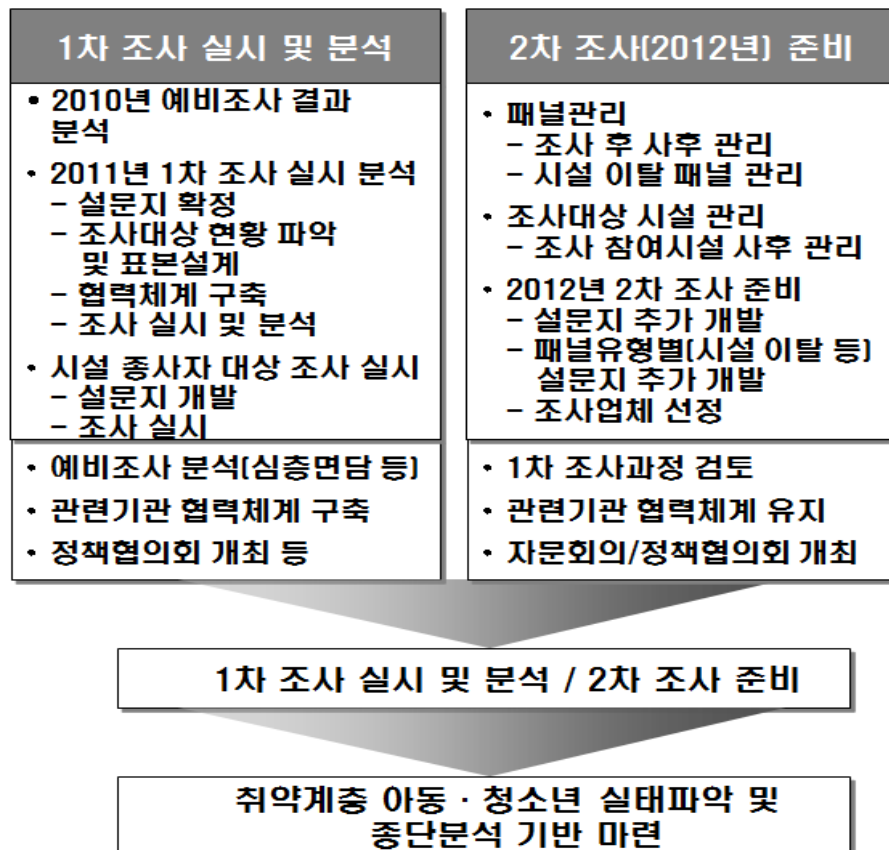


【그림 3】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주요 연구내용

○ 세부적인 연구내용으로는 ① 2010년 예비조사 결과 분석, ② 2011년 1차 조사지 및 조사방법 확정, ③ 조사대상 모집단 현황조사 및 표본추출, ④ 2011년 1차 조사 실시 및 분석, ⑤ 시설종사자

대상 조사 실시 및 분석, ⑥ 패널 관리, ⑦ 2012년 2차 조사 준비 등으로 구성됨.

-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과 의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함.
- 특히,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아동·청소년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대상 중 저소득층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함.
- 이를 위해 활용된 연구방법으로는 ① 문헌연구, ② 전문가 자문, ③ 심층 면담(관련시설 관계자 등), ④ 조사과정 참여관찰 및 사후조사, ⑤ 정책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이며, 전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그림 4]와 같음.



【그림 4】 2011년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3. 주요결과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논의와 선행조사 분석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논의

- 다양한 유형의 취약가정과 시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취약가정 중에서 저소득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계층을, 아동복지시설 중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부적인 조사대상을 확정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업과 중단조사의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사항목 등을 확정함.

○ 관련 선행 중단조사 분석

- 청소년관련 선행 중단조사 및 관련 연구, 복지관련 선행 중단조사 및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중단조사가 지닌 고유한 목적과 내용 및 특징 등을 파악함.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모형과 관련사업 현황분석

○ 2010년 예비조사 결과 분석

- 2010년 10월 조사실행업체(동서리서치)를 선정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과정 등을 세밀하게 확정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모형 확정

- 조사대상과 표본, 조사기간과 주기, 조사체계와 방법, 조사영역과 항목 등을 확정함.

○ 관련 사업 현황 분석

- 조사대상이 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사업 현황을 분석함.

3)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개요와 실태분석

○ 2011년 조사의 개요

- 지역아동센터에서 638표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199표본, 아동양육시설에서 163표본, 총 1,000명의 표본을 할당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샘플수를 할당함.

- 조사영역 및 항목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른 조사들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고,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조사된 항목과의 연계성 및 각 사업의 효과성 검증방안을 고려하여 확정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생활 실태 분석

- 일상생활(생활시간, 건강, 미디어 이용, 학교생활 및 학습, 비행 및 폭력 피해)
- 자아가족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가족에 대한 인식과 생활, 지역사회와 공동체 인식, 일상생활 만족도)
- 시설 및 서비스(도움에 대한 인식, 서비스 만족도, 생활변화 인식) 등의 내용을 분석함.

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비교분석

○ 취약계층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비교분석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상태에 대한 파악을 위해 취약계층 패널과 2010년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전체 학생들과의 차이를 분석함.
- 가족배경, 생활시간과 건강, 미디어 이용, 학교생활, 자아탄력성, 부모관계, 지역사회 및 공동체 인식을 비교함.

○ 취약계층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중 저소득층 비교분석

-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가운데 저소득계층에 포함된 대상을 선택하여 취약계층 패널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

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종사자 의견조사 분석

○ 조사개요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를 위해 선정된 기관들의 종사자 2명씩 총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됨.

○ 조사내용

- 직무현황 및 인적사항, 시설종사자의 직무인식 및 태도, 서비스 관련 현황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함.

4. 정책제언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 장기적 관점의 대안 마련,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검증, 성장·변화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 등을 반영한 조사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함.

○ 시설 서비스 및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시설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학습지원 관련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개별적인 접근의 필요성과 방향, 기관 특성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함.
- 관련 정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돌봄기능의 확대, 건강지원 사업의 방안, 컴퓨터 교육 등의 강화를 제안함.

○ 시설종사자 관련 제언

- 처우개선 방안, 업무배분 체계의 개선, 직무 재교육, 시설 유형별 개선방안 모색 등을 제안함.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	7
1) 2010년 예비조사 결과 분석	8
2) 2011년 1차 조사지 및 조사방법 확정	8
3) 조사대상 모집단 현황조사 및 표본추출	9
4) 2011년 1차 조사 실시 및 분석	9
5) 시설종사자 대상 조사 실시 및 분석	10
6) 패널 관리	11
7) 2012년 2차 조사 준비	11
3. 연구의 방법	12
1) 문헌연구	12
2) 전문가 자문	12
3) 면담조사	13
4) 조사과정 참여관찰 및 사후 조사	13
5) 정책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14
제2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논의와 선행조사 분석	15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논의	17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중단조사 대상 선정	17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달과업과 중단조사	19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선행 중단조사 분석	32
1) 아동·청소년 관련 중단조사	32
2) 복지관련 중단조사	33
3) 선행 중단조사의 시사점	34

제3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모형과 관련사업 현황 분석	37
1. 2010년 예비조사 주요결과	39
1) 조사의 목적	39
2) 조사대상 관련 검토사항	39
3) 조사내용 관련 검토사항	40
4) 조사과정 관련 검토사항	41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모형	42
1) 조사대상과 표본설계	42
2) 조사기간과 주기	43
3) 조사체계와 방법	44
4) 조사영역 및 항목	46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사업 현황	47
1) 지역아동센터 주요현황(2010년 12월 말 기준)	47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요현황(2011년 4월 말 기준)	49
3) 아동양육시설 주요 현황	51
제4장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개요와 실태분석	53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55
1) 표본설계 및 1차 패널구축	55
2) 조사영역 및 항목	62
3) 실사조사 과정	68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70
1) 생활시간과 건강	70
2) 미디어 이용	79
3) 학교생활 및 학습	85
4) 비행 및 폭력피해 경험	94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아·가족·사회 인식 및 생활	97
1)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97
2) 문제해결능력	102
3) 가족에 대한 인식과 생활	105
4) 지역사회와 공동체 인식	112
5) 일상생활 만족도	115
4. 시설 및 서비스 이용	118
1) 시설 및 서비스의 도움에 대한 인식	118
2) 서비스 만족도	120
3) 서비스에 따른 생활변화 인식	123
제5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비교분석	127
1. 비교분석의 목적과 내용	129
1) 비교분석의 목적	129
2) 비교분석의 방법과 내용	130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비교분석	131
1) 가족배경 비교	131
2) 생활시간과 건강 비교	135
3) 미디어 이용 비교	140
4) 학교생활 비교	146
5) 자아탄력성 비교	150
6) 부모의 감독 정도 비교	152
7) 지역사회와 공동체 인식 비교	155
3. 취약계층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의 저소득층 비교분석	157
1) 성별 및 가족 배경 비교	157
2) 생활시간과 건강 비교	161

3) 미디어 이용 비교	166
4) 학교생활 비교	170
5) 자아탄력성 비교	173
6) 부모감독 정도 비교	175
7) 지역사회와 공동체 인식 비교	177
제6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종사자 의견조사 분석	179
1. 시설종사자 조사 개요	181
1) 조사배경과 목적	181
2) 조사대상	182
3) 조사영역 및 항목	184
2. 시설종사자 조사결과 분석	185
1) 직무현황	185
2) 직무 인식 및 태도	192
3) 서비스 현황 및 개선사항	205
제7장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213
1. 조사결과 요약	215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215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및 저소득층 비교	219
3) 시설 종사자와 서비스의 실태 및 문제점	224
2. 정책제언	228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228
2) 시설 서비스 및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230
3) 시설종사자 관련 제언	231

참 고 문 헌	237
부 록	249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지	249
2. 지역아동센터 패널 인적사항 조사지(종사자 응답)	265
3.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지	269
4. 아동양육시설 패널 인적사항 조사지(종사자 응답)	285
5. 종사자용 설문지(지역아동센터)	288
Abstract	299

표 목 차

〈표 I-1〉 2010년 예비조사 및 2011년 1차 조사 개요	10
〈표 I-2〉 2011년 시설종사자 조사개요	11
〈표 II-1〉 아동·청소년 발달상의 위험 요인들	25
〈표 II-2〉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작용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	26
〈표 II-3〉 주관적 안녕의 구성요소	30
〈표 II-4〉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종단조사	32
〈표 II-5〉 복지관련 주요 종단조사	34
〈표 III-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기간과 주기	44
〈표 III-2〉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시도별 현황	47
〈표 III-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48
〈표 III-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	49
〈표 III-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유형별 운영현황	50
〈표 III-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별 운영현황	50
〈표 III-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년별 청소년 현황	51
〈표 III-8〉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성별·취학 현황	52
〈표 IV-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모집단 현황	55
〈표 IV-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지역별 표본수	56
〈표 IV-3〉 지역아동센터 조사표본 할당표	57
〈표 IV-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조사표본 할당표	58
〈표 IV-5〉 아동양육시설 조사표본 할당표	59
〈표 IV-6〉 조사대상자 성별·시도별 분포	60
〈표 IV-7〉 동거가족 형태와 시설 이용기간별 분포	61
〈표 IV-8〉 가정경제 수준 및 부모직업 유무별 분포	62
〈표 IV-9〉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아동용)	63

〈표 IV-10〉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중사자 응답용)	64
〈표 IV-11〉 설문지 조사항목 및 출처	65
〈표 IV-12〉 개인 배경변인 조사영역 및 내용 (중사자를 통해 별도 조사)	67
〈표 V-1〉 가족구성 분포(취약계층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비교	131
〈표 V-2〉 아버지 교육수준 분포 비교	132
〈표 V-3〉 어머니 교육수준 분포 비교	133
〈표 V-4〉 아버지 직업유무 분포 비교	134
〈표 V-5〉 어머니 직업유무 분포 비교	134
〈표 V-6〉 수면시간 평균 비교	135
〈표 V-7〉 주중 학원(과외) 수강 시간 비교	137
〈표 V-8〉 주말 학원(과외) 수강시간 비교	137
〈표 V-9〉 총 학원(과외) 수강시간 비교	138
〈표 V-10〉 학원(과외) 수강시간 평균 비교	139
〈표 V-11〉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139
〈표 V-12〉 주중 컴퓨터 이용시간 비교	140
〈표 V-13〉 주말 컴퓨터 이용시간 비교	141
〈표 V-14〉 총 컴퓨터 이용시간 비교	142
〈표 V-15〉 컴퓨터 이용시간 평균 비교	143
〈표 V-16〉 컴퓨터 사용 장소 분포 비교	144
〈표 V-17〉 컴퓨터 사용 목적별 평균 비교	145
〈표 V-18〉 휴대전화 소지여부 분포 비교	146
〈표 V-19〉 결석여부 분포 비교	147
〈표 V-20〉 결석 사유별 결석일수 평균 비교	147
〈표 V-21〉 학교생활 적응 항목의 평균 비교	149
〈표 V-22〉 자아탄력성 항목의 평균 비교	151

〈표 V-23〉 부모감독 항목의 평균 비교	152
〈표 V-24〉 귀가 후 부모 없이 지내는 빈도 분포 비교	153
〈표 V-25〉 귀가 후 부모 없이 지내는 평균 시간 분포 비교	154
〈표 V-26〉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항목의 평균 비교	155
〈표 V-27〉 봉사인식 항목의 평균 비교	157
〈표 V-28〉 성별 분포(취약계층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의 저소득층) 비교	157
〈표 V-29〉 가족구성 분포 비교	158
〈표 V-30〉 아버지 교육수준 분포 비교	159
〈표 V-31〉 어머니 교육수준 분포 비교	160
〈표 V-32〉 아버지 직업유무 분포 비교	160
〈표 V-33〉 어머니 직업유무 분포 비교	161
〈표 V-34〉 수면시간 평균 비교	162
〈표 V-35〉 주중 학원(과외) 수강시간 비교	163
〈표 V-36〉 주말 학원(과외) 수강시간 비교	163
〈표 V-37〉 학원(과외) 수강시간 분포 비교 - 총 학원(과외) 수강시간	164
〈표 V-38〉 학원(과외) 수강 시간 평균 비교	165
〈표 V-39〉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평균 비교	165
〈표 V-40〉 컴퓨터 이용시간 분포 비교 - 주중 컴퓨터 이용시간	166
〈표 V-41〉 컴퓨터 이용시간 분포 비교 - 총 컴퓨터 이용시간	167
〈표 V-42〉 컴퓨터 이용시간 평균 비교	167
〈표 V-43〉 컴퓨터 사용 장소 분포 비교	168
〈표 V-44〉 컴퓨터 이용 목적별 평균 비교	169
〈표 V-45〉 휴대전화 소지 여부 분포 비교	170
〈표 V-46〉 결석여부 분포 비교	171
〈표 V-47〉 결석 사유별 결석일수 평균 비교	171

〈표 V-48〉 학교생활 적응 항목의 평균 비교	172
〈표 V-49〉 자아탄력성 항목의 평균 비교	174
〈표 V-50〉 부모감독 항목의 평균 비교	175
〈표 V-51〉 귀가 후 부모 없이 지내는 빈도 분포 비교	176
〈표 V-52〉 귀가 후 부모 없이 지내는 평균 시간 분포 비교	176
〈표 V-53〉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항목의 평균 비교	177
〈표 V-54〉 봉사의식 항목의 평균 비교	178
〈표 VI-1〉 종사자 조사대상 표집	182
〈표 VI-2〉 조사대상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183
〈표 VI-3〉 종사자 조사영역과 항목	184
〈표 VI-4〉 직위, 근무경력, 주당 평균 근무시간	186
〈표 VI-5〉 시설유형별 주당 평균근무시간 비교	187
〈표 VI-6〉 월수입	188
〈표 VI-7〉 교육이수시간	189
〈표 VI-8〉 시설유형별 월수입, 교육이수시간 비교	190
〈표 VI-9〉 직위와 월수입, 교육이수시간 비교	191
〈표 VI-10〉 역할갈등 및 과다	193
〈표 VI-11〉 시설유형별 역할갈등 및 과다 비교	194
〈표 VI-12〉 종사자의 소진	195
〈표 VI-13〉 시설유형별 소진 비교	195
〈표 VI-14〉 이직원인	196
〈표 VI-15〉 시설유형별 이직원인 순위비교	198
〈표 VI-16〉 이직예방을 위한 방안	199
〈표 VI-17〉 시설유형별 이직예방을 위한 방안 순위 비교	200
〈표 VI-18〉 업무 영역별 어려움 정도	201

〈표 VI-19〉 업무만족도	204
〈표 VI-20〉 시설유형별 업무만족도 비교	205
〈표 VI-21〉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206
〈표 VI-22〉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207
〈표 VI-23〉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	208
〈표 VI-24〉 시설유형별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 순위 비교	209
〈표 VI-25〉 시급한 개선사항	210
〈표 VI-26〉 시설유형별 시급한 개선사항 순위비교	211

그림 목 차

【그림 I-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중장기 필요성과 목적	5
【그림 I-2】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목적	6
【그림 I-3】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연구내용 요약	7
【그림 I-4】	2011년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14
【그림 III-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협력체계	45
【그림 III-2】	CAPI 조사시스템 구조도	46
【그림 IV-1】	실사 진행절차도	68
【그림 IV-2】	평일 기상 및 취침 시간 (패널 전체 1,000명)	70
【그림 IV-3】	방과후 학교 이용률 및 생활시간(패널 전체 1,000명)	71
【그림 IV-4】	평일 시설 이용시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패널 837명)	72
【그림 IV-5】	평일 학원 이용률 및 이용시간 (패널 전체 1,000명)	72
【그림 IV-6】	휴일 시설 이용시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패널 837명)	73
【그림 IV-7】	주당 아침식사 취식 빈도 (패널 전체 1,000명)	74
【그림 IV-8】	아침식사 미취식 이유 (아침식사 미취식 패널 62명)	75
【그림 IV-9】	최근 1년 내 질병경험 여부(패널 전체 1,000명)	75
【그림 IV-10】	질병치료 여부 (질병경험 패널 754명)	76
【그림 IV-11】	치료받지 못한 이유	77
【그림 IV-12】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 (패널 전체 1,000명)	78
【그림 IV-13】	컴퓨터 이용률 및 1주일 이용시간 (패널 전체 1,000명)	79
【그림 IV-14】	컴퓨터 사용장소 (컴퓨터 이용 패널 896명)	80
【그림 IV-15】	컴퓨터 이용내용(% , 컴퓨터 이용 패널 896명)	81
【그림 IV-16】	휴대전화 이용여부 (패널 전체 1,000명)	84
【그림 IV-17】	결석여부 (패널 전체 1,000명)	85
【그림 IV-18】	결석일수 (결석경험 패널 전체 235명)	86
【그림 IV-19】	결석이유 (결석경험 패널 전체 235명)	86

【그림 IV-20】 학교생활 적응도	87
【그림 IV-21】 학교수업흥미 여부 (패널전체 1,000명)	89
【그림 IV-22】 숙제이행 여부 (패널전체 1,000명)	90
【그림 IV-23】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 (패널전체 1,000명)	91
【그림 IV-24】 상위인지력 항목별 측정(패널 전체 1,000명)	93
【그림 IV-25】 비행 내용별 경험(%)과 평균빈도(회) (패널 전체 1,000명)	95
【그림 IV-26】 폭력피해 내용별 경험(%)과 평균빈도(회) (패널 전체 1,000명)	96
【그림 IV-27】 자아탄력성 항목별 측정 (패널 전체 1,000명)	98
【그림 IV-28】 스트레스 항목별 측정 (패널 전체 1,000명)	101
【그림 IV-29】 문제해결능력 항목별 측정 (패널 전체 1,000명)	103
【그림 IV-30】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106
【그림 IV-31】 부모와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108
【그림 IV-32】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	108
【그림 IV-33】 책, TV, 영화에 관한 대화	109
【그림 IV-34】 부모와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빈도	109
【그림 IV-35】 부모와 여가 활동 빈도	110
【그림 IV-36】 부모와 저녁식사 빈도	110
【그림 IV-37】 주당 귀가 후 부모님(어른) 없이 지내는 빈도	111
【그림 IV-38】 일일 귀가 후 부모님(어른) 없이 지내는 평균시간	111
【그림 IV-39】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패널 전체 1,000명)	112
【그림 IV-40】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인식 (패널 전체 1,000명)	114
【그림 IV-41】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116
【그림 IV-42】 서비스 도움에 대한 인식 (패널 전체 1,000명)	118
【그림 IV-43】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 (패널 전체 1,000명)	121
【그림 IV-44】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 (패널 전체 1,000명)	122
【그림 IV-45】 서비스 이용에 따른 생활 변화 (패널 전체 1,000명)	124

【그림 VI-1】 시설 유형별 월수입, 교육이수시간 비교	191
【그림 VI-2】 시설 유형별 역할갈등과 역할과다 비교	193
【그림 VI-3】 시설유형별 이직원인 비교	197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심화, 불안정한 구조와 기능을 지닌 가족의 증가는 빈곤가정과 정상적인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의미하는 아동가구 절대빈곤율이 2001년 5.4%, 2002년 4.4%를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03년 9.4%, 2004년 9.0%, 2005년 10.0%로 점차 증가한 후 2006년부터 약 8%대를 유지하고 있다. 상대빈곤율도 1991년에는 8.8%였으나 1990년대부터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10-11%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또한 불안정한 가족구조를 대표하는 지표인 한부모가족수도 2004년 전체 10만9천여 가구에서 2008년 15만2천여 가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의 가구수는 2008년 약 8만2천 가구로 전체 한부모가구의 55%를 차지하며, 그 세대원은 21만2천5백여명에 달한다(여성가족부, 2010).

이 밖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 요보호아동의 수도 2000년 이후 9천여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은 2000년 4천4백여명에서 2010년 4천7백여명으로 약간 증가하였고, 가정위탁의 경우 2천2백여명에서 2천7백여명으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경제적 빈곤과 취약한 가족구조와 기능 속에서 성장하거나 보호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달성하기 힘들어지고, 미래사회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사회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종단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취약가정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볼 때 일반계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발달과업의 달성 시점이 지연되거나 열악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종단조사를 통해 그 변화 양상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존 연구가 대부분 횡단적 조사(cross-sectional survey)에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응 및 발달의 변화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조사가 부족한 형편이라는 점도 종단조사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종단조사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발달과업의 성취도와 아동·청소년의 욕구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즉, 경제적으로나 가족 구조의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이나 발달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단적 조사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차원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과 사업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같은 맥락에서 관련정책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빈곤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04년 법제화에 따라 2004년 800여 곳에서 2010년 12월 현재 3,662개소로 증가하였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도 2005년 46개소에서 2011년 200여개소로 증가하였다(황진구, 201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점차 확대·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의 효과나 그 의미를 파악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조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즉,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그렇지 못한 집단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종단적 조사는 거의 전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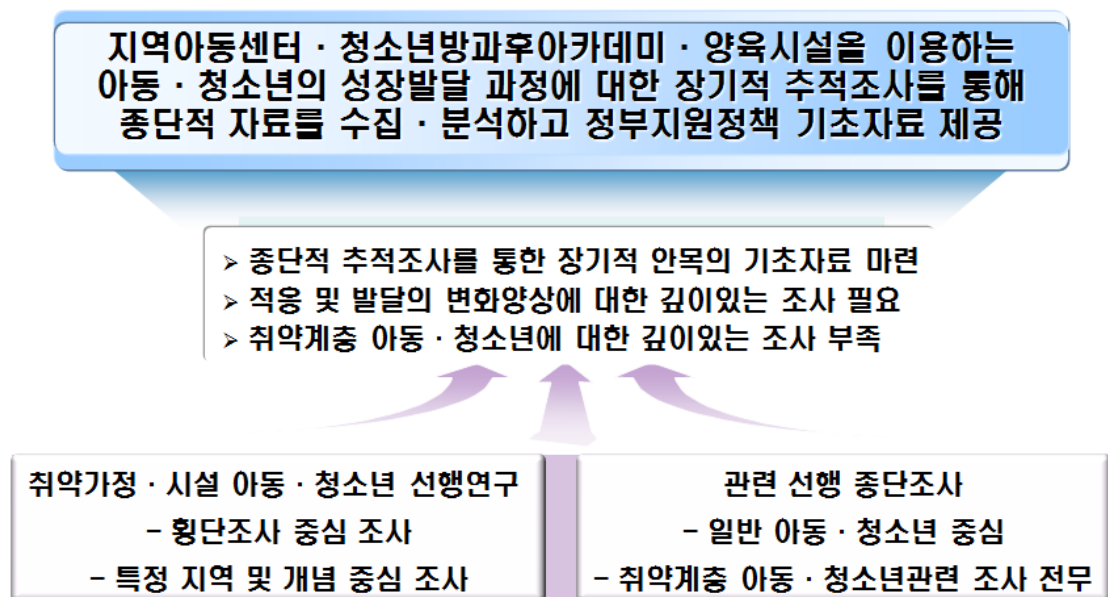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에서 종단조사 방법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인 대상을 파악하여 종단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성장발달과 생활변화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에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단연구 I”을 수행하여 중단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중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400여명을 대상으로 3년간 중단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모형을 설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의 목적은 중장기적인 목적과 2011년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 중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단조사의 중장기적 배경과 목적은 [그림 I-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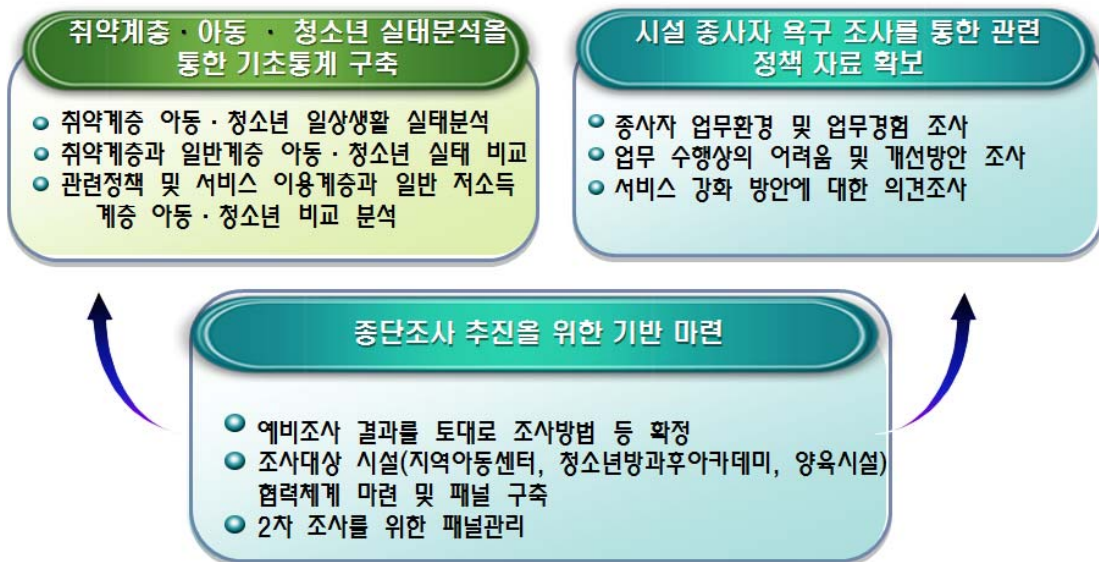
즉, 그동안 거의 실시된 바가 없었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특성이나 생활변화와 더불어 관련 정책이나 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등에 대한 중단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 I-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의 중장기 필요성과 목적

둘째, 2011년에 실시된 조사의 목적은 향후 3년간 추진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의

1차년도로서 조사설계 전반의 내용을 확정하고, 1차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 진행될 조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그림 1-2].



【그림 1-2】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목적

2011년 실시된 조사의 세부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저소득가정 및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1,000명을 패널로 구축하여 횡단적 자료와 종단적 자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조사의 기초를 확립하여 추후 진행될 종단조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2011년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2010년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등 유사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전체 아동·청소년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전체 빈곤계층 아동·청소년과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넷째, 각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업무환경과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장 전문가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 실시될 2차 조사의 준비를 위해 패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2011년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내용은 [그림 I-3]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될 수 있다.



【그림 I-3】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연구내용 요약

1) 2010년 예비조사 결과 분석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예비조사의 목적은 2011년부터 3년간 추진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를 위한 전체적인 기반 및 모형을 개발하고, 조사내용과 조사설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있었다. 예비조사 준비 및 진행과정을 통해 개별 시설별 조사에 대한 협조정도, 조사 시간대, 조사문항, 관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면접원 및 조사참여 기관의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1차 조사에 반영하였다.

또한 2010년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논의를 재검토하여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징이나 조사내용의 중요성 등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였고, 조사항목과 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010년 발간된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이혜연 외, 2010).

예비조사 결과, 각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의 업무환경이나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1차 조사시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2011년 1차 조사지 및 조사방법 확정

2010년 11월에 실시된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조사지를 확정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이 되는 3개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각 시설별 특화된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조사시 참여한 조사요원, 조사참여 시설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1차 수정된 조사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최종 조사지를 확정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조사내용은 공통문항으로 일상생활, 자신 및 가족 등에 대한 인식 및 생활, 가족관련 공통배경을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이용시설별 특성화된 질문(이용기간, 시간 등, 만족도, 생활변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각 기관별 3종의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종사자 대상 조사내용은 첫째, 시설종사자 근무여건, 문제점 및 욕구,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관련 현황 및 발전방안, 셋째, 시설종사자들의 인적사항 등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2010년에 실시한 예비조사는 종이를 이용한 전형적인 설문조사인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s; PAPI)방식을 활용한 반면에, 2011년 실시한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s; CAPI)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경우 프로그래밍 및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조사환경의 변화 등으로 조사준비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CAPI용으로 전환된 질문지는 별도의 예비조사를 거쳐서 실제로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사지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CAPI 조사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다만, 지도자용 조사의 경우는 PAPI방식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 모집단 현황조사 및 표본추출

2010년 실시된 예비조사는 패널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표본추출보다는 조사방법과 조사지 검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표본추출을 위한 조사모집단의 현황은 2011년 초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1년 8-9월 실시된 1차 조사에 앞서 3월까지 조사모집단(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아동)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표본집단(1,000명)을 확정하였으며, 약 26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종사자 대상 설문은 각 시설별로 2명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총 500여명을 조사대상자로 확정하였다.

4) 2011년 1차 조사 실시 및 분석

2010년 실시한 예비조사와 2011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한 1차 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I-1>과 같다.

표 I -1 2010년 예비조사 및 2011년 1차 조사 개요

구 분	2010년 예비조사	2011년 1차 조사
모집단	목표모집단 : 2011년 현재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초등학교4학년 - 조사모집단 - 지역아동센터 2010년 6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10년 10월 - 아동양육시설 2010년 1월 현재 이용 중인 초등4학년	- 조사모집단 - 지역아동센터 2010년 12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11년 3월 - 아동양육시설 2010년 12월 현재 이용 중인 초등3학년 (2011년 4학년)
표본 추출	- 지역아동센터 200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0명, 아동양육시설 100명의 표본을 임의할당(총 400명)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대도시의 시설별 초등4학년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배분 - 해당 지역에서 무작위로 시설 추출 후 차 상위 이하 가구에 속하는 초등4학년 추출	- 지역아동센터 638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99명, 아동양육시설 163명의 표본을 임의할당(총 1,000명) - 시설별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4학년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법 결정 - 해당 지역에서 무작위로 시설을 추출한 뒤, 조사대상 초등4학년 추출
조사 방법	PAPI (Paper and Pencil Interview)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조사 기간	2010년 11-12월	2011년 8-9월

5) 시설종사자 대상 조사 실시 및 분석

2011년 1차 조사의 부가조사로 실시된 종사자 대상 조사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현황, 직무에 관한 인식 및 태도,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의 <표 I -2>와 같다.

표 I -2 2011년 시설종사자 조사개요

구 분	시설 종사자 대상 조사
모 집 단	• 목표모집단 :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 시설 종사자
	• 조사모집단 : 조사 응답대상 패널이 이용하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및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조사 방법	• 종이설문지를 활용한 1:1 개별면접조사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기간	• 2011년 8월 8일 - 2011년 10월 4일

6) 패널 관리

종단조사의 경우 매 주기별로 이탈되는 패널이 발생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조사결과의 타당성이 낮아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실률을 낮추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패널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취약가정·시설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패널로 참여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적 환경은 일반 계층과 달리 불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실률 또한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물질적 유인과 더불어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교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취약가정·시설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패널은 시설 이용이 중단되더라도 최소 3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1차 조사의 표본으로 선정된 패널이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즉, 1차 조사 종료 시점부터 차기조사 개시시점까지 패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 개별 패널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패널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패널인지도 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관리작업을 수행하였다.

7) 2012년 2차 조사 준비

2012년 실시할 2차 조사의 경우, 각 시설별로 조사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추적이

불가능한 이탈 패널과 별도로 시설에서의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않지만 추적이 가능한 패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사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층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심층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질문지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되, 시설의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이유, 생활시간의 변화와 관련된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효과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2차 조사 수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예비조사 및 1차 조사의 경우 (주)동서리서치가 조사수행을 담당하였으며, 2100년 12월까지의 패널관리와 2012년 실시할 2차 조사를 수행할 조사업체 선정작업을 11월에 실시하여 (주)입소스코리아를 조사업체로 선정하였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첫째,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이들과 관련된 발달과업에 대한 문헌도 검토하였다.

셋째, 다양한 대상으로 실시된 중단조사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서 주로 복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선행중단조사를 살펴보았으며,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첫째, 패널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대상 중단조사의 가능성, 문제점, 추진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둘째, 각 시설 유형별 모집단 및 표본집단 추출결과 검토, 조사내용 확정 등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관련 학자를 통해 자문을 받았다.

셋째, 관련 기관종사자, 관련 학자 등을 통해 2010년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논의와 조사, 최종 조사설계 내용검토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넷째, 1차 조사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해 관련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관련 학자를 통해 자문을 받았다. 또한 설문지의 주요내용 및 진술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다섯째, 최종보고서 작성 시 관련 공무원, 시설종사자, 관련학자 등을 통해 자문을 받았다.

3) 면담조사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아동양육시설 운영자 등 총 30여명을 대상으로 각 시설별 중단조사의 가능성, 방향, 방법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은 별도의 면담지를 준비하여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등 조사대상 시설들을 정부차원에서 관리 및 지원하는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단, 한국아동복지협회 등의 관계자와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과정에서의 협조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사대상 및 대상기관의 특성과 조사 진행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예비조사 운영업체의 협조를 얻어, 각 지역별로 배정된 조사요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4) 조사과정 참여관찰 및 사후 조사

2011년 8월~9월에 실시된 1차 조사과정에 조사요원 및 연구진이 참여관찰을 하였으며, 참여관찰 기록 및 자료수집 방법으로 주요 관찰항목을 선정해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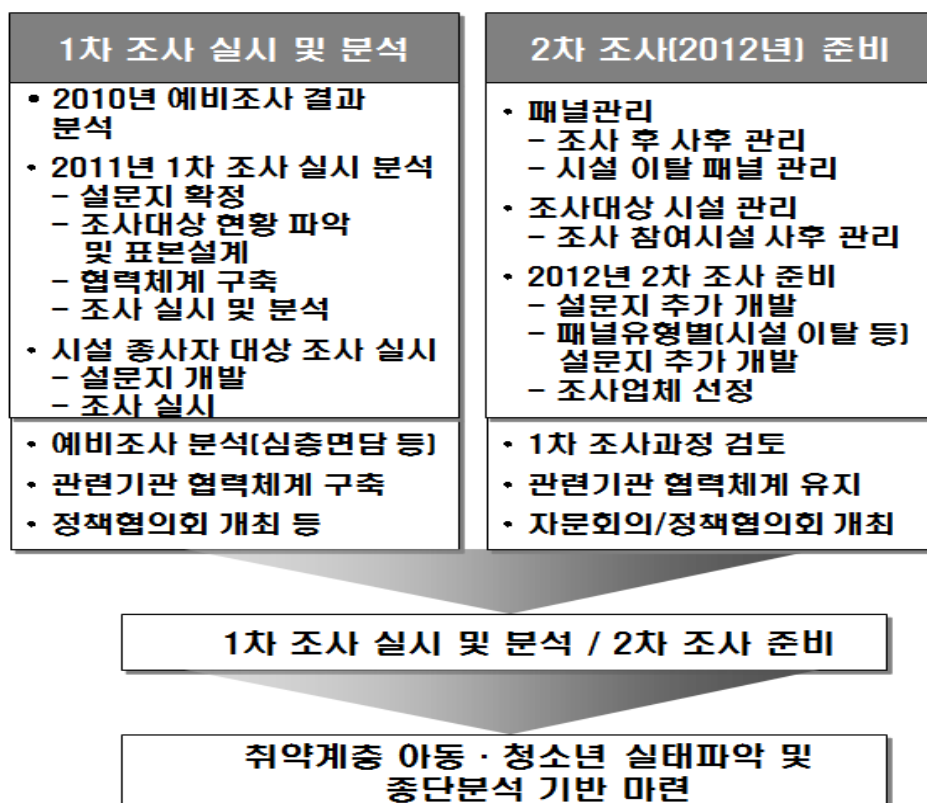
또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 전국의 조사대상 시설 중 15곳을 선정하여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5) 정책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첫째, 조사 협조 관련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5회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조사대행업체 및 연구진이 1차 조사 준비사항 점검 등을 위해 2011년 4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차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7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 실시 이후에는 조사대행기관 및 연구진, 외부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조사결과 검토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그림 I-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I-4】 2011년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제 2 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논의와 선행조사 분석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논의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선행 종단조사 분석

제 2 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논의와 선행조사 분석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논의¹⁾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종단조사 대상 선정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가족의 자녀로 볼 수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과 같은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이 취약계층에 해당되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 중 모자가구는 1995년 78만 8천가구에서 2000년에 90만 4천가구로 14%나 증대하였고, 2005년에는 108만 3천가구로 나타나 10년간 37.4%나 증가하였다. 또한 부자가구는 1995년 대비 2005년 66.8% 증가하였는데, 1995년 17만2천 가구에서 2000년 22만 가구, 2005년 28만7천 가구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조손가족은 1995년 3만 5천가구에서 2000년 4만 5천가구로, 2005년에는 5만 8천가구로 증가하여 1995년 대비 2005년에 65.0% 증대하였다(여성가족부, 2010).

구조적인 의미에서의 취약가정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으로 볼 수 있다. 가정경제의 빈곤이 교육기회나 건강의 유지 등 건전한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다. 즉, 가정의 경제적 빈곤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신체적 발달 저해(치아손상, 위장병, 영양실조)와 더불어 인지발달과 학습부진, 심리사회적 발달 저해에 그치지 않고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확대된다.

2009년 현재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수는 전국적으로 76만 8천명, 빈곤가정의 방과후 나홀로아동은

1)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논의”의 주요내용은 2010년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약 42만명, 야간시간에 부모 없이 혼자 집에 있는 아동은 약 19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상대빈곤율은 1998년 10.8%에서 2002년 9.9%까지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상대빈곤율 10.6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6년 연간 평균 빈곤 아동수가 1백46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따라서 이 조사에서는 취약계층 중에서 경제적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을 1차적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후 2차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기초로 세부적인 대상을 선정하였다. 즉,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중식제공 등의 사유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취약계층 중 두 번째 조사대상으로는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선정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기능을 전적으로 대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기관이 시·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청소년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중에서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과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계층을 1차적으로 설정하였고, 저소득 계층의 경우 2011년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청소년을, 시설 보호를 받는 계층 중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다양한 취약계층 중 위의 이 세 집단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성장발달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고, 아동양육 시설의 아동·청소년들도 대부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경제적 문제에 가족해체라는 문제가 가중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집단이라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둘째, 종단조사는 조사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 중에서 비교적 지속적인 조사가 가능한 집단이라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종단조사를 통해 이 두 계층의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추적하여 비교분석하는 동시에, 일반 아동·청소년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에 적절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집단은 정부정책과 사업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집단이므로 관련 정책의 효과성 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과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청소년이 관련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들의 성장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과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종단조사가 지닌 특징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의 연령을 초등학교 4학년으로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초등학교 4학년은 아동 중기(6세-10세)에서 청소년 초기(11세-13세)로 변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일반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의 조사결과와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달과업과 종단조사

발달과업이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으로, 인간은 전체 생애의 각 과정별 발달단계에 따라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을 갖고 있다. 만약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단계에서의 발달과업의 성취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은 지장을 받게 된다.

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취약가정 및 시설의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는 아동 중기(6세~10세)에서 청소년 초기(11세~13세)에 해당된다. 이 단계에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을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2011년 종단조사의 주요 내용을 이와 일맥상통하게 구성하였다.

(1) 신체적 발달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들과 함께 식사를 할 경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므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장기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다. 아동기 중기가 되면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 신체성장이 뒤지고 지능점수가 떨어지며, 운동근육 조절이 나빠지고 주의도 잘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영양결핍이 지속되면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된다.

이와 대조되는 또 다른 건강문제는 비만이다. 비만아동의 80%이상이 과체중 성인이 되며 (Oken & Lightdale, 2000), 심각한 정서적, 사회적 문제와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많은 연구에서 취약계층과 비만 사이의 관련성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데 이는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건강한 식사에 대한 지식의 부족, 싸지만 지방이 많은 음식을 구매하는 경향, 과식을 부추길 수 있는 가족스트레스가 포함되며, 어렸을 때 영양을 잘 공급받지 못한 아동들이 나중에 비만이 될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신체적 매력은 사회적 수용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비만아동은 학교나 사회에서 고립되며, 아동기 중기가 되면 정상 또래들보다 정서적, 사회적 문제와 학교문제가 더 많고 행동상의 문제도 더 많이 나타난다. 아동기 비만은 많은 경우 가족의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신체활동 등 가정에서의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며, 이와 관련된 취약계층의 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

신체와 건강 측면에서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아사망률과 미숙아 출생률이 각각 1.7배 높으며, 병원 입원률도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ooks-Gunn, Duncan & Aber, 199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도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13세 이하 빈곤아동의 경우 비만율이 25.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전체 소아 비만율이 10.9%인 것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모선영·홍백의·이자영·최은성, 2007). 특히 조사대상 빈곤아동 중 고학년(18.5%)보다 저학년(43%)의 비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식섭취의 양극화는 신체의 양극화로 진행되고, 이는 곧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성인이 됐을 때 소득활동에 제약이 생겨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시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2011년 1차 중단조사에서는 취약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과 관련하여 건강 및 체격을 파악하기 위해 키와 몸무게, 아침을 거르는 일자와 이유, 질병경험, 치료여부와 치료받지 못한 이유,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건강에 대한 상대적인 자기평가 항목의 경우,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에서 수정하여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여,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2) 인지적 발달

빈곤이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발육부진과 같은 신체발달에서부터 저지능, 학업부진, 학교 중퇴와 같은 인지발달의 문제, 반사회적 행동, 우울, 불안과 같은 사회·정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oks-Gunn, Kleanov, Liaw & Duncan, 1995; McCormick & Brooks-Gunn, 1989).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McCulloch & Joshi, 2000). 빈곤가정의 자녀는 인지적 자극을 주는 장난감이나 활동 및 사교육 등을 적게 받음에 따라 실제 학업성취도까지 낮게 나타났다(Mayer, 1997). 특히 가구소득의 영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여러 발달 영역 중 인지발달이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ill & Sandfort, 1995; McLoyd, 1998; Corcoran, 2000).

특히 학업성취도의 경우 인지적 발달과 관련이 있는데, 인지적 영역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뇌의 발달이나 지능의 발달이 초기 아동기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족의 빈곤이나 부모의 실업과 같은 경제적 박탈 또는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인지적 영역에서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뿐 만 아니라 인지적 발달이 누적적인 결손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조희숙 외, 1994).

더구나 아동이 어릴수록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가정환경이 아동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결핍은 아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Brooks-Gunn, Duncan, 1997). 예를 들어 학년 유급이나 학교 중퇴의 비율도 빈곤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2배가량 높으며, 학습장애 비율도 1.4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정서 및 행동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1.3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명순, 2004).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영아는 빈곤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것이 유아기 이후의 인지언어, 심리사회 그리고 신체 발달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시설보호 아동이 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뒤떨어진다는 결과와 더불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며,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보호 아동의 언어적 이해 수준이 표준 점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언어 이해력으로 인해 행동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이 외, 2002). 아동기 초기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언어능력이 높은 것이 증명되었다(이지연 · 광금주, 2008).

2011년 1차 중단조사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인지적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상위인지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상위인지력

상위인지력이란 인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인지적 요소와 그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위인지는 자신의 인지를 다시 인지함을 의미하며, 특정 과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포함된다.

상위인지력은 무엇을 얼마만큼 공부해야 하는지, 지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자신의 이해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며, 얼마만큼의 부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완벽한 학습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능력 또한 상위인지력의 한 측면이다(Biasanz, Vesonder & Voss, 1978).

상위인지력은 실행기능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아동기 이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학업을 시작한 어린 아동들은 이러한 선택과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어려움을 겪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위인지를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개인 간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즉, 상위인지력에 차이는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상위인지 능력의 차이는 연령에 따른 인지적 성숙에서 기인되기도 하지만, 자료를 탐색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경험적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상위인지가 확대되어, 정보 습득과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발견하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해 준다.

2011년 1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중단조사에서는 상위인지와 관련하여, 김영채(1990)가 사용한 것을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9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영역의 경우 향후 패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상위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조사할 계획이다.

②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문제해결 능력은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제를 분석하고, 자신이 지닌 지식과 전략들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하위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5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Bransford & Stein, 1983).

첫째, 문제의 발견인데, 이는 스스로 문제 상태에 직면했음을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문제에 대한 정의이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문제 속에 숨어있는 규칙이나 원리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문제를 스스로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기술하거나 도식적으로 나타내보는 것도 문제에 대한 정의에 포함된다. 셋째, 문제해결방안의 마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책략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본다. 넷째, 문제해결을 실행하는 것으로 자신이 세운 계획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문제해결 검토로, 문제해결 결과가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시 문제를 정의하거나 해결책을 탐색한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 능력은 어린 유아에게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성인 수준의 과학적 추론이나 연역 능력과 같은 형식적 조작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한다. 이는 문제해결 능력이 상위인지력과 같이 지식, 기억, 주의 등의 인지적 성숙과 같은 선상에서 발달하며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양식을 통해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에는 반드시 더 나은 문제해결 및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decision making) 과정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은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렸을 때보다는 많은 인지과제를 더 효과적으로 다루지만 성인에 비해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0대들은 종종 학교 수업, 과외 활동, 사회적 행사, 다양한 상품 등 선택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고, 이러한 상황에 압도되어 선택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습관에 의지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하여, 이번 중단조사에서는 Bransford와 Stein의 문제해결 능력척도를 박정환·우옥희(1999)가 사용한 것을 연구진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영역의 경우도 패널을 대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조사할 계획이다.

(3) 사회성 및 정서 발달

빈곤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이혼 등 사회적 소외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Bolger & Zuckerman, 1995). 이는 시설 아동의 우울성향 및 학교적응과 같은 심리·사회적 적응이 성별에 따라 차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족 내 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족 내 부모 모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아동의 심리사회 발달이 더욱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Furstenberg & Hughes, 1995). 또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가족 내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는 신체 및 행동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nyan et al., 1998).

사회적 기술의 측면에서 시설보호 아동은 협동, 자기주장, 자아통제 수준이 낮았으며, 타인의 정서상태를 이해하는 정서조망 능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세운·이순형, 2002). 시설보호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일반 유아와 비교한 조사에서도 시설보호 유아가 또래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강제적 전략의 비율이 일반 유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의 갈등이라는 사건에서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이강이·성미영, 2003).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시설보호 아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생활영역 중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나, 또래관계의 경우에는 일반아동에 비해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미영 외, 2001). 즉, 시설보호 아동은 학교 친구 집에 놀러가는 경우가 적고, 학교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좋지 않으며, 장기자랑 시간에 잘 참가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은 부모가 없고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편견으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위축을 경험한다(이종원, 1998).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서발달 중 정서지식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이강이·성미영, 2003)에 의하면,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지식 수준이 일반 아동에 비해 뒤떨어짐을 보여준다. 또한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시설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높은 우울성향과 낮은 학교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현경, 1995).

2011년 1차 종단조사에서는 사회성 및 정서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보다 자아탄력성, 부모와의 관계,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적응,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 스트레스, 비행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resilience)이란 직면한 위협이나 위협을 극복해 내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위협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 또는 삶의 불운을 이겨내는 능력을 뜻한다(Smith & Prior, 1995). 위협 요인들(risk factors)은 행동상의 문제나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으로 아동 및 청소년이 행동 문제를 일으킬 확률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부정적 결과와 관련된 요인이나 환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위협 요인들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아동·청소년 발달상의 위험 요인들

발달상의 위험요인들	특성
체질	▶ 유전의 영향, 유전자 이상 ▶ 태아기와 출산시의 합병증 ▶ 출생 이후의 질병, 손상 ▶ 부적절한 건강관리, 영양
가족	▶ 빈곤, 실직 ▶ 신체적 · 성적 · 정서적 학대, 유기 ▶ 이혼 및 역기능적 가족 ▶ 갈등, 무질서, 정신병리, 스트레스
정서 및 대인관계	▶ 자아존중감 저조, 정서적 미숙, 까다로운 기질 등의 심리패턴 ▶ 사회적 무능 ▶ 전학, 또래의 거부, 집단 괴롭힘, 비행친구 집단
지적 능력과 학업	▶ 평균 이하의 지능, 학습장애 ▶ 학업실패
생태적	▶ 이웃의 무질서, 범죄 ▶ 인종과 성별 불평등
스트레스를 주는 비규준적 생활사건들	▶ 한쪽 부모의 이른 사망 ▶ 가까운 곳에서의 전쟁발발 ▶ 자연재해

발달이 변화하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위험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외에도 이러한 위험 요인과 관련된 사건과 경험이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성숙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숙, 사회적 요구, 그 밖의 요인에 따라 각 시기에 작용하는 특정한 위험 요인들에 유난히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에 굴복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꺾이지 않고 펼쳐 일어나며 유연하게 적응하는데, 이러한 차이의 중심에 자아탄력성이 자리하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의 두 요소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인적 특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Luthar & Cicchetti, 2000). 자아탄력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개인적 · 환경적 요인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작용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

자아탄력성에 관여하는 요인들	특성
개인	▶ 뛰어난 지적 기능 ▶ 호감을 주고 사교적이고 편안한 성향 ▶ 자기효능감, 자신감, 높은 자아존중감 ▶ 재능 ▶ 신용
가족	▶ 부모와 밀접한 관계 ▶ 권위형 양육-따뜻함, 구조, 높은 기대 ▶ 사회경제적 혜택 ▶ 확대지원 가족망과의 연계
가족 이외의 맥락	▶ 가족 이외의 친사회적 성인과의 유대 ▶ 친사회적 단체와의 연계 ▶ 효율적인 학교에 취학

출처 : Coie et al.(1993)에서 부분적으로 인용

또한 자아탄력성은 주요 발달과업들을 얼마나 잘 이루어내는가를 통해 나타나며, 아동의 유능성과 적응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인 발달과업 중에는 아동 중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시기의 학업 성취 및 학교생활 적응, 가까운 친구 관계 맺기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조한익·이나영, 2010) 학업성취는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또 다른 연구(박재연, 2010)에서는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 관계의 실패인 학교 폭력은 청소년 우울과 자살에 정적 영향이 있었으며, 가족·학업 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2011년 1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에서는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2004)이 번역한 뒤 권지은(2003)이 수정·보완한 것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이 사용하였고, 이를 재인용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취약계층이 지닌 자아탄력성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② 부모와의 관계

아동기의 중기에는 아동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아동이 점점 더 독립적이 됨에 따라 부모들은 새로운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권위 있는 유형(authoritative style)의 부모들은

양육이 더욱 수월해진다. 권위 있는 유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자유를 허용하지만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며, 자녀의 고집에 굴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엄격하게 규제를 가한다. 그리고 확고한 훈육과 부모로서의 애정을 잘 결합함으로써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있고, 자기 존중감이 높으며, 정서적 안정성이 있고 사회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유능한 아동을 길러낸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가 아동들과 터놓고 이야기하고 의사결정을 같이 하며, 아동은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Kuczynski & Lollis, 2002; Russell, Mize, & Bissaker, 2004).

한편, 엄마의 취업이나 양육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역할, 이혼 등 특수한 환경에 따라 아동은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 아버지의 영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가 극히 저조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인지발달, 학업성취, 성역할 특성, 사회적 능력, 도덕성과 정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최경순, 1991; 최경순 외, 1992).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친의 부재는 아동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친이 부재한 아동은 지적·사회적 발달이 늦으며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차춘희, 1983; 최선애, 1984).

한편, 청소년기는 심리적 이유기(psychological weaning)로 아동기까지 지속되던 부모에 대한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감을 획득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는 갈등을 수반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은 청소년기 발달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의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성급한 자율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부모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획득해야 하는 시기는 아니며,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계속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안정된 애착과 신뢰가 유지되는 것은 청소년기 긍정적인 심리적 발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2011년 1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패널의 인식을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감독, 애정,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밀관성),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 1주일 중 집에 혼자 있는 시간/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감독, 애정,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밀관성)의 조사항목의 원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검사(총43문항)으로, 방임과 처벌과 같은 민감한 문항은 제외하고 2010년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문항과 중복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재인용하여, 일반 전체 아동·청소년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 1주일 중 집에 혼자 있는 시간/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 등의 항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의 공통문항을 사용하였다.

③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아동기 중기가 되면 또래들이 아동의 발달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래들 사이의 접촉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발달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또래집단(peer group)은 아동들에게 더 큰 사회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러한 일대일 친구관계는 신뢰감과 민감성 발달에 기여한다.

아동기 중기 동안 친구관계는 상당히 안정되어 보통 몇 년 동안 지속된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정서적 헌신의 중요성을 배운다. 그들은 가까운 친구들이 정말 서로 좋아하면 의견이 달라도 친구관계가 지속됨을 이해한다(Rose & Asher, 1999). 이렇게 아동들은 친구 관계를 통해 비판을 견뎌내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아동발달에 미치는 친구관계의 영향은 친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친절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진 아동들은 서로의 친사회적 영향을 강화하고, 공격적 아동들은 서로의 반사회적 행동을 강화한다. 공격적 여아들은 친구관계에서 사적 감정을 많이 교환하지만 그 과정에서 질투, 갈등과 배신도 또한 많이 등장한다(Grotperter & Crick, 1996).

또래수용(peer acceptance)은 한 아동이 또래집단이나 학급동료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말한다. 또래로부터 더 잘 받아들여지는 아동일수록 친구가 더 많고 그들과 더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Gest, Graham-Bermann, & Hartup, 2001). 그러나 또래에게서 거부당한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자아존중감 또한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또래관계에서 소외를 경험한 아동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정서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정계숙·박명화, 2001).

초등학교 학생들은 따뜻하게 돌봐주고 도와주며 재미있는 선생님을 좋은 교사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좋은 교사는 아동들의 동기, 성취, 긍정적 또래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들이 교사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태도를 받아들여서 그것에 맞추어 살게 되는 교육적 자기이행적 예언(educational self-fulfilling prophecies)이다. 이러한 효과는 교사가 경쟁을 강조하고 아동들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우수한 일부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편애할 때 더 크게 나타난다(Kuklinski & Weinstein, 2001; Weinstein, 2002).

2011년 1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미,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각 시설에 종사하는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를 ‘2008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의 시설환경만족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④ 학교생활 적응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폭력, 집단따돌림 등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부적응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할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기관이 학교임을 볼 때 아동의 학교부적응은 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발달을 전생애적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이 겪는 사회적 부적응은 아동의 대인관계에 대한 내적 작업 모델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런 영향은 성인기 사회적 부적응까지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강지훈, 2004). 특히 초등학교는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초기의 장으로, 부모나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및 사회에서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장이 된다.

한편 아동의 학교적응은 학업성취 측면 뿐만 아니라 또래 및 교사, 학교환경 및 학교의 일상적인 생활 적응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즉 학교는 학습자들이 환경적 제반여건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및 신념을 길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학습자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학급생활 및 기타행사 등에서 자기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을 느끼고, 교사 및 학습자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학교적응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학교부적응 학생은 수업시간에 잡담을 하고 부적절한 질문으로 교사의 주의를 끌며,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등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다. 또한 교사의 요구와 지시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방어적 태도를 지니고, 계속되는 실패 경험으로 학업성적이 낮아지는 학교생활의 지속으로 인한 학교에 대한 적대감, 공포감, 경쟁실패감이 누적되며 엄한 규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부적응 행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문희옥, 1987).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사회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학교에서의 적응은 성인이 된 후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아동이 바르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중단조사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초등학교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정화실, 1991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

에서 사용한 8개의 항목을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취약계층이 지닌 학교생활적응을 분석하였다.

⑤ 심리적 안녕감 : 행복,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주관적 안녕을 구성하는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상당히 독립적으로 변화하며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반응은 단기적인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지속기간이 짧으며, 무의식적 동기나 생리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표 II-3 주관적 안녕의 구성요소

정서적 구성요소		인지적 구성요소	
긍정 정서	부정 정서	만족도 평가 차원	평가 영역
즐거움	슬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자기
만족감	우울감	과거의 삶에 대한 만족도	가족
행복감	불안감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도	건강
자존감	분노감	삶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직업
애정감	질투감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견해	여가
고양감	부담감		재정상태
환희감	죄책감/수치심		소속집단

출처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반면에 인지적 반응은 보다 장기적인 삶의 상태에 대한 의식적 평가로서 삶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심리적 요소로 구성되는 주관적 안녕은 많은 긍정 정서와 적은 부정 정서 그리고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중단조사에서 일상생활 만족도는 가정, 부모, 형제자매, 건강, 여가, 학교, 성적, 친구, 일상생활, 전반적 만족 등에 대해 10개의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항목은 200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의 일상생활만족도에서 인용하였다.

⑥ 발달의 문제 : 비행

취업 기회가 적고 성인범행이 많은 가난한 환경에서 지낸 10대들은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 환경에서 청소년은 일탈된 또래, 약물 등을 쉽게 가까이 할 수 있고, 구성원들 대다수가 폭력비행을 저지르는 반사회적 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런 장소에 있는 학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큰 규모의 학급과 부실한 교육,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10대들의 공격성과 폭력을 증가시킨다.

비행청소년들과 관련된 연구의 가장 일반적인 결과 중 하나는 가족들이 온정적이지 않고, 갈등이 많으며 가혹하면서도 일관적이지 않은 훈육을 하고, 제대로 살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혼인관계가 변하면 가족불화나 자녀양육이 붕괴되기 때문에 부모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특히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비효과적인 자녀양육은 아동의 공격성을 촉진시키거나 지속시킴으로써 더욱 충동적인 공격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특성을 극단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면, 아동기에 공격성이 시작되어 청소년기에는 폭력 범죄로 이어지고, 성인기까지 지속된다.

2011년 1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에서는 비행과 관련하여, 2005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비행관련 항목 중 5개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폭력피해 경험과 빈도 5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⑦ 스트레스

스트레스 경험은 외부에서 오는 해로움과 위협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주변의 여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외부의 해로움과 위협이 높고 주변의 여건과 대처능력이 낮을 때 스트레스는 높아진다. 반면, 해로움과 위협이 낮고 주변 여건이나 대처능력이 높을 때 스트레스는 더 잘 조절된다. 이처럼 인지적 요인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생활사건과 일상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다. 아동기에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 병 등의 큰 생활사건을 겪을 때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 때 대부분의 아동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한다. 또한 취약한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은 긴장을 유발하는 가족생활을 하게 된다. 특히, 가난은 아동과 가족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며, 부적절한 주거, 위험한 지역의 노출, 감당하기 힘든 책임감, 경제적인 불안정성과 같은 만성적 생활궁핍 조건은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잠재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취약가정·시설의 아동들은

일반아동에 비해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기가 쉽고, 빈곤은 스트레스의 효과를 완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손상시키므로 스트레스 대처도 힘들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종단조사에서는 2005년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관련 6개 항목을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선행 종단조사 분석²⁾

1) 아동·청소년 관련 종단조사

아동·청소년 관련 선행 종단조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년부터 시작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와 이 밖의 아동패널조사(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육종단연구(한국교육개발원), 다문화아동·청소년패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아동패널조사(서울대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월드비전) 등이 있으며, 각 패널조사의 목적, 대상, 조사내용, 방법 등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I-4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종단조사

조사명 (기관)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기간	표집	조사방법	조사내용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4년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진로, 일탈, 여가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추적 조사	-초등학교 4학년 2,844명 -2004년~2008년까지	-2004년 교육통계연보 -층화다단계 집락표집	-집단면접조사 -전화면접	-인적사항 -직업선택 -진로 -여가 -일탈 및 기타 -자아관 등

2)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선행 종단조사 분석”의 주요내용은 2010년 보고서에 수록된 자세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해연 외, 2010)에 수록되어 있음.

조사명 (기관)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기간	표집	조사방법	조사내용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후속 조사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내용 및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발달환경 자료를 수집	-초등 1학년과 4학년, 학교 1학년 아동 각각 2,200명 및 부모 -2010년~2016년	-2009년 교육연감 -총화다단집락표집	-면접조사 -전화면접조사	-신체, 지적, 사회정서 -가정, 또래 -교육 -지역사회 및 활동참여 -매체
아동패널조사 (육아정책연구소)	-아동 발달과정의 안정성, 개인차의 이유, 그리고 환경의 역할 등을 규명	-2008년 출생한 2,078개의 신생아가구 -2008년부터 2020년	-총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	-일반조사 (설문, 매년) -심층조사 (9세, 12세)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에 대한 종단자료 구축	-2005년 150개 중학교 1학년 6,908명 -2005년부터 2023년	-총화군집무선추출법	-학생 설문지 -학부모 설문지	-학생배경 및 특성 -학교배경 및 시설 -학교장, 교사 -교육 및 학습과정정보항목 -교육결과정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의 발달 및 성장과정에 대한 종단적 추적	-2011년 초등학교1, 4학년 및 부모, 교사 -2010년부터 2012년	-2009 다문화가족 자녀의 전국분포 통계자료	-학생 설문지 -학부모 설문지	-아동·청소년생활 -가정환경 -학교환경
서울아동패널 (서울대학교)	-빈곤과 아동발달의 인과관계 및 관계의 경로 규명	-서울 11개 초등학교4학년 1,785명 및 부모 -2005년부터 2011년	-서울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프로그램 자료 -총화표집	-학업성취조사 -학생 설문지 -부모 설문지	-학교생활, 자아상, 부모특성 및 가족배경

2) 복지관련 종단조사

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단조사로는 한국복지패널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여성정책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료패널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표 II-5>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II-5 복지관련 주요 종단조사

조사명 (기관)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기간	표집	조사방법	조사내용
한국복지 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 -정책효과성을 평가	-전국 7,072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 (중학생 제외) -2006년부터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총화집락계통 추출	-가구 방문, 조사표에 기록	-가구원 배경, 개인사, 가구여건, 사회복지가입 및 수급, 경제상황, 근로, 기타
여성가족패널 조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종단적 자료형태로 구축	-전국 9,168가구 내 19세~64세 여성 전체 및 배우자 -2007년부터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다단계 총화확률추출법	-CAPI	-가구용, 여성개인용, 일자리용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 구성
고령화연구패 널조사 (한국 노동연구원)	-향후 고령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활용될 기초자료 생산	-45세(1962년 이전생) 이상의 중고령자 개인을 대상으로 표본수 약 10,000명 -2006년부터 매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CAPI	-딱수 년도는 동일항목 -홀수 년도는 특수항목 -인구학적 변인,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삶의 만족도 등
한국의료 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하여 분석	-전국 총9,014가구 -2008년부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단계 확률비례총화 집락추출	-면접 타계식 -건강응답 자의 가계부 작성	-가구단위 : 가구원수, 기초보장수급형태 등 -가구원 : 성별, 관계, 장애, 경제활동, 만정질환, 의약품 복용, 건강검진, 응급서비스, 입원이나 외래 등

3) 선행 종단조사의 시사점

선행 종단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분석은 지난 2010년 연구에서 수행되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우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나 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의 경우 대부분 특정 연도의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와 현황파악 등에 조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관련 조사들은 횡단조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나 사업에 따른 수혜자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대상과 더불어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 따라서 취약가정·시설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업 전체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종단적 접근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사나 연구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자의 관심이나 연구비의 규모 등에 따른 한계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한계를 가져온다. 따라서 전국적 규모의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취약가정과 시설의 아동·청소년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지니며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부모나 시설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학업성취도나 사회 적응력 등 특정 발달과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물의 경우 관련 사업이 지닌 다양한 요소가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단순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환경적 요소와 발달과업과 관련된 항목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관련 선행 종단조사 검토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수행된 종단조사의 경우, 대부분 특정 생애주기적 집단이나 일반 국민의 노동시장 또는 복지사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조사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에 수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종단조사의 경우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이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표본이나 내용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단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존의 관련 연구나 종단조사 중 일부의 조사에서 취약가정·시설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을 추출함으로써 계층 간의 차이 또는 격차와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이번 종단조사에서는 2010년부터 실시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의 조사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 3 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모형과 관련사업 현황분석

1. 2010년 예비조사 주요결과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모형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사업
현황

제 3 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모형과 관련사업 현황 분석

1. 2010년 예비조사 주요결과

1) 조사의 목적

예비조사는 본조사에 앞서 실제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예비조사는 무엇보다도 실제 본조사에서 활용할 방식과 내용을 미리 시행해 봄으로써 조사 수행방식과 결과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조사설계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을 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2011년 8월부터 실시된 1차 본조사를 대비하여 2010년 10월 조사실행 업체를 선정(동서리서치)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예비조사가 진행되었다. 예비조사과정을 통해 2011년 실시된 1차 조사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사전 점검하였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2) 조사대상 관련 검토사항

예비조사의 표본 및 조사내용은 본조사 표본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는데, 예비조사 대상 설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반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별 조사모집단 현황 기준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2010년 11월에 실시한 예비조사의 조사모집단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6월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0년 10월 현재, 아동양육시설의 경우는 2010년 1월 현재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이는 각 기관별로 현황을

총괄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의 관리체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2011년 1차 본조사에서는 각 시설별 정부의 공식통계가 제시되는 시점 중 조사와 가장 밀접한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확정하였다.

둘째, 예비조사 결과 각 시설별 초등학교 4학년생의 정확한 분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전체 조사모집단 중 초등학교 4학년의 정확한 분포자료가 있으나, 그 외 시설은 초등학생 분포 또는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분포 등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각 학년별로 균등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표본설계를 하게 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 반기별로 실시하는 현황 조사시 이용자의 학년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여 2010년 12월 실시한 현황조사시 학년별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당시 3학년을 기초로 모집단을 설정하였다.

3) 조사내용 관련 검토사항

예비조사 과정에서 설문조사지의 적합성과 관련된 주요 검토사항과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면접원이 질문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문항이 질문 난이도가 높은지를 알아본 결과, 질문이 어려운 문항이 있다는 응답이 32.0%로 나타났다. 면접원 10명 중 3명 정도는 일부 문항에서 질문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 해당 문항을 중심으로 문항이해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원이 질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문항은 가정경제수준과 학력수준을 묻는 문항(32.3%)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부모님 직업보유 여부, 부모님 만성질환 유무, 현재 동거 중인 가족 구성원, 하루 일상시간, 컴퓨터 이용여부 및 이용시간, 시설에서 특별활동 경험여부 및 빈도 등의 질문 문항에서 난이도가 높다는 응답이 소수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 부모 등 개인적인 배경변인에 대한 질문은 본조사에서는 기관 종사자가 확보하고 있는 개인 신상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 본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가족 등에 대한 배경변인은 시설 종사자가 직접 응답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문항이 응답 난이도가 높은지를 알아본 결과, 응답이 어려운(학생들이 응답을 어려워하는) 문항이 있다는 응답이 41.2%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중 4명 정도는 일부 문항에서 질문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 해당 문항 중심으로 문항을

잘 납득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학생들이 주로 응답하기 어려워하는 문항은 부모님 학력수준이나 기타 애매한 표현으로 작성된 문장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부모와 관련된 배경변인에 대한 조사는 별도의 방식을 도입하고, 별도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질문지 수정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예비조사에서 200여개의 항목이었던 질문문항 수를 150여개로 축소하였고, 질문지 내용의 수정도 진행하였다.

셋째, 면접원에게 질문의 의미해석이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문항이 모호성이 높은지 알아본 결과, ‘의미해석이 곤란한 문항이 있다’는 응답은 17.5%로 나타나, ‘모호성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수행하여 질문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생들에게는 자기자신을 객관화해야 가능한 자아인식 판단 질문(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등 자신에 대한 진술문을 바탕으로 척도 평가) 등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였다.

4) 조사과정 관련 검토사항

예비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본조사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접근성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투입 면접원이 해당 시설 접근시 주된 애로사항을 평가한 항목으로, ‘없다’, ‘모름/무응답’ 이란 응답이 69.1%를 차지하였고, 면접원의 기관 접근시 큰 애로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교통편 부족’이 28.9%로 가장 많은 애로사항을 차지했으며, 이어 ‘사전 안내부족’(2.1%) 등의 응답이 소수 나타났다. 기타응답의 내용은 ‘접촉이 어렵다’는 응답이 2사례, ‘시설 간판이 없다’는 의견이 1사례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예비조사에 참여한 시설을 본조사에 최대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시설 관계자들의 협력정도이다. 기관의 조사협조정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높다’(높은 편+높다)는 응답이 91.8%로, 거의 모든 면접원이 기관의 협조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낮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7.2%에 그쳤다. 따라서 본조사를 위해 별도의 안내서를 다시 발송하고,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내 과정을 수행하였다.

셋째, 부모의 조사동의서 획득과 관련하여 예비조사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기관보다는 각 시설의 종사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조사 과정에서는 부모의 조사 동의서를 사전에 조사에 참여한 시설의 관계자가 배포하여 수령하는 절차를 원칙으로 수행하였다.

넷째, 학생들이 응답하기 좋은 시간대와 관련하여, 조사가능 시간대는 3시 이후 7시까지이며,

3시 이후 4시~5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1시 하교 이후 시설에 온 학생들이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 저녁식사를 하기 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다섯째, 향후 패널관리를 위해 시설과 학생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하여, ‘학용품’이라는 응답이 25.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문화상품권’(11.3%), ‘일반 상품권’(9.3%), ‘도서상품권’(6.2%) 등 ‘상품권’을 선호하는 응답이 높았다. 상품권은 쉽게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사 진행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설문 소요기간은 평균 32.9분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시 시설별 실제 조사대상 아동 및 청소년 수가 확정된 이후 조사 소요시간을 예측하여 조사 일정 등을 확정하였다.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모형

1) 조사대상과 표본설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표본설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모집단의 설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연구에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으로 설정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다양한 하위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목표모집단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이 조사에서는 저소득가정 중 정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고 있는 집단과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시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과의 비교분석 등을 고려하여 2011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으로 대상을 국한하였다.

둘째, 조사모집단(sampled population)의 설정에 대한 사항이다. 2011년 1차 본조사의 조사모집단은 관련 공식 통계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0년 12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1년 4월, 아동양육시설은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각 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정하였다.

셋째, 표본집단의 크기 문제이다. 2011년 1차 본조사의 표본으로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4학년 1,000여명을 추출하였다.

넷째, 표본의 할당 및 추출방식과 관련된 논의다. 2011년 1차 본조사에서는 각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규모를 감안하여 시설유형별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해당 지역에서 시설을 무작위로 추출한 뒤, 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을 추출하였다.

다섯째, 과대표집은 일반적인 패널조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특정 집단이 모집단에서 작게 분포되어 있어서 다른 집단과의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적용되는데, 이 조사는 그 목적과 조사대상의 특성상 집단의 과대표집을 적용하지 않았다.

여섯째, 표본에 대한 관리의 문제이다. 저소득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불안정한 환경적 특성 때문에 패널로서의 유지를 위한 별도의 노력과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설의 시설장과 현장에서의 지도인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시설 운영자들은 조사대상자의 선발이나 관리, 조사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도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기존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경우 관련 사실을 즉각적으로 조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 시설과 조사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조사 종료후 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관에 답례품으로 도서를 발송하였으며, 12월 중에 다시 한번 관련 안내문과 답례품을 기관에 발송하였다.

2) 조사기간과 주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는 2011년에는 8-9월, 2012년은 6-8월 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예산이 확보될 경우 기존 패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2차년도부터는 각 시설의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않는 패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조사지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표 Ⅲ-1>.

표 III-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기간과 주기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2010년 (예비조사)	예비조사					
2011년(1차)	1 st wave					
2012년(2차)		2 nd wave				
2013년(3차)			3 rd wave			
2014년(4차)				4 th wave		
2015년(5차)					5 th wave	
2016년(6차)						6 th wave

3) 조사체계와 방법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조사체계는 연구팀과 조사실행기관, 연구협력기관으로 구성된다. 연구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연구계획의 수립과 추진, 조사도구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실행기관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행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 2011년 1차 본조사는 동서리서치가 담당하였다. 다만, 2011년 10월부터 조사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조사수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조사업체를 변경하여 패널관리가 진행되었다.

연구협력기관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단, 아동복지협회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관련 현황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에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단, 아동복지협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III-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협력체계

2011년 1차 본조사의 조사방법은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도입하였다. CAPI방식은 일반적인 조사에서 전통적으로 활용하던 종지와 연필을 이용한 방식(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PAPI)이 아니라 면접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지참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질문을 읽어준 후 그 응답을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CAPI를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서는 첫째,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둘째, 조사기간이 단축된다는 점, 셋째,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관리와 감독의 용이성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조사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점, 데이터의 오류 감소 등을 위해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CAPI 시스템 구조도



【그림 III-2】 CAPI 조사시스템 구조도

2012년 실시할 2차년도 이후에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패널 중에서 기존 시설과 사업의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사례에 대한 고려이다. 이 경우 별도의 조사지를 개발하여 심층조사를 소규모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CAPI 조사와 달리, 심층조사의 경우 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심층조사를 위해 일반조사시 전문조사기관의 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는 방법 외에도 관련전문가나 연구진으로 구성된 심층조사인력관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4) 조사영역 및 항목

조사영역 및 항목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사들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다. 조사항목의 경우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조사 예정인 항목과의 연계성 및 각 사업의 효과성 검증방안을 고려하여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예비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2011년 1차 본조사용 조사지를 확정하였다.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사업 현황

1) 지역아동센터 주요현황(2010년 12월 말 기준)

2009년 3,474개소였던 지역아동센터가 2010년 12월 기준 현재 3,690개소로 2009년 대비 216개소 (6.2%) 증가하였다.

표 III-2 지역아동센터 연도별/시도별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서울	104	157	210	262	302	354	367
부산	43	95	110	134	155	171	185
대구	21	28	35	60	75	115	147
인천	58	105	117	143	157	175	174
광주	39	80	92	143	164	201	218
대전	24	62	83	122	133	139	144
울산	17	33	41	49	51	54	52
경기	192	336	402	534	601	656	679
강원	41	94	102	114	139	159	159
충북	56	102	118	137	156	176	185
충남	39	79	87	125	151	181	200
전북	59	130	147	173	212	255	267
전남	87	182	216	279	307	343	368
경북	34	91	108	143	164	206	232
경남	66	106	128	158	189	219	244
제주	15	29	33	42	57	70	69

출처: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1

표 III-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미 취 학	소계		1,564	3,023	4,133	4,127	4,585	4,838	4,376		
	남					2,204	2,391	2,448	2,259		
	여					1,923	2,194	2,390	2,117		
초 등 학 생	저 학 년	소계		18,348	34,617	25,149	32,867	35,972	39,053	37,865	
		남	1학년				16,524	17,871	19,628	19,180	6,668
			2학년								5,907
			3학년								6,605
		여	1학년				16,343	18,101	19,425	18,685	6,162
			2학년								5,868
			3학년								6,655
	고 학 년	소계		21,426	28,177	33,163	38,032	40,233			
		남	4학년		13,785	16,230	18,733	20,072	8,394		
			5학년						6,308		
			6학년						5,370		
		여	4학년		14,392	16,933	19,299	20,161	8,512		
			5학년						6,401		
			6학년						5,248		
중 학 생	소계		2,880	5,129	6,846	9,224	11,380	13,600	15,075		
	남	1학년				4,796	5,721	6,780	7,567	3,755	
		2학년								2,248	
		3학년								1,564	
	여	1학년				4,428	5,659	6,820	7,508	3,793	
		2학년								2,227	
		3학년								1,488	
고 등 학 생	소계		555	958	1,095	1,413	1,862	2,072	2,346		
	남	1학년				788	988	1,093	1,242	689	
		2학년								370	
		3학년								183	
	여	1학년				625	874	979	1,104	622	
		2학년								333	
		3학년								149	
탈 학 교	소계		-	-	103	104	133	331	338		
	남					71	76	177	187		
	여					33	57	154	151		
기 타	소계		-	22	99	317	196	-	-		
	남					244	120	-	-		
	여					73	76	-	-		

출처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는 2009년 97,926명에서 2010년 100,233명으로 2009년에 비해 2,307명(2.4%) 증가하였다.

교급별로 볼 때,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 77,085명에서 2010년 78,098명으로 1,013명(1.3%) 증가하였고, 이중 초등학교 저학년은 2009년에 비해 1,188명(3.0%) 감소한 반면에 초등학교 고학년은 2,201명(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이용아동수가 2009년 13,600명에서 2010년 12월말 현재 15,075명으로 1,475명(10.8%) 증가하였고, 고등학생도 2009년 2,072명에서 2010년 2,346명으로 2009년에 비해 274명(13.2%) 증가하였다.

특히 학년별로 비교하였을 때, 남녀아동 모두 초등학교 4학년인 경우가 각각 8,394명, 8,5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총 종사자수는 8,042명이고, 이 중 시설장은 개소당 1명인 3,690명(45.9%)이고 생활복지사는 4,352명(54.1%)으로 나타났다. 시설장 3,690명 중 남자는 1,253명(34.0%), 여자는 2,437명(66.0%)으로 나타났고, 전체 생활복지사 4,352명 중 남자는 463명(10.6%), 여자는 3,889명(89.4%)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

종사자 총인원	시설장			생활복지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8,042 (100.0)	3,690 (100.0)	1,253 (34.0)	2,437 (66.0)	4,352 (100.0)	463 (10.6)	3,889 (89.4)

※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성별 비율은 각각의 소계를 100.0%로 하여 산출하였음.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요현황(2011년 4월 말 기준)

2011년 4월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을 실시하는 시설별 현황 등을 표로 정리하면 <표 Ⅲ-5>, <표 Ⅲ-6>과 같다.

표 III-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유형별 운영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형	31	93	141	178	174	158	*기본 : 154
							*농산어촌 : 40
							*특별형 : 2
일반형	5	3	5	5	2	1	1
혼합형	10	4	5	2	2	2	1
합 계	46	100	151	185	178	161	198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1.

표 III-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별 운영현황(2011년 4월 현재)

지 역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단체	복지관	기 타	총 계
총계	114	6	56	9	7	6	198
서울	16	-	1	-	1	-	18
부산	6	1	4	-	-	-	11
대구	5	1	1	1	1	-	9
인천	5	-	-	-	1	-	6
광주	4	1	-	-	-	-	5
대전	2	-	2	-	1	-	5
울산	-	-	3	1	-	-	4
경기	19	-	18	1	-	-	38
강원	9	-	1	-	-	1	11
충북	7	-	-	1	1	-	9
충남	7	1	3	-	1	-	12
전북	8	-	8	-	-	-	16
전남	8	-	3	3	1	2	17
경북	6	1	1	-	-	3	11
경남	9	1	7	1	-	-	18
제주	3	-	4	1	-	-	8

* 기타 : 전남 강진교육발전협의회(시민단체), 전남 무안아카데미, 청소년지원센터(상주, 김천) 등

* 신규 기관 중 2개소 미운영(전남 화순군청소년수련관, 경남 산청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수는 2005년 2,041명에서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7년을 기점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청소년이 급증하여 6,115명의 아동·청소년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2011년 이용 아동·청소년의 수는 7,714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년별 청소년 현황(단위 : 명)

지 역	초4	초5	초6	중1	중2	총 계
서울	94	267	240	50	55	706
부산	100	160	47	43	63	413
대구	96	176	90	0	0	362
인천	0	57	56	67	42	222
광주	48	76	80	20	20	244
대전	15	72	102	0	0	189
울산	0	29	37	40	41	147
경기	234	454	367	176	201	1,432
강원	71	145	152	46	49	463
충북	131	152	64	0	0	347
충남	105	141	118	48	46	458
전북	76	164	142	129	123	634
전남	109	148	145	119	107	628
경북	43	137	149	92	70	491
경남	97	217	196	67	73	650
제주	68	95	93	45	27	328
총 계	1,287	2,490	2,078	942	917	7,714

3) 아동양육시설 주요현황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제16조 제1항의 1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복지시설의 대부분이 아동양육시설인 상황은 지난 10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2001년 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273개소에 18,808명이었고, 그 중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238개소에 17,437명이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2009년 현재 17,586명이고, 그중 아동양육시설이 239개소에 16,239명으로 대부분(92.3%)을 차지한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취학상황을 보면, 2009년 현원 17,586명 중에서 미취학아동이 3,097명이고, 초등학교생이 6,329명, 중학생이 3,738명, 고등학교생이 2,958명, 대학생이 692명, 기타 772명이다.

표 III-8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성별·취학 현황 (단위 : 개소, 명, 2009. 12. 31 현재)

구분	시설 수	종사자 수	정 원	입 소 인 원			취 학 아 동							
				계	남	여	계	미 취 학		초등 재	중재	고재	대재	기 타
								0~3세 미만	3~6세 미만					
계	280	5,278	23,843	17,586	10,105	7,481	17,586	1,006	2,091	6,329	3,738	2,958	692	772
서울	46	1,058	4,418	3,239	1,854	1,385	3,239	224	300	1,538	552	340	67	218
부산	22	534	2,625	2,032	1,137	895	2,032	75	392	450	537	469	75	34
대구	22	312	1,584	985	569	416	985	52	120	344	204	155	66	44
인천	11	241	981	721	401	320	721	84	60	279	173	117	0	8
광주	11	223	1,000	765	430	335	765	97	107	281	129	100	30	21
대전	13	196	942	668	423	245	668	40	72	172	116	78	22	168
울산	1	38	150	118	67	51	118	13	12	46	25	22	0	0
경기	32	621	2,344	2,015	1,152	863	2,015	171	222	793	361	348	41	79
강원	10	159	707	517	273	244	517	24	68	211	99	86	23	6
충북	12	242	1,001	771	439	332	771	31	99	277	170	126	14	54
충남	15	231	1,090	849	491	358	849	24	90	327	180	142	56	30
전북	16	286	1,308	948	579	369	948	31	114	313	251	188	36	15
전남	23	437	2,200	1,440	825	615	1,440	42	147	420	364	305	121	41
경북	16	242	1,358	946	550	396	946	35	108	323	215	201	49	15
경남	25	360	1,760	1,244	722	522	1,244	30	140	420	304	237	76	37
제주	5	98	375	328	193	135	328	33	40	135	58	44	16	2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제 4 장

IV.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개요와 실태분석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아·가족·사회 인식 및 생활
4.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 4 장

2011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개요와 실태분석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개요

1) 표본설계 및 1차 패널구축

(1) 시설유형·지역별 패널 구성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을 파악하였고,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대상 시설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집단을 파악하였다<표 IV-1>.

표 IV-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모집단 현황

지역구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시설 수	초등학교 4학년	시설 수	초등학교 4학년	시설 수	초등학교 4학년
서울	367	1,141	18	94	38	203
부산	185	552	11	100	22	78
대구	147	483	9	96	20	39
인천	174	596	6	0	13	33
광주	218	942	5	48	10	28
대전	144	547	5	15	13	32
울산	52	169	4	0	1	7
경기	679	2,621	38	234	30	127
강원	159	545	11	71	10	18
충북	185	671	9	131	10	39
충남	200	692	12	105	14	50
전북	267	1,027	16	76	15	45
전남	368	1,463	17	109	22	56
경북	232	784	11	43	13	38
경남	244	717	18	97	23	54
제주	69	310	8	68	4	14
합계	3,690	13,260	198	1,287	258	861

2010년 예비조사에서는 지역별 비례배분 방식으로 할당했으나, 전체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및 아동양육시설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곱근 비례배분방식을 활용하여 시설별 조사 샘플수를 할당하였다. 지역별로 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 수를 해당 시설 수로 나누어 조사대상 평균 아동 수를 계산하고, 시설유형별, 지역별로 조사를 진행할 집락, 즉 시설 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시설유형별, 지역별로 조사를 진행할 집락, 즉 시설수를 산출하였다.

제곱근 비례배분방식으로 각 시설유형별 샘플 할당수를 산출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에서 638표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199표본, 양육기관에서 163표본, 총 1,000명의 표본이 할당되었다. 이후 각 시설유형별 샘플할당수를 기반으로 지역별 샘플수를 할당하였는데, 그 결과 서울지역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초등 4년생 1,141명중 55명을 패널로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

표 IV-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지역별 표본수

지역 구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초등학교 4학년	조사 표본수	초등학교 4학년	조사 표본수	초등학교 4학년	조사 표본수
서울	1,141	55	94	15	203	39
부산	552	27	100	15	78	15
대구	483	23	96	15	39	7
인천	596	29	0	0	33	6
광주	942	45	48	7	28	5
대전	547	26	15	2	32	6
울산	169	8	0	0	7	1
경기	2,621	126	234	36	127	24
강원	545	26	71	11	18	3
충북	671	32	131	20	39	7
충남	692	33	105	16	50	10
전북	1,027	49	76	12	45	9
전남	1,463	70	109	17	56	11
경북	784	38	43	7	38	7
경남	717	34	97	15	54	10
제주	310	15	68	11	14	3
합계	13,260	638	1,287	199	861	163

다음으로, 시설유형과 지역별로 조사를 진행할 집락, 즉 시설수를 산출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예를 들어 서울지역은 조사를 진행해야 할 아동수가 55명이며, 시설 당 평균 조사대상 아동수가 3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추출해야 할 시설은 18개소로 추정되었다. 즉, 서울 소재 367개소 지역아동센터 중 18개 시설을 추출하고 각 시설별 3명의 아동을 조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설수와 대상을 확정하였다(표 IV-3).

표 IV-3 지역아동센터 조사표본 할당표

지역 구분	지역아동센터				
	전체 시설 수	전체 초등학교 4학년수	조사표본수	시설 당 평균 조사대상 아동 수	추출시설수 (집락)
서울	367	1,141	55	3	18
부산	185	552	27	3	9
대구	147	483	23	3	7
인천	174	596	29	3	8
광주	218	942	45	4	10
대전	144	547	26	4	7
울산	52	169	8	3	3
경기	679	2,621	126	4	33
강원	159	545	26	3	8
충북	185	671	32	4	9
충남	200	692	33	3	10
전북	267	1,027	49	4	13
전남	368	1,463	70	4	18
경북	232	784	38	3	11
경남	244	717	34	3	12
제주	69	310	15	4	3
합계	3,690	13,260	638		179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대상 시설 수를 산출하였다. 서울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조사를 진행해야 할 아동수가 15명이며, 시설 당 평균 조사대상 아동 수가 5명이므로, 추출해야 할 시설은 3개소로 설정하였다. 서울 소재 18개소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 3개 시설을 추출하고 시설 당 5명씩, 총 15명을 조사할 것으로 확정하였다(표 IV-4).

표 IV-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조사표본 할당표

지역 구분	방과후아카데미				
	전체 시설 수	전체 초등학교 4학년수	조사표본수	시설 당 평균 조사대상 학생수	추출시설수 (집락)
서울	18	94	15	5	3
부산	11	100	15	9	2
대구	9	96	15	11	1
인천	6	0	0	0	0
광주	5	48	7	10	1
대전	5	15	2	3	1
울산	4	0	0	0	0
경기	38	234	36	6	6
강원	11	71	11	6	2
충북	9	131	20	15	1
충남	12	105	16	9	2
전북	16	76	12	5	2
전남	17	109	17	6	3
경북	11	43	7	4	2
경남	18	97	15	5	3
제주	8	68	11	9	1
합계	198	1,287	199		30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대상 시설 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아동양육시설 조사표본 할당표

지역 구분	아동양육시설				
	전체 시설 수	전체 초등학교 4학년수	조사표본수	시설당 평균 조사대상 학생수	추출시설수 (집락)
서울	38	203	39	5	7
부산	22	78	15	4	4
대구	20	39	7	2	4
인천	13	33	6	3	2
광주	10	28	5	3	2
대전	13	32	6	2	2
울산	1	7	1	7	0
경기	30	127	24	4	6
강원	10	18	3	2	2
충북	10	39	7	4	2
충남	14	50	10	4	3
전북	15	45	9	3	3
전남	22	56	11	3	4
경북	13	38	7	3	2
경남	23	54	10	2	4
제주	4	14	3	4	1
합계	258	861	163		48

각 시설 유형별 조사대상 시설 및 시설별 조사 대상 아동 수가 확정된 후, 무작위로 시설을 선정하여 전화로 접촉한 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중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여 최종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서를 확보한 조사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조사에 참여시켰으며, 센터장이나 관계자의 추천을 받은 1차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무작위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2) 성별·시도별 분포

본 조사에서 패널로 구축된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 구성은 남자 472명(47.2%), 여자 528명(52.8%)로 나타났다<표 IV-6>.

표 IV-6 조사대상자 성별·시도별 분포

구 분		사례수(n=1000)	%
성별	남 자	472	47.2
	여 자	528	52.8
시도별	서 울	109	10.9
	부 산	57	5.7
	대 구	45	4.5
	인 천	35	3.5
	광 주	57	5.7
	대 전	34	3.4
	울 산	9	0.9
	경 기	186	18.6
	강 원	40	4.0
	충 북	59	5.9
	충 남	59	5.9
	전 북	71	7.1
	전 남	98	9.8
	경 북	52	5.2
	경 남	60	6.0
	제 주	29	2.9

(3) 동거가족 형태와 시설 이용기간별 분포

가족형태를 살펴보면(양육시설 제외), 편부 또는 편모와 같이 한부모가정이 33.7%,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53.4%,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1.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또한 시설을 이용한 기간(양육시설 포함)을 살펴보면, 2년 이상이 4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28.2%, 1년 이상 2년 미만이 17.6%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반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이 1년 이상 장기간 시설을 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표 IV-7).

표 IV-7 동거가족 형태와 시설 이용기간별 분포

구 분		사례수	%
동거가족형태	아버지+어머니	447	53.4
	한 부모	282	33.7
	(한)조부모	16	1.9
	(한)조부모+부모	50	6.0
	(한)조부모+한 부모	35	4.2
	기타	7	0.8
시설이용별	3개월 미만	35	3.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6	6.6
	6개월 이상 1년 미만	282	28.2
	1년 이상 2년 미만	176	17.6
	2년 이상	441	44.1

(4) 가정경제 수준 및 부모직업 유무별 분포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제외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가정 경제수준별 현황을 보면, 차상위 계층이 전체의 33.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29.6%, 수급권과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의미하는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한부모·조손가족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이 11.9%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를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아버지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3%(사망 등으로 없는 경우 제외)이고,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3%로

나타났다<표 IV-8>. 이를 통해서 볼 때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가정경제 수준 및 부모직업 유무별 분포

구분		사례수 (n=837)	%
가정경제 수준	기 초 수 급	248	29.6
	차상위 계 층	283	33.8
	사 각 지 대	100	11.9
	사각지대 이상	206	24.6
아버지직업	없음	258	25.8
	있음	611	61.1
	사 망/ 이 혼	131	13.1
어머니직업	없음	193	19.3
	있음	503	50.3
	사 망/ 이 혼	304	30.4

2) 조사영역 및 항목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사들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영역 및 항목을 마련하였다. 조사항목의 경우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 조사된 항목과의 연계성 및 각 사업의 효과성 검증방안을 고려하여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11월 진행된 예비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1년 6월 중 최종 확정하였다.

아동·청소년용 설문지의 기본적인 조사영역은 <표 IV-9>에 제시된 것처럼 일상생활, 학교생활, 자신 및 가족 등에 대한 인식과 생활, 기관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설문문항은 앞서 살펴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표 IV-9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아동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문항수
1. 일상 생활	하루일과시간	1)-1 취침시간/기상시간	2
		1)-2 방과후 학교나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	1
		1)-3 시설 거주 시간	1
		1)-4 학원 시간	1
	건강 및 체격	2) 아침 거르는 일자와 이유	2
		3) 질병 경험, 치료여부, 이유	3
		4)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	1
	미디어이용	5) 컴퓨터 이용여부, 시간, 장소, 목적	14
		6) 휴대전화 이용여부	1
소계			26
2. 학교 생활	학교생활 및 학습생활	1) 결석경험과 이유	6
		2) 학교생활적응(학습생활, 학교규칙적응, 교우관계, 교사관계)	8
		3) 과목별 성취정도(5개 과목)	5
		4) 성적에 대한 만족도	1
소계			20
3. 자신 및 가족 등에 대한 인식 및 생활	현재 자신에 대한 인식	1) 자아탄력성	15
	스트레스 인식	2) 스트레스	6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3)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감독, 애정,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밀관성)	8
		4)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	6
		5) 1주일 중 집에 혼자 있는 시간/ 하루중 혼자 있는 시간	2
	사회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6)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6
		7) 사회에 대한 인식	4
	일상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8) 일상생활 만족도(가정, 부모, 형제자매, 경제, 여가, 건강, 학교, 성적, 친구, 선생님, 전반적 만족 등)	10
	비행경험	9) 비행경험	5
	폭력피해경험	10) 폭력피해경험과 빈도	5
	상위인지도	11) 상위인지도 측정항목	9
	문제해결 능력	12) 문제해결 능력 측정항목	10
소계			86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문항수
4. 기관 서비스	각종 활동 경험여부	1) 각종 활동 경험여부 및 빈도	7
	지도자 만족도	2) 지도자 만족도	5
	시설만족도	3) 시설환경 만족도	4
	생활변화	4) 시설 이용 후 생활변화	11
소계			27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2010년에 진행된 예비조사 검토의견을 반영해 기관종사자에게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응답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으며, 조사영역은 기본사항과 가족관련 공통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V-10>.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설문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별로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 시설 서비스 내용의 차이, 가족 배경변인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시설 유형별 별도의 설문지 3종을 개발하였다. 공통문항으로는 일상생활, 자신 및 가족 등에 대한 인식 및 생활, 가족관련 공통배경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시설별 특성화 문항으로는 이용기간 및 시간, 만족도, 생활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V-10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종사자 응답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문항수
1. 기본사항	기본문항	1) 생년월일	1
		2) 성별	1
		3) 키와 몸무게	1
		4)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	1
2. 가족관련 공통배경	부모가족구조 및 경제수준	5) 가정의 경제수준	1
		6) 부모 동거여부/조부모와의 동거여부	1
	부모의 사회적 특징	7) 부모의 학력	2
		8) 부모의 직업유무	2
소계			10
총 문항수			169

조사지의 항목 및 출처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설문지 조사항목 및 출처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조사항목	문항 수	출 처
1. 일상 생활	하루 일과 시간	1)-1 취침시간/기상시간	2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생활시간조사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Ⅰ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재인용함.
		1)-2 방과후 학교나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	1	연구진이 작성
		1)-3 시설 거주 시간	1	연구진이 작성
		1)-4 학원 시간	1	2005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
	건강 및 체력	2) 아침 거르는 일자와 이유	2	2005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
		3) 질병 경험, 치료여부, 이유	3	2005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
		4)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	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Ⅰ에서 수정하여 인용한 것을 재인용함
	미디어 이용	5) 컴퓨터 이용여부, 시간, 장소, 목적	14	청소년패널조사의 컴퓨터 사용실태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Ⅰ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재인용함
		6) 휴대전화 이용여부	1	이시형·김학수·나은영·이세용·김선남·배진한·최병목·양지윤(2002)의 휴대폰 의존도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2010Ⅰ에서 사용한 것을 재인용함.
소계			26	
2. 학교 생활	학교생활 및 학습생활	1) 결석경험과 이유	6	2005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
		2) 학교생활적응 (학습생활,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8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척도와 이상필(199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정화실, 1991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Ⅰ에서 사용하였고, 이를 재인용함.
		3) 과목별 성취정도 (5개 과목)	5	‘지역아동센터 운영성과 분석에 따른 운영모델 개발 및 발전방안 모색’의 이용아동 프로그램만족도 항목 중 과목별 성취정도를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4) 성적에 대한 만족도	1	연구진 작성
	소계			20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문항수	출 처
3. 자신 및 가족 등에 대한 인식 및 생활	현재 자신에 대한 인식	1) 자아탄력성	15	Block &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2002)이 번역한 뒤 권지은(2003, 재인용)이 수정 보완한 것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 이 사용하였고, 이를 재인용함.
	스트레스 인식	2) 스트레스	6	2005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
	부모 양육태도 인식	3)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감독, 애정,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	8	원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검사(총 43문항)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 에서 중복 되는 문항과 방임과 처벌과 같은 민감한 문항은 제외 하고 사용한 것을 재인용함.
		4)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의 빈도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7) 1주일 중 집에 혼자 있는 시간/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사회 및 지역사회 인식	5)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6	ADD health의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 에서 번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재 인용함.
		6) 사회에 대한 인식	4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 연구(권혜원, 2004)의 설문지 를 참조하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 에서 신 규로 작성한 것을 재인용함.
	일상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7) 일상생활 만족도(가정, 부모, 형제자매, 건강, 여가, 학교, 성적, 친구, 일상생활, 전반적 만족 등)	10	‘2008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의 일상생활만족도에서 인용함.
	비행경험	8) 비행경험 (5개 문항)	5	2005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
	폭력피해 경험	9) 폭력피해경험과 빈도 (5개 문항)	5	2005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
	상위인지도	10) 상위인지도 측정항목 (9개 문항)	9	Printich와 De Groot(1990)가 개발한 학습 동기화 전략을 김영채가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연구진이 수정보 완하여 사용함.
	문제해결 능력	11) 문제해결 능력 측정항목 (10개 문항)	10	Bransford 와 Stein의 문제해결 능력척도를 우옥희 (1999)가 사용한 것을 연구진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함.
소계			86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항목	문항수	출 처
4. 기관 서비스	각종활동 경험여부	1) 각종 활동 경험에 대한 만족도	7	‘2008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의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지각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지도자 만족도	2) 시설장, 현장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5	‘2008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의 지도자 만족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시설 만족도	3) 시설환경만족도	4	‘2008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의 시설환경만족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생활변화	4) 시설 이용 후 생활변화	11	‘200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의 방과후 입학 후 생활변화를 연구진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함.
소계			16	
총 문항수			159	

표 IV-12 개인 배경변인 조사영역 및 내용 (중사자를 통해 별도 조사)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조사항목	문항 수	출처
1. 기본	기본 문항	1) 생년월일	1	2005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
		2) 성별	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I 에서 인용
		3) 키와 몸무게	1	2005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인용.
		4)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	1	‘2008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에서 인용
2. 가족 관련 공통 배경	가족의 구조 및 경제 수준	5) 가정의 경제수준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6) 부모 동거여부/조부모와 의 동거여부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부모의 특징	7) 부모의 학력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8) 부모의 직업 유무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부모와 생활	9)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빈도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10) 1주일 중 집에 혼자 있는지 여부 /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문항
소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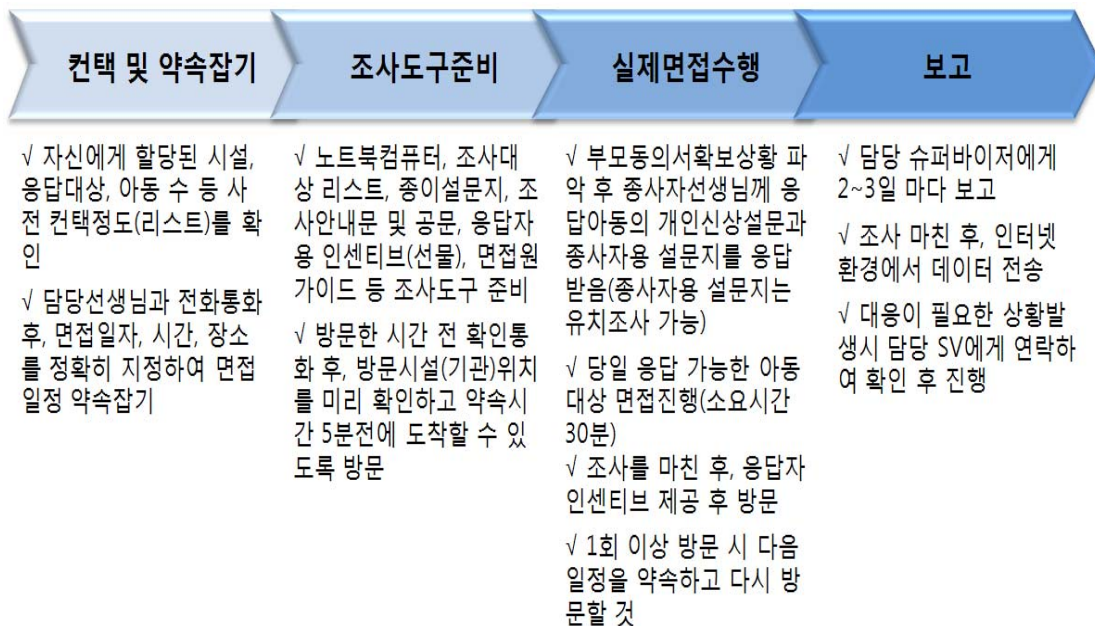
3) 실사조사 과정

(1) 면접원 교육

면접원은 전국적으로 총 43명이 투입되었으며, 서울·경기·인천지역 17명, 대전·충청지역 8명, 부산·경남지역 8명, 대구·경북지역 8명, 강원지역 2명, 제주지역 2명이 투입되었다. 투입된 모든 면접원은 연구진과 동서리서치 담당 연구원이 진행한 집체 교육(3시간)을 이수했으며 담당 슈퍼바이저(실사 담당자)의 조사관련 수시교육을 통해 ‘표준 면접원 가이드’의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였다. 교육은 조사 목적 및 배경, 조사방법, CAPI 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면접원의 조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면접과정에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2) 실사진행 절차

실사진행절차는 [그림 IV-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IV-1】 실사 진행절차도

첫째, 사전접촉은 사전 컨택원과 방문 조사원을 이원화하여 진행하였다. 사전 컨택원은 방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기 전 무작위로 추출된 시설에 표준 컨택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조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부모님(보호자)동의서 확보 사안을 포함한 시설의 조사 참여의사와 방문 선호기간을 확인하였다.

둘째, 조사 홍보를 위해 각 지역 실사담당자는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해 협조대상 시설에 조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사공문, 안내문, 설문지를 제공하여 사전 협조도를 높였다. 특히 조사실시 전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을 통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본 조사 실시를 홍보하여 협조를 구했으며, 이 외에도 조사 자문위원 등을 통해 아동양육시설과 방과후아카데미에 본 조사에 대한 홍보 및 협조요청을 실시하였다.

셋째, 방문 조사원은 각 시설별 선호 기간을 참고하여 사전에 컨택된 시설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약속한 후,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시설 담당 선생님의 통솔 및 협조 하에 컴퓨터를 활용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향후 동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패널조사로 면접원과 패널 및 시설 종사자와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1시설 당 1명의 면접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패널인 초등학교 4학년의 조사 집중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설 종사자의 통제 아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의 조사 참여도 제고를 위해 시설 종사자 대상 부가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모든 응답대상 아동 패널은 면접 전에 부모님(보호자)을 대상으로 조사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사전 수령한 후 면접을 진행하였다. 응답대상 아동과 응답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 제공한 인센티브로는 응답 아동 1인당 휴대용 미니선풍기 1개를, 담당 선생님과 시설장에게는 각 1만원권과 2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으며, 설문조사 종료 후 응답 시설을 대상으로 우수 아동도서를 일괄적으로 제공하였다.

넷째, 전산처리 및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본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CAPI System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므로, 편청오류가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분기질문을 포함한 기본적설문로직과 문항 간 논리, 응답거부를 제외한 무응답 사례를 조사단계에서 전자설문으로 제어하였다. 또한 DATA에 대한 20%를 일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CAPI DATA에 대한 사후 에디팅을 실시함으로써 데이터의 완결성을 높였다.

종사자 조사의 경우 더블편집을 통해 편청오류를 줄이고, 입력 시 설문논리를 편집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데이터 완결성을 입력단계부터 향상시켰다. 본 조사와 마찬가지로 20%에 대한 일괄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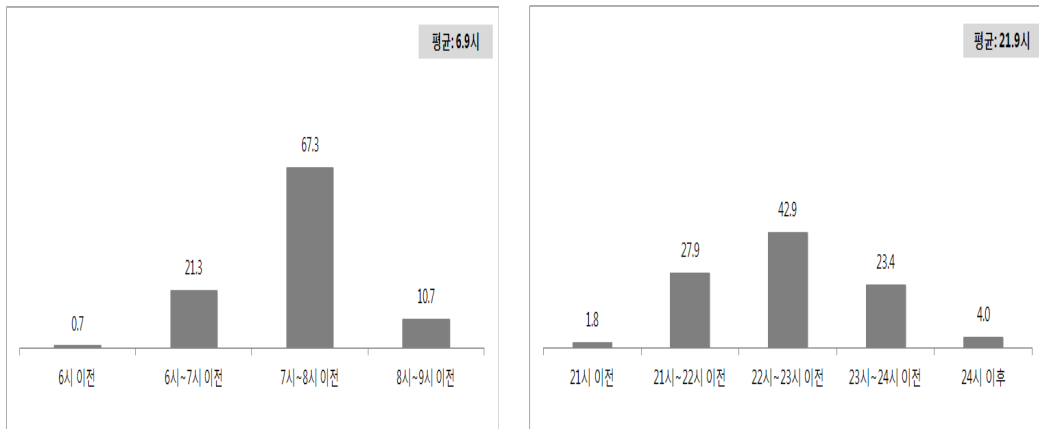
1) 생활시간과 건강

(1) 취침시간과 일상생활 시간

① 평일 기상 및 취침 시간

조사대상자의 평일 전체 수면시간은 총 9시간으로 나타났다. 평일 기상시간은 7시~8시 이전이 67.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6시~7시 이전 21.3%, 8시~9시 이전 10.7%, 6시 이전 0.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아침 기상시각은 아침 6시 54분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평일의 기상시간을 살펴보면, 남자 평균 6시 48분, 여자 평균 6시 54분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가정경제수준별 평일의 기상시간은 7시로 모든 집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그림 IV-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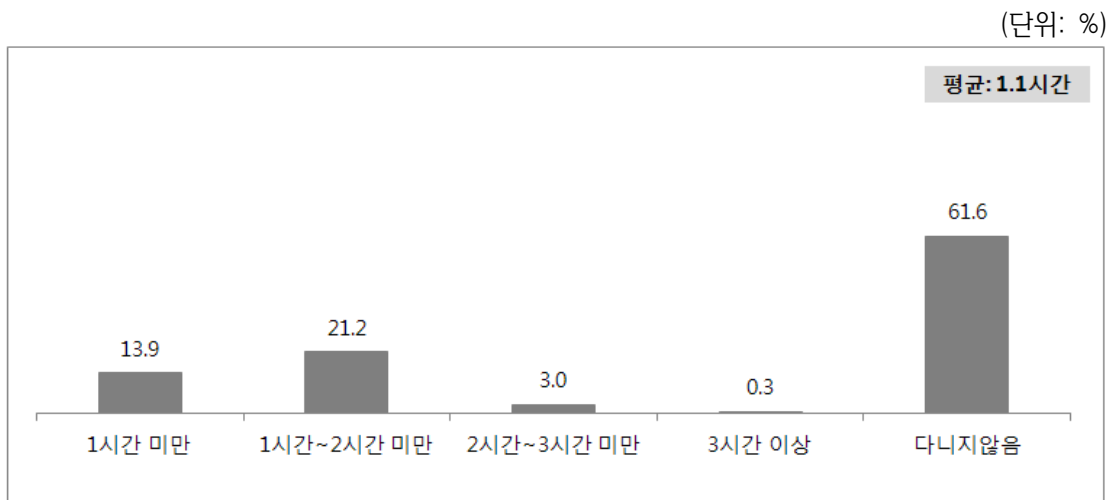
【그림 IV-2】 평일 기상 및 취침 시간 (패널 전체 1,000명)

평일 취침시간은 22시~23시 이전이 42.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1~22시 이전(27.9%), 23시~24시 이전(23.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취침 시각은 오후 9시 54분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평일 취침시간은 남녀 모두 평균 21시 54분으로 같은 수치를 보였다. 가정경제수준별 평일 취침시간은 기초수급이 21시 54분이었고, 차상위 계층, 사각지대, 사각지대 이상의 집단은 모두 22시 6분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② 평일 방과후학교 이용시간

평일 학교 정규수업 후 방과후학교에서 보내는 경우는 전체의 38.4%이고, 방과후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는 61.6%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이용률은 일반 아동과 청소년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개별 시설에서의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IV-3].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1.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1시간~2시간 미만이 21.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시간 미만이 13.9%로 나타났다.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도 61.6%로 과반수를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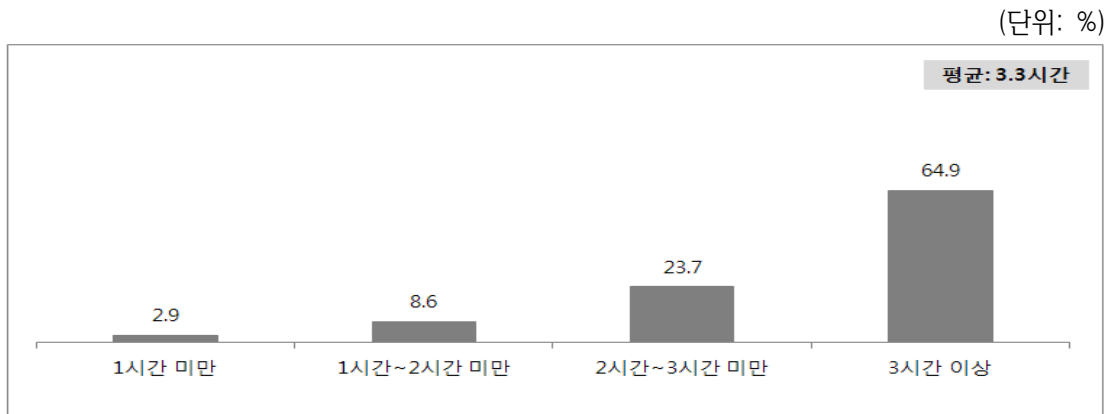


【그림 IV-3】 방과후 학교 이용률 및 생활시간(패널 전체 1,000명)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평일 방과후 학교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평균 1시간 6분으로 조사되었다. 가정경제수준별 평일 방과후 학교 이용시간은 기초수급, 사각지대, 사각지대 이상이 평균 1시간, 차상위계층이 1시간 6분으로 조사되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평일 시설(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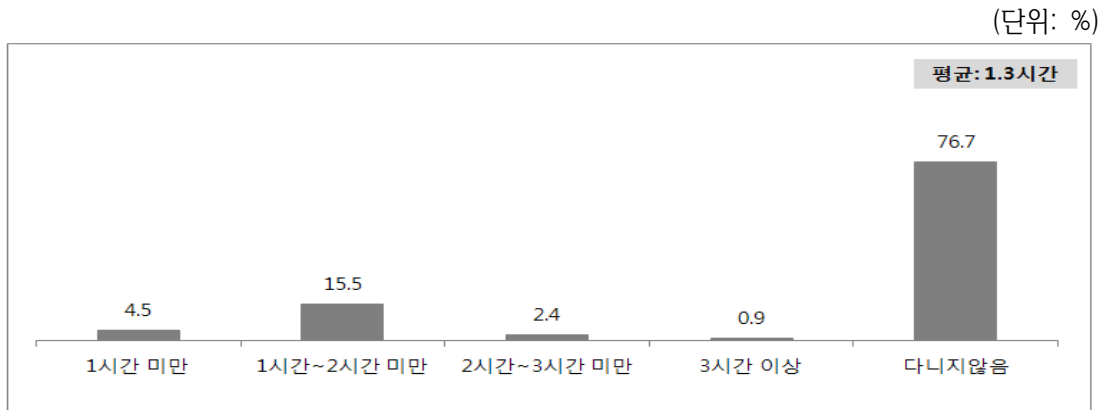
평일의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시간은 평균 3.3시간으로 나타났다. 3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64.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2~3시간 미만이 23.7%로 나타나 장시간 이용 아동이 많았고, 2시간 미만의 단시간 이용자는 11.5%였다[그림 IV-4].



【그림 IV-4】 평일 시설 이용시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패널 837명)

④ 평일 학원 이용시간

평일의 이용시설 외 학원이용시간은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이 76.7%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1~2시간 미만이 15.5%로 나타났다[그림 IV-5]. 이러한 조사결과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시설이 일정정도 사교육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IV-5】 평일 학원 이용률 및 이용시간 (패널 전체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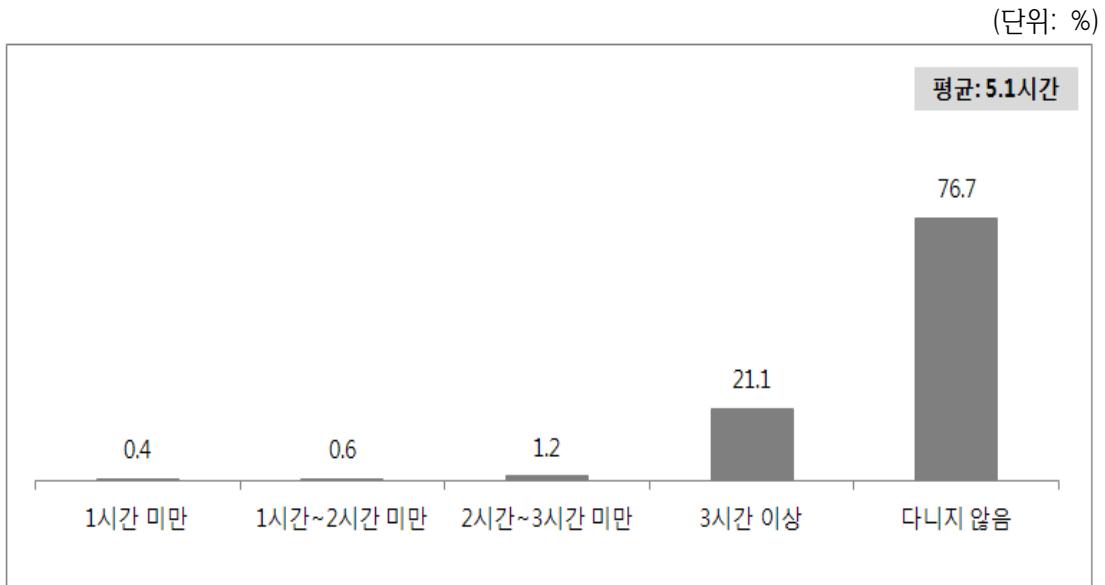
응답 패널 대부분이 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1개 정도의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평균 학원 이용시간은 1.3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평일 시설 외 학원이용시간을

살펴보면, 남자 1시간 24분, 여자 1시간 12분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경제수준별 평일 시설 외 학원이용시간은 기초수급과 사각지대 이상이 1시간 12분, 차상위계층이 1시간 6분, 사각지대가 54분으로 나타났다.

⑤ 휴일 시설 이용시간

휴일기준 시설이용은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이 76.7%로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주 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10명 중 7명 이상이 휴일에 돌봄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그림 IV-6].

반면 휴일에 이용하는 평균 시간은 5시간 6분으로 평일보다 길게 나타났다. 3시간 이상은 21.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시간~3시간 미만(1.2%), 1시간~2시간 미만(0.6%), 1시간 미만(0.4%)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휴일 시설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남자 4시간 48분, 여자 5시간 18분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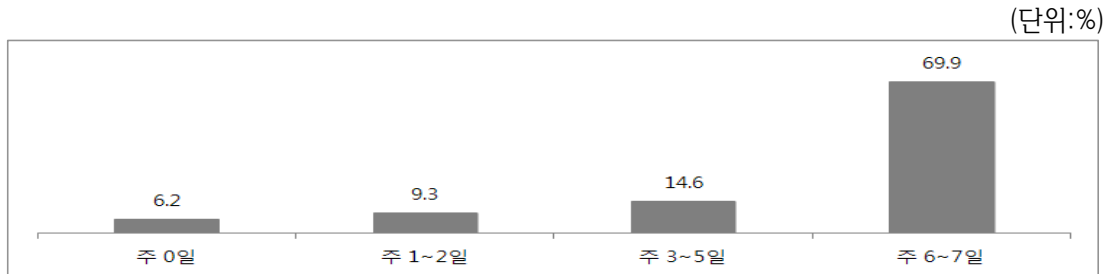


【그림 IV-6】 휴일 시설 이용시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패널 837명)

(2) 식사와 건강

① 주당 아침식사 빈도

주당 아침식사 취식 빈도는 주 6~7일로 거의 매일 먹는다는 응답이 69.9%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주 3~5일(14.6%), 주 1~2일(9.3%), 주 0일(6.2%)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V-7].



【그림 IV-7】 주당 아침식사 취식 빈도 (패널 전체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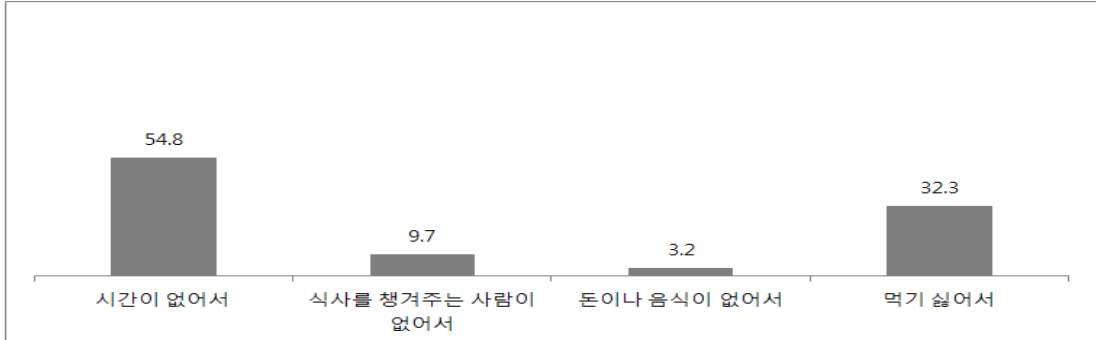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주당 아침식사 취식빈도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는 주 6~7일 71.0%, 주 3~5일 14.6%, 주 0일 7.4%, 주 1~2일 7.0% 순이었으며, 여자는 주 6~7일 68.9%, 주 3~5일 14.6%, 주 1~2회 11.4%, 주 0일 5.1%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초수급대상은 주 6~7일 63.3%, 주 3~5일 18.1%, 주 1~2회 12.1%, 주 0일 6.5%였으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주 6~7일 62.2%, 주 3~5일 19.4%, 주 1~2회 12.4%, 주 0일 6.0%이었다.

② 아침식사 미취식 이유

1주일 내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먹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4.8%였고, 먹기 싫어서(32.3%),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9.7%), 돈이나 음식이 없어서(3.2%)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V-8].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100명 중 6.2명이 매일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 12.9%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굶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장기에 아동·청소년기에 매일 아침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점심급식을 먹기 전인 오전 시간에 학업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어 원만한 학교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아침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조식제공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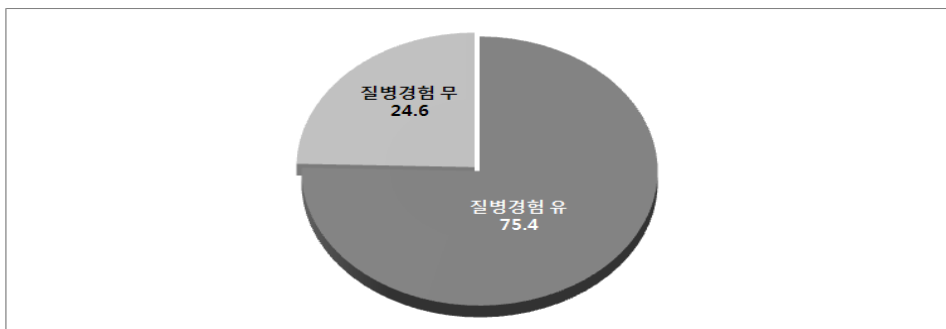
【그림 IV-8】 아침식사 미취식 이유 (아침식사 미취식 패널 62명)

아침식사를 주 0회 먹는 미취식 패널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미취식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 48.6%, 먹기 싫어서 40.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8.6%, 돈이나 음식이 없어서 2.9%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먹기 싫어서 22.2%,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11.1%, 돈이나 음식이 없어서 3.7% 순으로 나타났다.

③ 최근 1년 내 질병경험

최근 1년 내 질병경험 여부로 질병경험이 있는 경우는 75.4%로 나타났고, 질병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24.6%로 나타났다[그림 IV-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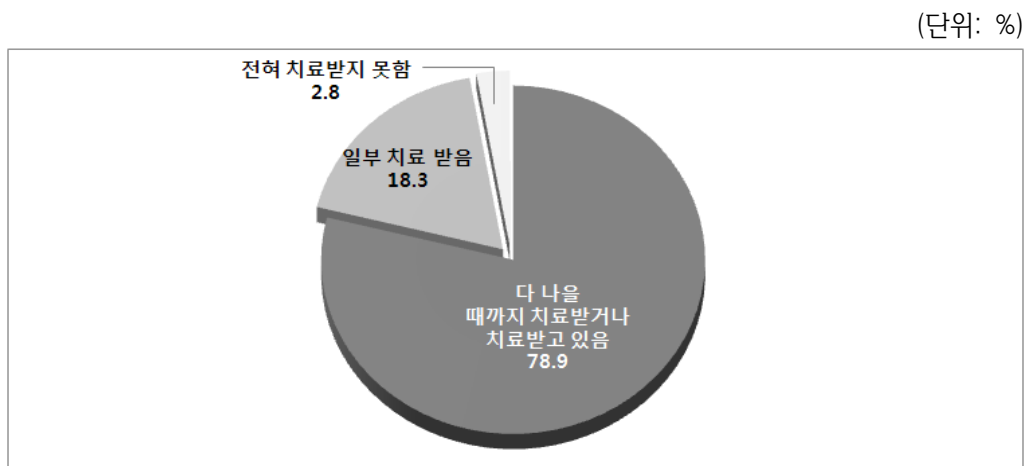


【그림 IV-9】 최근 1년 내 질병경험 여부(패널 전체 1,000명)

조사대상자의 최근 1년 내 질병경험여부를 가정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계층은 77.4%, 차상위계층은 76.3%, 사각지대는 68.0%가 질병경험이 있어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질병경험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④ 질병치료 여부

질병경험자의 질병치료 여부는 다 나을 때까지 치료받거나 치료받고 있다는 응답이 78.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일부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18.3%, 전혀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2.8%로 나타났다[그림 IV-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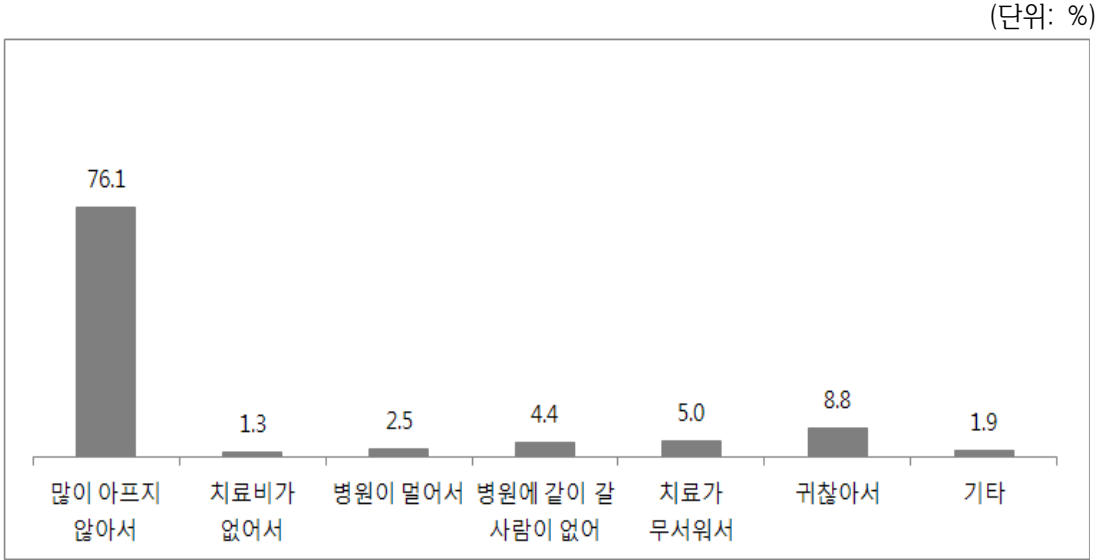
【그림 IV-10】 질병치료 여부 (질병경험 패널 754명)

질병경험이 있는 패널의 질병치료 여부를 가정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은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거나 치료 받고 있다는 응답이 75.5%, 전혀 치료받지 못한 경우는 2.6%였고, 차상위계층은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거나 치료 받고 있다는 응답이 75.9%, 전혀 치료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2%였다. 사각지대의 아동·청소년은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거나 치료 받은 경우가 76.5%, 전혀 치료받지 못한 경우는 1.5%였으며, 사각지대 이상은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거나 치료 받고 있다는 응답이 77.1%, 전혀 치료받지 못한 경우는 5.1%로 조사되었다.

⑤ 치료받지 못한 이유

질병 경험자 중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치료를 받은 응답자(N=159)의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가 76.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귀찮아서(8.8%), 치료가 무서워서(5.0%),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4.4%)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V-11].



【그림 IV-11】 치료받지 못한 이유
(질병경험 패널 중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치료 받은 패널 전체 159명)

질병경험자 중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치료를 받은 패널이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경제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초수급의 경우 많이 아프지 않아서 7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료비가 없어서 2.1%, 병원이 멀어서 4.3%,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2.1%, 치료가 무서워서 8.5%, 귀찮아서 4.3%, 기타 0%로 조사되었고, 차상위 계층은 많이 아프지 않아서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료비가 없어서 1.9%, 병원이 멀어서 0%,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3.8%, 치료가 무서워서 5.8%, 귀찮아서 15.4%, 기타 1.9%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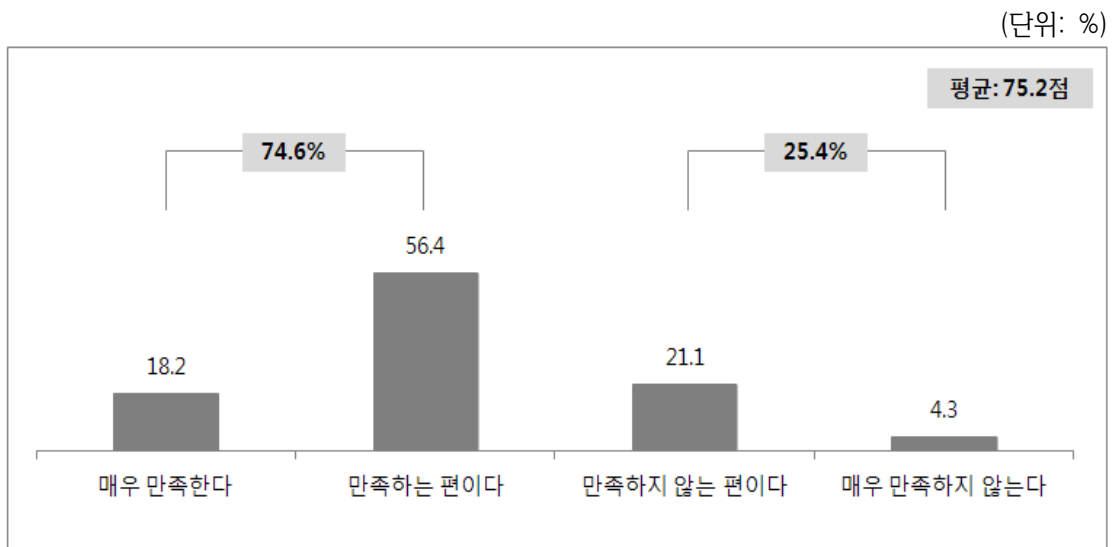
반면에 사각지대의 경우, 많이 아프지 않아서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료비가 없어서 0%, 병원이 멀어서 12.5%,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12.5%, 치료가 무서워서 6.3%, 귀찮아서 6.3%, 기타 0%로 조사되었고, 사각지대 이상의 경우 많이 아프지 않아서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료비가 없어서 0%, 병원이 멀어서 0%,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2.8%, 치료가 무서워서 0%, 귀찮아서 8.3%, 기타 5.6%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질병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 중 경제적 상황(치료비가 없는

이유)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는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의 건강에 만족한다(매우 만족:18.2%+만족하는 편:56.4%)는 응답이 74.6%로 나타났고, 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하지 않음:4.3%+만족하지 않는 편:21.1%)는 응답이 25.4%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으로 평균점수를 환산한 결과 75.2점으로 나타났다(100점:매우 만족 - 0점:매우 만족하지 않음).



【그림 IV-12】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 (패널 전체 1,000명)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자는 만족 76.3%, 불만족 23.7%였고, 여자는 만족 73.1%, 불만족 26.9%였다. 경제수준별 만족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초수급 계층은 71.8%, 차상위계층은 74.9%, 사각지대는 78.0%, 사각지대 이상은 79.1%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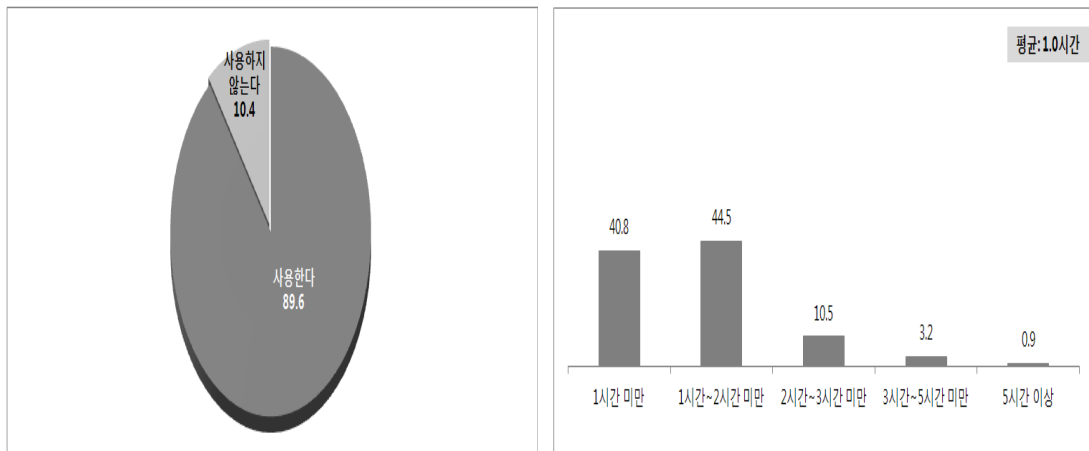
2) 미디어 이용

(1) 컴퓨터 이용

① 컴퓨터 이용률 및 이용시간

컴퓨터 이용여부는 사용한다는 응답이 89.6%,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4%로 나타났다. 그러나 10% 이상이 아직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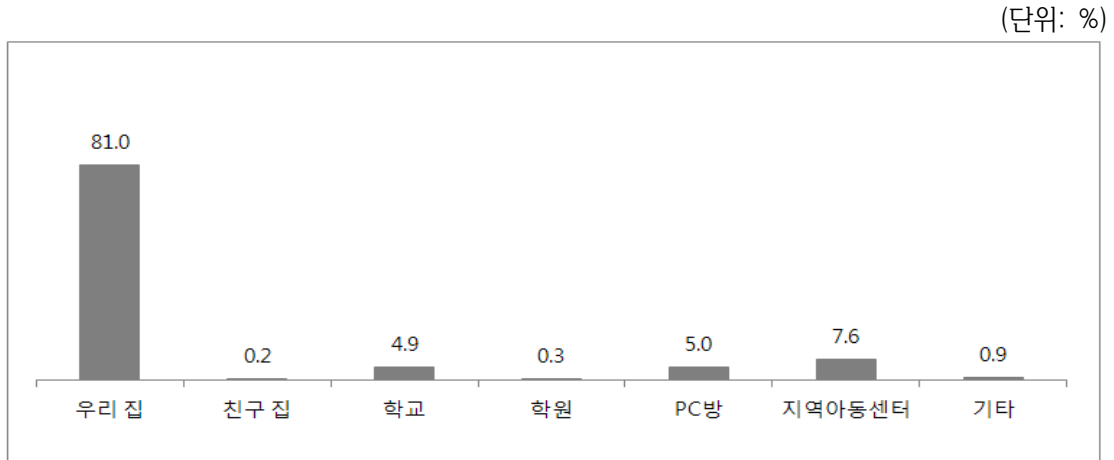
【그림 IV-13】 컴퓨터 이용률 및 1주일 이용시간 (패널 전체 1,000명)

컴퓨터 이용여부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사용한다는 비율이 92.6%로 압도적이었으며, 여자의 경우는 86.9%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경제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사용한다는 비율이 기초수급은 87.9%, 차상위 계층은 86.6%, 사각지대 87%, 사각지대 이상 93.7%로 조사되어, 사각지대 이상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단에서 컴퓨터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보아 저소득 계층의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더 나아가 학업에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보완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 이용자 중 컴퓨터의 평일 사용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시간~3시간 미만은 10.5%, 3시간~5시간 미만 3.2%, 5시간 이상이 0.9%였으며, 평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나타났다.

② 컴퓨터 사용장소

컴퓨터 이용자 중 컴퓨터 사용장소는 우리집이라는 응답이 81.0%로 대다수였고, 이어서 지역아동센터(7.6%), PC방(5.0%), 학교(4.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IV-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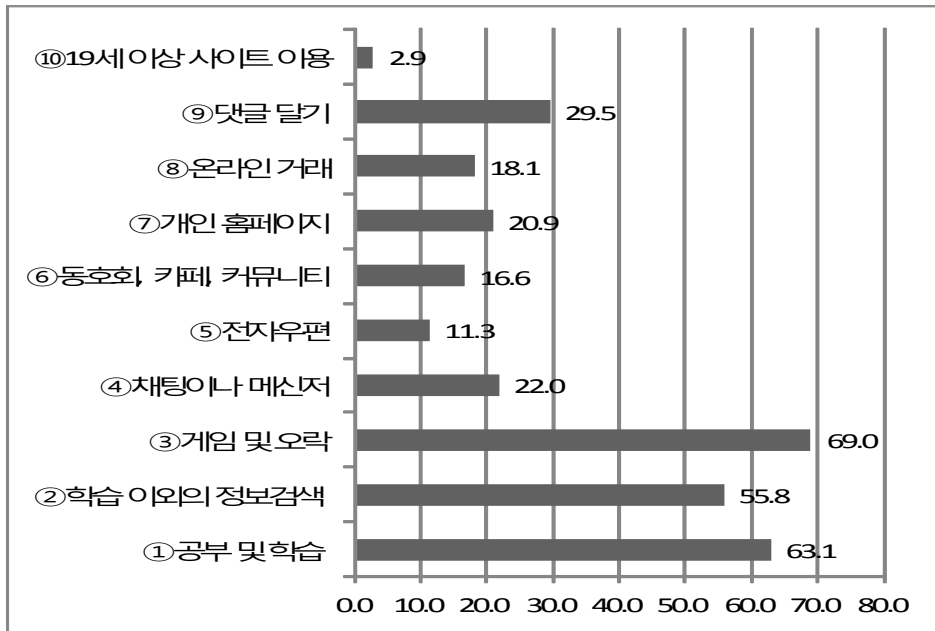
【그림 IV-14】 컴퓨터 사용장소 (컴퓨터 이용 패널 896명)

컴퓨터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용 장소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우리집 76.7%로 가장 높았으며, PC방 9.6%,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7.6%, 학교 5%, 기타 0.7%, 친구집 0.2%, 학원 0.2%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우리집 85.2%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7.6%, 학교 4.8%, 기타 1.1%, PC방 0.7%, 학원 0.4%, 친구집 0.2%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의 경우 우리집이 84.4%, PC방이 6.4%,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4.1%, 학교 3.7%, 학원 0.9%, 기타 0.5%, 친구집 0%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우리집이 89.4%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3.3%, PC방 3.3%,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2.9%, 기타 0.8%, 친구집 0.4%, 학원 0%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의 경우 우리집 83.9%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5.7%,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4.6%, PC방 3.4%, 친구집 1.1%, 기타 1.1%, 학원 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지대이상의 경우 우리집 86.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PC방 6.2%,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3.6%, 학교 3.1%, 기타 0.5%, 학원 0%, 친구집 0%로 조사되었다. 성별과 가정 경제수준과 무관하게 컴퓨터 이용장소는 우리집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③ 컴퓨터 이용내용

컴퓨터의 이용내용으로 10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자주 사용, 가끔 사용, 사용하지 않음,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것을 100점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음을 0점으로 환산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IV-15]와 같다.



【그림 IV-15】 컴퓨터 이용내용(% , 컴퓨터 이용 패널 896명)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컴퓨터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게임이나 오락(69.0%)이고, 그 다음으로 공부와 학습을 위해 사용(63.1%), 학습 이외의 정보검색(5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부 및 학습사이트’ 사용빈도는 사용한다(자주 사용:26.5%+가끔 사용:47.1%)는 응답이 73.5%, 사용하지 않는다(전혀 사용하지 않음:10.7%+거의 사용하지 않음:15.7%)는 응답이 26.5%로 나타났다. 사용빈도의 100점 환산점수는 63.1점이었다(자주 사용:100점-전혀 사용하지 않음:0점). 성별로 살펴보면, 사용한다는 응답이 남자 68.4%, 여자 78.4%로 여자가 조금 더 높게 조사되었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사용한다는 응답이 기초수급 70.6%, 차상위 계층 73.9%, 사각지대 69%, 사각지대 이상 78.2%로 나타나, 공부 및 학습사이트 사용빈도는 사각지대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음악, 영화 등 학습 외 정보검색’ 사용빈도는 사용한다(자주 사용:22.1%+가끔 사용:39.5%)는 응답이 61.6%, 사용하지 않는다(전혀 사용하지 않음:16.3%+거의 사용하지 않음:22.1%)는

응답이 38.4%로 나타났으며, 사용빈도의 100점 환산점수는 55.8점이었다(자주 사용:100점-전혀 사용하지 않음:0점).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한다는 응답이 남자 59.3%, 여자 63.8%로 여자가 조금 더 높게 조사되었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한다는 응답이 기초수급 67.9%, 차상위 계층 67.3%, 사각지대 63.2%, 사각지대 이상 59.1%로 나타나, 60%대 수준을 보였다.

셋째, ‘게임, 오락’의 사용빈도는 사용한다(자주 사용:38.2%+가끔 사용:39.3%)는 응답이 77.5%, 사용하지 않는다(전혀 사용하지 않음:8.7%+거의 사용하지 않음:13.8%)는 응답이 22.5%로 나타났으며, 사용빈도의 100점 환산점수는 69.0점으로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자주 사용:100점-전혀 사용하지 않음:0점).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한다는 응답이 남자 87.4%, 여자 68%로 남자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한다는 응답이 기초수급의 경우 77.5%, 차상위 계층 78.8%, 사각지대 85.1%, 사각지대 이상 73.1%로, 사각지대의 아동들의 게임, 오락 사용빈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채팅, 메신저’의 사용빈도는 사용한다(자주 사용:7.4%+가끔 사용:14.3%)는 응답이 21.7%, 사용하지 않는다(전혀 사용하지 않음:62.3%+거의 사용하지 않음:16.1%)는 응답이 78.3%로 나타났다. 사용빈도의 100점 환산점수는 22.2점으로 채팅 및 메신저의 사용빈도가 낮은 편(자주 사용:100점-전혀 사용하지 않음:0점)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남자 82.6%, 여자 74.3%로 채팅,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자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기초수급의 경우 81.2%, 차상위 계층 71.4%, 사각지대 78.2%, 사각지대 이상 78.2%로, 채팅,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기초수급집단의 아동에게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다섯째, ‘전자우편’의 사용빈도는 사용한다(자주 사용:1.9%+가끔 사용:7.6%)는 응답이 9.5%, 사용하지 않는다(전혀 사용하지 않음:77.6%+거의 사용하지 않음:12.9%)는 응답이 90.5%로 나타났다. 사용빈도의 100점 환산점수는 11.3점으로 전자우편의 사용빈도가 매우 낮았다(자주 사용:100점-전혀 사용하지 않음:0점).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남자 80.1%, 여자 75.1%로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자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기초수급의 경우 79.8%, 차상위 계층 75.5%, 사각지대 77.0%, 사각지대 이상 76.2%로,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기초수급집단의 아동에게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여섯째, ‘동호회 등 커뮤니티 활동’의 사용빈도는 사용한다(자주 사용:5.0%+가끔 사용:11.7%)는 응답이 16.7%, 사용하지 않는다(전혀 사용하지 않음:72.1%+거의 사용하지 않음:11.2%)는 응답이

83.3%로 나타났다. 사용빈도의 100점 환산점수는 16.6점으로 동호회 등 커뮤니티활동 이용빈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자주 사용:100점-전혀 사용하지 않음:0점). 위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호회 등 커뮤니티 활동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남자 82.6%, 여자 74.3%로 동호회 등 커뮤니티활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자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기초수급의 경우 81.2%, 차상위 계층 80.4%, 사각지대 82.8%, 사각지대 이상 83.9%로, 동호회 등 커뮤니티활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사각지대 이상의 아동에게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일곱째, ‘개인홈페이지 활동’의 사용빈도는 사용한다(자주 사용:7.8%+가끔 사용:12.8%)는 응답이 20.6%, 사용하지 않는다(전혀 사용하지 않음 65.3%+거의 사용하지 않음:13.5%)는 응답이 79.4%로 나타났다. 사용빈도의 100점 환산점수는 20.9점으로 개인홈페이지 활동 이용 빈도가 낮았다(자주 사용:100점-전혀 사용하지 않음:0점).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남자 84.4%, 여자 74.5%로 개인홈페이지활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자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기초수급의 경우 79.8%, 차상위 계층 77.6%, 사각지대 83.9%, 사각지대 이상 75.1%로, 개인홈페이지 활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사각지대 이상의 아동에게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여덟 번째, ‘온라인 구매 및 판매’ 사용빈도는 사용한다(자주 사용:6.9%+가끔 사용:10.9%)는 응답이 17.9%, 사용하지 않는다(전혀 사용하지 않음:70.4%+거의 사용하지 않음:11.7%)는 응답이 82.1%로 나타났다. 사용빈도의 100점 환산점수는 18.1점으로 온라인구매 및 판매 이용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자주 사용:100점-전혀 사용하지 않음:0점).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남자는 74.6%, 여자는 89.3%로 여자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기초수급의 경우 77.1%, 차상위 계층 84.5%, 사각지대 80.5%, 사각지대 이상 84.5%로, 온라인 구매 및 판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차상위계층과 사각지대 이상의 아동에게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아홉 번째, ‘댓글달기’ 사용빈도는 사용한다(자주 사용:9.5%+가끔 사용:19.6%)는 응답이 29.1%, 사용하지 않는다(전혀 사용하지 않음:56.0%+거의 사용하지 않음:14.8%)는 응답이 70.9%로 나타났다. 사용빈도의 100점 환산점수는 27.5점으로 댓글달기 이용빈도가 낮았다(자주 사용:100점-전혀 사용하지 않음:0점).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남자는 82.6%, 여자 74.3%로 댓글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자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기초수급의 경우 66.5%, 차상위 계층 69.4%, 사각지대 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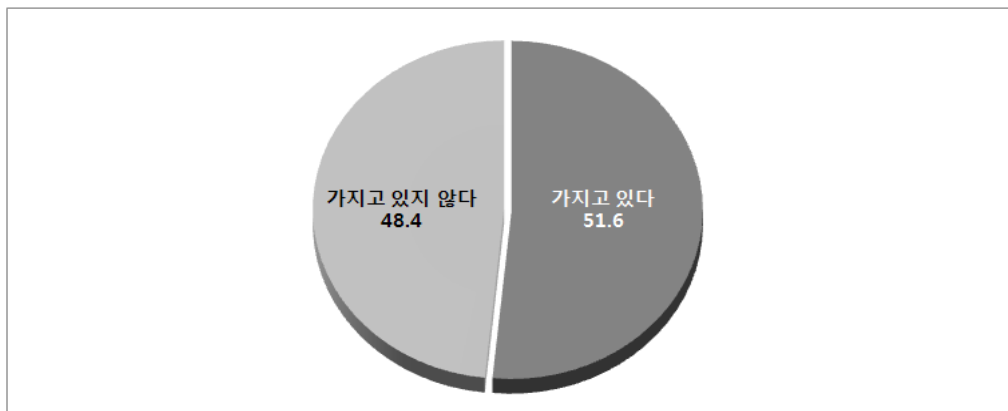
사각지대 이상 65.8%로, 댓글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사각지대 이상의 아동에게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열 번째, ‘성인사이트 이용’ 사용빈도는 사용한다(자주 사용:0.6%+가끔 사용:1.7%)는 응답이 2.2%, 사용하지 않는다(전혀 사용하지 않음:94.0%+거의 사용하지 않음:3.8%)는 응답이 97.8%로 나타났으며, 사용빈도의 100점 환산점수는 2.9점으로 거의 이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자주 사용:100점-전혀 사용하지 않음:0점).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남자는 96.1%, 여자는 99.3%로 조사되었다.

(2) 휴대전화 이용여부

휴대전화 이용여부는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51.6%,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8.4%로 나타나,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았다[그림 IV-16].

(단위: %)



【그림 IV-16】 휴대전화 이용여부 (패널 전체 1,000명)

휴대폰전화 이용여부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가지고 있다 43%, 가지고 있지 않다 57%로 조사되었고, 여자의 경우 가지고 있다 59.3%, 가지고 있지 않다 40.7%로 휴대폰 이용비율은 여자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은 가지고 있다 57.7%, 가지고 있지 않다 42.3%, 차상위계층은 가지고 있다 66.4%, 가지고 있지 않다 33.6%, 사각지대는 가지고 있다 51.7%, 가지고 있지 않다 42.3%로 나타났으며, 차상위계층의 휴대폰 이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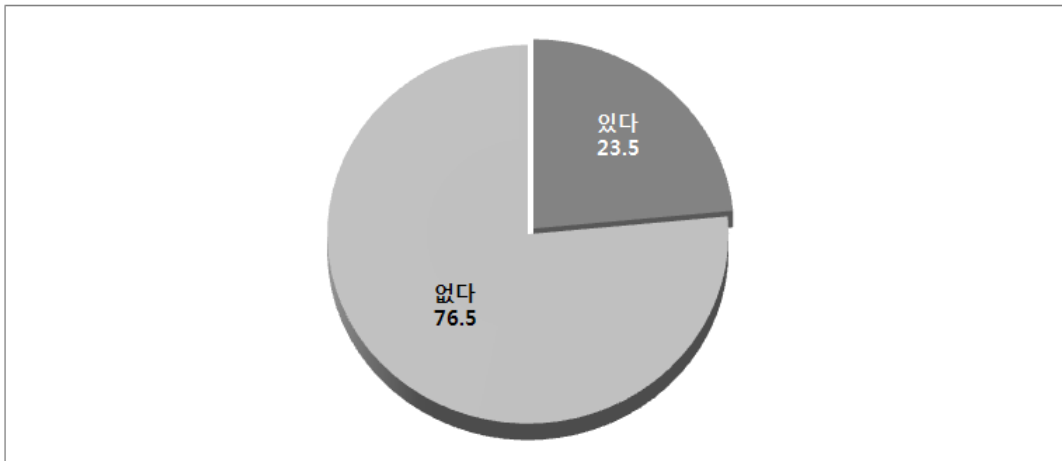
3) 학교생활 및 학습

(1) 학교생활

① 출석과 결석

지난학기 동안 결석여부를 살펴보면, 결석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6.5%로 대다수였고, 있다는 응답이 23.5%로 나타났다[그림 IV-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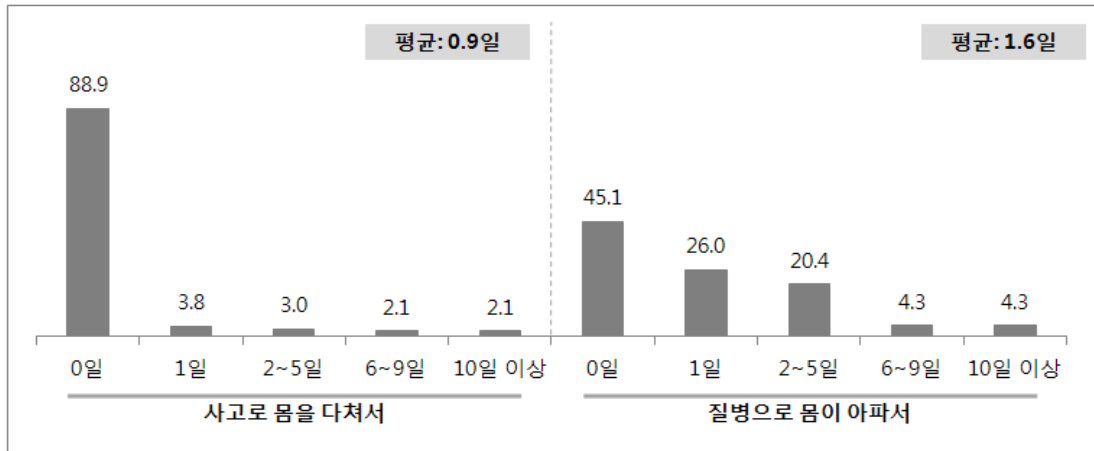


【그림 IV-17】 결석여부 (패널 전체 1,000명)

지난학기 동안 결석여부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는 결석이 있다 23.1%, 없다 76.9%였으며, 여자의 경우 결석이 있다 23.9%, 없다 76.1%로 남녀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경제 수준별 결석 경험율은 기초수급대상계층은 26.6%, 차상위 계층은 21.9%, 사각지대는 결석이 있다 28.0%, 사각지대 이상은 26.6%로 나타났다.

지난학기 결석한 응답자(N=235)의 평균 결석 일수는 사고로 몸을 다친 경우 평균 0.9일,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결석한 경우 평균 1.6일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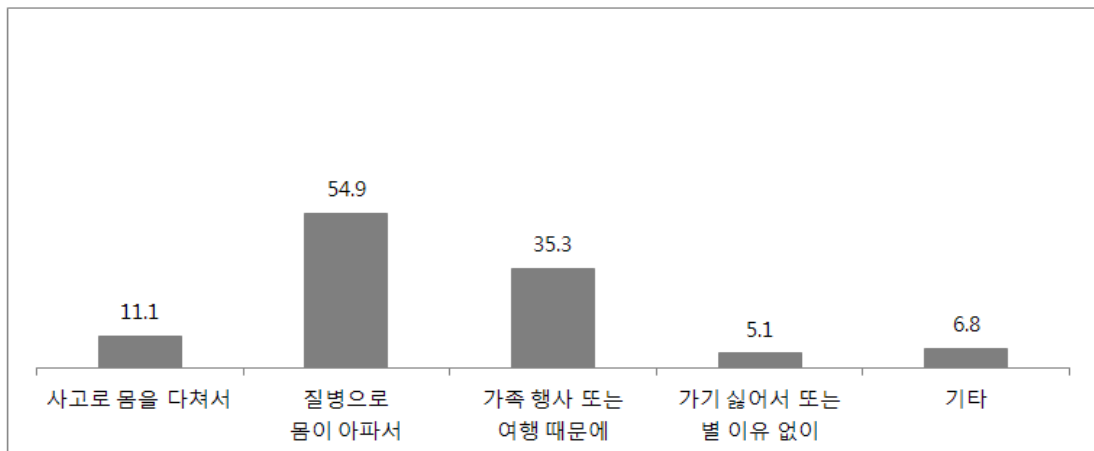
(단위: %)



【그림 IV-18】 결석일수 (결석경험 패널 전체 235명)

지난 학기에 결석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N=235)의 결석이유로는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가 54.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가족행사 또는 여행 때문에(35.3%), 사고로 몸을 다쳐서(11.1%) 가기 싫어서 또는 별 이유없이(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IV-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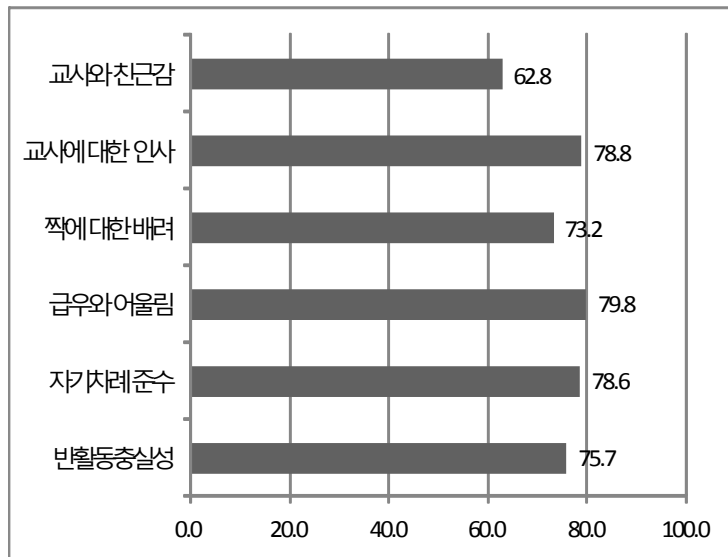
【그림 IV-19】 결석이유 (결석경험 패널 전체 235명)

결석이유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행사 또는 여행 때문에 31.2%, 사고로 몸을 다쳐서 14.7%, 가기 싫어서 또는 별다른 이유없이 6.4%, 기타 5.5%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행사 또는 여행 때문에 38.9%, 사고로 몸을 다쳐서 7.9%, 기타 7.9%, 가기 싫어서 또는 별다른 이유없이 4.0% 순으로 조사되었다.

② 학교생활 적응도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자기평가를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고, ‘매우 그렇다’를 100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0점으로 환산한 결과는 [그림 IV-20]과 같다.



【그림 IV-20】 학교생활 적응도

특이한 현상은 교사에 대한 인사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친근감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질서를 잘 지키지만 상대적으로 반의 활동에 대한 충실성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에서의 집단적 생활에 의해 질서를 지키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내면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교규칙 적응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자기평가를 살펴보면, 첫째, ‘당번 등 반활동 충실’에 대해 긍정적(매우 그렇다:41.4%+그런 편이다:46.3%)인 평가가 87.7%로 대부분이었고,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1.9%+그렇지 않은 편이다:10.4%)인 평가가 11.3%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5.7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으로 학교규칙적응 중 당번 등 반활동

영역에 충실한 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차례 준수’에 대해 긍정적(매우 그렇다:48.2%+그런 편이다:40.8%)인 평가가 89.1%로 대부분이었고,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1.7%+그렇지 않은 편이다:9.2%)인 평가가 10.9%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8.6점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자기차례준수와 관련된 항목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긍정인식이 85.6%, 부정인식이 14.4%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긍정인식이 92.2%, 부정인식이 7.8%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은 긍정인식이 91.5%, 부정인식이 8.5%로 나타났고, 차상위계층은 긍정인식이 91.5%, 부정인식이 8.5%, 사각지대는 긍정인식이 93%, 부정인식이 7%, 사각지대 이상은 긍정인식이 90.3%, 부정인식이 9.7%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관련된 항목에 대한 자기평가를 살펴보면, 첫째, ‘급우와 잘 어울림’에 대해 긍정적(매우 그렇다:49.9%+그런 편이다:41.5%)인 평가가 91.4%로 대부분이었고,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1.9%+그렇지 않은 편이다:6.7%)인 평가가 8.6%로 나타났으며,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9.8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둘째, ‘짝에 대한 배려’에 대해 긍정적(매우 그렇다:40.1%+그런 편이다:44.5%)인 평가가 84.6%로 대부분이었고,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5.0%+그렇지 않은 편이다:10.4%)인 평가가 15.4%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3.2점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교사관계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자기평가를 살펴보면, 첫째, ‘담임선생님과 인사’에 대해 긍정적(매우 그렇다:47.6%+그런 편이다:42.6%)인 평가가 90.2%로 대부분이었고,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1.4%+그렇지 않은 편이다:8.4%)인 평가가 9.8%로 나타남.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8.8점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셋째, ‘담임선생님과의 대화 시 친근감 여부’에 대해 긍정적(매우 그렇다:25.2%+그런 편이다:46.2%)인 평가가 71.4%로 많았고,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8.2%+그렇지 않은 편이다:20.4%)인 평가가 28.6%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2.8점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담임선생님과의 대화 시 친근감 정도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긍정인식이 65.5%, 부정인식이 34.5%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긍정인식이 76.7%, 부정인식이 23.3%로 나타났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은 긍정인식이 69.4%, 부정인식이 30.6%로 나타났고, 차상위계층은 긍정인식이 72.8%, 부정인식이 27.2%, 사각지대는 긍정인식이 69%, 부정인식이 31.0%, 사각지대 이상은 긍정인식이 75.2%, 부정인식이 24.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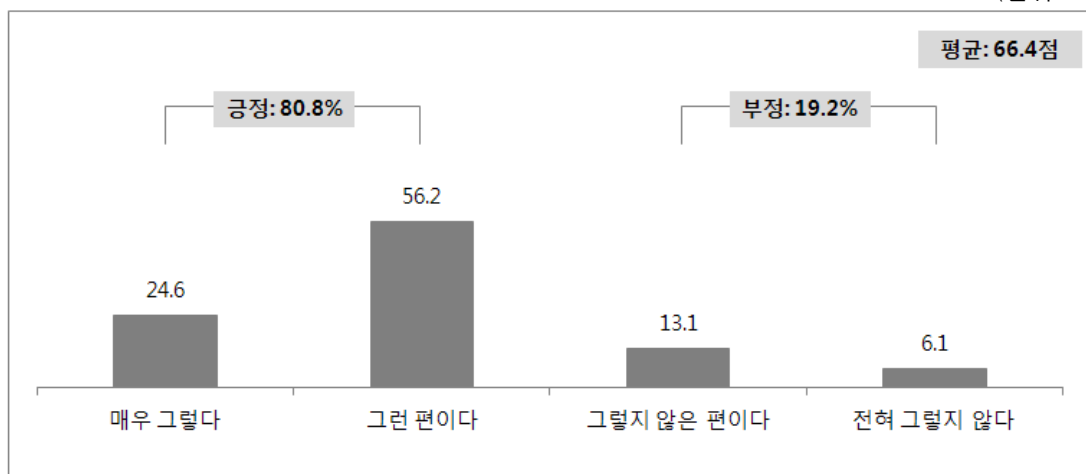
(2) 학습능력

① 학교수업 흥미 여부

학습생활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자기평가를 살펴보면, ‘학교수업흥미 여부’에 대해 긍정적(매우 그렇다:24.6%+그런 편이다:56.2%)인 평가가 80.8%로 대부분이었고,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6.1%+그렇지 않은 편이다:13.1%)인 평가가 19.2%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6.5점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그림 IV-21].

학교수업 흥미여부 항목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긍정인식이 75.8%, 부정인식이 24.2%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긍정인식이 85.2%, 부정인식이 14.8%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은 긍정인식이 78.2%, 부정인식이 21.8%로 나타났고, 차상위계층은 긍정인식이 80.2%, 부정인식이 19.8%, 사각지대는 긍정인식이 81%, 부정인식이 19%, 사각지대 이상은 긍정인식이 81.1%, 부정인식이 18.9%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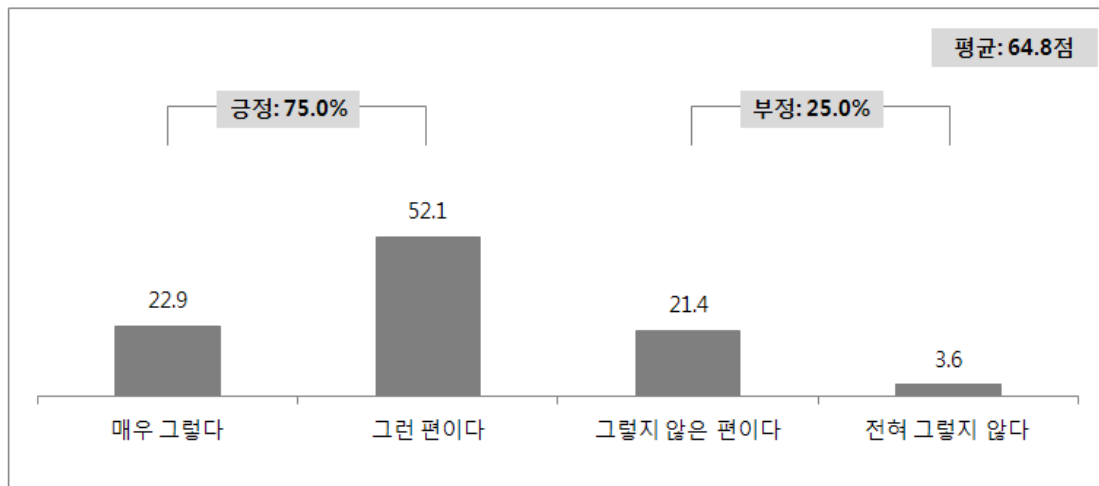


【그림 IV-21】 학교수업흥미 여부 (패널전체 1,000명)

② 숙제이행 여부

학습생활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자기평가를 살펴보면, ‘숙제이행 여부’에 대해 긍정적(매우 그렇다:22.9%+그런 편이다:52.1%)인 평가가 75.0%로 많았고,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3.6%+그렇지 않은 편이다:21.4%)인 평가가 25.0%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4.8점으로 나타나(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숙제이행여부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인 편이었다[그림 IV-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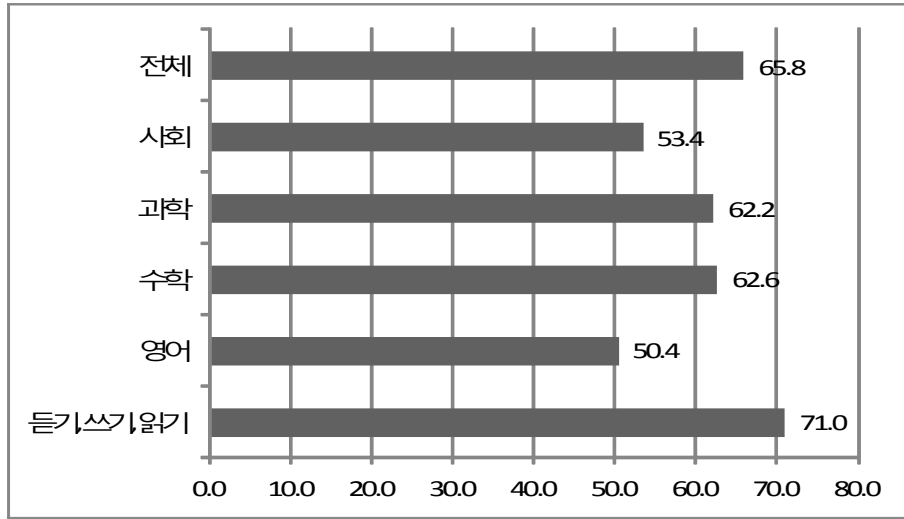
【그림 IV-22】 숙제이행 여부 (패널전체 1,000명)

숙제이행 여부와 관련된 항목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긍정인식이 68.6%, 부정인식이 31.4%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긍정인식이 80.7%, 부정인식이 19.3%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은 긍정인식이 70.6%, 부정인식이 29.4%로 나타났고, 차상위계층은 긍정인식이 73.5%, 부정인식이 26.5%, 사각지대는 긍정인식이 72%, 부정인식이 28%, 사각지대 이상은 긍정인식이 79.1%, 부정인식이 20.9%로 나타났다.

③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 학업성취도에 대해 자기평가한 결과를 ‘매우 잘하는 편’, ‘잘하는 편’, ‘보통’, ‘매우 못하는 편’, ‘못하는 편’으로 나누어 질문하였으며, ‘매우 잘하는 편’을 100점, ‘보통’을 50점, ‘매우 못하는 편’을 0점으로 환산한 결과는 [그림 IV-2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영어와 사회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교육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IV-23】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 (패널전체 1,000명)

과목별 학업성취도에 대해 자기평가 성취도를 살펴보면,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의 경우, 잘함(매우 잘하는 편:23.2%+잘하는 편:41.9%)이 65.1%로 많았고, 보통이 31.5%, 못함(매우 못하는 편:0.7%+ 못하는 편:3.4%)이 3.4%로 나타났으며,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71.0점(매우 잘하는 편:100점-보통:50점-매우 못하는 편:0점)이었다.

둘째, ‘영어’의 경우, 잘함(매우 잘하는 편:11.2%+잘하는 편:20.9%)이 32.1%였고, 보통이 35.4%, 못함(매우 못하는 편:9.3%+못하는 편:23.2%)이 32.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50.4점(매우 잘하는 편:100점-보통:50점-매우 못하는 편:0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었다.

셋째, ‘수학’의 경우, 잘함(매우 잘하는 편:19.5%+잘하는 편:31.1%)이 50.6%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34.2%, 못함(매우 못하는 편:4.3%+못하는 편:10.9%)이 15.2%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2.6점(매우 잘하는 편:100점-보통:50점-매우 못하는 편:0점)이었다.

넷째, ‘과학’의 경우, 잘함(매우 잘하는 편:15.4%+잘하는 편:33.4%)이 48.8%로 많았고, 보통이 38.9%, 못함(매우 못하는 편:2.5%+못하는 편:9.8%)이 12.3%로 나타났으며,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2.4점(매우 잘하는 편:100점-보통:50점-매우 못하는 편:0점)이었다.

다섯째, ‘사회’의 경우, 잘함(매우 잘하는 편:23.2%+잘하는 편:41.9%)이 36.7%였고, 보통이 37.8%, 못함(매우 못하는 편:6.7%+못하는 편:18.8%)이 25.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53.4점(매우 잘하는 편:100점-보통:50점-매우 못하는 편:0점)으로 사회과목에 대한 성취정도를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긍정(매우 만족:18.2%+만족하는 편:56.4%)적 평가가 74.6%로 많았고, 부정(매우 불만족:4.3%+불만족하는 편:21.1%)적 평가가 25.4%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5.8점(매우 만족:100점-매우 불만족:0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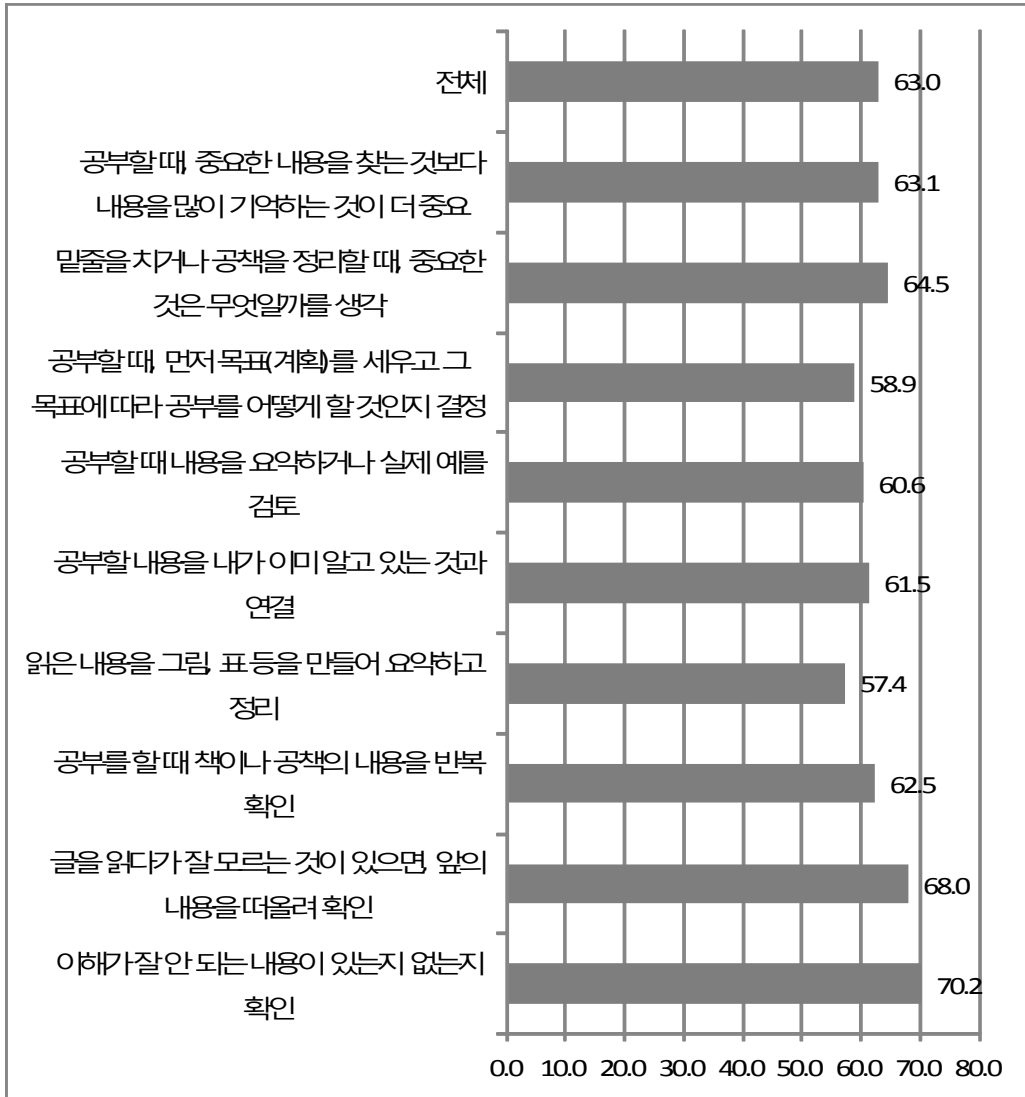
(3) 상위인지력

인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는 상위인지력은 인지적 요소와 그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위인지는 자신의 인지를 다시 인지함을 의미하며, 특정 과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10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여기서는 응답결과를 매우 그렇다는 100점, 보통은 50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으로 환산하여 보았는데, 전체적으로는 63.0점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V-24]. 이에 대해서는 추후 종단적 조사를 통해 변화과정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4.9%+그런 편이다:41.2%)는 응답이 66.1%, ‘보통이다’ 26.4%,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2.6%+그렇지 않은 편이다:4.9%)가 7.5%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70.2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둘째,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앞의 내용을 떠올려 맞춰본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4.0%+그런 편이다:37.3%)는 응답이 61.3%, ‘보통이다’ 28.5%,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3.0%+그렇지 않은 편이다:7.2%)가 10.2%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8.0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셋째, ‘책이나 공책의 내용을 반복하여 읽는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19.9%+그런 편이다:31.7%)는 응답이 51.6%, ‘보통이다’ 31.9%,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4.9%+그렇지 않은 편이다:11.6%)가 16.5%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2.5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그림 IV-24】 상위인지력 항목별 측정(패널 전체 1,000명)

넷째, ‘읽은 내용을 그림, 표 등을 만들어 요약하고 정리’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17.0%+그런 편이다:26.8%)는 응답이 43.8%, ‘보통이다’ 32.1%,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6.9%+그렇지 않은 편이다:17.2%)가 24.1%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57.4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다섯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18.0%+그런 편이다:30.4%)는 응답이 48.4%, ‘보통이다’ 35.8%,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4.5%+그렇지 않은 편이

다:11.3%)가 15.8%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1.5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여섯째, ‘내용을 요약하거나 실제 예들을 들어본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15.8%+그런 편이다:32.1%)는 응답이 47.9%, ‘보통이다’ 35.5%,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4.8%+그렇지 않은 편이다:11.8%)가 16.6%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0.6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일곱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15.8%+그런 편이다:28.7%)는 응답이 44.5%, ‘보통이다’ 35.8%,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5.2%+그렇지 않은 편이다:14.5%)가 19.7%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58.9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여덟째, ‘밑줄을 치거나 공책을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1.3%+그런 편이다:32.4%)는 응답이 53.7%, ‘보통이다’ 32.4%,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3.1%+그렇지 않은 편이다:10.8%)가 13.9%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4.5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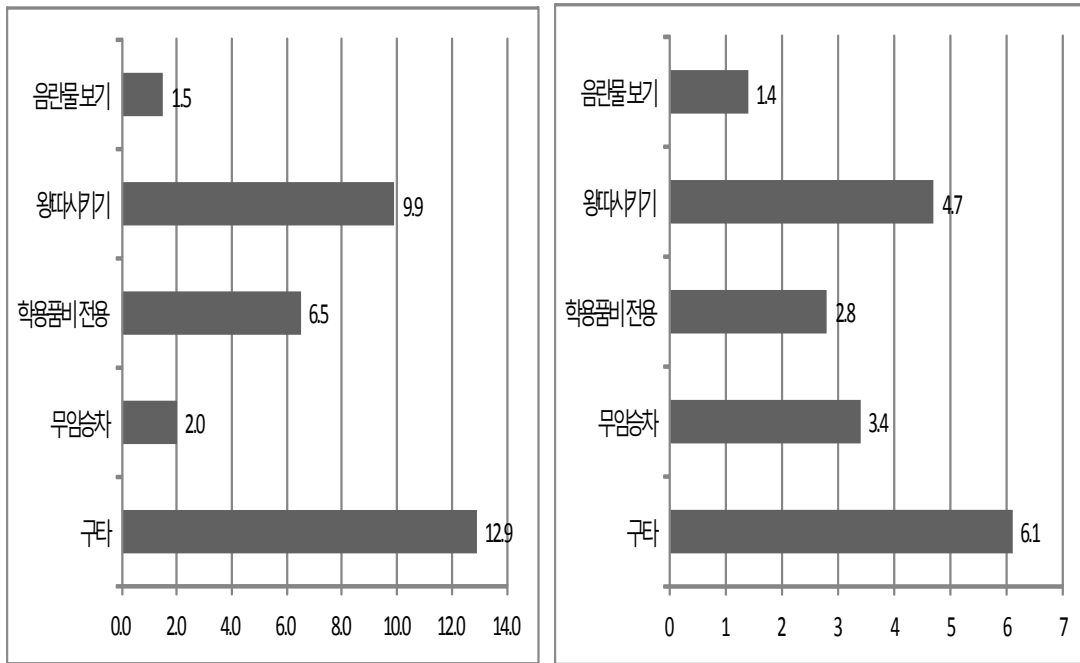
아홉째,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18.5%+그런 편이다:31.6%)는 응답이 50.1%, ‘보통이다’ 37.4%,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3.7%+그렇지 않은 편이다:8.8%)가 12.5%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3.1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상위인지력 전체 평균이 63.0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점수의 수준이 높다거나 낮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종단적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인지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비행 및 폭력피해 경험

(1) 비행경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비행경험을 최근 6개월간 타인에 대한 구타, 무임승차 등으로 나누어 경험여부와 빈도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IV-25]와 같다.



【그림 IV-25】 비행 내용별 경험(%)과 평균빈도(회) (패널 전체 1,000명)

비행경험에 관련된 항목 중 ‘구타경험’은 ‘있다’는 응답이 12.9%, ‘없다’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빈도는 6.1회였다. 구타경험 빈도를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사각지대 이상 8.4회, 기초수급 8.3회로 높게 나타났고, 사각지대 6.1회, 차상위계층 5.7회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의적인 무임승차’는 ‘있다’는 응답이 .2.0%, ‘없다’는 응답이 98.0%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빈도는 3.4회였다. 고의적인 무임승차빈도를 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이 6.5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각지대 5회, 사각지대 이상 2.2회, 차상위계층 2회로 조사되었다. 경제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는 비행인 고의적인 무임승차의 경우 기초수급 아동에게서 높은 빈도로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취약가정의 빈곤이 그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에게 물질적인 제공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족함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아동의 비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용품비 전용’은 ‘있다’는 응답이 6.5%, ‘없다’는 응답이 93.5%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빈도는 2.8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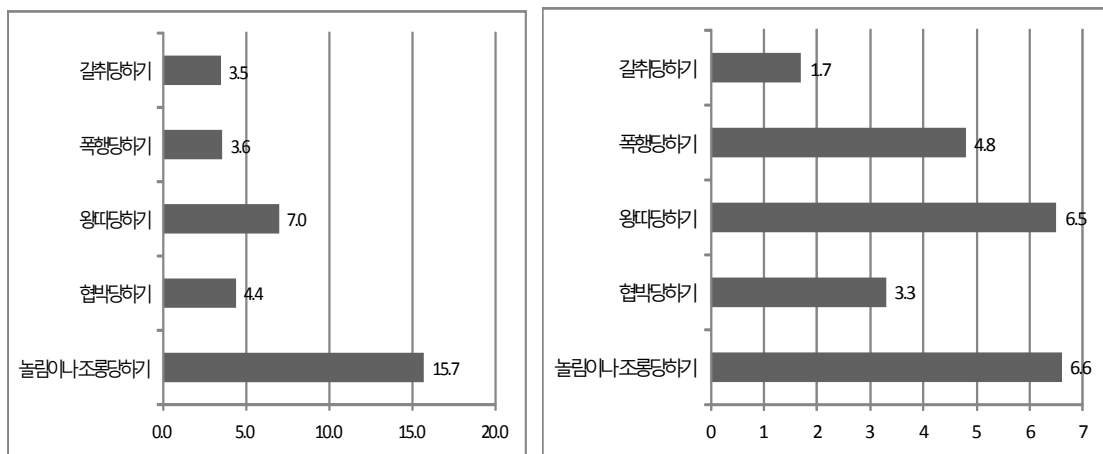
넷째, ‘왕따시키기’는 ‘있다’는 응답이 9.9%, ‘없다’는 응답이 90.1%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빈도는 4.7회였다. 왕따시키기 빈도 항목을 가정경제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기초수급

의 경우 10.1회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그 외에 사각지대 3.1회, 차상위계층 2.6회, 사각지대 이상 2.2회로 2~3회 수준으로 나타났다. 왕따시키기 비행은 기초수급 아동에게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른 집단과 확연히 차이가 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 등 추후 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음란물보기’는 ‘있다’는 응답이 1.5%, ‘없다’는 응답이 98.5%로 나타났다. 비행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빈도는 1.4회였다.

(2) 폭력피해경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을 최근 6개월간 타인에 의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협박당하기 등으로 나누어 경험여부와 빈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IV-26]과 같다.



[그림 IV-26] 폭력피해 내용별 경험(%)과 평균빈도(회) (패널 전체 1,000명)

폭력피해경험에 관련된 항목 중 첫째, ‘놀림이나 조롱’은 ‘있다’는 응답이 15.7%, ‘없다’는 응답이 84.3%로 나타났다.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빈도는 6.6회였다. 놀림이나 조롱 빈도 항목을 가정경제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기초수급계층의 경우 9.5회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차상위계층 6.3회, 사각지대 5.7회, 사각지대 이상 4.7회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협박당하기’는 ‘있다’는 응답이 4.4%, ‘없다’는 응답이 95.6%로 나타났다.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빈도는 3.3회였다. 협박당하기 빈도 항목을 가정경제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기초수급

계층이의 경우 5.4회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사각지대 이상 3.5회, 사각지대 2.8회, 차상위계층 1.9회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왕따 당하기’는 ‘있다’는 응답이 7.0%, ‘없다’는 응답이 93.0%로 나타났다.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빈도는 6.5회였다. 왕따당하기 빈도 항목을 가정경제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차상위계층이 11.6회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사각지대 이상 4.1회, 기초수급 3.8회, 사각지대 1.8회 순이었다.

넷째, ‘폭행 당한 경험’은 ‘있다’는 응답이 3.6%, ‘없다’는 응답이 96.4%로 나타났다.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빈도는 4.8회였다. 폭행 당한 경험 빈도 항목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자는 7.3회, 남자는 3.1회였다. 가정경제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차상위계층이 8.8회로 가장 높았고, 기초수급 4.1회, 사각지대 4회, 사각지대 이상 3회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갈취당한 경험’은 ‘있다’는 응답이 3.5%, ‘없다’는 응답이 96.5%로 나타났다.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빈도는 1.7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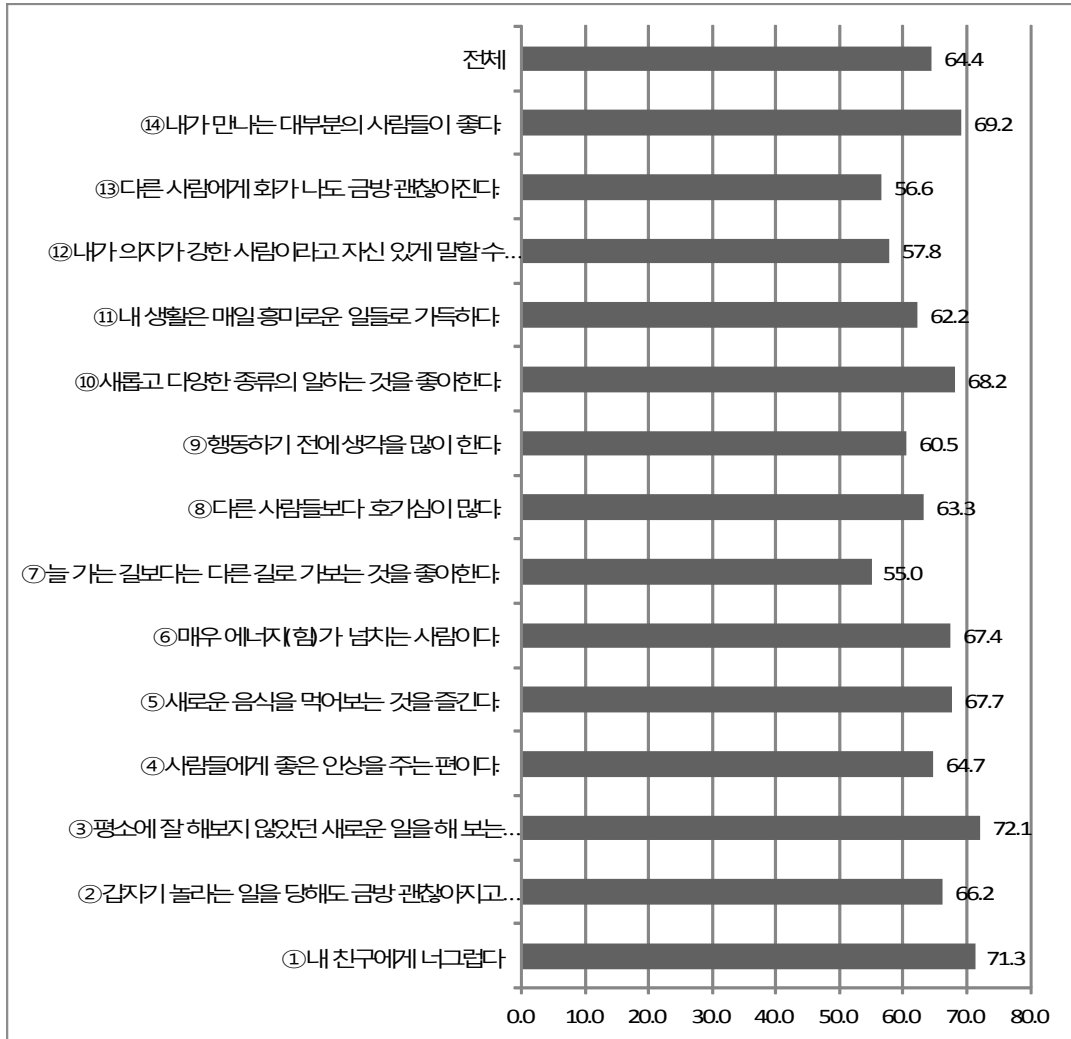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아·가족·사회 인식 및 생활

1)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1) 자아탄력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면한 위험이나 위협을 극복해 내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아탄력성(resilience)의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14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구분하여 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100점 환산점으로 분석한 평균 점수는 64.4이며, 세부적인 결과는 [그림 IV-27]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아동·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양상을 추적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27】 자아탄력성 항목별 측정 (패널 전체 1,000명)

자아인식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28.4%+그런 편이다:59.0%)적 평가가 87.4%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2.0%+그렇지 않은 편:10.6%)적 평가가 12.6%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71.3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둘째,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잘 이겨낸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22.9%+그런 편이다:56.2%)적 평가가 79.1%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3.4%+그렇지 않은 편:17.5%)적 평가가 20.9%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6.2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

점)이었다.

셋째,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39.2%+그런 편이다:40.7%)적 평가가 79.9%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2.8%+그렇지 않은 편:17.3%)적 평가가 20.1%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72.1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넷째,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21.8%+그런 편이다:54.4%)적 평가가 76.2%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3.9%+그렇지 않은 편:19.9%)적 평가가 23.8%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4.7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다섯째, ‘새로운 음식을 즐기는 편이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32.7%+그런 편이다:42.2%)적 평가가 74.9%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4.4%+그렇지 않은 편:20.7%)적 평가가 25.1%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7.7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여섯째,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29.5,4%+그런 편이다:46.8%)적 평가가 76.2%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3.5%+그렇지 않은 편:20.3%)적 평가가 23.8%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7.4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일곱째, ‘같은 장소에 가도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선호한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21.0%+그런 편이다:34.7%)적 평가가 55.7%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11.7%+그렇지 않은 편:32.6%)적 평가가 44.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55.0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여덟째, ‘호기심이 많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26.2%+그런 편이다:42.4%)적 평가가 68.6%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5.0%+그렇지 않은 편:26.4%)적 평가가 31.4%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3.3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아홉째,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20.2%+그런 편이다:46.6%)적 평가가 66.8%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5.4%+그렇지 않은 편:27.8%)적 평가가 33.2%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0.5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열번째,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33.1%+그런 편이다:42.4%)적 평가가 75.5%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4.0%+그렇지 않은 편:20.5%)적 평가가 24.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8.2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열한번째, ‘매우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23.4%+그런 편이다:43.9%)적 평가가 67.3%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4.2%+그렇지 않은 편:28.5%)적 평가가 32.7%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2.2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열두번째,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18.7%+그런 편이다:44.2%)적 평가가 62.9%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8.1%+그렇지 않은 편:29.0%)적 평가가 37.1%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57.8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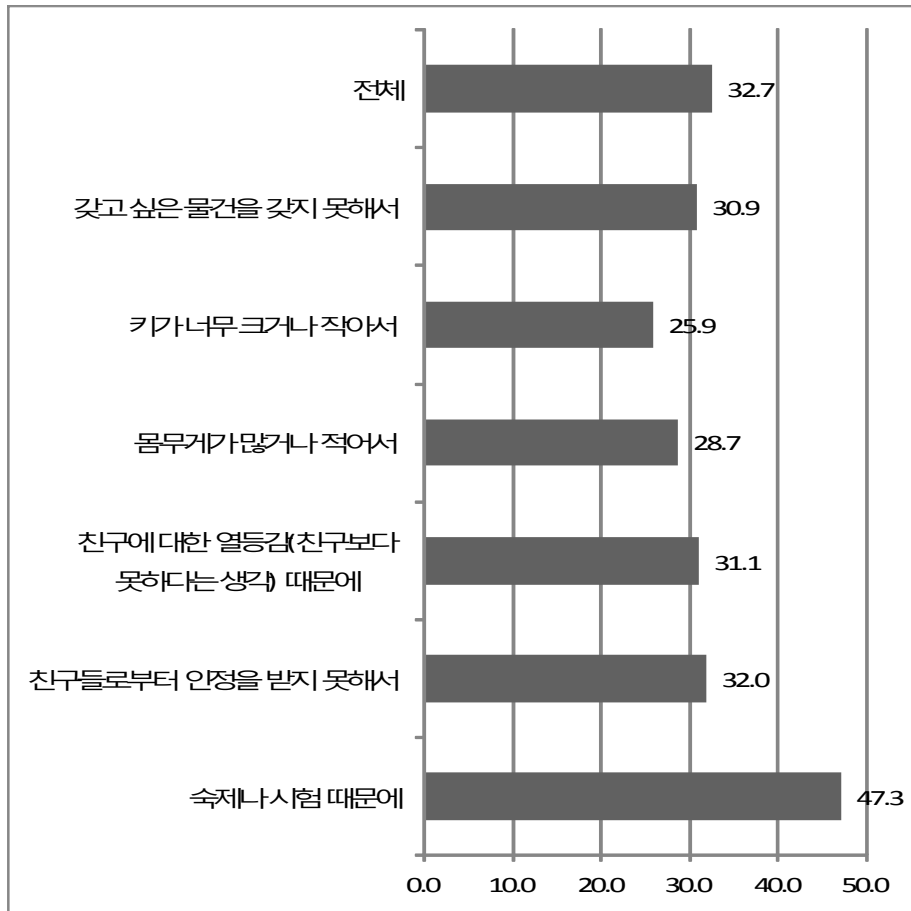
열세번째,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17.0%+그런 편이다:45.1%)적 평가가 62.1%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9.4%+그렇지 않은 편:28.5%)적 평가가 37.9%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56.6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열네번째,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의 경우, 긍정(매우 그렇다:31.0%+그런 편이다:49.6%)적 평가가 80.6%로 많았고,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4.0%+그렇지 않은 편:15.4%)적 평가가 19.4%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9.2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2)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스트레스 요인 관련과 관련된 6개의 항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자주 그렇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고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고, 그 결과를 100점 환산한 평균점수(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는 [그림 IV-28]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요인 숙제나 시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수치가 유일하게 평균수준을 넘어섰으며,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은 사교육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량의 과중에 의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학업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학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IV-28】 스트레스 항목별 측정 (패널 전체 1,000명)

스트레스 요인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 ‘숙제나 시험 때문에’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매우 그렇다:12.2%+자주 그렇다:19.3%)이라는 응답이 31.5%였고, 보통이 32.0%,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라는(전혀 그렇지 않다:17.9%+거의 그렇지 않다:18.6%) 응답이 36.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47.3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둘째,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매우 그렇다:5.0%+자주 그렇다:11.0%) 응답이 16.0%였고, 보통이 25.8%,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라는(전혀 그렇지 않다:34.8%+거의 그렇지 않다:23.4%) 응답이 58.2%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32.0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셋째,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매우 그렇다:5.9%+자주 그렇다:9.5%)이

라는 응답이 15.4%였고, 보통이 23.7%,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라는(전혀 그렇지 않다:36.0%+거의 그렇지 않다:24.9%) 응답이 60.9%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31.1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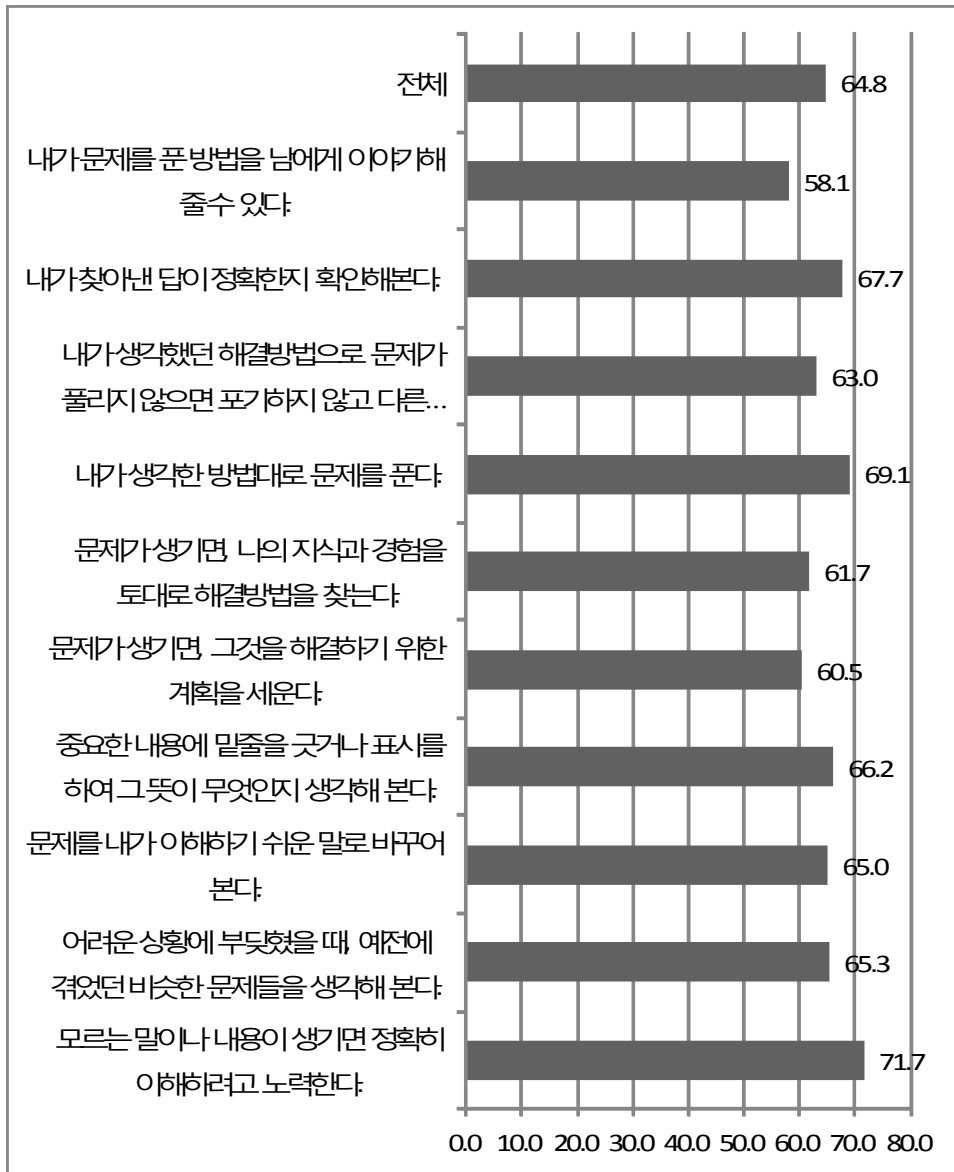
넷째,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매우 그렇다:6.4%+자주 그렇다:8.9%) 응답이 15.3%였고, 보통이 20.9%,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라는(전혀 그렇지 않다:43.1%+거의 그렇지 않다:20.7%) 응답이 63.8%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28.7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다섯째,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매우 그렇다5.5%+자주 그렇다:7.0%) 응답이 12.5%였고, 보통이 19.8%,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라는(전혀 그렇지 않다:46.7%+거의 그렇지 않다:21.0%) 응답이 67.7%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25.9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스트레스 요인 중 키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100점 환산점수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는 23점, 여자는 28.5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매우 그렇다7.3%+자주 그렇다:10.7%) 응답이 18.0%였고, 보통이 20.2%,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라는(전혀 그렇지 않다:39.8%+거의 그렇지 않다:22.0%) 응답이 61.8%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30.9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2) 문제해결능력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은 다양한 문제상황을 당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를 분석하고 자신이 지닌 지식과 책략들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10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 점수는 64.8점이었다[그림 IV-29].



【그림 IV-29】 문제해결능력 항목별 측정 (패널 전체 1,000명)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항목 중 첫째, ‘모르는 말이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7.5%+그런 편이다:39.3%)는 응답이 66.8%, ‘보통이다’ 27.6%,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1.9%+그렇지 않은 편이다:3.7%)가 5.6%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71.7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둘째, ‘어려운 상황 직면 시 예전에 겪었던 비슷한 문제를 상기’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0.2%+그런 편이다:36.6%)는 응답이 56.8%, ‘보통이다’ 32.1%,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4.7%+그렇지 않은 편이다:6.4%)가 11.1%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5.3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셋째,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변환 시도’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1.5%+그런 편이다:34.8%)는 응답이 56.3%, ‘보통이다’ 30.4%,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4.5%+그렇지 않은 편이다:8.8%)가 13.3%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5.0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넷째, ‘중요한 구절에 밑줄이나 표시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5.1%+그런 편이다:31.7%)는 응답이 56.8%, ‘보통이다’ 29.9%,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3.8%+그렇지 않은 편이다:9.5%)가 13.3%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6.2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다섯째, ‘문제발생 시 해결하기 위한 계획수립’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17.4%+그런 편이다:30.3%)는 응답이 47.7%, ‘보통이다’ 34.7%,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5.6%+그렇지 않은 편이다:12.0%)가 17.6%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0.5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여섯째, ‘문제발생 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결방법 모색’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17.2%+그런 편이다:31.8%)는 응답이 49.0%, ‘보통이다’ 35.6%,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3.9%+그렇지 않은 편이다:11.5%)가 15.4%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1.7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일곱째, ‘계획한 해결방법대로 문제 해결’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6.8%+그런 편이다:35.5%)는 응답이 62.3%, ‘보통이다’ 28.5%,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3.3%+그렇지 않은 편이다:5.9%)가 9.2%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9.1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여덟째, ‘계획했던 해결방법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 노력’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19.9%+그런 편이다:29.9%)는 응답이 49.8%, ‘보통이다’ 36.4%,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3.7%+그렇지 않은 편이다:10.1%)가 13.8%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3.0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아홉째, ‘내가 찾아낸 답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4.0%+그런 편이

다:36.1%)는 응답이 60.1%, ‘보통이다’ 29.4%,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2.9%+그렇지 않은 편이다:7.6%)가 10.5%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67.7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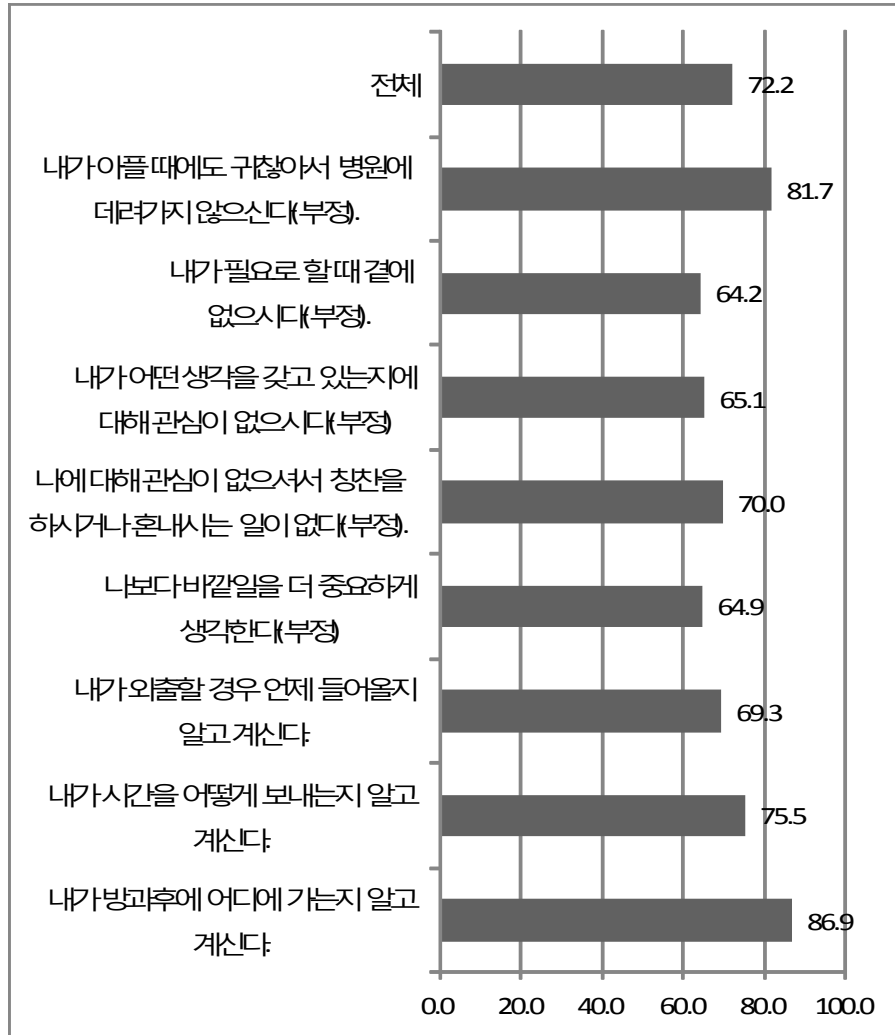
열 번째,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항목 중 ‘문제해결방법을 남에게 설명 가능’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18.0%+그런 편이다:28.2%)는 응답이 46.2%, ‘보통이다’ 30.9%,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8.9%+그렇지 않은 편이다:14.0%)가 22.9%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환산 평균 점수는 58.1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문제해결방법을 남에게 설명가능한가에 대한 항목의 100점 환산점수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는 55.3점, 여자는 60.6점으로 나타났다.

3) 가족에 대한 인식과 생활

(1)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패널 전체 837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8개 항목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으며, 100점 환산한 전체 평균점수는 72.2점이었다[그림 IV-30].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대부분은 방과 후 생활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방과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V-30】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패넬 전체 837명)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 ‘내가 방과 후에 어디가는지 알고 계신다’의 경우, 긍정인식(매우 그렇다:68.0%+그런 편이다:26.8%)이 94.7%로 대부분이었고, 부정 인식(전혀 그렇지 않다:1.9%+그렇지 않은 편이다:3.3%)이 5.3%로 나타났으며,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86.9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100점 환산점수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는 84.5점, 여자는 89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둘째,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의 경우, 긍정인식(매우 그렇다:44.2%+그런 편이다:41.9%)이 86.1%로 대부분이었고, 부정인식(전혀 그렇지 않다:3.7%+그렇지 않은 편이다:10.2%)이 13.9%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75.5점(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는 72.2점, 여자는 78.4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셋째,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의 경우, 긍정인식(매우 그렇다:38.5%+그런 편이다:37.2%)이 75.6%로 대부분이었고, 부정인식(전혀 그렇지 않다:6.2%+그렇지 않은 편이다:18.2%)이 24.4%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9.3점(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이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는 64.3점, 여자는 73.4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넷째,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의 경우, 부정인식(매우 그렇다:9.3%+그런 편이다:18.2%)이 27.5%이었고, 긍정인식(전혀 그렇지 않다:42.9%+그렇지 않은 편이다:29.6%)이 72.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4.9점(전혀 그렇지 않다:100점-매우 그렇다:0점)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칭찬이나 혼내지 않는다’의 경우, 부정인식(매우 그렇다:6.2%+그런 편이다:16.1%)이 22.3%이었고, 긍정인식(전혀 그렇지 않다:50.1%+그렇지 않은 편이다:27.6%)이 77.7%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70.0점(전혀 그렇지 않다:100점-매우 그렇다:0점)이었다.

다섯째,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없다’의 경우, 부정인식(매우 그렇다:7.9%+그런 편이다:19.1%)이 27.0%이었고, 긍정인식(전혀 그렇지 않다:42.1%+그렇지 않은 편이다:30.9%)이 73.0%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5.1점(전혀 그렇지 않다:100점-매우 그렇다:0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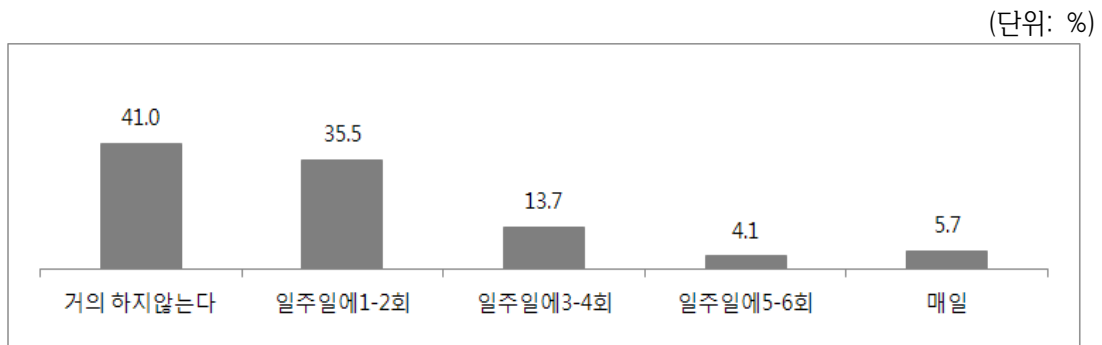
일곱째,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다’의 경우, 부정인식(매우 그렇다:6.8%+그런 편이다:18.6%)이 25.4%이었고, 긍정인식(전혀 그렇지 않다:40.4%+그렇지 않은 편이다:34.2%)이 74.6%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64.2점(전혀 그렇지 않다:100점-매우 그렇다:0점)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은 편이었다.

여덟째, 내가 아파도 귀찮아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의 경우, 부정인식(매우 그렇다:3.1%+자주 그렇다:8.0%)이 11.1%이었고, 긍정평가(전혀 그렇지 않다:70.1%+거의 그렇지 않다:18.8%)가 88.9%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는 81.7점(전혀 그렇지 않다:100점-매우 그렇다:0점)으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2) 부모님과과의 생활

①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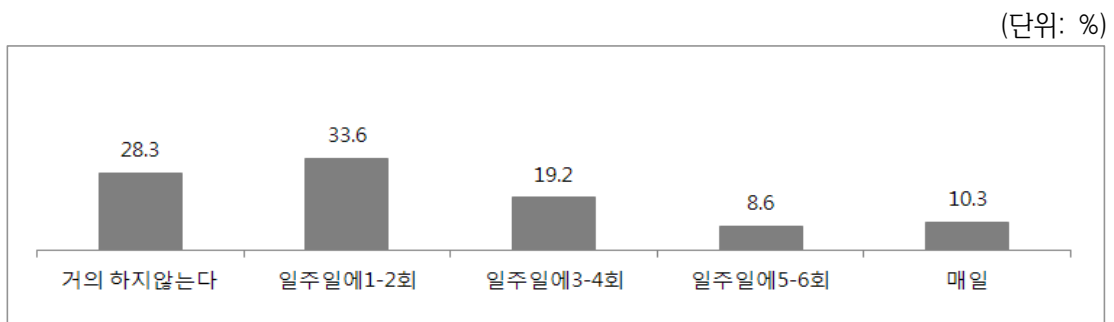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의 경우, 거의 하지 않는다가 41.0%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2회가 35.5%, 일주일에 3-4회가 13.6%로 나타나, 부모님과의 고민에 대한 대화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그림 IV-31].



【그림 IV-31】 부모와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패널 전체 837명)

②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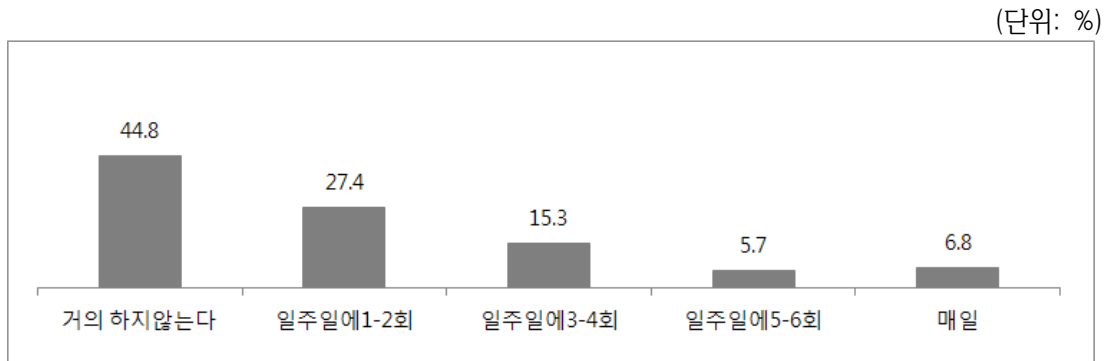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의 경우, 일주일에 1-2회가 33.6%로 가장 많았고, 거의 하지 않는다가 28.3%, 일주일에 3-4회가 19.2%로 나타나 부모님과의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가 고민에 대한 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32].



【그림 IV-32】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패널 전체 837명)

③ 책, TV, 영화에 관한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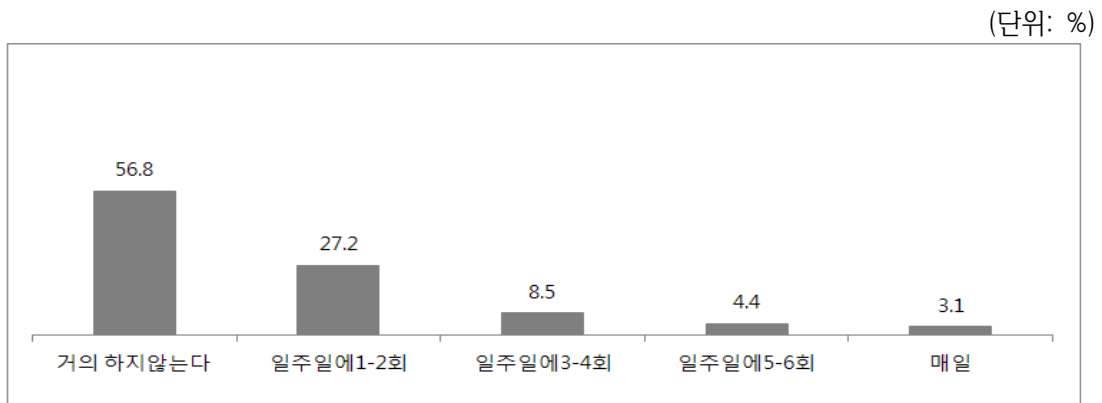
‘책, TV, 영화에 관한 대화’의 경우, 거의 하지 않는다가 44.8%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2회가 27.4%, 일주일에 3-4회가 15.3%로 나타나 부모님과 대충 문화관련 관심을 공유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V-33].



【그림 IV-33】 책, TV, 영화에 관한 대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패널 전체 837명)

④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의 경우, 거의 하지 않는다가 56.8%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2회가 27.2%, 일주일에 3-4회가 8.5%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부모님과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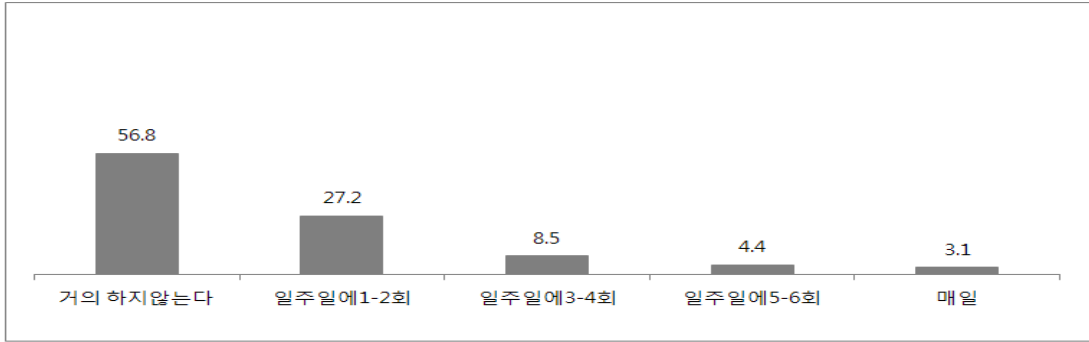


【그림 IV-34】 부모와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빈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패널 전체 837명)

⑤ 함께 여가활동

‘함께 여가활동’의 경우, 거의 하지 않는다가 56.8%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2회가 27.2%, 일주일에 3-4회가 8.5%로 나타나 부모님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기회가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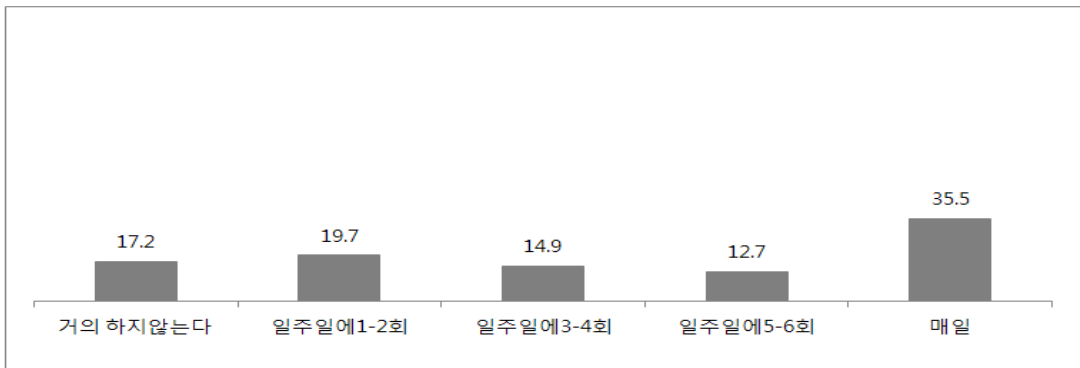


【그림 IV-35】 부모와 여가 활동 빈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패널 전체 837명)

⑥ 부모와 함께 저녁식사

‘함께 저녁식사’의 경우, 매일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2회가 19.7%, 일주일에 3-4회가 14.9%로 나타나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주 5회 이상 자주한다는 응답자도 48.2%로 많지만, 주 2회 이하로 거의 함께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36.9%에 달해, 상반되는 답변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IV-3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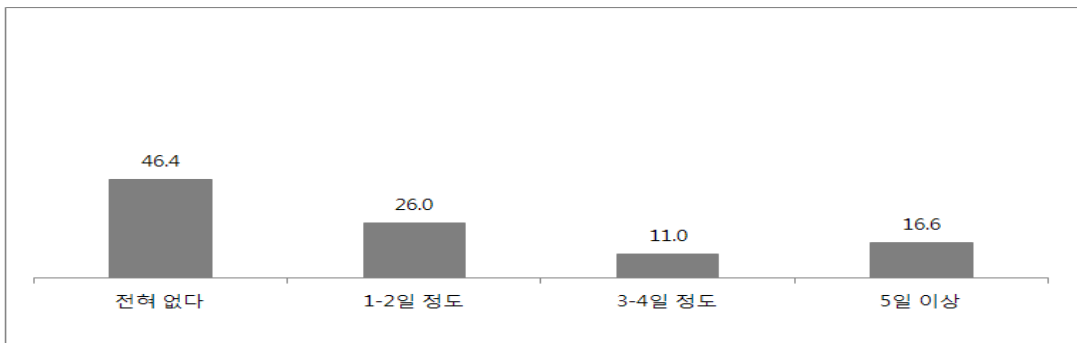


【그림 IV-36】 부모와 저녁식사 빈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패널 전체 837명)

⑦ 주당 귀가 후 부모님(어른) 없이 지내는 경우 빈도

일주일을 기준으로 귀가 후 부모님(어른)이 없이 지내는 빈도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46.4%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지만, 5일 이상이라는 응답도 16.6%로 나타나, 부모님 또는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있었다[그림 IV-3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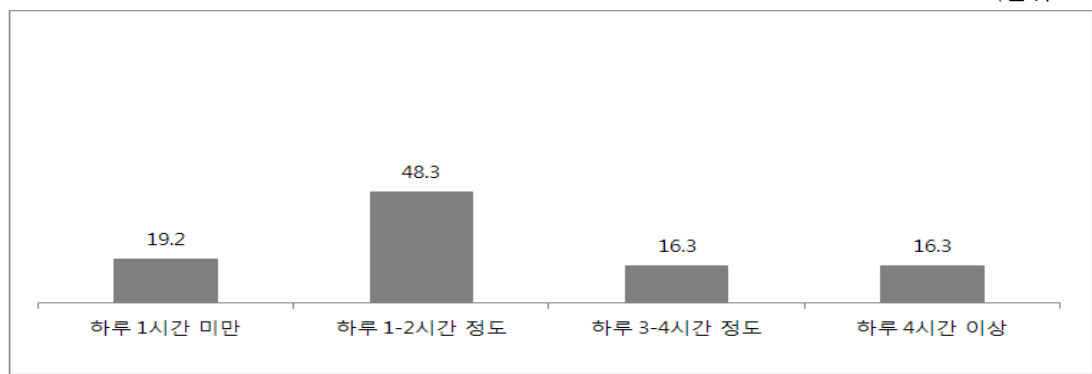


【그림 IV-37】 주당 귀가 후 부모님(어른) 없이 지내는 빈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패널 전체 837명)

⑧ 일일 귀가 후 부모님(어른) 없이 지내는 평균시간

귀가 후 부모님(어른)없이 지내는 평균시간은 일일 기준 1-2시간이라는 응답이 48.3%로 대부분이었 고, 하루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19.2%, 하루 3-4시간이라는 응답이 16.3%, 하루 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16.3%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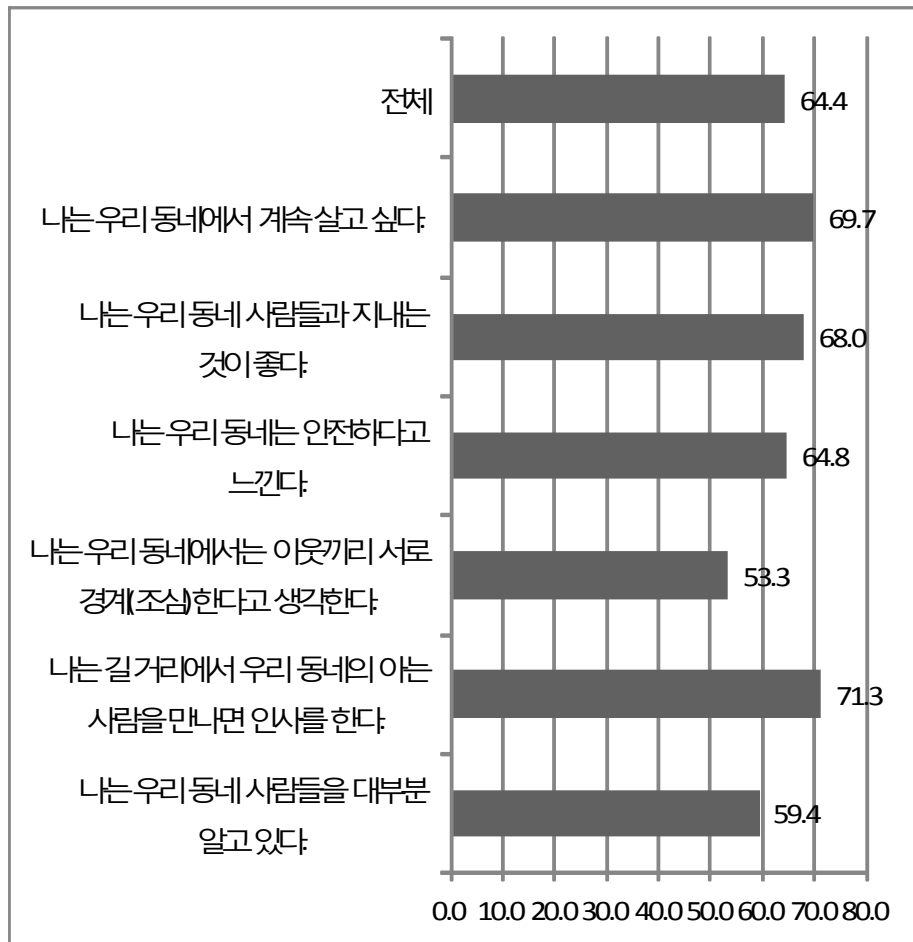


【그림 IV-38】 일일 귀가 후 부모님(어른) 없이 지내는 평균시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패널 전체 837명)

4) 지역사회와 공동체 인식

(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6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 점수는 64.4점으로 나타났다[그림 IV-39].



【그림 IV-39】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패널 전체 1,000명)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항목으로 첫째, ‘우리 동네 사람을 대부분 알고 있다’의 경우, 그렇다는 의견이 64.4%(매우 그렇다:24.2%+그런 편이다:40.2%),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10.5%+그렇지 않은 편이다:25.1%)가 35.6%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59.4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둘째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의 경우, 그렇다는 의견이 81.9%(매우 그렇다:36.9%+그런 편이다:45.0%),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4.8%+그렇지 않은 편이다:13.3%)가 18.1%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1.3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셋째, ‘이웃끼리 경계해야 한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14.2%+그런 편이다:31.3%)는 의견이 45.5%,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21.4%+그렇지 않은 편이다:33.1%)가 54.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53.3점이었다(전혀 그렇지 않다:100점-매우 그렇다: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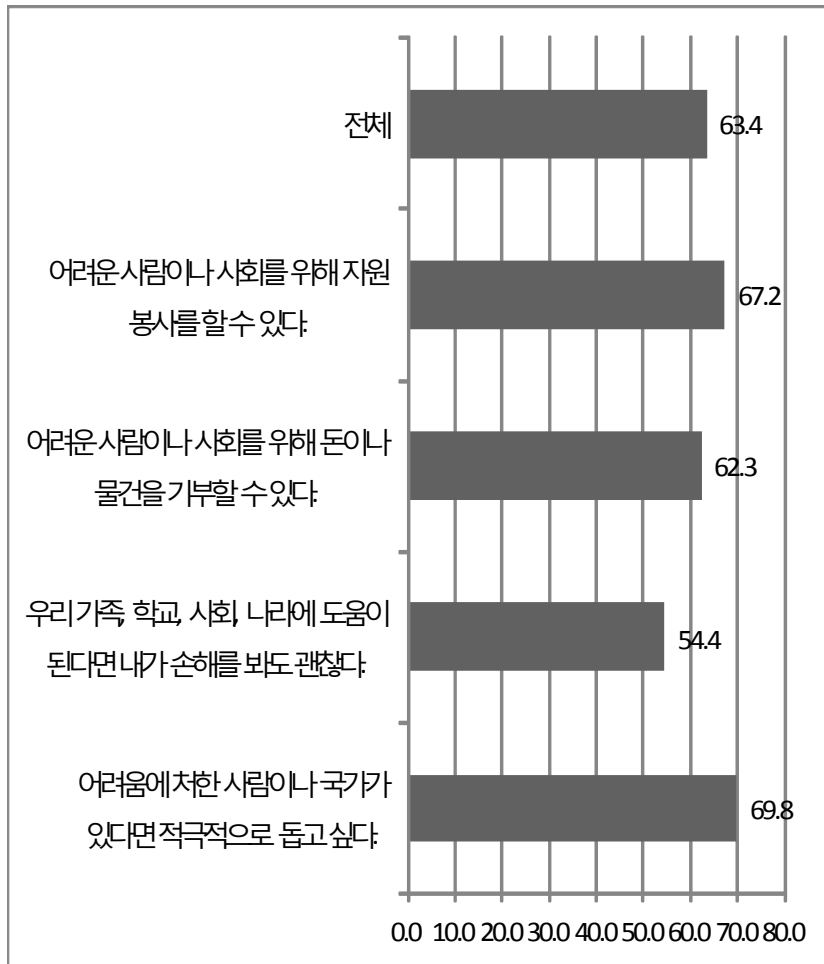
넷째,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7.2%+그런 편이다:46.9%)는 의견이 74.1%,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7.0%+그렇지 않은 편이다:18.9%)가 25.9%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4.8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다섯째,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31.9%+그런 편이다:44.7%)는 의견이 76.7%,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4.4%+그렇지 않은 편이다:19.0%)가 23.4%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8.0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여섯째,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35.5%+그런 편이다:43.8%)는 의견이 79.3%,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5.7%+그렇지 않은 편이다:15.0%)가 20.7%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9.7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2) 공동체 인식

국가와 사회 등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4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고, 그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 점수는 63.4점으로 나타났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그림 IV-40].



【그림 IV-40】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인식 (패널 전체 1,000명)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항목으로 첫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국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30.3%+그런 편이다:52.2%)는 의견이 82.5%,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3.5%+그렇지 않은 편이다:14.1%)가 17.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9.8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둘째,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17.3%+그런 편이다:41.7%)는 의견이 59.0%,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13.0%+그렇지 않은 편이다:28.0%)가 41.0%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54.4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셋째, ‘돈이나 물건을 기부할 수 있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2.8%+그런 편이다:47.0%)는 의견이 69.8%,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5.7%+그렇지 않은 편이다:24.5%)가 30.2%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2.3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넷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8.0%+그런 편이다:50.0%)는 의견이 78.0%,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4.5%+그렇지 않은 편이다:17.5%)가 22.0%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7.2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는 63.1점, 여자는 70.3점으로 여자가 더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5) 일상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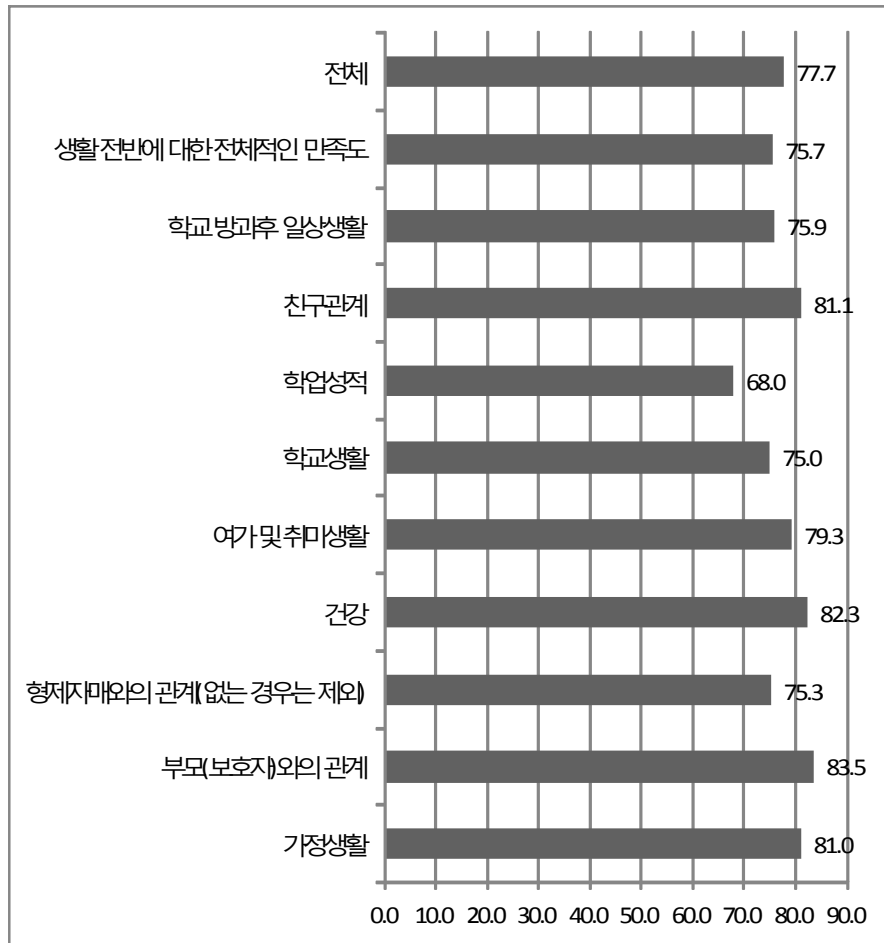
일상적 삶에 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생활, 건강과 여가, 학교와 교우관계, 방과후 일상생활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불만족하는 편, 매우 불만족하는 편으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 점수는 77.7점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100점-보통50-매우 불만족:0점)[그림 IV-41].

이러한 다양한 인식이나 만족도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의 효과가 주로 가정생활이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반면에, 학업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1) 가정생활 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패널 전체 837명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조사한 경우, 만족(매우 만족:44.9%+만족하는 편:37.6%)한다는 의견이 82.6%, 보통이 14.7%, 불만족(매우 불만족:0.8%+불만족하는 편:1.9%)이 2.7%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81.0점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100점-보통50-매우 불만족:0점).

또한 ‘보호자와의 관계’의 경우, 만족(매우 만족:54.5%+만족하는 편:27.7%)한다는 의견이 82.2%, 보통이 15.4%, 불만족(매우 불만족:0.4%+불만족하는 편:2.0%)이 2.4%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100점-보통50-매우 불만족:0점).



【그림 IV-41】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세 번째, 형제와 자매 관계의 경우, 만족(매우 만족:33.3%+만족하는 편:31.2%)한다는 의견이 64.5%, 보통이 20.4%, 불만족(매우 불만족:1.1%+불만족하는 편:4.3%)이 5.4%로 나타났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도 9.7%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5.3점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100점-보통50-매우 불만족:0점, 해당없음은 제외).

(2) 건강과 여가활동 만족도

전체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항목으로는 ‘건강’의 경우, 만족(매우 만족:49.9%+만족하는 편:32.6%)한다는 의견이 82.5%, 보통이 14.7%, 불만족(매우

불만족:0.4%+불만족하는 편:2.4%)하는 경우는 2.8%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82.3점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100점-보통50-매우 불만족:0점).

둘째, ‘여가생활’의 경우, 만족(매우 만족:45.9%+만족하는 편:30.8%)한다는 의견이 76.7%, 보통이 19.1%, 불만족(매우 불만족:1.0%+불만족하는 편:3.2%)하는 경우는 4.2%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9.3점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100점-보통50-매우 불만족:0점).

(3) 학교와 교우관계 만족도

‘학교생활’의 경우, 만족(매우 만족:36.2%+만족하는 편:35.6%)한다는 의견이 71.8%, 보통이 22.0%, 불만족(매우 불만족:2.0%+불만족하는 편:4.2%)하는 경우가 6.2%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5.0점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100점-보통50-매우 불만족:0점).

둘째, ‘학업성적’의 경우, 만족(매우 만족:18.2%+만족하는 편:56.4%)하는 의견이 74.6%, 보통이 8.9%, 불만족(매우 불만족:4.3%+불만족하는 편:12.2%)하는 경우가 16.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8.0점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100점-보통50-매우 불만족:0점).

셋째, ‘친구관계’의 경우, 만족(매우 만족:47.3%+만족하는 편:33.4%)한다는 의견이 80.7%, 보통이 16.5%, 불만족(매우 불만족:0.9%+불만족하는 편:1.9%)하는 경우가 2.8%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81.1점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100점-보통50-매우 불만족:0점).

넷째, ‘학교 방과 후 일상생활’의 경우, 만족(매우 만족:36.6%+만족하는 편:35.9%)한다는 의견이 72.5%, 보통이 23.0%, 불만족(매우 불만족:1.1%+불만족하는 편:3.4%)하는 경우는 4.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5.9점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100점-보통50-매우 불만족: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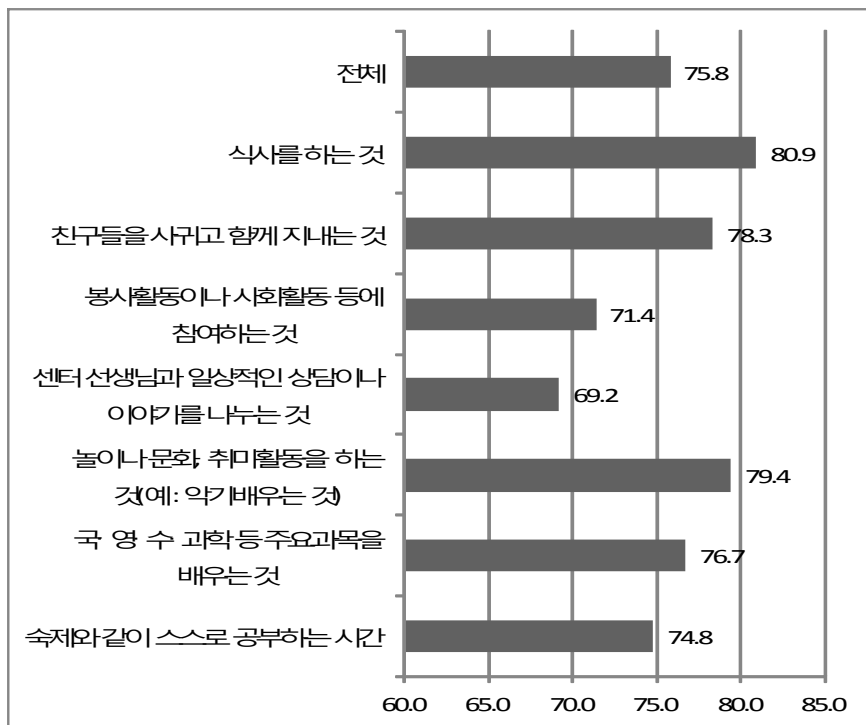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경우, 만족(매우 만족:34.6%+만족하는 편:38.0%)한다는 의견이 72.6%, 보통이 23.9%, 불만족(매우 불만족:1.0%+불만족하는 편:2.5%)의 경우는 3.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5.7점으로 나타났다(매우 만족:100점-보통50-매우 불만족:0점).

4. 시설 및 서비스 이용

1) 시설 및 서비스의 도움에 대한 인식

전체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면서 학습이나 일상생활에 얻는 도움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각 항목별로 매우 도움이 되는 편, 도움이 되는 편, 보통이다, 도움이 되는 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를 100점 환산한 전체 평균 점수는 75.8점이었다(매우 도움:100점-보통:50점-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0점)[그림 IV-42].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이 식사(80.9점), 놀이나 취미활동(79.4점), 친구 사귀는 것(78.3점), 주요과목 공부(76.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받은 항목은 일상적인 상담(69.2점)이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중요한 기능인 식사제공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상담기능의 보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42】 서비스 도움에 대한 인식 (패널 전체 1,000명)

(1) 학습관련 도움정도

학습관련 도움정도 항목 중 ‘숙제, 자습시간’ 경우, 도움됨(매우 도움:31.9%+도움이 되는 편:40.3%)이라는 응답이 72.2%, 보통이라는 응답이 24.4%, 도움 안됨(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1.6%+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1.8%)이라는 응답이 3.4%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4.8점이었다(매우 도움:100점-보통:50점-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0점). 학습관련 도움정도 중 숙제 및 자습에 대한 항목의 100점 환산점수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는 71.7점, 여자는 77.5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과목 학습’의 경우, 도움됨(매우 도움:37.5%+도움이 되는 편:34.6%)이라는 응답이 72.1%, 보통이라는 응답이 24.0%, 도움 안됨(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1.1%+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1.7%)이라는 응답이 2.8%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6.7점이었다(매우 도움:100점-보통:50점-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0점, 해보지 않았음 제외). 학습관련 도움정도 중 주요과목 학습에 대한 항목의 100점 환산점수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는 73.9점, 여자는 79.3점으로 나타났다.

(2) 일상생활 도움정도

이용시설의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항목 중 첫째, ‘놀이, 문화, 취미활동’의 경우, 도움됨(매우 도움:43.2%+도움이 되는 편:33.1%)이라는 응답이 76.3%, 보통이라는 응답이 19.6%, 도움 안됨(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1.8%+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0.9%)이라는 응답이 2.7%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9.4점이었다(매우 도움:100점-보통:50점-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0점, 해보지 않았음 제외).

둘째, ‘상담 및 일상대화’의 경우, 도움됨(매우 도움:27.2%+도움이 되는 편:32.8%)이라는 응답이 60.0%, 보통이라는 응답이 32.4%, 도움 안됨(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2.8%+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4.8%)이라는 응답이 7.6%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9.2점이었다(매우 도움:100점-보통:50점-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0점). 상담 및 일상 대화에 대한 항목의 100점 환산점수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는 66.4점, 여자는 71.7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참여’의 경우, 도움됨(매우 도움:26.7%+도움이 되는 편:29.0%)이라는 응답이 55.7%, 보통이라는 응답이 24.3%, 도움 안됨(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1.9%+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4.5%)이라는 응답이 6.4%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1.4점이었다(매우 도움:100점-보통:50점-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0점, 해보지 않았음 제외).

넷째 ‘친구들을 사귀는 것’의 경우, 도움됨(매우 도움:44.3%+도움이 되는 편:31.8%)이라는 응답이 76.1%, 보통이라는 응답이 18.7%, 도움 안됨(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2.1%+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3.1%)이라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8.3점이었다(매우 도움:100점-보통:50점-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0점).

마지막으로 ‘식사’의 경우, 도움됨(매우 도움:46.8%+도움이 되는 편:32.0%)이라는 응답이 78.8%, 보통이라는 응답이 18.2%, 도움 안됨(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0.7%+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1.6%)이라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80.9점이었다(매우 도움:100점-보통:50점-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0점, 해보지 않았음 제외).

2) 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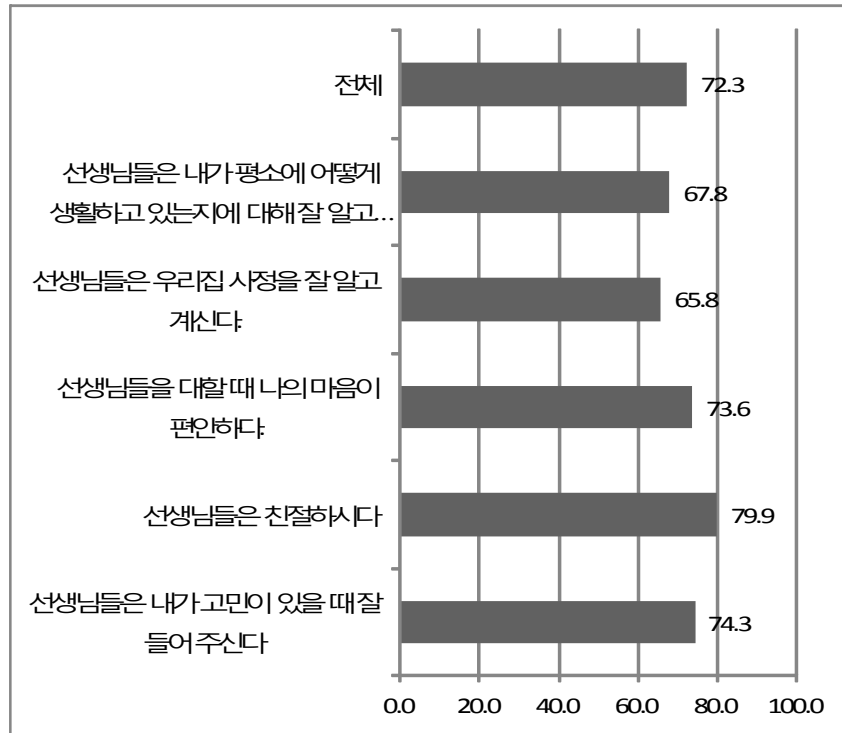
(1) 종사자 만족도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72.3점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친절도(79.9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에 개인적인 집안 사정에 대한 인지도(65.8점)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검토한 서비스 만족도 중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설에서 종사자 1인당 아동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아동 개개인에 대한 개별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나타낸다[그림 IV-43].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 관련 항목 중 ‘선생님들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35.7%+그런 편이다:34.5%)라는 응답이 70.2%,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3.5%,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2.3%+그렇지 않은 편이다:4.0%)라는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4.3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지도자만족도 중 선생님들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는 항목의 100점 환산점수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는 71.6점, 여자는 76.8점으로 나타났다[그림 IV-43].

둘째, ‘선생님들은 항상 친절하시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45.8%+그런 편이다:32.7%)라는 응답이 78.5%, 보통이라는 응답이 17.8%,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1.0%+그렇지 않은 편이다:2.7%)라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9.9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

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그림 IV-43】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 (패널 전체 1,000명)

셋째, ‘선생님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35.8%+그런 편이다:32.2%)라는 응답이 68.0%, 보통이라는 응답이 24.5%,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7%+그렇지 않은 편이다:5.8%)라는 응답이 7.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3.6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지도자 만족도 중 선생님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는 항목의 100점 환산점수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는 70.4점, 여자는 76.5점으로 나타나 여자가 상대적으로 선생님들을 더 편안하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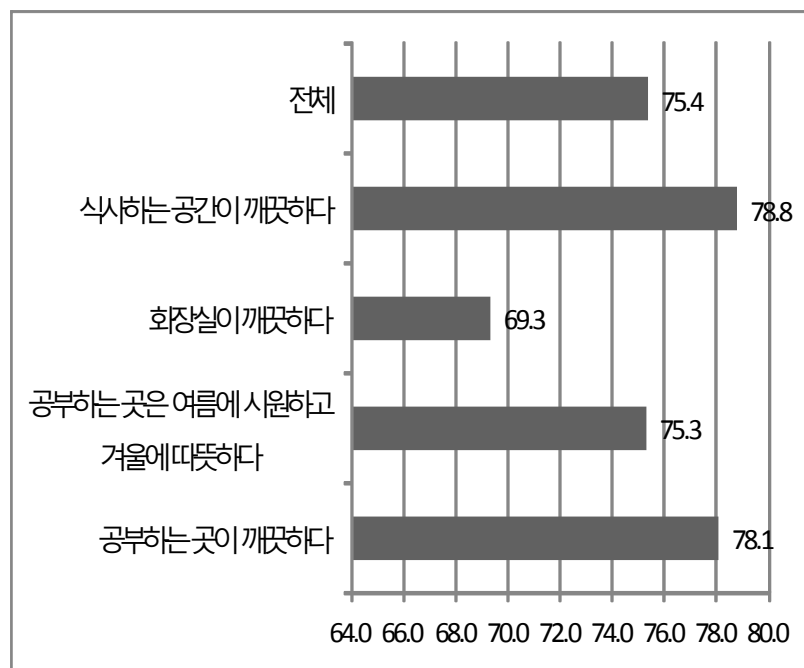
넷째, ‘선생님들은 우리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5.8%+그런 편이다:31.2%)라는 응답이 57.0%, 보통이라는 응답이 28.3%,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5.1%+그렇지 않은 편이다:9.6%)라는 응답이 14.7%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5.8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이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는 62.9점, 여자는 68.3점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선생님들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28.9%+그런 편이다:29.1%)라는 응답이 58.0%, 보통이라는 응답이 30.1%, 도움 안됨(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4.0%+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7.9%)라는 응답이 11.9%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7.8점이었다(매우 도움:100점-보통:50점-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0점). 이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는 65.1점, 여자는 70.1점으로 나타났다.

(2) 시설환경 만족도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는 75.4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그림 IV-44]. 식사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78.8점) 나타났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화장실(69.3점)이었다. 이는 위생이나 청결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44】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 (패널 전체 1,000명)

시설환경만족도 관련 항목 중 첫째, '학습공간의 청결성'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40.1%+그런 편이다:37.0%)라는 응답이 77.1%, 보통이라는 응답이 19.6%,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5%+그렇지 않은 편이다:1.8%)라는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8.1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둘째, ‘학습공간의 적절한 온도유지’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39.1%+그런 편이다:33.7%)라는 응답이 72.8%, 보통이라는 응답이 19.4%,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2.7%+그렇지 않은 편이다:5.1%)라는 응답이 7.8%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5.3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셋째, ‘화장실의 청결성’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31.6%+그런 편이다:29.4%)라는 응답이 61.0%, 보통이라는 응답이 26.9%,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3.5%+그렇지 않은 편이다:8.6%)라는 응답이 12.1%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9.3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넷째, ‘식사공간의 청결성’의 경우, 그렇다(매우 그렇다:42.6%+그런 편이다:34.3%)라는 응답이 76.9%, 보통이라는 응답이 19.6%,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0.9%+그렇지 않은 편이다:2.6%)라는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8.8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3) 서비스에 따른 생활변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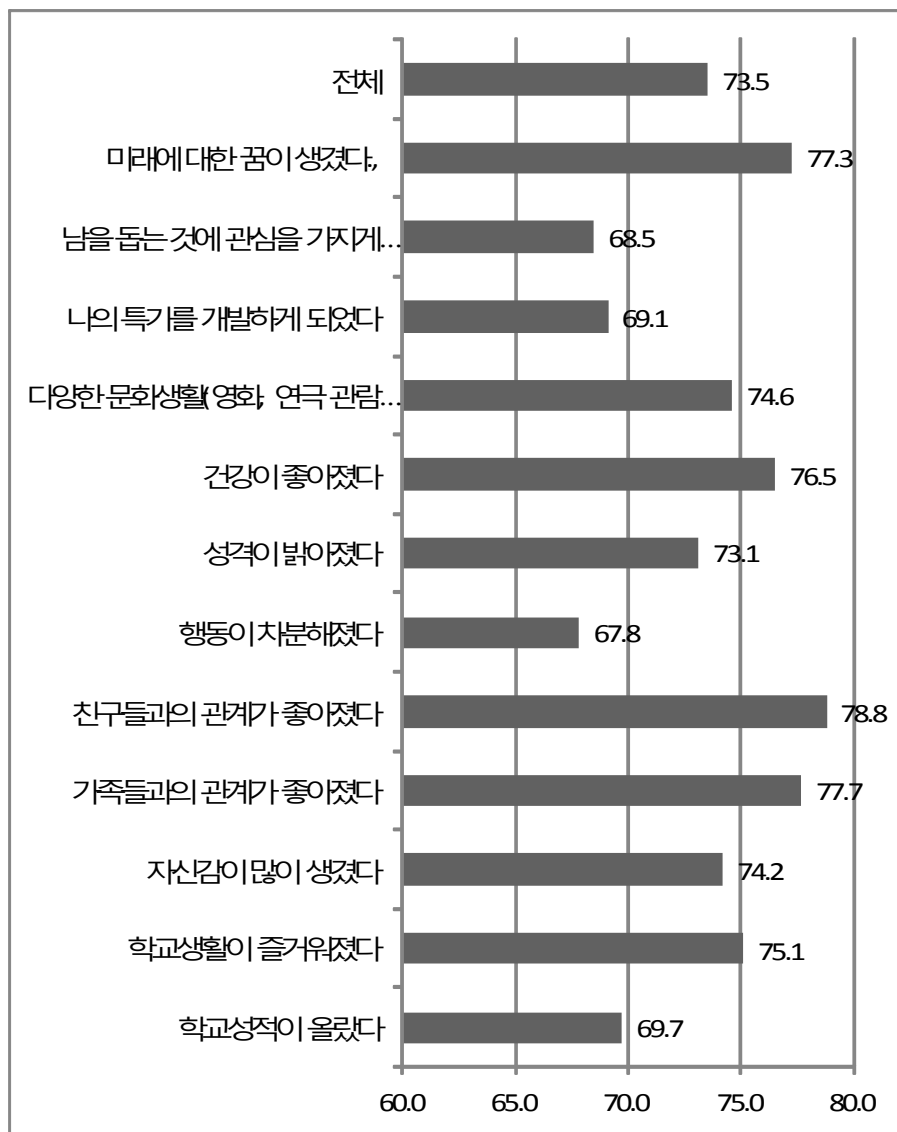
패널 전체 1,000명을 대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학습 및 학교생활, 일상적인 생활 등 12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파악하였다. 전체 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는 73.5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그림 IV-45].

(1) 학습 및 학교생활 변화 인식

시설 이용 후 생활변화 관련 항목 중 ‘성적 상승’의 경우, 긍정적(매우 그렇다:28.6%+그런 편이다:35.8%) 응답이 64.4%, 보통이라는 응답이 24.8%,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음: 3.5%+별로 그렇지 않음:7.3%) 응답이 10.8%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9.7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둘째, ‘학교생활이 즐거워짐’의 경우, 긍정적(매우 그렇다:36.8%+그런 편이다:34.4%) 응답이

71.2%, 보통이라는 응답이 23.0%,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음: 1.7%+별로 그렇지 않음:4.1%) 응답이 5.8%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5.1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그림 IV-45】 서비스 이용에 따른 생활 변화 (패널 전체 1,000명)

(2) 자아 및 사회성 변화

시설 이용 후 자아 및 사회성의 변화 관련 항목 중 ‘자신감 상승’의 경우, 긍정적(매우 그렇다:36.6%+그런 편이다:32.0%) 응답이 68.6%, 보통이라는 응답이 24.8%,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음: 1.9%+별로 그렇지 않음:4.7%) 응답이 6.6%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4.2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둘째, ‘가족 간 관계 호전’의 경우, 긍정적(매우 그렇다:42.6%+그런 편이다:31.4%) 응답이 74.0%, 보통이라는 응답이 21.2%,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음:1.3%+별로 그렇지 않음:3.3%) 응답이 4.6%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7.7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해당없음 제외).

셋째, ‘친구관계 호전’의 경우, 긍정적(매우 그렇다:43.7%+그런 편이다:33.4%) 응답이 77.1%, 보통이라는 응답이 18.5%,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음:1.4%+별로 그렇지 않음:3.0%) 응답이 4.4%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8.8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넷째, ‘행동이 차분해짐’의 경우, 긍정적(매우 그렇다:24.7%+그런 편이다:34.5%) 응답이 59.2%, 보통이라는 응답이 30.9%,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음:2.7%+별로 그렇지 않음:7.2%) 응답이 9.9%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7.8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다섯째, ‘성격이 밝아짐’의 경우, 긍정적(매우 그렇다:33.9%+그런 편이다:34.3%) 응답이 68.2%, 보통이라는 응답이 24.2%,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음:2.0%+별로 그렇지 않음:5.6%) 응답이 7.6%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3.1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여섯째 ‘건강이 좋아짐’의 경우, 긍정적(매우 그렇다:40.6%+그런 편이다:31.3%) 응답이 71.9%, 보통이라는 응답이 23.0%,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음:1.5%+별로 그렇지 않음:3.6%)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6.5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일곱째, ‘다양한 문화생활 체험’의 경우, 긍정적(매우 그렇다:40.2%+그런 편이다:29.6%) 응답이 69.8%, 보통이라는 응답이 22.3%,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음:3.5%+별로 그렇지 않음:4.4%) 응답이 7.9%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4.6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여덟째, ‘특기개발 가능’의 경우, 긍정적(매우 그렇다:32.0%+그런 편이다:27.5%) 응답이 59.5%, 보통이라는 응답이 29.4%,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음: 3.9%+별로 그렇지 않음:7.2%) 응답이 11.1%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9.1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아홉째, 시설 이용 후 생활변화 관련 항목 중 ‘남을 돕는 삶에 대한 관심 제고’의 경우, 긍정적(매우 그렇다:28.3%+그런 편이다:30.5%) 응답이 58.8%, 보통이라는 응답이 30.7%,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음: 2.4%+별로 그렇지 않음:8.1%) 응답이 10.5%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68.5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열번째,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겼다’의 경우, 긍정적(매우 그렇다:44.9%+그런 편이다:27.8%) 응답이 72.7%, 보통이라는 응답이 21.0%,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음: 2.3%+별로 그렇지 않음:4.0%)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77.3점이었다(매우 그렇다:100점-보통:50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친구들과의 관계(78.8), 가족관계(77.7), 미래에 대한 꿈(77.3), 건강(7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이 정서적 측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 5 장

V.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비교분석

1. 비교분석의 목적과 내용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비교분석
3. 취약계층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의 저소득층 비교분석

제 5 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비교분석

1. 비교분석의 목적과 내용

1) 비교분석의 목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과 인식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가 어떠한 상황인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전체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가 어떠한 효과나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검증하는 하나의 방안은 동일한 취약계층 중 정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생활이나 인식에 대한 비교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상태에 대한 파악을 위해 취약계층 패널과 2010년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전체 학생들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가운데 저소득계층에 포함된 대상을 선택하여 취약계층 패널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2011년 실시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의 경우 전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가운데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고 있거나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의 비교는 비록 조사 시점상 1년의 차이는 있으나 취약계층 아동과 일반

아동과의 차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비교분석의 방법과 내용

2011년 취약계층 패널조사에 참여하여 자료를 제공한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 1,000명이었으며, 1차년도(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모두 2,378명으로, 이 두 집단 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소득정보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저소득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응답자 부모에게 연소득을 만원 단위로 묻는 질문과 더불어 가구 구성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가구 구성에 관한 문항은 가구원이 몇 명인지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아,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 선정에 필요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을 산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하는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경계값을 사용하였다. 즉 2010년 전국의 전체 가구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월소득인 188만 9천원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월소득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즉 응답자 가구의 월 소득이 전국의 가구 소득분포에서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저소득층으로 규정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1차년도 초등학교 4학년 응답자 가운데 17.4%에 해당하는 413명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이 집단을 대상으로 앞에서 사용되었던 변수를 중심으로 취약계층패널 아동과 비교·분석하였다. 주된 비교 내용은 2011년 실시된 취약계층 패널조사 설문지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에서 공동으로 사용된 항목을 중심으로 그 분포 정도 및 평균값 등을 비교하였다.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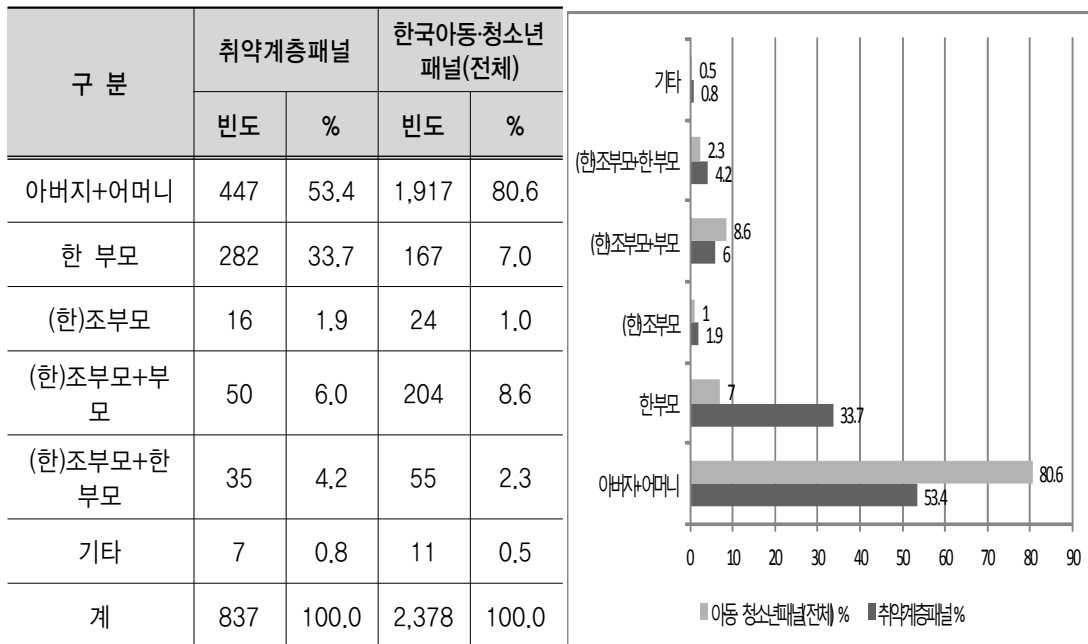
1) 가족배경 비교

(1) 가족구성 비교

두 패널의 가족구성 분포 형태는 두 집단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3.4%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이 비율이 80.6%에 달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중 어느 한 부모와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7%이었으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단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양부모와 거주하고 있고 약 1/3의 아동이 한부모 가정에 거주하는데 반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5명 중 4명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족 구성에 있어서 취약계층패널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표 V-1>.

표 V-1 가족구성 분포(취약계층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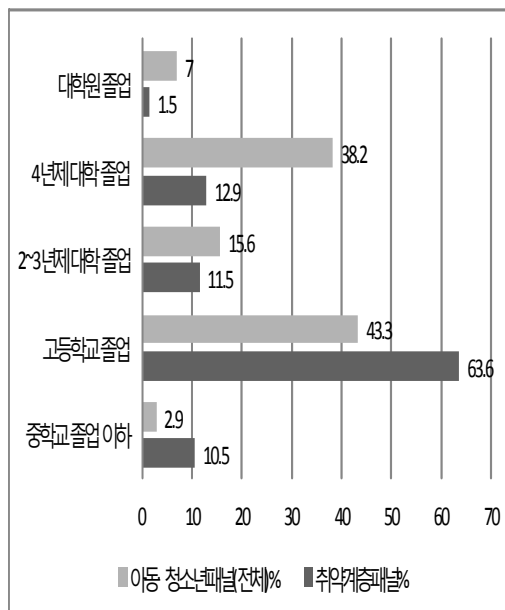
(2) 부모 교육수준 비교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 부모의 교육정도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부모 교육정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아버지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에 그친 비율이 74.1%이고 2년제 이상의 대학 교육을 받은 비율이 25.9%에 불과한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46.2%, 2년제 이상의 대학 교육을 받은 비율은 53.8%로 나타남으로써, 아버지의 교육 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2>.

표 V-2 아버지 교육수준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전체)	
	빈도	%	빈도	%
중학교 졸업 이하	48	10.5	61	2.9
고등학교 졸업	292	63.6	905	43.3
2~3년제 대학 졸업	53	11.5	325	15.6
4년제 대학 졸업	59	12.9	797	38.2
대학원 졸업	7	1.5	146	7.0
계	459	100.0	2,0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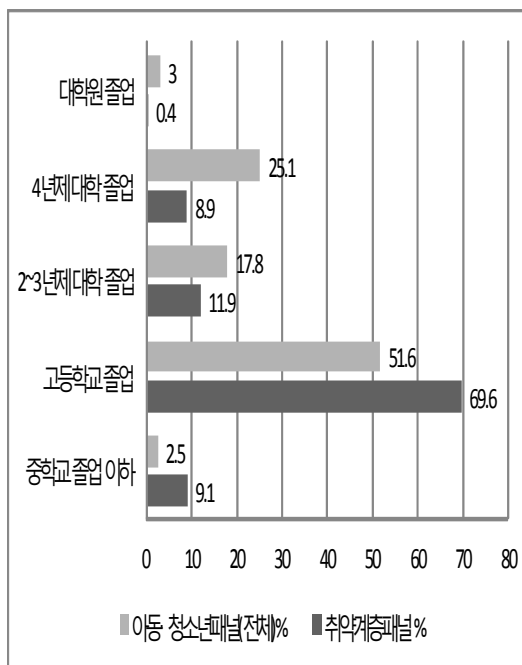
이러한 아버지의 교육수준 분포의 차이는 어머니 교육수준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인 비율이 78.7%, 2년제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은 비율이 21.0%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고등학교 이하가 54.1%, 2년제 대학 이상이 4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을 받은 집단의 비율이 두 패널 모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나, 기본적인

로 취약계층패널의 어머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가족구성은 물론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표 V-3>.

표 V-3 어머니 교육수준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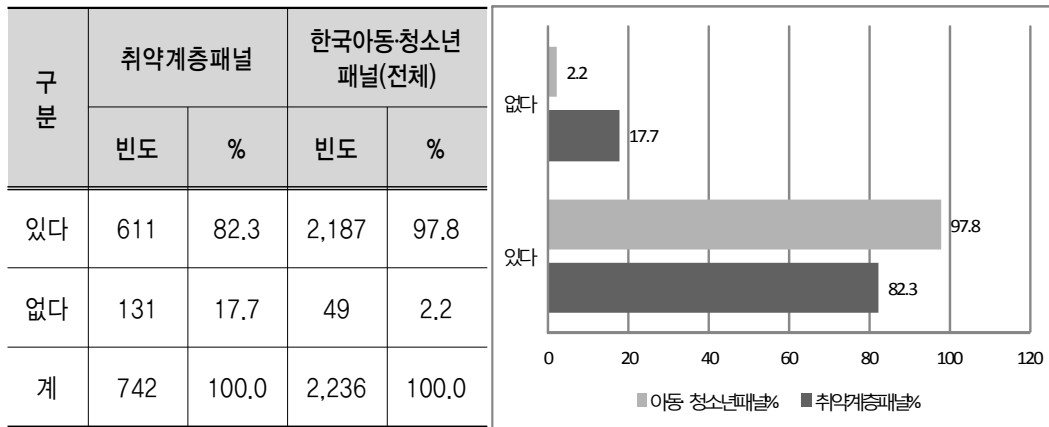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전체)	
	빈도	%	빈도	%
중학교 졸업 이하	46	9.1	56	2.5
고등학교 졸업	351	69.6	1,165	51.6
2~3년제 대학 졸업	60	11.9	401	17.8
4년제 대학 졸업	45	8.9	567	25.1
대학원 졸업	2	0.5	68	3.0
계	504	100.0	2,257	100.0



(3) 부모 직업유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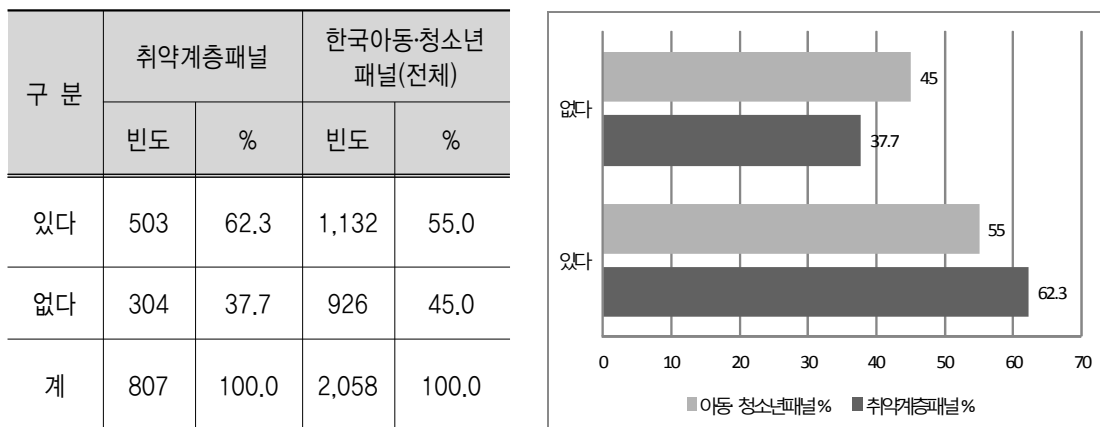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를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아버지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3%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97.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1차적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취업 여부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표 V-4>.

표 V-4 아버지 직업유무 분포 비교



어머니의 직업유무 분포는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3%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패널 모두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지만, 취약계층패널의 경우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5>.

표 V-5 어머니 직업유무 분포 비교



앞의 결과를 요약하면,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에 비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낮고, 부모의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비율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거의 97%를 초과한 반면, 취약계층패널에서는 82%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어머니의 취업 비율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보다 취약계층패널에서 높게 나타났다.

2) 생활시간과 건강 비교

(1) 수면시간 비교

두 패널조사는 아동의 주요 생활시간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면과 관련하여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두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수면시간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수면시간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교에 가는 날의 경우 취약계층패널 응답자의 평균 수면시간은 8.89시간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응답자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8.77시간으로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수면시간이 조금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수면시간의 경우도 취약계층패널은 9.43시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9.27시간으로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수면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V-6).

표 V-6 수면시간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주중 수면시간	8.89	0.870	1,000	8.77	0.824	2,378	3.800***
주말 수면시간	9.43	1.238	1,000	9.27	1.351	2,376	3.219**

** p < .01, *** p < .001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나 우선 학원이나 과외

등의 방과 후 사교육이나 공부시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교육이나 공부 등에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이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패널에는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집단 거주의 경우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두 패널의 수면시간에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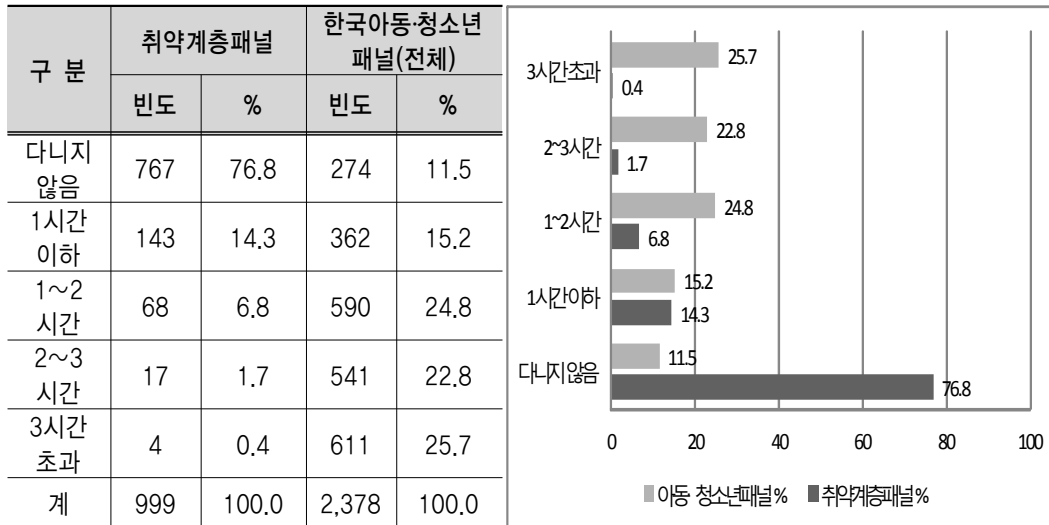
(2) 학원 수강시간 비교

다음으로 두 조사에서는 과외를 포함한 학원 수강시간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학교 가는 날과 학교가지 않는 날로 구분하여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두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학원 수강시간을 산출한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학원 수강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기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두 문항의 응답 내용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였다.

우선 과외를 포함한 학원 수강 여부를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주중에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23.2%에 불과한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그 비율이 8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에 다닌다고 응답한 경우도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1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14.3%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학원에서 수강하는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 적어도 1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아동의 경우에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1/4에도 미치지 않았으며, 그나마 다니는 경우에도 1시간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중 학원 수강에 있어서 두 패널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제적 수준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사교육의 기능을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시설에서 대체하고 있다는 측면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표 V-7).

표 V-7 주중 학원(과외) 수강 시간 비교



과외를 포함한 학원 수강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는 주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주말에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단지 1.5%에 불과하였지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약 20%가량이 주말에 학원에 다닌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가운데 8%는 주말에도 1~2시간 정도를 학원에서 보낸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이는 각 패널을 구성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8>.

표 V-8 주말 학원(과외) 수강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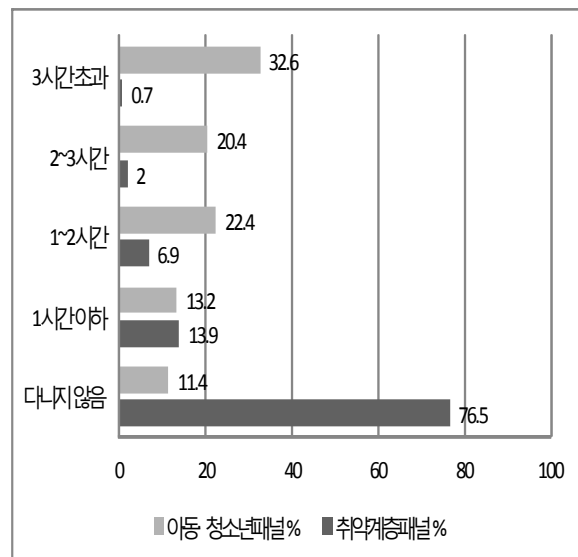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빈도	%	빈도	%
다니지 않음	985	98.5	1,906	80.2
1시간 이하	8	0.8	148	6.2
1~2시간	6	0.6	200	8.4
2~3시간	1	0.1	67	2.8
3시간 초과	0	0.0	57	2.4
계	1,000	100.0	2,378	100.0

주중 학원 수강시간과 주말 학원 수강시간을 합산하여 총 학원 수강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앞서 나타난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주중과 주말을 모두 고려하여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6.5%로 약 3/4 가량은 학원에 다니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에는 이와는 매우 다른 분포를 보이는데, 전체 응답자의 11.4%만 이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을 뿐, 90%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2,108명 가운데 36.9%에 달하는 777명은 학원(과외) 수강 시간이 3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적어도 1개 이상의 과외 혹은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V-9>.

표 V-9 총 학원(과외) 수강시간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 패널(전체)	
	빈도	%	빈도	%
다니지 않음	764	76.5	270	11.4
1시간 이하	139	13.9	313	13.2
1~2 시간	69	6.9	533	22.4
2~3 시간	20	2.0	485	20.4
3시간 초과	7	0.7	777	32.6
계	999	100.0	2,378	100.0



실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두 패널의 평균 학원(과외) 수강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중 학원 시간의 경우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각각 1.3시간, 2.6시간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주말의 경우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평균 수강시간이 더 길었지만 그 차이는 $p <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주중 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한 총 학원시간의 경우 취약계층패

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이 각각 1.3시간, 3.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특히 총 학원시간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평균 수강 시간이 취약계층패널보다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에 있어서 취약계층패널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10).

표 V-10 학원(과외) 수강시간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주중 학원(과외) 수강 시간	1.282	0.630	232	2.567	1.338	2,104	-14.451 ^{***}
주말 학원(과외) 수강 시간	1.300	0.682	15	1.974	1.484	472	-1.752 ^a
총 학원(과외) 수강 시간	1.348	0.727	235	3.004	1.906	2,108	-13.210 ^{***}

a $p < .10$, *** $p < .001$

(3) 건강에 대한 인식 비교

다음으로 두 패널조사에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친구들과 비교하여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두 패널 응답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V-11).

표 V-11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건강 상태 평가	3.256	0.606	1,000	3.296	0.62	2,378	-1.723 ^a

a $p < .10$

3) 미디어 이용 비교

(1) 컴퓨터 이용시간 비교

청소년들의 과도한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패널조사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컴퓨터 이용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하루에 평균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중과 주말의 컴퓨터 이용시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는데, 우선 컴퓨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취약계층패널에서는 10.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3.5%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숙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상황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보다는 취약계층패널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중 컴퓨터 이용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의 사용시간 분포가 취약계층패널에서의 분포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V-12>.

표 V-12 주중 컴퓨터 이용시간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	
	빈도	%	빈도	%
이용하지 않음	104	10.4	83	3.5
1시간 이하	685	68.5	1,639	68.9
1~2시간	145	14.5	414	17.4
2~3시간	49	4.9	132	5.6
3시간 초과	17	1.7	109	4.6
계	1,000	100.0	2,377	100.0

주말의 경우 1시간 이하로 사용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취약계층패널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나머지 시간대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컴퓨터에의 접근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보다 컴퓨터에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성의 제약이 컴퓨터 사용시간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표 V-13>.

표 V-13 주말 컴퓨터 이용시간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빈도	%	빈도	%
이용하지 않음	104	10.4	83	3.5
1시간 이하	515	51.5	1,099	46.2
1~2시간	227	22.7	693	29.2
2~3시간	91	9.1	288	12.1
3시간 초과	63	6.3	214	9.0
계	1,000	100.0	2,3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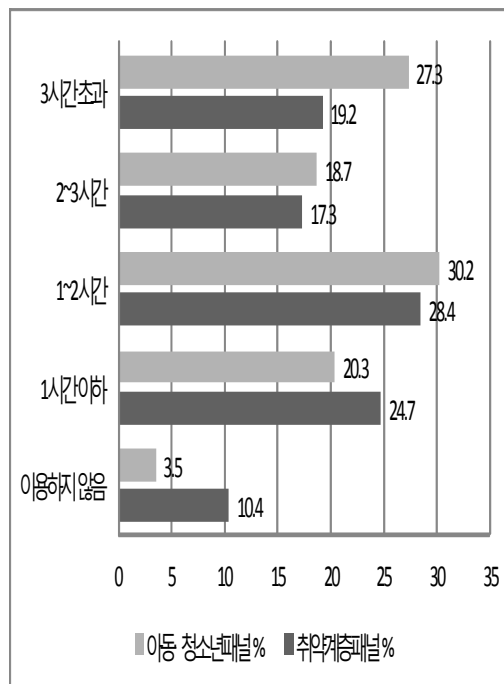
주중과 주말의 컴퓨터 이용시간을 합산하여 총 컴퓨터 이용시간을 산출하고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하루 평균 1~2시간을 사용한다는 집단이 각각 응답자의 28.4%, 30.2%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이 취약계층패널에서는 1시간 이하로 사용한 집단으로 24.7%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으로 전체 응답자의 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중과 주말 컴퓨터 이용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보았을 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3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14>.

표 V-14

총 컴퓨터 이용시간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전체)	
	빈도	%	빈도	%
이용하지 않음	104	10.4	83	3.5
1시간 이하	247	24.7	482	20.3
1~2시간	284	28.4	718	30.2
2~3시간	173	17.3	446	18.7
3시간 초과	192	19.2	648	27.3
계	1,000	100.0	2,377	100.0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을 제외하고, 두 패널의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주중 이용시간의 경우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평균 이용시간은 각각 1.16시간, 1.28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주말 이용시간은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이 각각 1.65시간, 1.7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주말 이용시간에 있어서는 두 패널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중 이용시간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아동의 평균 이용시간이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평균 이용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과 주말 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한 총 컴퓨터 이용시간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나타난 이용시간이 취약계층패널에서 나타난 이용시간보다 더 길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15).

표 V-15 컴퓨터 이용시간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주중 컴퓨터 이용 시간	1.158	0.873	777	1.282	1.138	1,933	-2.731**
주말 컴퓨터 이용 시간	1.647	1.201	774	1.731	1.287	2,181	-1.587
총 컴퓨터 이용 시간	2.427	1.826	896	2.733	2.106	2,289	-3.823***

** p < .01, *** p < .001

(2) 컴퓨터 사용장소 비교

컴퓨터 사용 장소와 관련한 두 패널의 응답 분포는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패널 모두 상당수의 아동들이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장소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었지만, 그 비율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장소로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시설(7.6%), PC방(5.0%), 학교(4.9%)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에는 학교(4.2%), PC방(3.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가정과 시설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밖에 학교나 PC방 등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비치된 컴퓨터가 이들의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과제나 학습이 많은 요즘에는 단순히 컴퓨터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 이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정보에의 접근과 학습적 측면에서 일반 아동들과 격차를 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표 V-16).

표 V-16 컴퓨터 사용장소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빈도	%	빈도	%
우리 집	726	81.1	2,023	88.2
친구집	2	0.2	24	1.0
학교	44	4.9	97	4.2
학원	3	0.3	40	1.7
PC방	45	5.0	78	3.5
시설	68	7.6	10	0.4
기타	8	0.9	23	1.0
계	896	100.0	2,295	100.0

(3) 컴퓨터 사용목적 비교

두 조사에서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을 10가지로 구분하여 ‘자주 사용한다’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 V-17>은 두 패널에서 각각의 사용 목적별 응답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게임 및 오락, 학습 관련 검색, 학습 외 검색, 댓글 달기, 채팅이나 메신저의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학습 관련 검색, 게임 및 오락, 학습 외 검색, 댓글 달기, 개인 홈페이지 활동의 순서로 이용 빈도가 높았다.

두 패널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학습 외 검색을 위한 컴퓨터 사용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아동보다 더 자주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게임 및 오락의 경우에도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대부분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빈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아동의 경우가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패널 모두 응답자들이 초등학교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성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표 V-17>).

표 V-17 컴퓨터 사용목적별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학습관련 검색 등	2.893	0.916	896	3.147	0.753	2,295	-8.039***
학습 외 검색 등	2.674	0.994	896	2.579	0.998	2,295	2.419*
게임 및 오락	3.069	0.930	896	3.006	0.916	2,295	1.738 ^a
채팅이나 메신저	1.667	0.975	896	1.904	1.019	2,295	-5.975***
전자우편	1.338	0.700	896	1.658	0.881	2,295	-9.738***
동호회 등 활동	1.497	0.887	896	1.828	1.03	2,295	-8.471***
개인 홈페이지 활동	1.626	0.980	896	2.070	1.113	2,295	-10.462***
온라인 거래	1.544	0.940	896	1.686	0.995	2,295	-3.679***
댓글 달기	1.826	1.052	896	2.424	1.093	2,295	-14.034***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1.088	0.384	896	1.099	0.442	2,295	-0.655

a $p < .10$, * $p < .05$, *** $p < .001$

(4) 휴대폰 이용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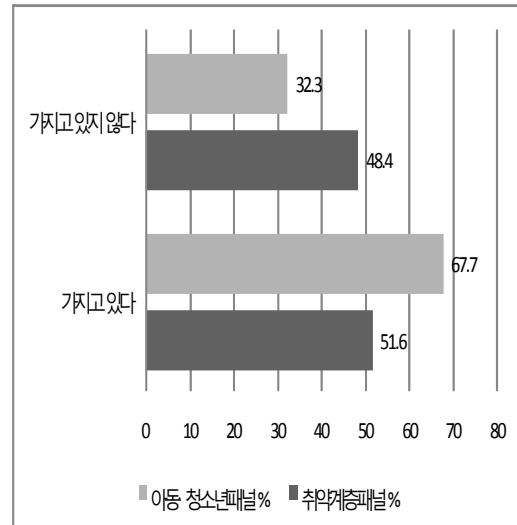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갖는 나이가 평균 10.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투데이, 2011. 10. 7). 즉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휴대전화를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두 패널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에도 67.7%로 전체 응답자의 2/3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소지 비율에 있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이 취약계층패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휴대전화 소지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함을 감안하면, 이러한 차이의 발생 이유를 비교적 쉽게 짐작할 수 있다(표 V-18).

표 V-18 휴대전화 소지여부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빈도	%	빈도	%
가지고 있다	516	51.6	1,609	67.7
가지고 있지 않다	484	48.4	769	32.3
계	1,000	100.0	2,37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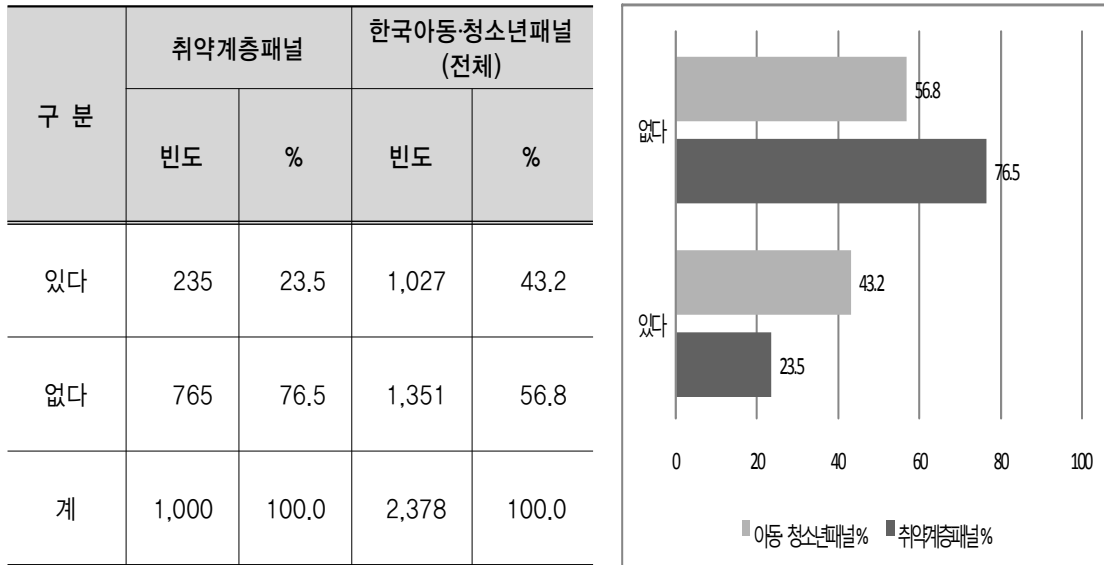
4) 학교생활 비교

(1) 결석률 비교

두 패널조사에서는 학교 결석여부와 결석한 적이 있는 경우 각 사유별 결석일수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집단의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결석 여부의 경우 결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취약계층패널에서는 23.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43.2%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두 패널의 아동들의 특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두 패널의 가정환경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스스로 학교 등교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부모나 보호자의 판단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양부모와의 거주 비율이 높고 부모의 교육정도가 더 높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부모가 자녀의 등교 여부(가족행사나 가족여행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표 V-19>.

표 V-19 결석여부 분포 비교



결석사유별 결석일수를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결석일수의 경우 취약계층패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밖의 질병, 여행 등, 가기 싫어서, 기타의 사유로 인한 결석일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의 경우 등교 여부의 판단이 주로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결석여부 및 결석일수에서의 차이는 부모의 개입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표 V-20>.

표 V-20 결석사유별 결석일수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사고	8.346	11.300	26	5.61	9.041	88	1.278
질병	2.961	3.270	129	3.58	5.479	682	-1.242
여행 등	2.590	2.918	83	2.81	3.651	388	-0.515
가기 싫어서	2.250	2.179	12	2.43	1.927	23	-0.251
기타	2.500	2.658	16	5.46	15.508	85	-0.758
총 결석일수	3.749	5.430	235	4.429	7.618	1,027	-1.295

(2) 학교생활 적응도 비교

두 패널조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항을 추려 학습생활, 학교규칙 준수,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 하위 영역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였다.

각 하위 영역은 각각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문항의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1= '매우 그렇다'에서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석의 편리성을 위해 모두 역코딩 하였으며, 각 문항 및 하위영역별 두 패널의 차이는 <표 V-21>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학업 습관 등을 나타내는 학습생활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평균값이 취약계층패널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alpha=.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학교규칙 준수 영역에서는 취약계층패널의 평균값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평균값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즉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보다 학교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특성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취약계층패널의 조사 대상은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과 아동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이다. 이러한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다른 아동들과 함께 보내게 됨으로써 일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집단 속에서 보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집단 속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집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교 규칙 준수 성향을 보이는 것은 집단생활에서 생존하기 위한 적응 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표 V-21>).

표 V-21 학교생활 적응 항목의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2.993	0.788	1,000	3.04	0.728	2,378	-1.671 ^a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2.943	0.764	1,000	2.984	0.753	2,378	-1.438
학습생활	2.968	0.618	1,000	3.012	0.602	2,378	-1.924^a
당번 등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3.272	0.721	1,000	3.138	0.719	2,378	4.941 ^{***}
화장실, 급식에서 차례를 지킨다	3.357	0.718	1,000	3.259	0.698	2,378	3.694 ^{***}
학교규칙 준수	3.315	0.608	1,000	3.199	0.587	2,378	5.188^{***}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3.394	0.698	1,000	3.39	0.682	2,378	0.155
짝과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3.197	0.817	1,000	3.167	0.767	2,378	1.018
교우관계	3.296	0.632	1,000	3.278	0.593	2,378	0.790
선생님께 반갑게 인사한다	3.364	0.696	1,000	3.272	0.701	2,378	3.489 ^{***}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2.884	0.878	1,000	2.845	0.858	2,378	1.198
교사관계	3.124	0.674	1,000	3.059	0.679	2,378	2.545^{**}

a p < .10, ** p < .01, *** p < .001

아울러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은 학교에서의 교사는 물론 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교사와의 관계를 맺어야 하며,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인과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약계층패널 아동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아동보다 교사관계 영역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놀라운 것은 아니다.

특히 교사관계를 구성하는 하위 문항을 살펴보면, 교사와의 대화를 편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두 패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교사를 만나면 인사한다는 항목에서는 취약계층패널 아동에게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학교 교사뿐 아니라 시설에서의 교사와의 접촉 빈도 및 시간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자아탄력성 비교

응답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두 패널조사에는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두 14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문항은 1= ‘매우 그렇다’에서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 한 후 14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두 패널에서 나타난 자아탄력성 문항 및 전체 평균값의 차이는 <표 V-22>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자아탄력성에 있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아동들이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아동의 평균 자아탄력성은 3.02인 반면,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에는 이 값이 2.9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이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친구에게 너그럽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묻는 다른 문항들과는 달리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p<.001$),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시설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V-22 자아탄력성 항목의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친구에게 너그럽다	3.138	0.672	1,000	3.002	0.725	2,377	5.084***
놀라는 일을 당해도 잘 이겨낸다	2.986	0.735	1,000	3.063	0.78	2,377	-2.664**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3.163	0.807	1,000	3.328	0.766	2,377	-5.624***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2.941	0.755	1,000	2.936	0.749	2,375	0.177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3.032	0.842	1,000	3.036	0.919	2,377	-0.118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3.022	0.799	1,000	3.173	0.795	2,377	-5.032***
다른 길로 가보는 것을 좋아한다	2.650	0.939	1,000	2.794	1.032	2,377	-3.800***
호기심이 많다	2.898	0.846	1,000	3.033	0.885	2,377	-4.100***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2.816	0.814	1,000	2.897	0.857	2,377	-2.545*
새롭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3.046	0.833	1,000	3.261	0.82	2,377	-6.924***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2.865	0.818	1,000	2.983	0.842	2,376	-3.749***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2.735	0.855	1,000	2.816	0.89	2,375	-2.442*
화가 나도 금방 관찰아진다	2.697	0.860	1,000	2.837	0.884	2,376	-4.235***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3.076	0.787	1,000	3.115	0.791	2,376	-1.310
자아탄력성	2.933	0.492	1,000	3.02	0.492	2,375	-4.691***

* $p < .05$, ** $p < .01$, *** $p < .001$

6) 부모의 감독 정도 비교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기서와 같이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을 비교하는 경우 부모감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두 집단 아동의 행위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두 패널 조사에서 부모감독과 관련하여 3개의 문항이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세 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부모감독을 측정하였다. 특히 각각의 문항들은 1= ‘매우 그렇다’에서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 하여 사용하였다.

〈표 V-23〉에 따르면, 3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한 부모감독의 정도는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모감독의 정도는 두 패널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두 패널 모두 평균값이 3점을 초과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 자녀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는가의 항목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평균값이 취약계층패널의 평균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부모가 자녀 생활에 개입하는 정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V-23 부모감독 항목의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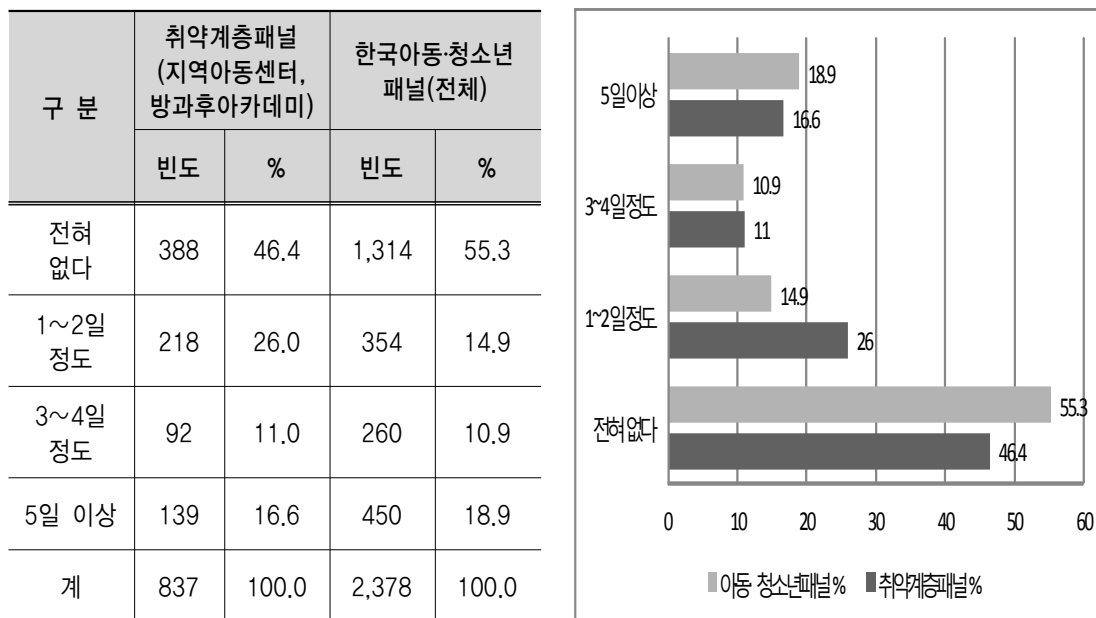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방과 후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3.608	0.648	837	3.557	0.755	2,375	1.741 ^a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3.267	0.788	837	3.417	0.755	2,376	-4.886 ^{***}
외출시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3.079	0.9	837	3.102	0.901	2,375	-0.635
부모감독	3.318	0.616	837	3.359	0.633	2,374	-1.622

a $p < .10$, *** $p < .001$

귀가 후 부모 없이 지내는 빈도를 살펴보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 귀가 후 부모가 없는 경우가 44.7%인데 비해, 취약계층패널(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에서는 그 비율이 53.6%로 나타났다. 즉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귀가 후 부모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표 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약계층패널에서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표 V-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업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비율이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V-24>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귀가 후 부모가 없는 경우가 5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취약계층패널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두 패널의 부모의 고용 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귀가 후 부모가 없는 경우가 5일 이상이라는 것은 두 부모가 모두 전일제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과 달리 취약계층패널조사에서는 부모의 고용형태에 관한 문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패널 특성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패널보다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부모에게서 전일제 고용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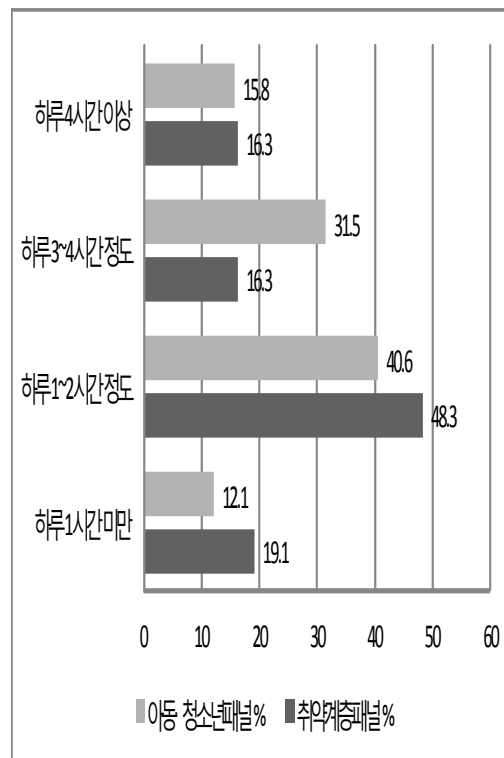
표 V-24 귀가 후 부모 없이 지내는 빈도 분포 비교



귀가 후 부모 없이 지내는 평균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에서는 하루 2시간 정도까지가 67.4%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52.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루 3~4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31.5%였으나 취약계층패널에서는 16.3%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하교시간을 감안하면, 하교 후 3~4시간 정도는 흔히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귀가 시간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부모의 근로 형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취약계층 패널 아동들이 부모 없이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방과 후 시설에서 일정시간 지낸 후 늦게 귀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V-25).

표 V-25 귀가 후 부모 없이 지내는 평균 시간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전체)	
	빈도	%	빈도	%
하루 1시간 미만	86	19.1	128	12.1
하루 1~2시간 정도	217	48.3	432	40.6
하루 3~4시간 정도	73	16.3	335	31.5
하루 4시간 이상	73	16.3	168	15.8
계	449	100.0	1,063	100.0



7) 지역사회와 공동체 인식 비교

(1) 지역사회 인식 비교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두 패널조사에는 모두 6개의 문항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은 여타 항목들과 질문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 이를 역코딩하고 6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전체 평균값 및 각 문항의 값이 높을 수록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표 V-26>은 두 패널에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V-26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항목의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동네 사람 대부분을 알고 있다	2.781	0.931	1,000	2.907	0.898	2,376	-3.682 ***
동네 사람에게 인사한다	3.140	0.082	1,000	3.216	0.818	2,376	-2.932 **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고 생각한다 [†]	2.617	0.974	1,000	3.15	0.917	2,376	-15.135 ***
동네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2.943	0.859	1,000	3.073	0.879	2,375	-3.950 ***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3.041	0.827	1,000	3.131	0.834	2,376	-2.870 **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3.091	0.852	1,000	3.21	0.885	2,376	-3.606 ***
지역사회 인식	2.936	0.503	1,000	3.114	0.519	2,375	-9.181 ***

[†] 역코딩 항목임

** p < .01, *** p < .001

전체 문항의 평균값은 물론 각각의 항목에서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에 비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약계층패널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가 2.9점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3.1점이었으며, 두 패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p < .001$).

각각의 문항에서도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 모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점수가 높았다.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거주지의 분리가 점차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의 제반 조건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아동들의 지역사회보다 열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표 V-26>에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 공동체 인식 비교

마지막으로 두 조사에는 봉사와 관련한 의식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의 경우와 달리 봉사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두 패널조사에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비교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봉사의식의 측정값이 2.992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2.896으로 취약계층패널 아동이 봉사와 관련하여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보다 제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수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 양육 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혜택을 되돌려 주고자 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봉사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표 V-27>).

표 V-27 봉사의식 항목의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전체)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3.093	0.758	1,000	3.126	0.734	2,376	-1.181
돈이나 물건을 기부할 수 있다	2.869	0.827	1,000	2.636	0.918	2,376	6.929 ***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3.015	0.797	1,000	2.926	0.847	2,376	2.836 **
봉사의식	2.992	0.649	1,000	2.896	0.657	2,376	3.890 ***

** p < .01, *** p < .001

3. 취약계층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의 저소득층 비교분석

1) 성별 및 가족 배경 비교

(1) 성별 비교

먼저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후자의 경우 남학생의 비율이 54.2%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52.3%)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취약계층패널보다도 남학생 비율이 7%정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표 V-28).

표 V-28 성별 분포(취약계층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의 저소득층)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남자	472	47.2	224	54.2
여자	528	52.8	189	45.8
계	1,000	100.0	4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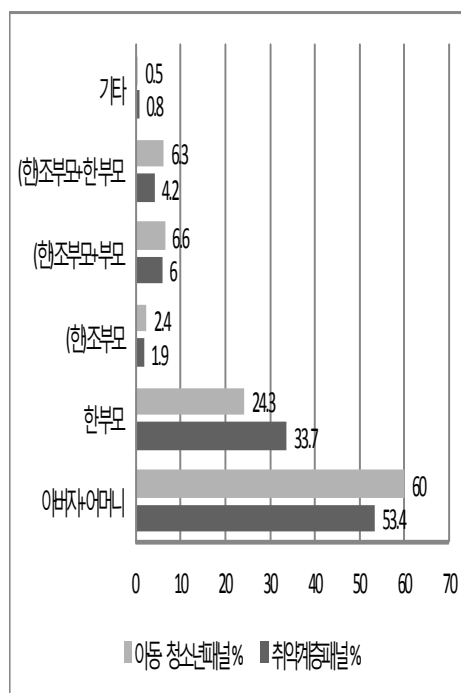
(2) 가족원 구성의 비교

가족구성 분포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53.4%,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경우 60.0%로 두 패널의 차이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의 경우 양부모와 함께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6%이었음을 고려하면〈표 V-1〉, 취약계층패널 및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경우 둘 다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도 취약계층패널에서는 33.7%,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는 24.3%인 것으로 나타나 두 패널간의 차이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7.0%)와의 차이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가족구성 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은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경우 각각 12.9%, 15.8% 수준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다〈표 V-29〉.

표 V-29 가족구성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아버지+어머니	447	53.4	247	60.0
한 부모	282	33.7	100	24.3
(한)조부모	16	1.9	10	2.4
(한)조부모+부모	50	6.0	27	6.6
(한)조부모+한부모	35	4.2	26	6.3
기타	7	0.8	2	0.5
계	837	100.0	412	100.0



따라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을 전집으로 하여 추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가족구성 분포가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5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은 60%, 취약계층패널은 53.4%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경우 양부모와의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오히려 한부모와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모의 교육수준 비교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정도를 갖고 있는 비율은 취약계층패널에서는 7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는 69.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46.2%이었음을 감안하면〈표 V-2〉,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아버지 교육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표 V-30〉.

표 V-30 아버지 교육수준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중학교 졸업 이하	48	10.5	34	10.5
고등학교 졸업	292	63.6	186	57.8
2~3년제 대학 졸업	53	11.5	37	11.5
4년제 대학 졸업	59	12.9	58	18.0
대학원 졸업	7	1.5	7	2.2
계	459	100.0	322	100.0

어머니의 교육정도도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정도를 갖는 비율이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 각각 78.7%, 76.3%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의 경우는 54.1%로〈표 V-3〉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V-31〉.

표 V-31 어머니 교육수준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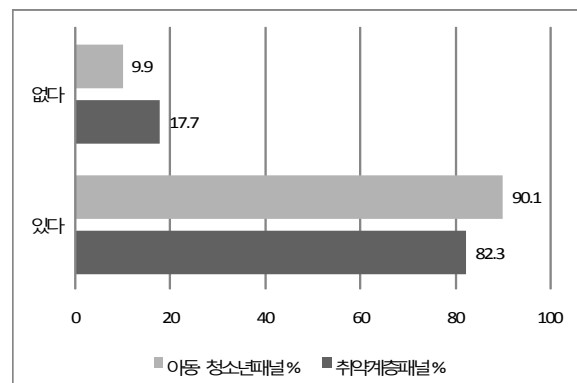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중학교 졸업 이하	46	9.1	29	8.2
고등학교 졸업	351	69.6	241	68.1
2~3년제 대학 졸업	60	11.9	43	12.1
4년제 대학 졸업	45	8.9	36	10.2
대학원 졸업	2	0.4	5	1.4
계	504	100.0	354	100.0

(4) 부모의 직업유무 비교

아버지의 직업유무를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에서 아버지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는 9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의 97.8%와 비교해 볼 때<표 V-4>, 아버지의 직업 유무는 가정의 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32>.

표 V-32 아버지 직업유무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있다	611	82.3	291	90.1
없다	131	17.7	32	9.9
계	742	100.0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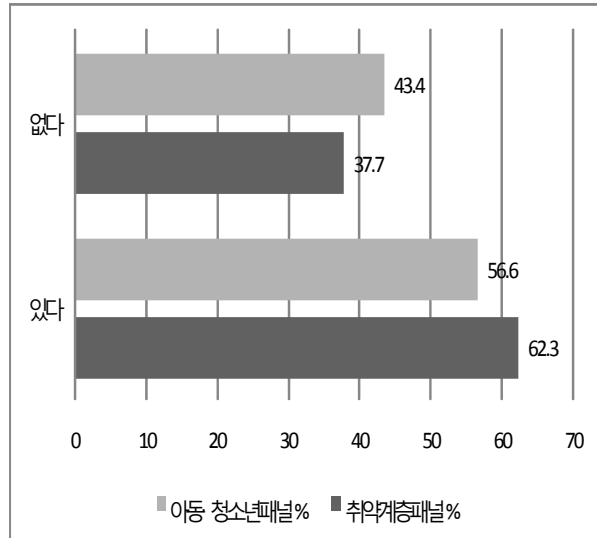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관한 분포는 아버지의 직업유무 분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패널에서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경우는 56.6%,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의 경우는 55.0%로 취약계층패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표 V-5>,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취약계층패널의 대상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인데, 이러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은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 방과 후에 직접 보육이 어려운 경우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표 V-33>.

표 V-33 어머니 직업유무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있다	503	62.3	201	56.6
없다	304	37.7	154	43.4
계	807	100.0	355	100.0



2) 생활시간과 건강 비교

(1) 수면시간 비교

먼저 취약계층패널 아동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아동의 수면시간을 살펴보면, 주중 수면시간의 경우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말 수면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취약계층패널 아동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아동보다 주말 수면시간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와 비교한 결과를 감안하여 볼 때,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수면시간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고, 특히 시설 아동의 경우 집단생활에 적용되는 생활 규칙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표 V-34).

표 V-34 수면시간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주중 수면시간	8.890	0.870	1,000	8.811	0.899	413	1.537
주말 수면시간	9.430	1.238	1,000	9.211	1.477	413	2.853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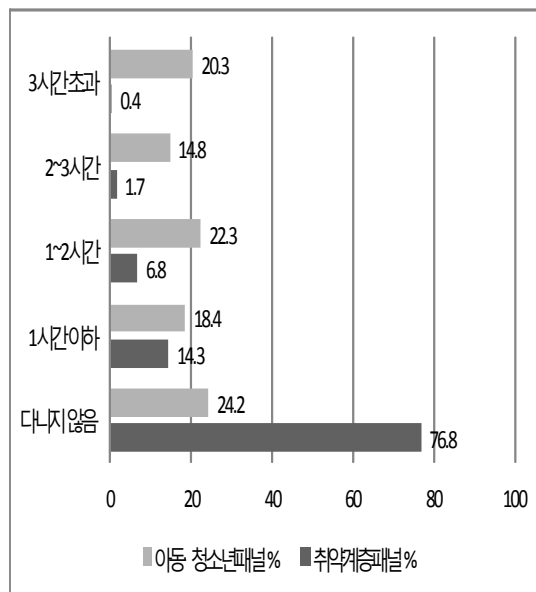
(2) 학원 수강시간 비교

과외를 포함한 학원 수강시간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취약계층패널에서는 76.8%,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는 2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에서는 11.5%로(표 V-7)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중에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취약계층패널에서는 1시간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반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는 1~2시간 이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에서는 3시간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원 수강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표 V-35).

표 V-35 주중 학원(과외) 수강시간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다니지 않음	767	76.8	100	24.2
1시간 이하	143	14.3	76	18.4
1~2시간	68	6.8	92	22.3
2~3시간	17	1.7	61	14.8
3시간 초과	4	0.4	84	20.3
계	999	100.0	4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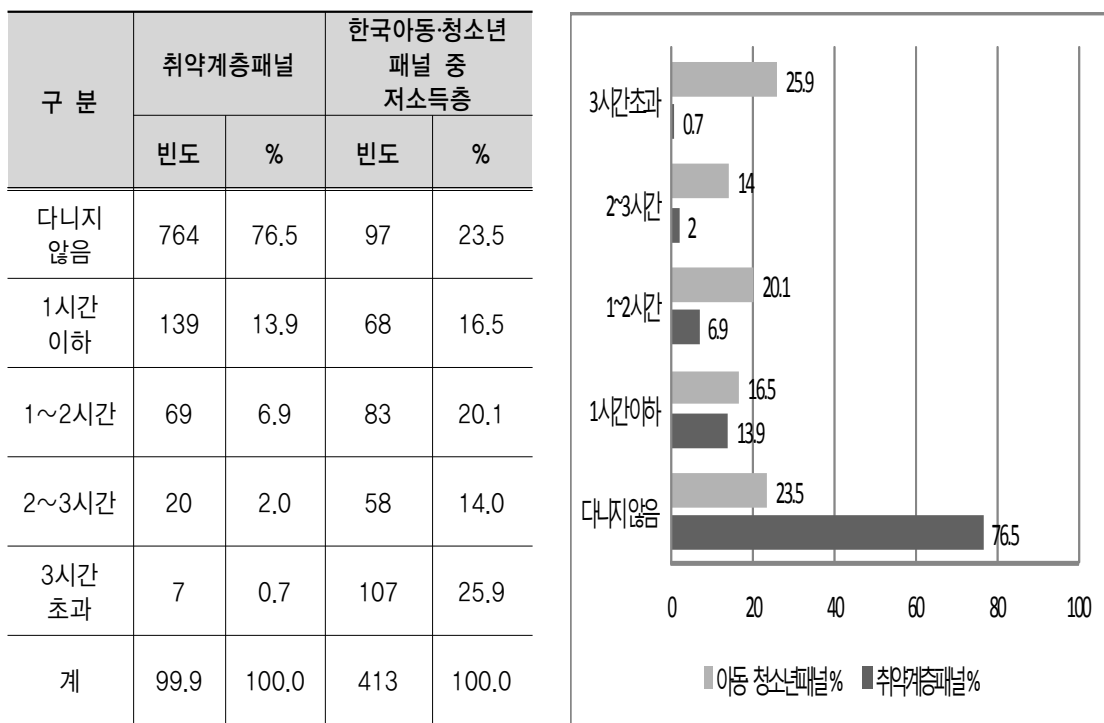
또한 주말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의 비율도 취약계층패널에서는 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는 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에서는 19.8%로<표 V-8> 취약계층패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36>.

표 V-36 주말 학원(과외) 수강시간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다니지 않음	985	98.5	347	84.0
1시간 이하	8	0.8	27	6.5
1~2시간	6	0.6	25	6.1
2~3시간	1	0.1	6	1.5
3시간 초과	0	0.0	8	1.9
계	1,000	100.0	413	100.0

총 학원 수강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주중 또는 주말에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취약계층패널에서는 23.5%로 매우 낮은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는 7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에서는 88.6%로 나타났으며,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취약계층패널에서는 1시간 이하가 가장 많았으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및 전체에서는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37>.

표 V-37 학원(과외) 수강시간 분포 비교 - 총 학원(과외) 수강시간



학원에 다닌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중, 주말 및 총 학원 수강시간의 평균값을 비교분석한 결과가 <표 V-38>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주중 수강시간과 총 학원수강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와의 비교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표 V-10>, 취약계층패널 아동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학원 수강 경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은 시간을 학원(과외)에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8 학원(과외) 수강 시간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주중 학원(과외) 수강 시간	1.282	0.630	232	2.422	1.451	313	-11.207***
주말 학원(과외) 수강 시간	1.300	0.682	15	2.005	2.025	66	-1.326
총 학원(과외) 수강 시간	1.348	0.727	235	2.817	2.068	316	-10.419***

*** $p < .001$

이러한 차이는 학원 수강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데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들로 사교육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건강상태에 대한 비교

표 V-39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건강 상태 평가	3.256	0.606	1,000	3.249	0.656	413	0.193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V-39).

3) 미디어 이용 비교

(1) 컴퓨터 이용시간 비교

주중과 주말 및 총 컴퓨터 이용시간 분포에서의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차이는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의 차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과 비교하여 볼 때,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더라도 1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범주에서 취약계층패널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범주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양상은 주중, 주말 및 총 이용시간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V-41>.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컴퓨터 이용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40 컴퓨터 이용시간 분포 비교 - 주중 컴퓨터 이용시간

구 분	취약계층패널		아동·청소년 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이용하지 않음	104	10.4	12	2.9
1시간 이하	685	68.5	248	60.0
1~2 시간	145	14.5	99	24.0
2~3 시간	49	4.9	30	7.3
3시간 초과	17	1.7	24	5.8
계	1,000	100.0	4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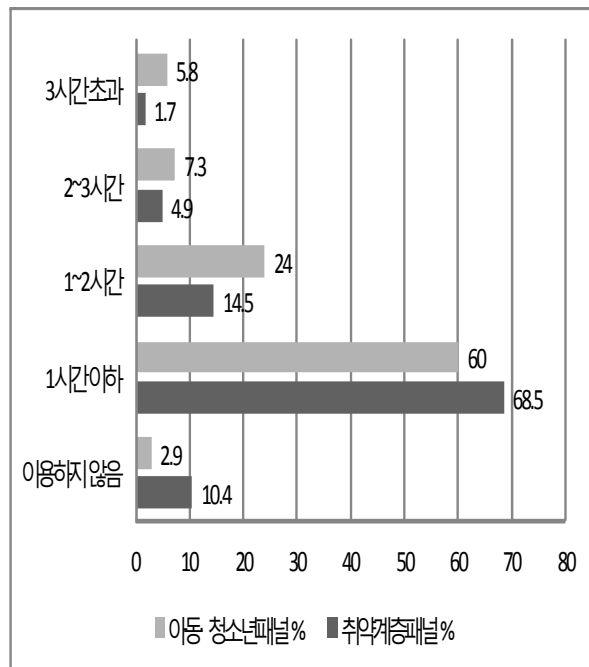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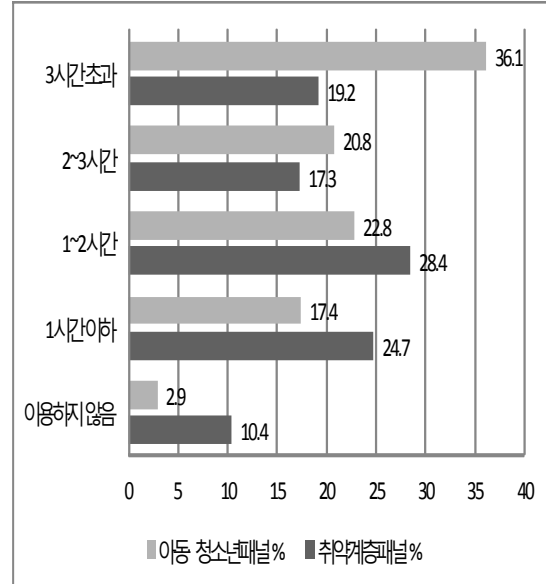


표 V-41 컴퓨터 이용시간 분포 비교 - 총 컴퓨터 이용시간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이용하지 않음	104	10.4	12	2.9
1시간 이하	247	24.7	72	17.4
1~2시간	284	28.4	94	22.8
2~3시간	173	17.3	86	20.8
3시간 초과	192	19.2	149	36.1
계	1,000	100.0	413	100.0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을 비교해보면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아동들보다 주중, 주말 및 총 컴퓨터 이용시간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V-42).

표 V-42 컴퓨터 이용시간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주중 컴퓨터 이용 시간	1.158	0.873	777	1.488	1.207	347	-5.172***
주말 컴퓨터 이용 시간	1.647	1.201	774	2.028	1.466	377	-4.689***
총 컴퓨터 이용 시간	2.427	1.826	896	3.226	2.37	397	-6.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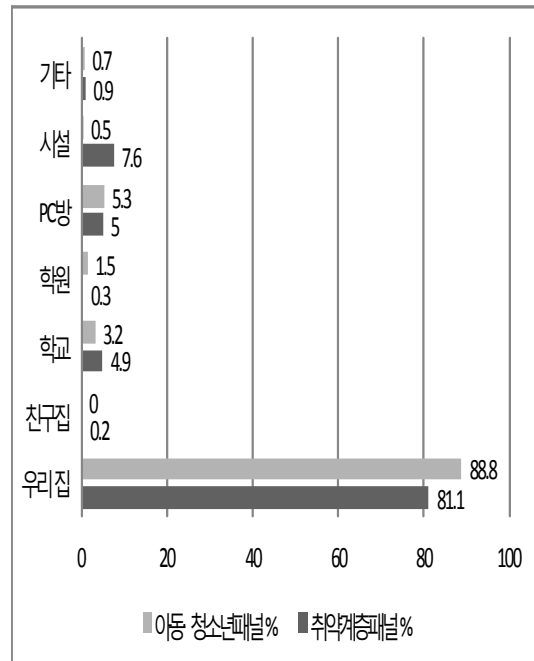
*** $p < .001$

(2) 컴퓨터 사용장소 비교

컴퓨터 사용장소의 경우 상당수의 아동들이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장소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었지만, 그 비율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장소로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시설(7.6%), PC방(5.0%)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PC방(5.3%), 학교(3.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V-43).

표 V-43 컴퓨터 사용 장소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우리 집	726	81.1	356	88.8
친구집	2	0.2	0	0.0
학교	44	4.9	13	3.2
학원	3	0.3	6	1.5
PC방	45	5.0	21	5.3
시설	68	7.6	2	0.5
기타	8	0.9	3	0.7
계	896	100.0	401	100.0



(3) 컴퓨터 이용목적 비교

컴퓨터 이용 목적에 따른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경우 모두 게임 및 오락, 학습 관련 검색, 학습 외 검색, 댓글 달기, 채팅이나 메시지의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패널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학습 외 검색을 위한 컴퓨터 사용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아동보다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 대부분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빈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가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보다 더 높았고, 게임 및 오락,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V-44>.

표 V-44 컴퓨터 이용 목적별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학습관련 검색 등	2.893	0.916	896	3.040	0.78	401	-2.792**
학습 외 검색 등	2.674	0.994	896	2.551	0.984	401	2.066*
게임 및 오락	3.069	0.930	896	3.125	0.891	401	-1.015
채팅이나 메신저	1.667	0.975	896	2.000	1.037	401	-5.573***
전자우편	1.338	0.700	896	1.713	0.897	401	-8.145***
동호회 등 활동	1.497	0.887	896	1.840	1.017	401	-6.145***
개인 홈페이지 활동	1.626	0.980	896	2.115	1.108	401	-7.970***
온라인 거래	1.544	0.940	896	1.746	1.022	401	-3.480***
댓글 달기	1.826	1.052	896	2.329	1.103	401	-7.839***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1.088	0.384	896	1.124	0.514	401	-1.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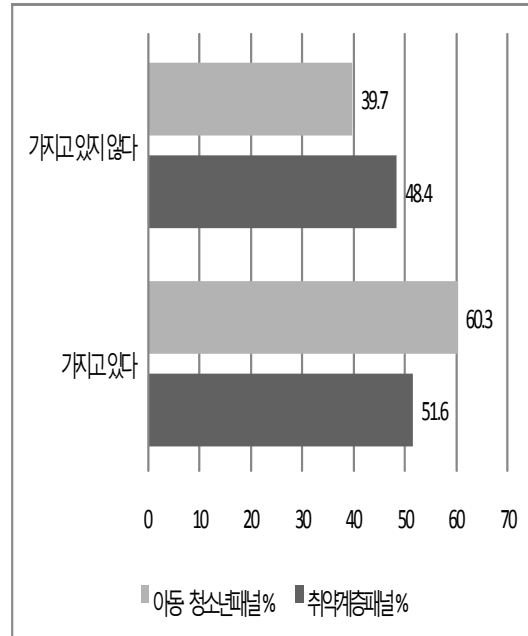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4) 휴대폰 이용률 비교

휴대전화 소지 여부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경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3%로 취약계층패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에서와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V-45>.

표 V-45 휴대전화 소지 여부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가지고 있다	516	51.6	249	60.3
가지고 있지 않다	484	48.4	164	39.7
계	1,000	100.0	413	100.0



4) 학교생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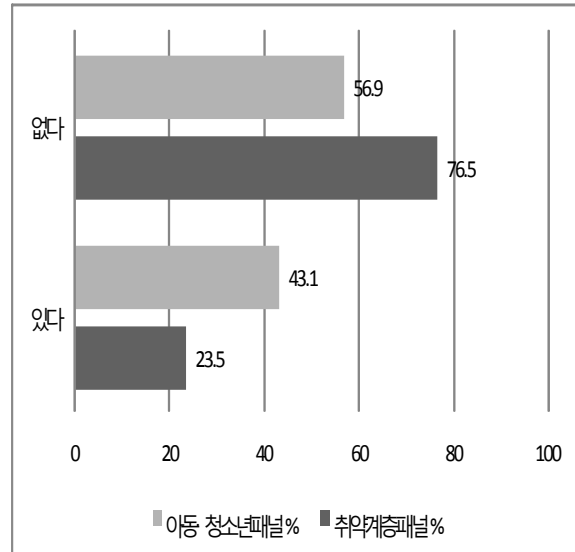
(1) 학교 결석률 비교

학교 결석 여부와 관련하여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분포를 살펴보면, 결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취약계층패널에서는 23.5%,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는 43.1%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43.2%)와 비교한 경우와〈표 V-19〉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비추어볼 때 같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라도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정기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을 받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표 V-46〉.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 V-46 결석여부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있다	235	23.5	178	43.1
없다	765	76.5	235	56.9
계	1,000	100.0	413	100.0



결석 사유별 결석 일수를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경우와 여행 등으로 인한 결석일수의 경우 취약계층패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밖의 질병, 가기 싫어서, 기타의 사유로 인한 결석일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V-47>.

표 V-47 결석 사유별 결석일수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사고	8.346	11.300	26	5.310	4.715	16	1.018
질병	2.961	3.270	129	3.370	3.825	123	-0.914
여행 등	2.590	2.918	83	2.110	1.385	45	1.040
가기 싫어서	2.250	2.179	12	2.500	1.378	6	-0.255
기타	2.500	2.658	16	3.170	2.552	12	-0.671
총 결석일수	3.749	5.430	235	3.635	3.866	178	0.238

(2) 학교생활 적응도 비교

〈표 V-48〉은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학업습관 등을 나타내는 학습생활의 경우 취약계층패널의 평균값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아동들의 학습적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48 학교생활 적응 항목의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2.993	0.788	1,000	2.906	0.79	413	1.886 ^a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2.943	0.764	1,000	2.848	0.814	413	2.085 [*]
학습생활	2.968	0.618	1,000	2.877	0.658	413	2.470[*]
당번 등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3.272	0.721	1,000	2.988	0.796	413	6.529 ^{***}
화장실, 급식에서 차례를 지킨다	3.357	0.718	1,000	3.14	0.776	413	5.045 ^{***}
학교규칙 준수	3.315	0.608	1,000	3.064	0.674	413	6.833^{***}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3.394	0.698	1,000	3.24	0.746	413	3.696 ^{***}
짝과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3.197	0.817	1,000	3.036	0.807	413	3.381 ^{***}
교우관계	3.296	0.632	1,000	3.138	0.647	413	4.244^{***}
선생님께 반갑게 인사한다	3.364	0.696	1,000	3.155	0.724	413	5.073 ^{***}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2.884	0.878	1,000	2.707	0.856	413	3.472 ^{***}
교사관계	3.124	0.674	1,000	2.931	0.691	413	4.859^{***}

a $p < .10$, * $p < .05$, *** $p < .001$

즉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혹은 아동양육시설 등을 통하여 학교수업을 마친 후에도 학업과 관련한 지속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 등에 참여한다하더라도 전체와 비교해 볼 때, 그 참여시간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서 지속적인 학습지도를 받는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생활을 보이는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시설이 당초의 설치 목적을 나름대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규칙 준수,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영역 모두에서 취약계층패널의 평균값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평균값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보다 학교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으며, 친구들과 관계는 물론 교사와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집단생활에 원만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규칙 준수,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교사와 관계하는 시간의 연장 등으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자아탄력성 비교

자아탄력성에 있어서 취약계층패널 아동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아동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자아탄력성이 취약계층패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하위 문항들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V-49). 이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일련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관계의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의 하위 항목 가운데 “친구에게 너그럽다”는 문항과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는 문항의 경우 취약계층아동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집단생활을 하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V-49 자아탄력성 항목의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친구에게 너그럽다	3.138	0.672	1,000	2.923	0.772	413	5.231 ^{***}
놀라는 일을 당해도 잘 이겨낸다	2.986	0.735	1,000	2.973	0.831	413	0.291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3.163	0.807	1,000	3.213	0.811	413	-1.058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2.941	0.755	1,000	2.821	0.799	413	2.671 ^{**}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3.032	0.842	1,000	3.012	0.931	413	0.394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3.022	0.799	1,000	3.056	0.861	413	-0.711
다른 길로 가보는 것을 좋아한다	2.650	0.939	1,000	2.688	1.008	413	-0.677
호기심이 많다	2.898	0.846	1,000	2.918	0.936	413	-0.392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2.816	0.814	1,000	2.811	0.910	413	0.101
새롭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3.046	0.833	1,000	3.102	0.878	413	-1.131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2.865	0.818	1,000	2.889	0.863	413	-0.494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2.735	0.855	1,000	2.692	0.888	412	0.849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2.697	0.860	1,000	2.768	0.867	413	-1.408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3.076	0.787	1,000	3.027	0.783	413	1.066
자아탄력성	2.933	0.492	1,000	2.922	0.542	412	0.371

** p < .01, *** p < .001

6) 부모감독 정도 비교

부모감독 정도에 있어서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의 아동이 인지하는 부모감독 정도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하위 문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감독에서의 이 두 집단의 차이는 상당 부분 “방과 후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항목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방과 후 주로 가는 곳이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부모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과 후 자신들이 가는 곳을 부모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V-50).

표 V-50 부모감독 항목의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방과 후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3.608	0.648	837	3.41	0.848	412	4.569 ***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3.267	0.788	837	3.269	0.821	412	-0.042
외출시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3.079	0.9	837	2.976	0.964	412	1.857 ^a
부모감독	3.318	0.616	837	3.218	0.694	412	2.585 **

a $p < .10$, ** $p < .01$, *** $p < .001$

귀가 후 부모 없이 지내는 빈도를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에서는 귀가 후 부모가 없는 경우가 53.6%인데 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는 그 비율이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귀가 후 부모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패널에서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직업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비율이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V-51).

표 V-51 귀가 후 부모 없이 지내는 빈도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전혀 없다	388	46.4	209	50.6
1~2일 정도	218	26.0	63	15.3
3~4일 정도	92	11.0	45	10.9
5일 이상	139	16.6	96	23.2
계	837	100.0	413	100.0

〈표 V-51〉에 따르면 귀가 후 부모가 없는 경우가 5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취약계층패널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와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유사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는 패널 특성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패널보다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부모에게서 전일제 고용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취약계층 패널 아동들이 부모 없이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방과 후 시설에서 일정시간 지낸 후 늦게 귀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V-52).

표 V-52 귀가 후 부모 없이 지내는 평균 시간 분포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빈도	%	빈도	%
하루 1시간 미만	86	19.1	20	9.9
하루 1~2시간 정도	217	48.3	63	31.0
하루 3~4시간 정도	73	16.3	70	34.5
하루 4시간 이상	73	16.3	50	24.6
계	449	100.0	203	100.0

7) 지역사회와 공동체 인식 비교

(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의 경우 전체 문항 값의 평균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아동들이 취약계층패널 아동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표 V-53>.

표 V-53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항목의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동네 사람 대부분을 알고 있다	2.781	0.931	1,000	2.888	0.869	413	-2.003 [*]
동네 사람에게 인사한다	3.140	0.082	1,000	3.111	0.802	413	1.130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고 생각한다 [†]	2.617	0.974	1,000	3.000	0.953	413	-6.765 ^{***}
동네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2.943	0.859	1,000	3.034	0.864	413	-1.808 ^a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3.041	0.827	1,000	3.022	0.852	413	0.389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3.091	0.852	1,000	3.073	0.924	413	0.352
지역사회 인식	2.936	0.503	1,000	3.022	0.519	413	-2.896^{**}

[†] 역코딩 항목임

a p < .10, * p < .05, *** p < .001

이러한 차이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와 비교한 경우와 유사하지만, 하위 항목들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동네 사람 대부분을 알고 있다”와 “이웃끼리 서로 경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의 2개 항목뿐이며, 나머지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이 취약계층패널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공동체 인식

마지막으로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봉사의식의 측정값이 2.9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은 2.8로 취약계층패널 아동이 봉사와 관련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보다 관련 서비스 수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혜택을 되돌려 주고자 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봉사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표 V-54).

표 V-54 봉사의식 항목의 평균 비교

구 분	취약계층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3.093	0.758	1,000	3.015	0.776	413	1.747 ^a
돈이나 물건을 기부할 수 있다	2.869	0.827	1,000	2.598	0.939	413	5.380 ^{***}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3.015	0.797	1,000	2.794	0.908	413	4.547 ^{***}
봉사의식	2.992	0.649	1,000	2.802	0.708	413	4.872^{***}

a $p < .10$, *** $p < .001$

제 6 장

VI.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종사자 의견조사 분석

1. 시설종사자 조사 개요
2. 시설종사자 조사결과 분석

제 6 장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종사자 의견조사 분석

1. 시설종사자 조사 개요

1) 조사배경과 목적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시설들은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부모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들 시설에서 종사자들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부모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수행되는 부모역할 이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모를 대신해서 아동·청소년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가정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교육적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취약한 부모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지원이나 진로 및 자립지원 서비스,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 등을 제공한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시설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각 시설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욕구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으며, 시설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시설종사자들 자신의 근무 환경 및 욕구와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의 현황 및 욕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조사대상

시설종사자 설문조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를 위해 선정된 기관들의 종사자 2명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표 VI-1).

표 VI-1 종사자 조사대상 표집

지역구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서울	36	6	18
부산	66	12	12
대구	18	—	4
인천	20	4	4
광주	6	2	2
대전	12	2	4
울산	16	6	4
경기	16	4	4
강원	19	4	8
충북	8	—	—
충남	20	6	8
전북	14	2	8
전남	22	4	4
경북	20	2	4
경남	26	4	6
제주	36	6	8
합계	355	64	98

선정된 시설에서 각 시설별로 평균 2명의 종사자에게 조사를 실시한다고 전제하였으며, 조사대상자 2인 중 1인은 기관 대표교사나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볼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355명(68.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64명(12.4%), 아동양육시설에서 98명(19.0%) 등 세 유형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517명이었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VI-2 조사대상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남자	85(16.4)	종교	개신교	314(60.7)
	여자	432(83.6)		천주교	37(7.2)
	계	517(100.0)		불교	42(8.1)
나이	20대	145(28.0)		원불교	3(0.6)
	30대	126(24.4)		없음	119(23.0)
	40대	174(33.7)		무응답	2(0.4)
	50대이상	72(13.9)		계	517(100.0)
	계	517(100.0)	혼인상태	미혼	196(37.9)
				기혼	308(59.6)
학력	고졸	13(2.5)		이혼/별거	6(1.2)
	전문대졸	147(28.4)		사별	5(1.0)
	대졸	294(56.9)		무응답	2(0.4)
	대학원졸	63(12.2)		계	517(100.0)
	계	517(100.0)			

성별은 남자가 85명으로 16.4%에 불과한 반면, 여자는 83.6%나 되는 432명으로 조사대상 중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나이는 40대가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그 다음은 20대가 28.0%, 30대가 24.4%순이었고, 50대 이상은 13.9%로 낮은 비율이었다.

학력은 대학을 졸업한 종사자가 56.9%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으며,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가 28.4%,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가 12.2%였는데, 소수이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13명(2.5%)이 있었다.

종교는 개신교가 60.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고, 불교가 8.1%, 천주교가 7.2%, 원불교가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76.7%였고, 없는 경우가 23.0%, 무응답이 0.4%로 조사되었다.

혼인상태를 살펴본 결과, 기혼이 5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미혼이 37.9%로 그 다음 순이었다. 극소수로 이혼이나 별거, 사별을 한 경우가 각각 1.2%, 1.0% 있었다.

3) 조사영역 및 항목

조사내용은 시설종사자의 직무현황 및 인적사항, 시설종사자의 직무인식 및 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현황 및 개선사항에 관한 것이다<표 VI-3>.

첫째, 직무현황 및 인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소유, 종교, 혼인상태, 시설유형, 직위, 올해평균월수입, 경력, 주당근무평균, 지난 1년간 재교육시간이 조사되었다.

둘째, 직무인식과 태도에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대처자원, 역할갈등 및 과다, 소진경험, 업무환경과 업무경험, 운영과정 상 어려움의 정도, 이직 발생의 주원인, 이직 예방 방안, 근무 시 보람을 느끼는 측면, 근무 시 어려움이 조사되었다.

셋째, 서비스 현황 및 개선사항으로는 보완이 필요한 서비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 가장 필요한 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위한 의견이 조사되었다.

표 VI-3 종사자 조사영역과 항목

조사 영역	조사 항목	문항수
직무현황 및 인적사항	성별	1
	연령	1
	최종학력	1
	전공	1
	자격증 소유	1
	종교	1
	혼인상태	1
	시설유형	1
	직위	1
	올해평균월수입	1
	경력	1
	주당근무평균	1
	지난1년간 재교육시간	1
합계		13

조사 영역	조사 항목	문항수
직무인식 및 태도	스트레스 대처자원	15
	역할갈등 및 과다	6
	소진경험	22
	업무환경과 업무경험	20
	운영과정 상 어려움의 정도	8
	이직 발생의 주원인	1
	이직 예방 방안	1
	근무 시 보람을 느끼는 측면	1
	근무 시 어려움	1
합계		75
서비스현황 및 개선사항	보완이 필요한 서비스	1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	1
	가장 필요한 서비스	1
	기관의 발전을 위한 의견	1
합계		4
총 문항수		92

2. 시설종사자 조사결과 분석

1) 직무현황

(1) 직위 및 근무경력 등

응답자의 직위를 살펴본 결과 시설장이 35.8%, 생활복지교사가 54.5%였으며, 행정담당자와 기타가 각각 3.3%, 4.3%로 소수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무경력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31.1%로 가장 높았고, 5년 이상이 25.7%, 3년 이상 5년 미만이 19.3%였다. 또한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15.9%, 6개월 미만도 7.9% 있었다.

응답자들의 근무경력이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107.748, 유의확률은 $p=.000$ 으로 시설유형에 따라 응답자의 근무경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65.3%로 가장 높았으며, 1년 미만은 10.2%에 불과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인 35.8%였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역시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인 34.4%였다.

표 VI-4 직위, 근무경력, 주당 평균 근무시간

구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전체	χ^2
전체	명 %	355 (68.7%)	64 (12.4%)	98 (19.0%)	517 (100.0%)	
직위	시설장	153 (43.1%)	6 (9.4%)	26 (26.5%)	185 (5.8%)	-
	생활복지교사	186 (52.4%)	55 (85.9%)	41 (41.8%)	282 (54.5%)	
	행정담당자	5 (1.4%)	2 (3.1%)	10 (10.2%)	17 (3.3%)	
	기타	6 (1.7%)	0 (.0%)	16 (16.3%)	22 (4.3%)	
	무응답	5 (1.4%)	1 (1.6%)	5 (5.1%)	11 (2.1%)	
근무경력	6개월 미만	31 (8.7%)	5 (7.8%)	5 (5.1%)	41 (7.9%)	107.748***
	6개월-1년미만	71 (20.0%)	6 (9.4%)	5 (5.1%)	82 (15.9%)	
	1년이상-3년미만	127 (35.8%)	22 (34.4%)	12 (12.2%)	161 (31.1%)	
	3년이상-5년미만	69 (19.4%)	19 (29.7%)	12 (12.2%)	100 (19.3%)	
	5년이상	57 (16.1%)	12 (18.8%)	64 (65.3%)	133 (25.7%)	
주당 평균 근무 시간	20시간 미만	55 (15.5%)	11 (17.2%)	4 (4.1%)	70 (13.5%)	-
	20시간이상 -40시간 미만	35 (9.9%)	4 (6.3%)	0 (.0%)	39 (7.5%)	
	40시간이상 -50시간 미만	196 (55.2%)	34 (53.1%)	45 (45.9%)	275 (53.2%)	
	50시간이상 -60시간 미만	42 (11.8%)	10 (15.6%)	17 (17.3%)	69 (13.3%)	
	60시간 이상	24 (6.8%)	5 (7.8%)	28 (28.6%)	57 (11.0%)	
	무응답	3 (.8%)	0 (.0%)	4 (4.1%)	7 (1.4%)	

* $p < .05$; ** $p < .01$; *** $p < .001$

- ; 기대빈도가 5 보다 작은 셀이 전체의 20%를 넘음.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종사자들이 28.7%이고 3년 이상이 35.5%인데 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1년 미만이 17.2%, 3년 이상이 48.5%로 나타나,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종사자들이 한 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양육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순으로 근무경력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3.2%가 주당 40시간에서 5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20시간미만이 13.5%, 50시간에서 60시간이 13.3%의 순이었으며, 6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1.0%나 되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시설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VI-5>. 응답하지 않은 7사례를 제외하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구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의 근무시간과 각각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종사자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Scheffe 사후비교분석).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주당 평균 38.56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 역시 이와 거의 같은 38.59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다. 반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은 주당 평균 53.03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F=33.50$, $p=.000$). 이러한 차이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에 주로 이용하는 이용시설인 반면에 아동양육시설은 24시간 생활보호를 하고 있는 생활시설이며, 2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주당 40시간만을 근무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VI-5 시설유형별 주당 평균근무시간 비교

구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전체	F	Scheffe
사례수	352	64	94	510	33.50***	a, b<c
평균	38.56	38.59	53.03	41.25		
표준편차	14.70	15.61	18.51	16.55		

*** < .001

a=지역아동센터, b=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c=아동양육시설

(2) 월수입 및 직무관련 연수시간

시설유형별로 응답자의 월수입<표 VI-6>과 지난 1년간 직무관련 교육이수시간<표 VI-7>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42.9%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 27.1%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150만원 이상 200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5%였으며, 300만원 이상이 5.8%, 200만원에서 250만원이 5.0% 순으로 파악되었고,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종사자가 각각 53.2%, 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15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이 3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다른 시설들과는 달리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38.6%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6 월수입

(단위 : 명, 백분율)

구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전체	명(%)	355 (8.7%)	64 (2.4%)	98 (9.0%)
월수입	100만원 미만	137 (8.6%)	0 (.0%)	3 (3.1%)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89 (53.2%)	32 (50.0%)	1 (1.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6 (4.5%)	24 (37.5%)	30 (30.6%)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0 (.0%)	2 (3.1%)	24 (24.5%)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0 (.0%)	1 (1.6%)	15 (15.3%)
	300만원 이상	6 (1.7%)	2 (3.1%)	22 (22.4%)
	무응답	7 (2.0%)	3 (4.7%)	3 (3.1%)

시설 유형별로 월수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전체 488명의

월수입을 구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양육시설 응답자의 평균 월수입은 246.45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응답자의 평균 월수입 202.56만원, 지역아동센터 응답자의 평균 월수입 117.05만원으로 나타났다($F=38.52$, $p=.000$). 세 집단의 월수입 평균은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Scheffe 사후비교분석). 시설 유형별로 월수입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설유형별로 응답자의 경력에 차이를 보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수입은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간 직무 관련 교육을 몇 시간 정도 받았는지 조사하였는데, 10시간에서 20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0%로 가장 높았고, 3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9%, 5시간에서 10시간이 16.4%, 20시간에서 30시간이 13.9% 순이었다. 그 외 3시간에서 5시간, 3시간 미만이 각각 4.3%, 0.4%의 낮은 비율로 있었다. 지난 1년간 직무 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9.7%있었다.

표 VI-7 교육이수시간

(단위 : 명, 백분율)

구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전체
전체	명(%)	355 (68.7%)	64 (12.4%)	98 (9.0%)	517 (100.0%)
교육이수 시간	3시간 미만	1 (.3%)	1 (1.6%)	0 (.0%)	2 (.4%)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15 (4.2%)	4 (6.3%)	3 (3.1%)	22 (4.3%)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67 (18.9%)	1 (1.6%)	17 (17.3%)	85 (16.4%)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119 (33.5%)	7 (10.9%)	19 (19.4%)	145 (28.0%)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44 (12.4%)	9 (14.1%)	19 (19.4%)	72 (13.9%)
	30시간 이상	62 (17.5%)	19 (29.7%)	32 (32.7%)	113 (21.9%)
	받지 않음	32 (9.0%)	14 (21.9%)	4 (4.1%)	50 (9.7%)
	무응답	15 (4.2%)	9 (14.1%)	4 (4.1%)	28 (5.4%)

아동양육시설의 응답자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 반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10시간에서 20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이 2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직무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다른 시설들 보다 높은 21.9%나 되었다. 월수입 직무관련 교육이수시간의 시설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표 VI-8>.

표 VI-8 시설유형별 월수입, 교육이수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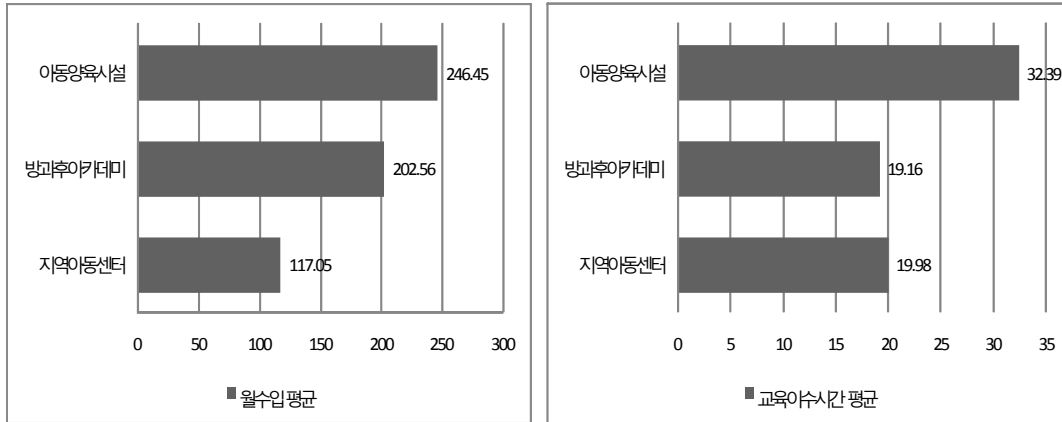
(단위 : 명, 만원, 시간)

구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전체	F	Scheffe
월수입	사례수 (명)	339	55	94	488	38.52 ***	a<b,c
	평균 (만원)	117.05	202.56	246.45	151.61		
	표준편차	121.11	196.89	135.94	144.46		
교육 이수시간	사례수 (명)	340	55	94	489	6.09**	a,b<c
	평균 (시간)	19.98	19.16	32.39	22.27		
	표준편차	28.03	18.46	45.49	31.66		

* $p < .05$; ** $p < .01$; *** $p < .001$

a=지역아동센터, b=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c=아동양육시설

전체 응답자에 대한 지난 1년간 직무관련 교육이수시간은 평균 22.2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6.09$, $p=.002$), 아동양육시설 응답자는 평균 32.39시간의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는 각각 19.98시간, 19.16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VI-1】 시설 유형별 월수입, 교육이수시간 비교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은 각각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평균 교육이수 시간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Scheffe 사후비교분석).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비해 10시간 이상 교육을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직위에 따라 월수입과 교육이수시간에 차이가 있는 지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분석하였다(표 VI-9). 월수입은 직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육이수시간은 직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F=7.84$, $p=.000$). 기관장이나 생활복지교사, 행정담당자 보다는 기타 집단의 교육이수시간이 많았는데(Scheffe 사후비교분석), 기타에는 생활지도원과 사무국장, 팀장 등이 있었고 이들 중 100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 VI-9 직위와 월수입, 교육이수시간 비교

구분		기관장	생활복지교사	행정담당자	기타	전체	F	Scheffe
월수입	사례수(명)	181	261	15	22	479	2.40	
	평균(만원)	171.75	135.44	163.01	169.55	151.59		
	표준편차	185.85	117.11	86.83	60.01	145.47		
교육이수시간	사례수(명)	181	261	15	22	479	7.84***	a,b,c,<d
	평균(시간)	24.74	18.10	22.47	49.73	22.20		
	표준편차	28.80	25.62	25.87	75.59	31.41		

*** $p < .001$

2) 직무 인식 및 태도

시설종사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역할 갈등 및 과다, 소진의 정도, 이직, 업무 상 어려움이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역할갈등 및 과다

시설종사자들이 자신의 직무 관련 역할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갈등을 느끼고 있는지, 또는 자신의 역할이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는 지 조사하기 위해서 Tam과 Mong(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House와 McMichael(1979)이 개발한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Job Stress Index를 Tam과 Mong(2005)이 8개 문항으로 수정하였는데, 이 중 역할갈등 2문항, 역할과다 3문항 등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5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84로 나타났다.

역할갈등과 관련하여 시설종사자들은 대체로 역할갈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I-10>. 시설에 혼란스런 운영방침이나 규정이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 그렇지 않다는 쪽의 응답이 63.1%, 그렇다는 응답이 19.9%였다.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기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4.2%인 반면에 그렇게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19.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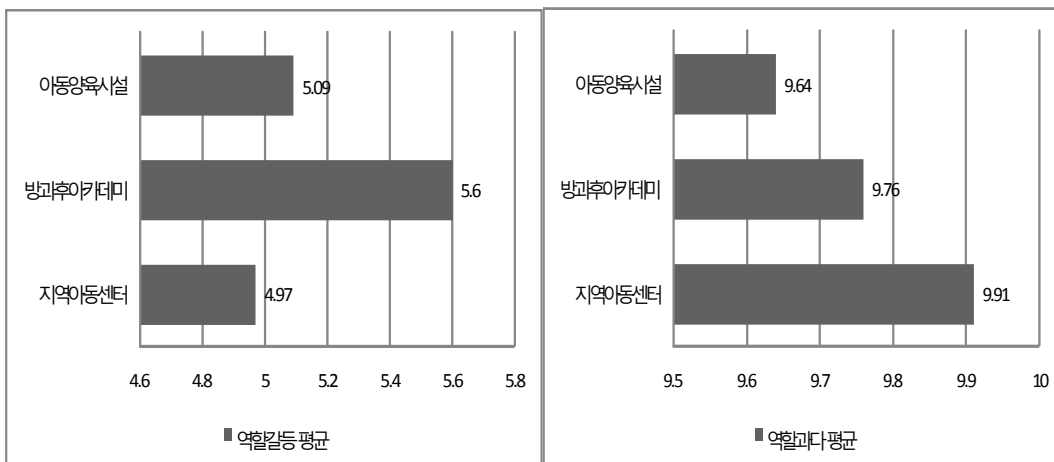
역할과다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역할이 과다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시설종사자들의 51.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22.3%)의 두 배 이상이 되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6%로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인 27.8% 보다 높았다.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42.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8.9%였다. 대체로 시설종사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역할갈등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편이지만, 역할을 과다하게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I-10 역할갈등 및 과다

(단위 : 명, %)

영역	문항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무응답	전체
역할 갈등	내가 근무하는 시설에는 혼란스런 운영방침이나 규정 등이 있다	67 (13.7)	240 (49.1)	83 (17.0)	92 (18.8)	7 (1.4)	-	489 100.0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기 너무 힘들다.	44 (9.0)	215 (44.0)	132 (27.0)	88 (18.0)	9 (1.8)	1 .2	489 100.0
역할 과다	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	5 (1.0)	104 (21.3)	130 (26.6)	207 (42.3)	43 (8.8)	-	489 100.0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15 (3.1)	121 (24.7)	125 (25.6)	180 (36.8)	48 (9.8)	-	489 100.0
	내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14 (2.9)	127 (26.0)	139 (28.4)	161 (32.9)	47 (9.6)	1 .2	489 100.0

시설유형별로 역할갈등 및 과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VI-11>. 그 결과 역할과다에는 시설 유형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역할갈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역할갈등은 전체 평균이 5.06인데,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평균이 5.60으로서 유의미하게 높았다($F=3.68$, Scheffe 사후검증).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양육시설 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이 역할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2】 시설 유형별 역할갈등과 역할과다 비교

역할갈등은 5점 척도로 보면, 2.53으로서 ‘그렇지 않다’와 ‘그저 그렇다’ 사이인 반면, 역할과다는 3.28로서 ‘그런 편이다’와 ‘그저 그렇다’ 사이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 없이 세 시설 종사자들 모두 대체로 역할이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VI-11 시설유형별 역할갈등 및 과다 비교

구분		지역아동 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양육 시설	전체	F	Scheffe
사례수		340	55	94	489		
역할갈등	평균	4.97	5.60	5.09	5.06	3.68*	a, c(b)
	표준편차	1.63	1.72	1.45	1.61		
역할과다	평균	9.91	9.76	9.64	9.84	.42	
	표준편차	2.60	2.60	2.59	2.60		

** $p < .01$; *** $< .001$

a=지역아동센터, b=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c=아동양육시설

(2) 소진

소진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직업에서 자주 나타나는 정서적 피로감과 냉소적 태도 등을 포함하는 증상이다. 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는 전체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진의 한 문항을 제외하고, 탈진(8문항), 비인간화(5문항), 개인적 성취의 감소(8문항)라는 3개의 영역으로 개념화되어있다. Maslach의 소진척도로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서적 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와 자신의 개인적 성취에 대한 자기비하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Maslach, 1982: 강현아 외,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68로 나타났다.

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에 의한 조사 결과, 전체 종사자의 소진 평균은 46.88, 표준편차는 9.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점 평균으로 살펴보면, 2.23으로서 소진 정도는 평균 2.5보다 다소 낮은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소진은 5점 척도 21문항으로서 최소 21점부터 최대 105점까지 가능한데, 본 조사에서는 최소 22점부터 최대 85점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하위 척도로

살펴보면, 신체·정서적인 피로감을 의미하는 탈진의 평균은 19.74로서 5점 척도로는 2.47이었으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비인간화의 평균은 8.92로서 5점 척도로는 1.78로 상대적으로 다른 하위 영역보다는 낮았고, 자신의 개인적 성취에 대한 자기비하적 태도를 측정한 성취감결여에서는 평균 18.22로서, 5점 척도로는 2.28로 나타났다<표 VI-12>.

표 VI-12 종사자의 소진

구분		전체	구분	전체
소진	사례수	489	최소값/최대값	
	평균	46.88	최소값	22
	표준편차	9.27	최대값	85
탈진	평균	19.74	최소값	8
	표준편차	4.51	최대값	34
비인간화	평균	8.92	최소값	5
	표준편차	2.77	최대값	21
성취감결여	평균	18.22	최소값	8
	표준편차	4.11	최대값	32

종사자들의 소진 정도를 시설유형별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소진 전체와 하위 척도에 평균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VI-13>.

표 VI-13 시설유형별 소진 비교

구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전체	F
소진	사례수(명)	340	55	94	489	2.13
	평균	47.25	47.56	45.12	46.88	
	표준편차	9.32	9.74	8.64	9.27	
탈진	평균	19.90	19.71	19.74	19.74	.94
	표준편차	4.56	4.82	4.51	4.51	
비인간화	평균	8.91	9.55	8.55	8.92	2.23
	표준편차	2.81	3.08	2.38	2.77	
성취감결여	평균	18.44	18.31	17.38	18.22	2.45
	표준편차	4.11	4.07	4.06	4.11	

소진과 종사자들의 특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연령(상관계수=-.18, $p>.01$), 평균 월수입(상관계수=-.12, $p>.01$), 지난 1년간 관련 교육이수시간(-.11, $p>.05$), 근무경력(상관계수=-.12, $p>.01$) 등이 소진과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월수입이 낮을수록, 지난 1년간 관련 교육이수시간이 적을수록,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지쳐서 소진이 된다고보다는 자신의 일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직무교육이나 적절한 보수가 소진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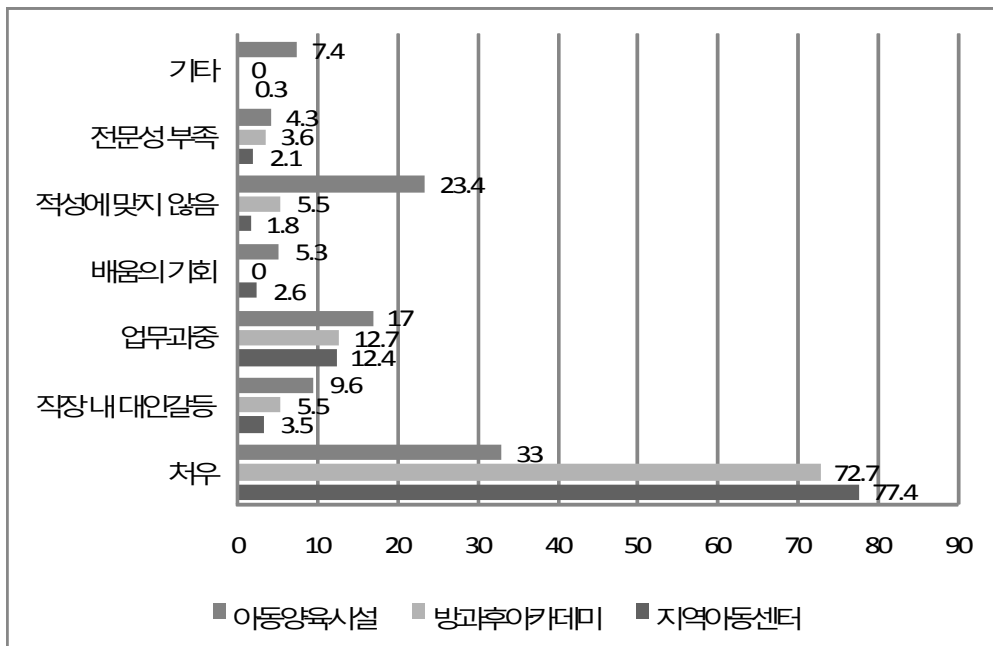
종사자들이 자주 바뀌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종사자들의 이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전체 종사자들은 처우(82.4%)가 가장 큰 이직 사유라고 응답하였으며,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50.9%)가 2위였고, 3위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20.4%)였다. 그 외 직장 내 대인갈등(4위)이나 자신의 전문성 부족(5위), 대학원 진학 등 배움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6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VI-14).

표 VI-14 이직원인

(단위 : 명, 백분율)

이직원인	1순위	2순위	총순위
전체	489(100.0)	489(100.0)	
처우(봉급, 복지후생 등)에 대한 불만	334(68.3)	69(14.1)	1
직장 내 대인갈등(상급자와의 갈등)	24(4.9)	53(10.8)	4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65(13.3)	184(37.6)	2
대학원 진학이나 배움의 기회	14(2.9)	25(5.1)	6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31(6.3)	69(14.1)	3
자신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13(2.7)	66(13.5)	5
기타	8(1.6)	14(2.9)	7
무응답		9(1.8)	

세 시설 모두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은 처우였지만<표 VI-15>,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이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3.0%임에 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각각 77.4%, 72.7%로서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2위는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23.4%)였고, 지역아동센터(12.4)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12.7%)는 업무과중이었다. 3위는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업무과중(17%)이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와 직장 내 대인갈등이 각각 5.5%였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직장 내 대인갈등(3.5%)이었다. 전반적으로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처우에 대한 비율이 낮은 반면에 다른 원인들에 대한 비율들이 높았는데, 특히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에 대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림 VI-3】 시설유형별 이직원인 비교

표 VI-15 시설유형별 이직원인 순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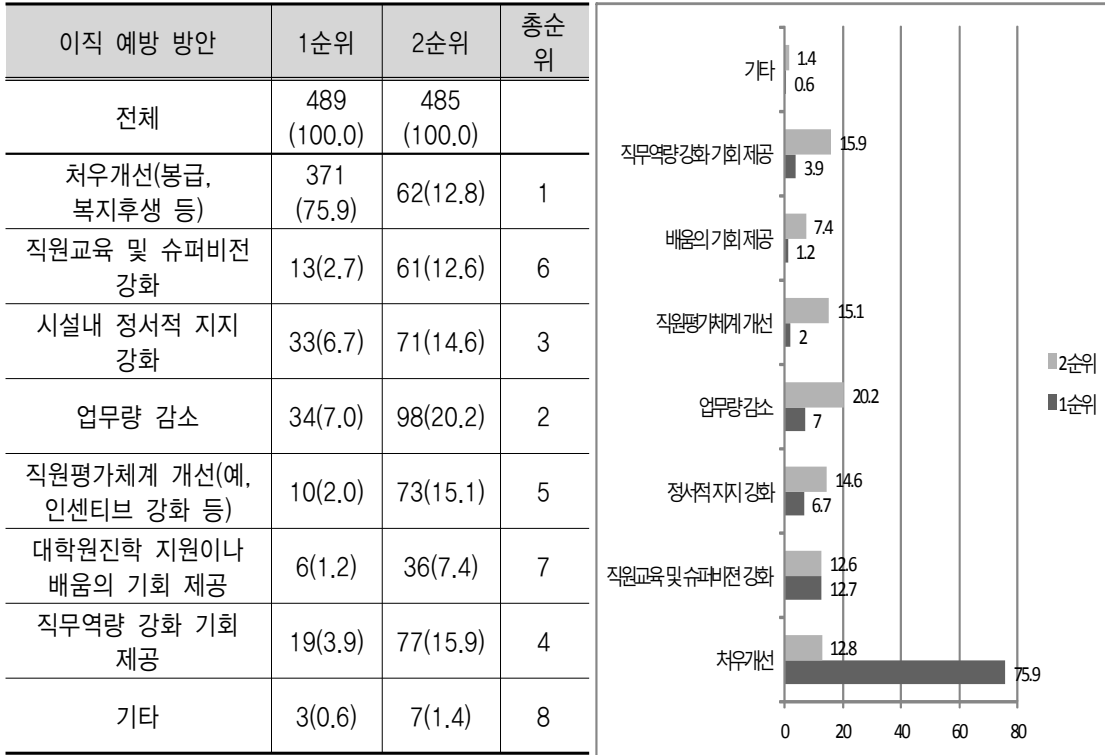
(단위 : 명, 백분율)

이직원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1순위	2순위	총순위	1순위	2순위	총순위	1순위	2순위	총순위
전체	340 (100.0)	333 (100.0)		55 (100.0)	55 (100.0)		94 (100.0)	92 (100.0)	
처우(봉급, 복지후생 등)에 대한 불만	263 77.4	50 15.0	1	40 72.7	6 10.9	1	31 33.0	13 14.1	1
직장 내 대인갈등(상급자와 의 갈등)	12 3.5	35 10.5	3	3 5.5	5 9.1	4	9 9.6	13 14.1	4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42 12.4	139 41.7	2	7 12.7	19 34.5	2	16 17.0	26 28.3	2
대학원 진학이나 배움의 기회	9 2.6	15 4.5	6	0 .0	3 5.5	7	5 5.3	7 7.6	6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6 1.8	43 12.9	5	3 5.5	12 21.8	3	22 23.4	14 15.2	3
자신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7 2.1	44 13.2	4	2 3.6	5 9.1	5	4 4.3	17 18.5	5
기타	1 .3	7 2.1	7	0 .0	5 9.1	6	7 7.4	2 2.2	7

이직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표 VI-16> 역시 처우개선(27.2%)이 1순위로 선택되었으며, 비율 역시 매우 높았다(1순위에서 75.9%). 2위는 업무량을 감소(27.2%)하는 것이었으며 3위는 시설 내 정서적 지지를 강화(21.3%)하는 것, 4위는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19.8%)하는 것, 5위는 직원평가체계를 개선(17.1%) 하는 것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시설종사자들의 이직에는 봉급이나 복지후생 등 처우와 관련된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16 이직예방을 위한 방안

(단위 : 명, 백분율)



시설유형별로는 이직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I-17). 이직 원인에 대한 시설유형별 순위 비교와 마찬가지로 세 유형의 시설 모두에서 종사자들은 처우개선이 이직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비율에는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즉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1순위에서 처우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7%인 반면에,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각각 82.9%, 83.6%나 되었다. 2위로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업무량 감소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은 직원평가체계의 개선을,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시설 내 정서적 지지의 강화를 들었다. 3위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직무역량강화 기회의 제공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은 시설 내 정서적 지지의 강화를,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업무량 감소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7 시설유형별 이직예방을 위한 방안 순위 비교

(단위 : 명, 백분율)

이직예방 방안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1순위	2순위	총 순위	1순위	2순위	총 순위	1순위	2순위	총 순위
전체	340 (100.0)	337 (100.0)		55 (100.0)	55 (100.0)		94 (100.0)	93 (100.0)	
처우개선(봉급, 복지후생 등)	282 82.9	41 12.2	1	46 83.6	3 5.5	1	43 45.7	18 19.4	1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 강화	3 .9	45 13.4	5	3 5.5	5 9.1	5	7 7.4	11 11.8	5
시설내 정서적 지지 강화	16 4.7	38 11.3	4	0 .0	14 25.5	3	17 18.1	19 20.4	2
업무량 감소	22 6.5	77 22.8	2	4 7.3	4 7.3	4	8 8.5	17 18.3	3
직원평가체계 개선(예, 인센티브 강화 등)	4 1.2	47 13.9	6	0 .0	13 23.6	2	6 6.4	13 14.0	5
대학원진학 지원이나 배움의 기회 제공	4 1.2	28 8.3	7	0 .0	5 9.1	7	2 2.1	3 3.2	7
직무역량 강화 기회 제공	8 2.4	59 17.5	3	2 3.6	6 10.9	6	9 9.6	12 12.9	4
기타	1 .3	2 .6	8	0 .0	5 9.1	7	2 2.1	0 .0	4

(4) 업무상의 어려움

시설종사자들이 어떤 종류의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9가지 업무 영역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5단위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가장 어려움을 덜 느끼는 항목은 ‘직원들과의 관계’로 평균 2.09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영역은 보수로서 평균 3.57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지역연계 및 후원사업 개발이 평균 3.28, 각종 평가사업 및 사업관리 업무가 평균 3.34,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 업무가 평균 3.09의 순서로 응답되었다.

항목별로 비율을 살펴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지도 업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쪽의

응답이 많았으며(50.7%)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1.9%였다.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상담 업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40.2%로서 부정적 응답 비율 37.2% 보다 다소 높았으며, 회계관리나 공문작성 등 행정관리 역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48.3%,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25.2%로 어려움이 없다는 쪽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없다는 쪽의 비율이 53.3%로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20.6%) 보다 2배 이상이 되었다. 특히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80%가 넘는 시설종사자들이 어려움은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에 불과하였다.

이와는 달리 부모교육 및 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0.9%, 어려움이 없다는 쪽의 응답 비율은 33.6%로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시설종사자들은 지역연계 및 후원사업 개발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45.8%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절반인 22.4%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4%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에 대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4.5%에 불과하였다. 끝으로 각종 평가사업 및 사업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쪽의 응답 비율이 46%로서 어려움이 없다는 쪽의 응답 비율인 21.3%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I-18 업무 영역별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백분율)

항목	전혀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저 그렇다	어려움이 있다	매우 어렵다	무응답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아동 청소년의 생활지도 업무	21 4.3	227 46.4	85 17.4	152 31.1	4 .8	-	489 100.0	2.78	.97
아동 청소년의 문제 상담업무	14 2.	187 38.2	105 21.5	172 35.2	10 2.0	1 0.2	489 100.0	2.97	1.00
부모교육, 상담 등 서비스업무	12 2.5	152 31.1	125 25.6	179 36.6	21 4.3	-	489 100.0	3.09	.97
회계관리나 공문작성 등 행정처리	35 7.2	201 41.1	130 26.6	107 21.9	16 3.3	-	489 100.0	2.73	.99
직원들과의 관계	80 16.4	311 63.6	74 15.1	23 4.7	1 .2	-	489 100.0	2.09	.72

항목	전혀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저 그렇다	어려움이 있다	매우 어렵다	무응답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근무시간	50 10.2	211 43.1	126 25.8	91 18.6	10 2.0	1 0.2	489 100.0	2.60	1.01
지역연계, 후원사업 개발	14 2.9	99 20.2	150 30.7	194 39.7	30 6.1	2 0.4	489 100.0	3.28	1.01
보수(급여)	8 1.6	63 12.9	151 30.9	179 36.6	87 17.8	1 0.2	489 100.0	3.57	1.01
각종 평가사업 및 사업관리업무	15 3.1	89 18.2	157 32.1	184 37.6	41 8.4	3 0.6	489 100.0	3.34	1.06

(5) 업무만족도

시설 종사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표 VI-19> 파악하기 위하여 강현아 외(2008)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15개의 문항 중 13개를 골라 사용하였다.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75였다.

업무만족은 자신이 인정을 받고 있는지, 자신에게 긍정적인 기회가 되는 지, 권한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 친근감이나 성취감, 화합 등의 느낌을 받고 있는 지, 처우는 어떠한 지와 같은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13개 항목 중 가장 만족스럽다고 응답된 항목은 업무 대상 아동 및 청소년과의 친근감으로 평균 4.11이었으며, 그 다음은 직장 동료와의 협력 정도로 평균 4.02였다. 이와 반대로 업무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급여수준으로 평균 2.64로 나타났으며, 승진기회가 평균 2.98로 그 다음 순이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정과 관련해서 시설종사자들은 대체로 기관 내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7.1%가 만족한다는 쪽에 응답하였으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4.3%에 불과하였다. 기관 외부의 지역사회에서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정은 이 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여전히 만족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40.9%로서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비율인 15.1%보다는 세배 가깝게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회와 관련한 문항 중 개인적 성장과 발전의 기회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64.8%,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5.9%로 만족스럽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역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54.8%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율, 8.4%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들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80.6%,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7%로서 대부분의 종사자가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승진의 기회는 만족스러운 비율과 불만족스러운 비율이 각각 23.5%, 23.7%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권한과 영향력 발휘 관련한 문항 중 담당업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는 비율이 66.7%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은 4.7%에 불과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이 역시 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74.9%로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비율(2.5%)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았다.

넷째, 느낌과 관련된 문항 중 업무 중 대하게 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느끼는 친근감에 89.4%의 종사자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단지 0.6% 만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직장 동료들과의 협력 정도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가 82.4%,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4.1%였다. 개인적인 성취감에 대해서 역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3.4%,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4.1%로서 만족스럽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다섯째, 처우에 대해서는 다른 문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근무시간 등 복무 여건은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42.1%,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24.8%로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의 2배 이상 되었는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43.2%,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0.6%였다.

업무만족도와 관련한 13개의 문항 중 급여수준과 승진기회만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11개의 문항들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9 업무만족도

(단위 : 명, 백분율)

구분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매우 만족	무응 답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인정	기관장(사무국장 등 상사)의 지지와 인정	3 .6	18 3.7	84 17.2	288 58.9	89 18.2	7 1.4	489 100.0	3.99	.96
	지역사회 유사 분야 전문가들의 인정	10 2.0	64 13.1	213 43.6	178 36.4	22 4.5	2 .4	489 100.0	3.31	.90
기회	개인적 성장과 발전 기회	3 .6	26 5.3	142 29.0	253 51.7	64 13.1	1 .2	489 100.0	3.73	.82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7 1.4	34 7.0	178 36.4	229 46.8	39 8.0	2 .4	489 100.0	3.55	.87
	아동·청소년을 위해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들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	1 .2	12 2.5	81 16.6	302 61.8	92 18.8	1 .2	489 100.0	3.98	.72
	승진 기회	43 8.8	73 14.9	255 52.1	100 20.4	15 3.1	3 .6	489 100.0	2.98	1.03
권한과 영향력	담당업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5 1.0	18 3.7	139 28.4	261 53.4	65 13.3	1 .2	489 100.0	3.75	.81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	12 2.5	110 22.5	309 63.2	57 11.7	1 .2	489 100.0	3.85	.69
느낌	업무 대상 아동·청소년과의 친근감	—	3 .6	48 9.8	332 67.9	105 21.5	1 .2	489 100.0	4.11	.61
	본인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감	3 .6	17 3.5	109 22.3	304 62.2	55 11.2	1 .2	489 100.0	3.81	.74
	직장 동료와의 협력 정도	1 .2	19 3.9	65 13.3	294 60.1	109 22.3	1 .2	489 100.0	4.02	.76
처우	근무 시간 등 복무 여건	35 7.2	86 17.6	159 32.5	187 38.2	20 4.1	2 .4	489 100.0	3.17	1.06
	급여수준	79 16.2	132 27.0	176 36.0	92 18.8	9 1.8	1 .2	489 100.0	2.64	1.06

시설유형별로 업무만족도를 비교하였다<표 VI-20>.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전체 업무만족도에서는 유형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 영역별로 인정과 처우에 대해서는 시설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시설 내외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인정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이 6.78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cheffe 사후비교분석). 처우에 대해서도 시설 유형별로 종사자간에 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는데($F=13.72$,

p=.000), 처우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다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effe 사후비교분석).

표 VI-20 시설유형별 업무만족도 비교

구분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양육 시설	전체	F	Scheffe
업무 만족도 전체	사례수(명)	339	55	94	488	2.37	
	평균	46.60	45.73	47.89	46.75		
	표준편차	6.17	6.42	6.72	6.32		
인정	사례수(명)	332	55	94	481	3.31*	b<a,c
	평균	7.25	6.78	7.28	7.20		
	표준편차	1.22	1.46	1.42	1.29		
기회	사례수(명)	336	55	94	485	1.59	
	평균	14.15	13.71	14.41	14.15		
	표준편차	2.29	2.45	2.42	2.33		
권한과 영향력	사례수(명)	339	55	94	488	.74	
	평균	7.62	7.58	7.47	7.59		
	표준편차	1.08	1.36	1.31	1.16		
느낌	사례수(명)	339	55	94	488	1.04	
	평균	11.86	11.87	12.11	11.91		
	표준편차	1.47	1.44	1.42	1.46		
처우	사례수(명)	339	55	93	487	13.72***	a,b<c
	평균	5.55	5.78	6.59	5.78		
	표준편차	1.68	1.70	1.73	1.73		

* $p < .05$; ** $p < .01$; *** $p < .001$

a=지역아동센터, b=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c=아동양육시설

3) 서비스 현황 및 개선사항

각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무엇인지, 또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였다(표 VI-21). 먼저, 현재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조사한 결과, 전체 517개 시설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문화체험활동으로서 98.3%인 508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다음 학습지원 서비스(97.5%), 일상생

할 습관지도(97.3%), 예체능활동(94%), 상담(92.8%), 독서지도(90.5%) 등의 순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었다.

대체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있지만, 시설의 기능 및 서비스 대상의 연령에 따라 일부 서비스들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부모상담 및 교육은 지역아동센터(81.4%)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82.8%)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었고, 사례관리는 지역아동센터(75.8%)와 아동양육시설(72.4%)에서, 경제교육은 아동양육시설(95.9%)에서, 심리·정서·행동치료는 아동양육시설(72.4%)에서, 진로상담 및 지원은 아동양육시설(90.8%), 심리검사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73.4%), 아동양육시설(72.4%)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친가족연계 및 복귀지원(75.5%), 자립준비지원(94.9%), 직업 및 기술훈련(61.2%)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월등히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표 VI-21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순위	구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전체
	시설 수(%)	355(100.0)	64(100.0)	98(100.0)	517(100.0)
1	문화체험활동	350(98.6)	61(95.3)	97(99.0)	508(98.3)
2	학습지원	347(97.7)	60(93.8)	97(99.0)	504(97.5)
3	일상생활습관지도	344(96.9)	62(96.9)	97(99.0)	503(97.3)
4	예체능활동	332(93.5)	58(90.6)	96(98.0)	486(94.0)
5	상담	334(94.1)	52(81.3)	94(95.9)	480(92.8)
6	독서지도	325(91.5)	59(92.2)	84(85.7)	468(90.5)
7	부모상담 및 교육	289(81.4)	53(82.8)	58(59.2)	400(77.4)
8	사례관리	269(75.8)	36(56.3)	71(72.4)	376(72.7)
9	대인관계 향상	239(67.3)	48(75.0)	67(68.4)	354(68.5)
10	경제교육	198(55.8)	31(48.4)	94(95.9)	323(62.5)
11	심리·정서·행동 치료	196(55.2)	29(45.3)	71(72.4)	296(57.3)
12	진로상담 및 지원	153(43.1)	39(60.9)	89(90.8)	281(90.8)
13	심리검사	134(37.7)	47(73.4)	71(72.4)	252(48.7)
14	친가족 연계 및 복귀지원	36(10.1)	3(4.7)	74(75.5)	113(21.9)
15	자립준비 지원	9(2.5)	4(6.3)	93(94.9)	106(20.5)
16	직업 및 기술훈련	8(2.3)	9(14.1)	60(61.2)	77(14.9)
17	기타	14(3.9)	5(7.8)	—	19(3.7)

* 주: ()안의 %는 시설 유형별 및 전체 시설 중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의 비율을 의미함.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표 VI-22>.

표 VI-22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단위 : 명, 백분율)

순위	구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전체
	시설 수(%)	355(100.0)	64(100.0)	98(100.0)	517(100.0)
1	심리검사	130(36.6)	7(10.9)	16(16.3)	153(29.6)
2	심리·정서·행동 치료	109(30.7)	17(26.6)	18(18.4)	144(27.9)
3	직업 및 기술훈련	83(23.4)	17(26.6)	15(15.3)	115(22.2)
4	친가족 연계 및 복귀지원	76(21.4)	12(18.8)	13(13.3)	101(19.5)
5	자립준비 지원	76(21.4)	15(23.5)	3(3.1)	94(18.2)
6	진로상담 및 지원	81(22.8)	6(9.4)	5(5.1)	92(17.8)
7	대인관계 향상	45(12.7)	6(9.4)	21(21.4)	72(13.9)
8	부모상담 및 교육	39(11.0)	5(7.8)	27(27.6)	71(13.7)
9	경제교육	46(13.0)	16(25.0)	—	62(12.0)
10	사례관리	28(7.9)	12(18.8)	20(20.4)	60(11.6)
11	예체능활동	11(3.1)	1(1.6)	2(2.0)	14(2.7)
12	기타	7(2.0)	1(1.6)	5(5.1)	13(2.5)
13	독서지도	10(2.8)	—	1(1.0)	11(2.1)
14	상담	3(.8)	3(4.7)	—	6(1.2)
15	학습지원	2(.6)	1(1.6)	—	3(.6)
16	문화체험활동	1(.0)	2(3.1)	—	3(.6)
17	없다	38(10.7)	11(17.2)	30(30.6)	79(15.3)

* 주: ()안의 %는 시설 유형별 및 전체 시설 중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시설의 비율을 의미함.

대체로 조사결과는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순서와 반대로 나타났으며,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하여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의 비율은 낮은 편으로서, 가장 많은 시설(29.6%)들이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아동센터가 상대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들이 많았는데, 30% 정도의

시설들이 심리검사와 심리·정서·행동 치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직업 및 기술훈련, 친가족 연계 및 복귀지원, 진로상담 및 지원, 자립준비지원 등도 20%정도의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심리·정서·행동 치료와 직업 및 기술훈련, 자립준비 지원, 경제교육이 20% 정도의 시설들이 제공하기 원하는 서비스였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향상, 부모상담 및 교육, 사례관리를 20%정도의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조사하였다<표 VI-23>.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 2개를 순위별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1순위로는 전문 인력 및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2.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모두 10% 이하의 비율을 보였는데 직원의 처우개선(8.8%),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 강화(5.9%), 업무매뉴얼 개발 및 교육(3.7%),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3.5%), 그리고 시설장의 의지가 2.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순위로는 업무매뉴얼 개발 및 교육이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 강화(21.7%),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20.4%)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직원의 처우개선(15.7%), 전문 인력 및 예산투입(10.2%) 순이었다.

응답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고, 1순위에 가중치를 주고 1순위와 2순위를 더하여 총순위를 살펴본 결과, 전문 인력 및 예산투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 강화, 직원의 처우개선, 업무매뉴얼 개발 및 교육,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 시설장의 의지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23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순위를 시설유형별로 살펴보았다<표 VI-24>. 이에 대한 응답 순위는 시설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1위는 세 가지 시설 유형 모두에서 전문 인력 및 예산투입이라고 하였으나, 2위부터는 다른 순서를 보였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2위를 직원의 처우개선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과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의 강화라고 응답하였다. 3위는 다 달랐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의 강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직원의 처우개선,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업무매뉴얼 개발 및 교육이라고 하였다.

표 VI-24 시설유형별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사항 순위 비교

(단위 : 명, 백분율)

개선사항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1순위	2순위	총순위	1순위	2순위	총순위	1순위	2순위	총순위
전체	340 100.0	332 100.0		55 100.0	52 100.0		94 100.0	81 100.0	
전문인력 및 예산투입	255 75.0	35 10.5	1	32 58.2	8 15.4	1	66 70.2	7 8.6	1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 강화	16 4.7	75 22.6	3	7 12.7	10 19.2	2	6 6.4	21 25.9	2
업무매뉴얼 개발 및 교육	10 2.9	85 25.6	4	3 5.5	8 15.4	5	5 5.3	11 13.6	3
직원의 처우개선	34 10.0	54 16.3	2	5 9.1	12 23.1	3	4 4.3	11 13.6	4
시설장의 의지	5 1.5	7 2.1	6	4 7.3	2 3.8	6	4 4.3	3 3.7	6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	13 3.8	76 22.9	5	2 3.6	12 23.1	4	2 2.1	12 14.8	5
기타	1 .3	-	7	0 .0	-	7	0 .0	-	7
무응답	6 1.8	-		2 3.6	-		7 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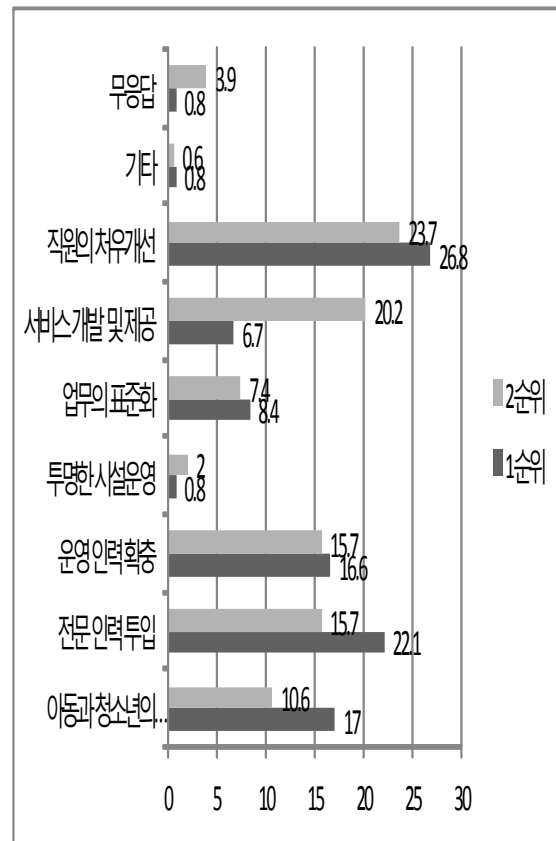
시설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는 직원의 처우개선(26.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문인력 투입(22.1%),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환경(17.0%), 운영 인력 확충(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역시 직원의 처우개선이 2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서비스 개발 및 제공(20.2%)이었으며, 전문인력 투입과 운영인력 확충이 각각 15.7%로서 같은 비율을 보였다. 1순위에 가중치를 두어 2순위와 합산한 후 무응답을 제외하고 총 순위를 산출한 결과, 현재 시설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직원의 처우 개선이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 전문인력 투입, 운영인력 확충,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환경,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업무의 표준화, 투명한 시설운영, 기타 순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시설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직원의 처우개선, 전문인력 투입, 운영인력 확충 등 모두 종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표 VI-25 시급한 개선사항

개선사항	1순위	2순위	총순위
전체	489 (100.0)	489 (100.0)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환경	83 (17.0)	52 (10.6)	4
전문 인력 투입	108 (22.1)	77 (15.7)	2
운영 인력 확충	81 (16.6)	77 (15.7)	3
투명한 시설운영	4 (0.8)	10 (2.0)	7
업무의 표준화	41 (8.4)	36 (7.4)	6
서비스 개발 및 제공	33 (6.7)	99 (20.2)	5
직원의 처우개선	131 (26.8)	116 (23.7)	1
기타	4 (0.8)	3 (0.6)	8
무응답	4 (0.8)	19 (3.9)	

(단위 : 명, 백분율)



각자의 시설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시설유형별로 비교하여 보았다(표 VI-25).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직원의 처우개선, 전문인력 투입,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환경 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직원의 처우개선,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환경, 서비스개발 및 제공 순이었으며,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투입, 운영인력 확충, 직원의 처우개선 순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즉 세 기관이 모두 응답한 직원의 처우개선을 제외시키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조사자의 전문성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서비스 개발을, 아동양육시설은 종사자의 전문성과 확충을 시급한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

표 VI-26 시설유형별 시급한 개선사항 순위비교

(단위 : 명, 백분율)

개선사항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1순위	2순위	총순위	1순위	2순위	총순위	1순위	2순위	총순위
전체	340 100.0	334 100.0		55 100.0	52 100.0		94 100.0	84 100.0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환경(시설 등)	56 16.5	41 12.3	3	9 16.4	8 15.4	2	18 19.1	3 3.6	4
전문인력 투입	76 22.4	58 17.4	2	7 12.7	3 5.8	5	25 26.6	16 19.0	1
운영인력 확충	53 15.6	55 16.5	4	6 10.9	7 13.5	4	22 23.4	15 17.9	2
투명한 시설운영	2 .6	4 1.2	7	2 3.6	3 5.8	7	0 .0	3 3.6	7
업무의 표준화	26 7.6	26 7.8	6	5 9.1	3 5.8	6	10 10.6	7 8.3	6
서비스 개발 및 제공	21 6.2	71 21.3	5	6 10.9	12 23.1	3	6 6.4	16 19.0	5
직원의 처우개선	100 29.4	79 23.7	1	18 32.7	16 30.8	1	13 13.8	21 25.0	3
기타	3 .9	0 .0	8	1 1.8	0 .0	8	0 .0	3 3.6	7
무응답	3 .9	-	-	1 1.8	-		0 .0	-	

제 7 장

Ⅶ.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조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제 7 장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조사결과 요약

이 조사는 그동안 거의 실시된 바가 없었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발달특성이나 생활변화와 더불어 관련정책과 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등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부적인 조사 대상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 중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1,000명으로 국한하였다.

2011년에 실시된 조사는 향후 3년간 추진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1차년도로서 조사설계 전반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이후 진행될 조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 정부서비스(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를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결과를 2010년 실시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일차적으로 전체 아동·청소년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두 번째로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빈곤계층 아동·청소년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업무환경과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장 전문가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1) 일상생활

첫째,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 평일에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경우는 38.4%에 불과하고 61.6%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하는 경우 하루 평균 1.1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설학원 이용률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다니지 않는 경우가 76.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용하는 경우(23.7%)는 하루에 1.3시간 정도 사설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일에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이카데미 이용시간은 평균 3.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시설이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일정정도 사교육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휴일에 지역아동센터 등을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이 76.7%로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주 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10명 중 7명 이상이 휴일에 돌봄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취약계층의 건강과 관련하여, 1주일 동안 아침식사 빈도를 알아보면, 거의 매일 먹는다는 응답이 69.9%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주 3-5일(14.6%), 주 1-2일(9.3일), 주 0일(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100명 중 6.5명이 매일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 12.5%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굶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최근 1년 내 질병경험여부를 가정경제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계층은 77.4%, 차상위계층은 76.3%, 사각지대는 68.0% 등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수준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상대적 자기평가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평균 75.2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컴퓨터 이용률은 89.6%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10%를 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보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를 보여준다. 평일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장소는 우리집이라는 응답이 81.0%로 대다수였고, 이어서 지역아동센터(7.6%), PC방(5.0%), 학교(4.9%)의 순이었다. 컴퓨터의 이용 내용별 사용빈도를 보면, 게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공부, 기타 정보검색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1.6%로 조사되었다.

넷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살펴 보았는데, 한학기 동안 결석을 한번도 하지 않은 학생이 76.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렇게 낮은 결석률은 시설에서 생활함에 따른 사회규범준수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특이한 현상은 교사에 대한 인사는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친근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학교에서 질서를 잘 지키지만 상대적으로 반의 활동에 대한 충실성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에서의 집단적 생활에 의해 질서를 지키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내면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과목별 학업성취도를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인 평균이 65.8점(보통 50, 매우 잘 하는 편 100)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영어(50.4)와 사회과목(53.4)에 대한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교육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상위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10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63.0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종단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비행과 관련해서 구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해경험 중에는 놀림이나 조롱당하기가 1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왕따당하기가 7.0%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서적인 차원의 폭력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2) 자아가족사회에 대한 인식 및 생활

자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첫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면한 위험이나 위협을 극복해 내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자아탄력성(resilience)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14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점수는 64.4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양상을 추적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숙제나 시험으로, 이 항목이 유일하게 평균을 넘어선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가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검토한 학습과 관련한 자기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발달도 중요하지만, 학업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제해결능력과 관련한 10개 문항을 조사하였는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전체 평균 점수는 64.8점으로 자아탄력성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또한 추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변화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전체 평균 72.2)하였는데, 가장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인 항목은 ‘방과후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86.9)는 것으로, 이는 방과후 시설을 이용하는 집단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일주일을 기준으로 귀가 후 부모님(어른)이 없이 지내는 빈도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46.4%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1/2이 방과후 돌봄의 기능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어른) 없이 지내는 빈도가 5일 이상이라는

응답도 16.6%로 나타나 지속적인 돌봄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의 경우, 100점 환산시 64.4점으로 나타났는데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는 항목의 평균 점수(100점 환산)가 71.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항목의 평균 점수도 비슷한 수준인 63.4점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개인적인 손해 수용 가능성에 대한 긍정도가 낮은 반면에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동의정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77.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이 부모관계(83.5), 건강(82.3), 친구관계(81.1), 가정생활(81.0)의 순인 반면에, 학업성적이 68.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양한 인식이나 만족도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의 효과가 주로 가정생활이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반면에, 학업적 측면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이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먼저,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도움을 받는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 75.8점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이 식사(80.9), 놀이나 취미활동(79.4), 친구 사귀는 것(78.3), 주요과목 공부(76.7)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받은 항목은 일상적인 상담(69.2)이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인 식사제공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적 기능인 상담기능의 보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72.3점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친절도(79.9)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에 개인적인 집안 사정에 대한 인지도(65.8)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검토한 서비스 만족도 중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식사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78.8) 나타났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화장실(69.3)이었다. 이는 위생이나 청결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서비스를 받으면서 변화되는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친구들과의 관계(78.8),

가족관계(77.7), 미래에 대한 꿈(77.3), 건강(7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이 정서적 측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및 저소득층 비교

이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2010년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가운데 저소득계층에 포함된 대상을 선택하여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1) 가족구성과 배경 비교

각 집단간 가족구성 형태는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53.4%,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경우 60.0%, 전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80.6%로 조사되었다.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둘째, 한부모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도 취약계층패널에서는 33.7%,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는 24.3%, 일반 아동·청소년 패널은 7%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정도를 갖고 있는 비율은 취약계층 패널에서는 7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는 69.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의 경우 46.2%이었음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아버지 교육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직업유무를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아버지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3%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97.8%,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는 9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1차적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취업 여부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관한 분포는 아버지의 직업유무 분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패널에서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경우는 56.6%,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의 경우는 55.0%로 취약계층패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의 결과를 요약하면,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전체아동에 비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낮고, 부모의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일상생활 비교

먼저, 각 집단의 주중 수면시간을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8.89시간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은 8.81시간, 전체패널은 8.77시간으로,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수면시간이 조금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수면시간의 경우도 취약계층패널은 9.43시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은 9.21시간, 전체 패널은 9.27시간으로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수면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고, 특히 시설 아동의 경우 집단생활에 적용되는 생활 규칙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둘째, 과외를 포함한 학원 수강시간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취약계층패널에서는 76.8%,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에서는 2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에서는 11.5%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말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의 비율도 취약계층패널에서는 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은 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는 19.8%로 취약계층패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과 관련하여,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 아동·청소년 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정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주로 석식에 머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현재 사각지대인 조식제공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우선 컴퓨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취약계층패널에서는 10.4%,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은 2.9%,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에

서는 3.5%로 나타났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숙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상황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보다는 취약계층패널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컴퓨터 사용장소와 관련한 세 집단의 응답 분포는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 집단 모두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장소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었지만, 그 비율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과 저소득층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장소로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시설(7.6%), PC방(5.0%), 학교(4.9%)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에는 학교(4.2%), PC방(3.5%), 저소득층은 PC방(5.3%), 학교(3.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PC방과 같이 성인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에서의 이용률이 취약계층집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 67.7%, 저소득층은 60.3%로 나타났다. 최근 휴대전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또 다른 형식의 정보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학교생활 비교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첫째, 학교 결석여부를 비교하면 취약계층패널의 경우 결석경험이 있는 경우가 23.5%인 반면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은 43.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43.2%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집단의 아동이 갖는 특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가정환경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스스로 학교 등교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부모나 보호자의 판단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양부모와의 거주 비율이 높고 부모의 교육정도가 더 높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부모가 자녀의 등교 여부(가족행사나 가족여행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생활 적응도를 학습생활, 학교규칙 준수,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학습생활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평균값이 취약계층패널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약계층패널의

평균값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학교규칙 준수 영역에서는 취약계층패널의 평균값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과 저소득층의 평균값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과 저소득층의 아동들보다 학교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집단생활에 원만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규칙 준수,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교사와 관계하는 시간의 연장 등의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자아탄력성 비교

자아탄력성에 있어서 취약계층패널 아동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 아동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전체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하위 문항들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체 자아탄력성에 있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아동들이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아동의 평균 자아탄력성은 3.02인 반면,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에는 이 값이 2.93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전체아동들이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친구에게 너그럽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묻는 다른 문항들과는 달리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과 저소득층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시설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부모감독 정도 비교

부모감독의 정도는 취약계층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취약계층패널과 저소득층 간의 차이는 상당 부분 “방과 후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항목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방과 후 주로 가는 곳이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부모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패널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과 후 자신들이 가는 곳을 부모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부모가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귀가 후 부모 없이 지내는 빈도를 살펴보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이 44.7%, 저소득층이 49.4%인데 비해, 취약계층 패널에서는 그 비율이 53.6%로 나타났다. 즉 취약계층패널 아동의 경우 귀가 후 부모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취약계층패널에서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직업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비율이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귀가 후 부모 없이 지내는 평균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취약계층패널에서는 하루 2시간 정도까지가 67.4%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52.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루 3~4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31.5%였으나 취약계층패널에서는 16.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청소년 패널의 저소득층과 비교할 때도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취약계층패널 아동들이 부모 없이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방과 후 시설에서 일정시간 지낸 후 늦게 귀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6) 지역사회와 공동체 인식 비교

먼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한 결과,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 비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봉사와 관련한 의식과 관련하여, 취약계층패널의 측정값이 2.992인 반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2.896, 저소득층은 2.802로 조사되어, 취약계층패널 아동과 청소년이 봉사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아동들보다 제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수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혜택을 되돌려 주고자 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봉사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3) 시설 종사자와 서비스의 실태 및 문제점

아동 및 청소년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일상생활의 질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의 질은 시설종사자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종사자들의 직무현황과 직무에 대한 인식과 태도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시설종사자들은 부모를 대신하여 이들을 직접 돌보기 때문에 시설서비스의 실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종사자 대상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다.

(1) 직무 현황 및 문제점

먼저, 근무 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 시설종사자들의 근무경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무경력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3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25.7%,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경우는 19.3%였다. 이러한 결과를 3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3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45.0%였으며, 나머지 55%의 인력이 3년 미만의 짧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의 비율이 26.7%로 다른 시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설치된 시설이 많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지닌 취약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험도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경험이 부족한 시설종사자들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주당 평균근무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시설종사자들은 주당 평균 41.2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5일 근무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8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시설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에 비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종사자들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에 못 미치는 반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53.03시간을 근무하고, 이를 주5일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10.61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동양육시설의 특성상 24시간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2교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셋째, 시설종사자들의 보수를 살펴본 결과, 월수입은 평균 151.61만원으로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시설종사자들의 월수입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42.9%, 100만원 미만인 27.1%라고 응답하여, 전체의 응답자의 70% 정도가 월평균 15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사자의 69.1%가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15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다. 월수입 역시 시설유형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비해 보수가 더 낮게 조사되었다. 물론 월수입은 근무경력과도 관련이 있겠으나, 지역아동센터의 보수는 평균 117.05만원으로 다른 두 시설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경력을 타시설보다 짧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시설종사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적절한 보수교육을 받음으로써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설종사자들의 교육이수시간은 연평균 22.27시간, 월평균 1.86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실제로 시설종사자들의 직무재교육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수교육 역시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동양육시설이 연평균 32.39시간으로 현저하게 교육이수시간이 길었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연평균 보수교육 19.98시간, 월 평균 1.67시간이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연평균 19.16시간, 월 평균 1.60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직무에 대한 인식·태도 및 문제점

시설종사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는지 주요 변수들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직무에 대한 인식·태도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종사자들은 역할갈등이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낮았지만, 자신의 역할이 과다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50% 정도나 되었다. 역할갈등과 역할과다의 5점 척도 평균은 각각 2.53, 3.28로 역할갈등은 느끼지 않는다는 쪽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역할과다는 느낀다는 쪽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역할갈등 항목은 시설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보다 역할갈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방침이나 규정을 통하여 종사자의 직무상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둘째, 시설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소진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진 항목의 5점 척도는 평균 2.23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탈진이 2.47점, 개인적 성취 2.28점, 비인간화 평균 1.78점 순으로 조사되었고, 비인간화는 탈진과 개인적 성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은 연령, 월수입, 교육이수시간, 근무경력 등과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월수입이 낮을수록, 지난 1년간 관련 교육이수시간이 적을수록,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았다.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일하는 과정에서 지쳐서 소진이 된다고보다는 자신의 일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절하게 채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직은 시설종사자들에게 자주 문제가 되는 이슈이다. 본 조사에서도 오랜기간의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이 반수가 안 되며,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 인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설종사자들에게 이직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는데, 가장 큰 원인은 종사자의 처우였고, 두 번째 요인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두 번째로는 업무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업무상의 어려움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보수(3.57)였으며, 각종 평가사업 및 사업관리 업무(3.34)나 지역연계 및 후원사업 개발(3.28)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항목보다 다소 높았다.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2.09)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업무상 만족도의 경우, 13가지 항목을 제시하여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급여 수준(2.64)이었으며, 승진기회(2.98)가 그 다음 순이었다. 반면 업무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과의 친근감(4.11)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직장 동료와의 협력(4.02) 정도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하위 영역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시설 내외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인정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6.78)들이 아동양육시설(7.28)과 지역아동센터(7.25) 종사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우에 대한 만족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6.59)들이 지역아동센터(5.55)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5.78) 종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각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8.3%의 시설이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90%이상의 시설들이 학습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습관지도, 예체능 활동, 상담, 독서지도의 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에 직업 및 기술훈련, 자립준비 지원, 친가족 연계 및 복귀 지원 등의 서비스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많이 제공되었고, 부모 상담 및 교육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대체로 시설 유형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차이를 보였다.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순위와 반대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설들에서 심리검사(29.6%)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심리·정서·행동 치료(27.9%), 직업 및 기술훈련(22.2%), 친가족 연계 및 복귀지원(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진로상담 및 자립준비지원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자립준비지원과 경제교육을, 아동양육시설에서는 대인관계향상, 부모상담 및 교육,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은 첫째 전문 인력 및 예산의 투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직원의 처우 개선, 직원 교육 및 슈퍼비전의 강화 순이었다. 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직원의 처우 개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전문 인력의 투입이었다.

2. 정책제언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최근 우리사회의 빈부격차 심화에 따라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빈곤세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로 인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아동·청소년의 수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왔지만, 그 효과는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국가차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주로 사후대책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기본생활 보장이나 공평한 출발선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의 저변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그 세부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장기적 관점의 대안 마련과 조사체계

취약가정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은 발달과업이 달성되기 어렵거나 열악한 사회적 환경, 예를 들어 부모와의 동거여부나 지역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 과정에 대한 중단조사를 통해 그 변화 양상을 동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른 자아탄력성이나 문제해결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검증과 조사체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목표설정 준거로서 체계적 조사는 필수적이다. 단순히 몇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만족도 점수를 측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준거틀로 검증기준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준거틀을 기초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보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강과 관련하여 제공된 정책이 매우 높은 효과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급식지원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휴일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휴일 중 급식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석식이나 중식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조식지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아동·청소년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과의 비교, 저소득층과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실태를 비교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분석결과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전체 저소득층 집단과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성장·변화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조사체계

아동과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도 교급이나 연령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 양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도 체계화 될 수 있다. 즉,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연령대별 또는 교급별 특성에 맞게 중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에서 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 중 하나가 ‘건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발달과정상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학업성적의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게 나타났고, 그 세부적인 과목은 ‘영어’로 파악되었는데, 이 또한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학년이 지닌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조사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시설 서비스 및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시설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언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영역과 항목에서 실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몇 가지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의 관계자나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학습지도인데,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조사대상인 아동과 청소년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설 이용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학습이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도 학업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장 변화되지 않는 것도 학교성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는 과목이 영어라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령과 성별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학습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개별적인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종사자가 상시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접하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인하고 외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 조정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즉, 일상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식제공이나 부모귀가 시간을 고려한 야간돌봄서비스 등은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욕구 파악과 같은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들이다.

셋째, 학년과 소득수준, 거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내용을 스스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별 시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시설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관련 정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제언

첫째, 돌봄기능의 강화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일에 지역아동센터 등을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이 76.7%로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향후 주 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10명 중 7명 이상이 휴일에 돌봄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100명 중 6.5명이 매일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 12.5%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수이지만 특성화된 급식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10% 이상이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습을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가정 또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등에 컴퓨터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저소득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화장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시설종사자 관련 제언

(1) 처우 개선

시설종사자들이 여러 문항에서 일관성 있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문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다. 이들의 평균 월수입은 151.61만원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가장 열악해, 대졸이상의 학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월수입이 117.05만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낮은 월수입은 소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사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고,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상의 어려움과 만족도를 조사한 문항에서도 보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으며, 서비스 개선 사항에서도 직원의 처우가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다.

인력은 서비스의 질과 직접 관련이 되는데, 현재와 같은 보수체계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본 조사에서도 3년 미만의 종사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서도 잦은 이직으로 직무 교육과 경험을 축적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떠나게 하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처우개선 문제를 부차적이고 선택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직무에 합당한 보수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적절한 업무배분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자신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주당 평균 53.0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전문 인력의 투입을 제안하였으며,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업무량을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3) 직무재교육 강화

본 조사에서 시설종사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86시간의 직무 관련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히 복잡하고 심각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전문성이 향상되고 축적되어야 할 터인데,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수시간은 소진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도 직원 교육 및 슈퍼비전이 강화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시설유형별로 직무와 관련하여 표준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거나 개정하고,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직급별로 자신의 직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해야 하며, 이들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시설유형별 개선방안 모색

본 조사는 방과후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의 차이가 나타났고, 또한 시설의 대상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시설의 기능 및 대상별 차이를 고려한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양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나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아동양육시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정 변수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시설들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능과 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지훈(2004). 남녀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아·노충래·박은미·신혜령(2008). 아동복지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소진 및 이직 의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0(3), pp.107-128.
- 권세운·이순형(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능력의 비교. 아동학회지. 23호.
- 권지은(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곤 외(2007). 2007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봉소 역(1994).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봉환·정철영·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승권 외(2003).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복지증진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채(1990). 학습과 사고의 전략.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지경 외(2009).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외(2010).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KYPS):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균(2008). 학교적응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자아통제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2), pp.73-98.
- 김형태 외(2006).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현황분석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모선영·홍백의·이자영·최은성(2007). 빈곤아동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 :어린이재단 서비스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어린이재단, 통권 103호, pp.1-92.
- 문희옥(1987). 정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미국아동복지시설연맹 편, 차인홍·송경옥 역(2004),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기준. 서울: 은평천사원출판부.
- 민주홍(2005). 패널조사의 필요성과 연구동향. 직업과 인력개발, 8(4), pp.108-117.
- 박수미 외(2008). 200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1차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재연 (2010).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4(1), pp.345-375.
- 박정환·우옥희(1999). PBL(Problem- Based Learning)이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에 따라 문제해결 과정에 미치는 효과. 교육공학연구, 15(3), pp.55-81.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전국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_____ (2010). 2010년 전국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2008). 아동복지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지역아동정보센터(2009).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지역아동정보센터.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03). 2003년 아동복지사업운영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_____ (2010). 2010년 아동·청소년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2006). 청소년건강행태패널구축방안 연구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성미영, 이순형, 이강이(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초기 학교적응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호.
- 신나리 외(2007). 한국아동패널-예비조사 보고서-.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2008). 한국아동패널 2008.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신현구 외(2007).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1차 기본조사 소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http://www.kli.re.kr> (2010. 3. 15)
- 신현숙 역(2009). Sam Goldstein·Robert B. Brooks 편저. 아동·청소년 적응유연성 핸드북. 서울: 학지사.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 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월드비전(2010).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보고서-한국형변화를 가져오는 개발사업 지표에 대한 기초선 조사 연구보고서-. 서울: 월드비전.
- 유성경·홍세희·최보운(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pp.393-408.
- 육아정책개발센터(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_____ (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강아·성미영(2003). 유아의 정서지식과 대인간 문제해결전략 : 시설보호유아와 일반유아의 비교. 아동학회지. 24호.
- 이강아 외(2002). 21세기 유아교육. 서울: 학지사.
- 이경림 외(2007). 지역아동센터 특성이 이용아동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서비스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중심으로-. 서울: 보건복지부·(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 이경상 외(2002). 한국청소년패널조사 I-1차년도 경과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0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07).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08a).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08b).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09b).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계오 외(2007). 표본조사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계오(2007). 고령화연구 패널조사의 표본설계. 서울: 노동연구원.
- 이봉주 외(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이용교(1993).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서울: 은평천사원 출판부.
- 이용교 외(2000). 한국의 아동복지학. 서울: 양서원.
- 이종원(1998). 육아시설아동의 성격특성 분석을 통한 생활지도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

- 위논문.
- 이지연·곽금주(2008). 영아기 어휘 종류와 아동초기 지적 능력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1), pp.1-14.
- 이태수·함철호·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제5호, pp.169-206.
- 이혜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혜연 외(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09).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빈곤한 한부모 가정·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10).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은미(2004). 청소년 진로성숙도의 발달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교육학연구, 42(3), pp.325-348.
- 장명림·신나리·박수연(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장재호 외(2009). 청년패널 기초분석 보고서-2007년도 조사결과-.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정계숙, 박명화 (2001). 사회·정서 발달 문제로 상담실에 의뢰된 아동에 관한 기초 연구: 진단과 중재를 위한 시사. 정서·학습 장애연구. 17(1), pp.143-171.
- 정명순(2004). 부와 모의 유아경제교육 인식 및 태도에 따른 유아의 경제기본개념과 경제생활습관에 관한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익중·이경림·이상균(2010). 복권기금 야간 요보호아동통합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방안 연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정화실(1991).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이나영(2010).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6), pp.1-20.
- 조현경(1995). 일반가정 청소년의 시설병적 특성 비교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 외(1994). 아동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 지역아동정보센터(2007). 지역아동센터 특성이 이용아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지역아동정보센터.
- _____ (200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실태조사. 서울: 지역아동정보센터.
- _____ (2009).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서울: 지역아동정보센터.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0).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2010. 12월 기준. 서울: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차춘희(1983). 부 부재와 모-자 상호작용의 질이 유치원 아동의 지적발달과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창균 외(2006).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05)-제1차년도 자료 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경순(1991).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 pp.223-239.
- 최경순 외(1992) 아버지의 양육 참여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판단능력. 아동학회지 13(1), pp.38-51.
- 최선애(1984). 부친 부재가 자녀의 정서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고용정보원(2002). 2001 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2005).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I)-예비조사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09). 아동권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1).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매뉴얼.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허남순 외(2006). 지역아동센터 운영성과 분석에 따른 운영모델 개발 및 발전방안 모색. 서울:

- 보건복지부·(사)부스리기사랑나눔회.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진구(2011). 방과후서비스 현황,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직무연수 자료집.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Bisanz, G. L., Vesonder, G. T., & Voss, J. F.(1978). Knowledge of one's own responding and the relation of such knowledge to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5.
- Bolger, N., & Zuckerman, A.(1995). A framework for studying personality in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pp.890-902.
- Bransford, J. D., & Stein, B. S.(1983). *The IDEAL problem solver: A guide for improving thinking, learning, and creativity*. New York: W. H. Freeman.
- Bronfenbrenner, U.(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pp.723-742.
- Brooks-Gunn, J., Duncan G., & Aber J. L.(1997). Poor families, poor outcomes :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th. Duncan G., & Brooks-Gunn, J.(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 Brooks-Gunn, J., Kleanov, Liaw & Duncan(1995).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Poverty upon Children. In Fitzgerald H. E., Lester, B. M., & Zukerman B.(Eds.), *Children of Poverty-Research, Health and Policy Issues*. New York : Garland Publishing Inc.
- Coie, J. D., Wastt, N. F., West, S. G., Hawkins, J. D., Asarnow, J. R., Markman, H. J., Ramey, S. L., Shure, M. B., & Long, B.(1993). The science of preven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some directions for a national research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48, pp.1013-1022.
- Corcoran, M.(2000). Mobility, persiste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determinants of children's success. *Focus*, 21.
- Daniel, K.(1989). *Panel Surveys*. John Wiley and Sons.

- Develop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2008). *Youth Cohort Study & Longitudinal Study of Young People in England*. England: The Activities and Experiences of 17 year olds.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E.(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Journal of Psychological Bulletin*, 125, pp.276-302.
- Furstenberg, F. F., & Hughes, M. E.(1995).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development among at-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3), pp.580-592.
- Galambos, N. L. & Silbereisen, R. K.(1987). Income change, parental life outlook, and adolescent expectations for job suc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pp.141-149.
- Gauvain, M.(2004). Bringing culture into relief: Culture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lanning skills. In Kail, R. V.(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pp. 39-71). San Diego, CA: Elsevier.
- Gest, S. D., Graham-Bermann, S. A., & Hartup, W. W.(2001). Peer experience: Common and unique features of number of friendships, social network, centra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Social Development*, 10, pp.23-40.
- Gregory B. M.(1979). *Analyzing Panel Data*. Sage university paper.
- Grottpeter, J. K., & Crick, N. R.(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oi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pp.2328-2338.
- Hill, M. S., & Sandfort, J. R.(1995).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on productivity later in life : Implication for public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
- House, K. and McMichael, A.(1979).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among factory worke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 pp.139-160.
- Kail, R., & Park, Y.(1994). Processing time, articulation time, and memory spa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7, pp.281-291.
- Kuczynski, L., & Lollis, S.(2002). Four foundations for a dynamic model of parenting. Gerris, J. R. M.(Ed.), *Dynamics of parenting*. Hillsdale, NJ: Erlbaum.

- Kuklinski, M. R. & Weinstein, R. S.(2001). Classroom and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 path model of teacher expectancy effects. *Child Development*, 72.
- Luna, B., Garver, K. E., Urban, T. A., Lazar, N. A., & Sweeney, J. A.(2004). Maturation of cognitive processes from late childhood to adulthood. *Child Development*, 75, pp.1357–1372.
- Luthar, S. S. & Ciochetti, D.(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 Implication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pp.857–885.
- Maslach, C.(1982). *Burnout: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 in Job Stress and Burnout, Research, Theory and Intervention Perspectiv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Maslach, C., & Jackson, S.(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 pp.99–113.
- Mayer, S. (1997). *What money can't buy: The effect of parental income on children's outcom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Cormick, M. C., & Brooks–Gunn, J.(1989). Health care for child relationship and antecedents. In H. Freeman & S. Levine(Eds.), *Handbook of Medecal Sociology*. Engel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cCulloch, A., & Joshi, H.(2000). *Neighbourhood and Family Influence on the Cognitive Ability of Children in the British National Child Development Study*. ISER Working paper 2000–24, Univ of Essex :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 McLoyd, V.(1998). Socioeconomcis dsi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06).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02: Base Year to First Follow–up Data File Documentation*. U.S. Department of Education.
- Oken E., & Lightdale Jr.(2000). *Updates in pediatric nutrition*. Curr Opin Pediatr.
- Rose, A. J., & Asher, S. R.(1999).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conflicts within a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5, pp.69–79.

- Runyan et al.(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Journal of Child Abuse and Neglect*, 22(4), pp.249–270.
- Rusell, A., Mize, J., & Bissaker, K.(2004).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Smith, P. K., & Hart, C. H.(Eds.).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204–222.
- Ryding, M., Konradsson, K., Kalm, O., & Prellner, K.(2002). Auditory consequences of recurrent acute purulent otitis media. *Annals of Otology, Rhinology, and Laryngology*, 111(3, Pt.1), pp.261–266.
- Smith, J., & Prior, M.(1995). Temperament and Stress Resilience in School–Age Children: A Within–Families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2), pp.168–179.
- Straus, M., Hamby, S., Finkelhor, D., Moore, D., & Runyan, D.(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2(4), pp.249–270.
- Stright, A. D., Neitzel, C., Sears, K. G., & Hoke–Sinex, L.(2002). Instruction begins in the home relations between parental instruction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in the classroom.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pp.456–466.
- Tam, T. S. K., & Mong, L. P. K.(2005). Job stress, perceived inequity and burnout among school social workers in Hong Kong. *International Social Work* 48, pp.467–483.
- United Nations(2001). *CRC–General Comment No.1–The Aims of Education*.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2002). *CRC–General Comment No.2–The Role of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2002). *CRC–General Comment No.4–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Weinstein, R. S.(2002). *Reaching higher : The power of expectations in schooling*. Havard Univ.

「2011 국감」국내 어린이 전자파에 무방비 노출, 이투데이(2011. 10. 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799&id_xno=487648

.....

부록

부 록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지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1

유형	지역번호	시설번호	ID
ID 1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일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는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조사의 첫 번째 조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 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1.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황진구 / 이해연



[조사관련 문의처].

(주) 동서리서치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4 신태양빌딩

담당연구원 이영민 연구원 ☎ 02) 2188-9649 lym@dsrgroup.co.kr

실사연구원 신현정 대 리 ☎ 02) 2188-9788 hjshin@dsrgroup.co.kr

	☞ 사는 곳을 쓰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SQ1) 사는 곳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SQ2) 이용시설명	() 지역아동센터		
SQ3) 성 명	()		
SQ4) 학교명	() 초등학교 4학년		

1.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기 중 생활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문 1) 여러분이 평소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써 주세요.

항 목	학교 가는 날 (월~금)		학교 가지 않는 날 (놀토, 일, 공휴일)			
① 보통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나요?	밤 ____시에 자고 아침 ____시에 일어난다.		밤 ____시에 자고 아침 ____시에 일어난다.			
②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니지 않음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해당없음			
③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내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다니지 않음	1.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2.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2.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④ 지역아동센터 외의 학원(과외)에서 지내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니지 않음	1.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다니지 않음	1.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2.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2.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 2)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 우유나 주스 등 음료수만 마신 경우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에 해당됩니다.

※ 빵, 선식,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는 식사를 한 것에 해당됩니다.

① 주 0일

② 주 1~2일

③ 주 3~5일

④ 주 6~7일



☞ 아래 문 2-1)로 가세요)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일주일 동안 한번도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고
르세요)

① 시간이 없어서

②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③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

④ 돈이나 음식이 없어서

⑤ 먹기 싫어서

⑥ 기타_____

문 3)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O표시** 해 주세요.

- | | |
|---------------------------|-----------------------------|
| ① 정형외과 질환(뼈가 부러짐, 관절부상 등) | ② 이비인후과 질환(비염, 중이염 등) |
| ③ 치과 질환(충치, 잇몸병, 치아교정 등) | ④ 내과 질환(감기, 장염, 알레르기, 천식 등) |
| ⑤ 안과 질환(눈병 등) | ⑥ 흉부외과 질환(심장, 폐질환 등) |
| ⑦ 피부과 질환(여드름, 아토피, 습진 등) | ⑧ 신경과 질환(경련, 간질 등) |
| ⑨ 정신과 질환(우울, 불안 등) | ⑩ 기타(성형외과 질환 등 _____) |

※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으면 아래의 문 4)로 가세요.

문 3-1) 치료를 받았나요?

- 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받거나 치료받고 있음 ② 일부 치료 받음 ③ 전혀 치료받지 못함
 아래 문 4)로 가세요.  아래 문 3-2)로 가세요.

문 3-2) 무슨 이유로 치료받지 않았나요? **하나에만 O표시** 해 주세요.

- | | | |
|--------------|----------------------|------------|
| ① 많이 아프지 않아서 | ② 치료비가 없어서 | ③ 병원이 멀어서 |
| ④ 의료보험이 없어서 | ⑤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 | ⑥ 치료가 무서워서 |
| ⑦ 귀찮아서 | ⑧ 몸이 불편해서(움직일 수 없어서) | ⑨ 기타_____ |

문 4)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O표시 해 주세요.

- | | |
|---------------------------|---------------------------|
| ①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우 건강하다. | ② 다른 친구들에 비해 건강한 편이다. |
| ③ 다른 친구들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④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

문 5) 여러분은 컴퓨터를 사용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O표시** 해 주세요.

- ① 사용한다. ② 사용하지 않는다. → **문6)으로 가십시오.**

 문 5-1)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아래에 써 주세요.

주중(월~금)에는 하루 평균 약 _____시간 _____분
 주말(토~일)에는 하루 평균 약 _____시간 _____분

- ① 우리 집 ② 친구 집
③ 학교 ④ 학원
⑤ PC방 ⑥ 지역아동센터
⑦ 기타()

아래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1	2	3	4
② 학습 이외의 정보검색 및 자료(음악, 영화, 만화 등) 이용	1	2	3	4
③ 게임 및 오락	1	2	3	4
④ 채팅이나 메신저(싸이월드, 버디버디 등)	1	2	3	4
⑤ 전자우편(e-mail)	1	2	3	4
⑥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1	2	3	4
⑦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활동	1	2	3	4
⑧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1	2	3	4
⑨ 댓글 달기	1	2	3	4
⑩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1	2	3	4

문 6) 여러분은 휴대전화(핸드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 ① 가지고 있다 ② 가지고 있지 않다

L → 6-1) 휴대전화번호는?

Ⅱ.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 여러분은 4학년이 된 이후 학교를 결석(체험학습으로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 적이 있습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① 있다

② 없다

문2)로 가세요



문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며칠이나 결석했습니까?

아래 각 이유에 대해 결석 일수를 모두 써 주세요.

결 석 이 유	결 석 일 수
① 사고로 몸을 다쳐서	_____ 일
②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_____ 일
③ 가족 행사 또는 여행 때문에	_____ 일
④ 가기 싫어서 또는 별 이유 없이	_____ 일
⑤ 기타 _____	_____ 일

문 2)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1	2	3	4
②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1	2	3	4
③ 반에서 맡은 당번과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한다.	1	2	3	4
④ 화장실이나 급식할 때에 차례를 잘 지킨다.	1	2	3	4
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⑥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1	2	3	4
⑦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	2	3	4
⑧ 담임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문 3) 여러분은 다음의 과목을 2011년 1학기 동안 얼마나 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과 목	매우 잘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못하는 편이다	매우 못하는 편이다.
①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② 영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③ 수학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④ 과학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⑤ 사회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문 4) 여러분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아래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	2	4	5

Ⅲ. 다음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 등에 질문입니다.

문 1)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친구들에게 잘 대해 준다).	1	2	3	4
②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1	2	3	4
③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④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1	2	3	4
⑤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1	2	3	4
⑥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1	2	3	4
⑦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는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⑧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1	2	3	4
⑨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⑩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⑪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1	2	3	4
⑫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	2	3	4
⑬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1	2	3	4
⑭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1	2	3	4

문 2) 다음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자주 그렇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②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③ 친구에 대한 열등감(친구보다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④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⑥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문 3) 여러분이 부모님(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②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1	2	3	4
③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1	2	3	4
④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1	2	3	4
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칭찬을 하시거나 혼내시는 일이 없다.	1	2	3	4
⑥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1	2	3	4
⑦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1	2	3	4
⑧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1	2	3	4

문 4)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얼마나 자주 하나요?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항 목	거의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5-6회	매일
①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1	2	3	4	5
②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1	2	3	4	5
③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1	2	3	4	5
④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화	1	2	3	4	5
⑤ 함께 하는 여가활동(운동, 취미활동 등)	1	2	3	4	5
⑥ 함께 저녁식사	1	2	3	4	5

문 5) 여러분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이 집에 계시지 않는 날이 1주일에 며칠이나 됩니까?

전혀 없다	1-2일 정도	3-4일 정도	5일 이상
1	2	3	4

↓
다음페이지 문6)으로 가세요.

문 5-1) 돌봐주시는 어른이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날,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하루 1시간 미만	하루 1-2시간 정도	하루 3-4시간 정도	하루 4시간 이상
1	2	3	4

문 6)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와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1	2	3	4
② 나는 길거리에서 우리 동네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1	2	3	4
③ 나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조심)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④ 나는 우리 동네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1	2	3	4
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1	2	3	4
⑥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1	2	3	4

문 7)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국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1	2	3	4
② 우리 가족, 학교, 사회,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	1	2	3	4
③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돈이나 물건을 기부할 수 있다.	1	2	3	4
④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다.	1	2	3	4

문 8) 현재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얼마나 만족하나요? 아래 항목의 해당 칸에 ○표 시해 주세요.

항 목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불만족 하는 편이다	매우 불만족 한다
① 가정생활	1	2	3	4	5
②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1	2	3	4	5
③ 형제자매와의 관계(없는 경우는 표시하지 마세요)	1	2	3	4	5
④ 건강	1	2	3	4	5
⑤ 여가 및 취미생활	1	2	3	4	5
⑥ 학교생활	1	2	3	4	5
⑦ 학업성적	1	2	3	4	5
⑧ 친구관계	1	2	3	4	5
⑨ 학교 방과후 일상생활	1	2	3	4	5
⑩ 생활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1	2	3	4	5

문 9) 여러분 자신은 지난 6개월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몇 번이나 있는지 솔직하
게 그 횟수를 적어 주세요.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있다면 6개월에 몇회?
① 다른 사람을(부모형제가 아닌) 심하게 때리기	1	2	회
② 일부러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타기	1	2	회
③ 학교의 학용품비, 준비물비를 다른 데 사용하기	1	2	회
④ 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1	2	회
⑤ 야한 만화/사진/동영상/영화 등 음란물 보기	1	2	회

문 10) 여러분 자신은 지난 6개월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몇 번이나 있는지 솔
직하게 그 횟수를 적어 주세요.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있다면 6개월에 몇회?
① 학교에서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한 경험	1	2	회
② 학교에서 협박(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음)을 당한 경험	1	2	회
③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한 경험	1	2	회
④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심하게 맞은(폭행) 경험	1	2	회
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긴 경험	1	2	회

문 11)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공부 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1	2	3	4	5
②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앞의 내용을 떠올려 맞춰본다.	1	2	3	4	5
③ 공부를 할 때 책이나 공책의 내용을 반복하여 읽는다.	1	2	3	4	5
④ 읽은 내용을 그림, 표 등을 만들어 요약하고 정리해 본다.	1	2	3	4	5
⑤ 공부할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본다.	1	2	3	4	5
⑥ 공부할 때 내용을 요약하거나 실제 예들을 들어본다.	1	2	3	4	5
⑦ 공부할 때, 먼저 목표(계획)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1	2	3	4	5
⑧ 밑줄을 치거나 공책을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 까를 생각한다.	1	2	3	4	5
⑨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을 찾는 것보다 내용을 많이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	2	3	4	5

문 12)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모르는 말이나 내용이 생기면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②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전에 겪었던 비슷한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	1	2	3	4	5
③ 문제를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본다.	1	2	3	4	5
④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⑥ 문제가 생기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결방법을 찾는다.	1	2	3	4	5
⑦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문제를 푼다.	1	2	3	4	5
⑧ 내가 생각했던 해결방법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 풀어 나간다.	1	2	3	4	5
⑨ 내가 찾아낸 답이 정확한지 확인해본다.	1	2	3	4	5
⑩ 내가 문제를 푼 방법을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1	2	3	4	5

IV. 다음은 여러분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활동이나 내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해보았음	해보지 않았음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숙제와 같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해당없음		1	2	3	4	5
② 국·영·수·과학 등 주요과목을 배우는 것	1	2	1	2	3	4	5
③ 놀이나 문화, 취미활동을 하는 것	1	2	1	2	3	4	5
④ 센터 선생님과 일상적인 상담이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해당없음		1	2	3	4	5
⑤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	1	2	1	2	3	4	5
⑥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지내는 것	해당없음		1	2	3	4	5
⑦ 식사를 하는 것	1	2	1	2	3	4	5

문 2)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선생님들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	1	2	3	4	5
② 선생님들은 친절하시다	1	2	3	4	5
③ 선생님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	1	2	3	4	5
④ 선생님들은 우리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1	2	3	4	5
⑤ 선생님들은 내가 평소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1	2	3	4	5

문 3) 다음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휴식하는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공부하는 곳이 깨끗하다	1	2	3	4	5
② 공부하는 곳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1	2	3	4	5
③ 화장실이 깨끗하다	1	2	3	4	5
④ 식사하는 공간이 깨끗하다	1	2	3	4	5

문 4)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이후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학교성적이 올랐다	1	2	3	4	5
②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	1	2	3	4	5
③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1	2	3	4	5
④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	2	3	4	5
⑤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	2	3	4	5
⑥ 행동이 차분해졌다	1	2	3	4	5
⑦ 성격이 밝아졌다	1	2	3	4	5
⑧ 건강이 좋아졌다	1	2	3	4	5
⑨ 다양한 문화생활(영화, 연극 관람 등)을 하게 되었다	1	2	3	4	5
⑩ 나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1	2	3	4	5
⑪ 남을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	2	3	4	5
⑫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겼다.	1	2	3	4	5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기록 사항(※ 빠짐없이 기록할 것)												
여러분 ID									여러분 성명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실사 사무실	1. 서울 3. 대구 5. 대전 2. 부산 4. 광주											
조사 일시	2011년 월 일 시 분 ~ 시 분(총 분)											

1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1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2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1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코딩 기록 사항							
코더 성명		코딩 월 일	2011년 월 일	코더 ID			

검증원 기록 사항			
검증원 성명		검증 월 일	2011년 월 일
검증 결과			처리 결과

2. 지역아동센터 패널 인적사항 조사지(종사자 응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1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인적사항 (종사자 응답)

유형	지역번호	시설번호	ID
ID	1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일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는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조사의 첫 번째 조사에 해당됩니다.

이 조사지는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조사 대상자(패널)로 선정된 아동의 개인 신상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일로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조사의 결과가 패널 청소년 및 아동의 복리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의 개인 신상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록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내용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1.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황진구 / 이해연



[조사관련 문의처].

(주) 동서리서치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4 신태양빌딩

담당연구원 이영민 연구원 ☎ 02) 2188-9649 lym@dsrgroup.co.kr

실사연구원 신현정 대 리 ☎ 02) 2188-9788 hjshin@dsrgroup.co.kr

SQ2) 시설명	() 지역아동센터
SQ3) 패널 아동 성명	()

문 1) 조사 대상 학생은 몇 년 몇 월 몇 일(양력)에 태어났습니까? 아래에 써 주십시오.

_____년 월 일

문 2) 조사 대상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시 해 주십시오.

① 남자

② 여자

문 3) 조사 대상 학생의 현재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키 : (_____) Cm 몸무게 : (_____) Kg

문 4) 조사 대상 학생은 지역아동센터를 몇 년 몇 월부터 이용하였습니까?

(_____)년 (_____)월부터 이용

문 5) 조사 대상 학생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1 (기초생활 수급대상)	2 (차상위계층)	3 (사각지대)	4	5	6	7

문 6) 조사 대상 학생의 가족 중에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 모두 ○표시 해 주십시오.

※ 직장·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다른 지방이나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함께 살고 있으면 ○표시	1	2	3	4	5	6

문 7) 조사 대상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합니다.

	사망, 이혼 등으로 안계심	학교 안다 님	초등학 교 졸업	중학 교 졸업	고등학 교 졸업	2-3년 제 대학졸 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 박사)	잘모름
① 아버지	1	2	3	4	5	6	7	8	9
② 어머니	1	2	3	4	5	6	7	8	9

문 8) 조사 대상 학생의 부모님은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구분	사망, 이혼 등으로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① 아버지	1	2	3
② 어머니	1	2	3

면접원 기록 사항(※ 빠짐없이 기록할 것)												
학생 ID									학생 성명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실사 사무실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대전											
조사 일시	: 2011년 월 일 시 분 ~ 시 분(총 분)											

1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1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2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1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코딩 기록 사항							
코더 성명		코딩 월 일	2011년 월 일	코더 ID			

검증원 기록 사항				
검증원 성명		검증 월 일	2011년 월 일	
검증 결과			처리 결과	

3. 아동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지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1

ID

유형	지역번호	시설번호	ID
3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일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는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조사의 첫 번째 조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 개인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1. 7



아동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황진구 / 이해연



[조사관련 문의처].

(주) 동서리서치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4 신태양빌딩

담당연구원 이영민 연구원 ☎ 02) 2188-9649 lym@dsrgroup.co.kr

실사연구원 신현정 대 리 ☎ 02) 2188-9788 hjshin@dsrgroup.co.kr

	☐ 사는 곳을 쓰고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SQ1) 사는 곳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SQ2) 생활시설명	()		
SQ3) 성 명	()		
SQ4) 학교명	() 초등학교 4학년		

I.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기 중 생활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문1) 여러분이 평소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써 주세요.

항 목	학교 가는 날 (월~금)		학교 가지 않는 날 (놀토, 일, 공휴일)	
① 보통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나요?	밤	___시에 자고 아침 ___시에 일어난다.	밤	___시에 자고 아침 ___시에 일어난다.
②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니지 않음	___시 ___분부터 ___시 ___분까지	해당없음	
③ 해당없음 (바로 아래 ④번으로 가세요)				
④ 학원(과외)에서 지내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니지 않음	___시 ___분부터 ___시 ___분까지	다니지 않음	___시 ___분부터 ___시 ___분까지

문 2)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 우유나 주스 등 음료수만 마신 경우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에 해당됩니다.

※ 빵, 선식,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는 식사를 한 것에 해당됩니다.

① 주 0일

② 주 1~2일

③ 주 3~5일

④ 주 6~7일

➡ 아래 문 2-1)로 가세요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일주일 동안 한번도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① 시간이 없어서

②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③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

④ 돈이나 음식이 없어서

⑤ 먹기 싫어서

⑥ 기타 _____

문 3)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O표시 해 주세요.

- ① 정형외과 질환(뼈가 부러짐, 관절부상 등) ② 이비인후과 질환(비염, 중이염 등)
 ③ 치과 질환(충치, 잇몸병, 치아교정 등) ④ 내과 질환(감기, 장염, 알레르기, 천식 등)
 ⑤ 안과 질환(눈병 등) ⑥ 흉부외과 질환(심장, 폐질환 등)
 ⑦ 피부과 질환(여드름, 아토피, 습진 등) ⑧ 신경과 질환(경련, 간질 등)
 ⑨ 정신과 질환(우울, 불안 등) ⑩ 기타(성형외과 질환 등 _____)

※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의 문 4)로 가세요.

문 3-1) 치료를 받았나요?

- 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받거나 치료받고 있음 ② 일부 치료 받음 ③ 전혀 치료받지 못함

➡ 다음 페이지 문 4)로 가세요.

➡ 아래 문 3-2)로 가세요.

문 3-2) 무슨 이유로 치료받지 않았나요? 하나에만 O표시 해 주세요.

- ① 많이 아프지 않아서 ② 치료비가 없어서 ③ 병원이 멀어서
 ④ 의료보험이 없어서 ⑤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 ⑥ 치료가 무서워서
 ⑦ 귀찮아서 ⑧ 몸이 불편해서(움직일 수 없어서) ⑨ 기타_____

문 4)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O표시 해 주세요.

- ①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우 건강하다. ② 다른 친구들에 비해 건강한 편이다.
 ③ 다른 친구들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④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문 5) 여러분은 컴퓨터를 사용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O표시해 주세요.

- ① 사용한다. ② 사용하지 않는다. → 문6)으로 가세요.



문 5-1)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아래에 써 주세요.

주중(월~금)에는 하루 평균 약 _____시간 _____분

주말(토~일)에는 하루 평균 약 _____시간 _____분

문 5-2)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래 중 해당 번호 하나에만 ○표시 해 주세요.

- ① 우리 집(시설) ② 친구 집
 ③ 학교 ④ 학원
 ⑤ PC방 ⑥ 해당없음.(표시하지 마세요)
 ⑦ 기타()

문 5-3) 여러분은 다음의 이유로 1 주일에 컴퓨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아래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①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1	2	3	4
② 학습 이외의 정보검색 및 자료(음악,영화,만화 등) 이용	1	2	3	4
③ 게임 및 오락	1	2	3	4
④ 채팅이나 메신저(싸이월드, 버디버디 등)	1	2	3	4
⑤ 전자우편(e-mail)	1	2	3	4
⑥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1	2	3	4
⑦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활동	1	2	3	4
⑧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1	2	3	4
⑨ 댓글 달기	1	2	3	4
⑩ 19세 이상 사이트 이용	1	2	3	4

문 6) 여러분은 휴대전화(핸드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 ① 가지고 있다 ② 가지고 있지 않다

↳ 6-1) 휴대전화번호는?

Ⅱ.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 여러분은 4학년이 된 이후 학교를 결석(체협학습으로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 적이 있습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① 있다

② 없다

문2)로 가세요



문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며칠이나 결석했습니까?

아래 각 이유에 대해 결석 일수를 모두 써 주세요.

결 석 이 유	결 석 일 수
① 사고로 몸을 다쳐서	_____ 일
②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_____ 일
③ 가족(생활시설) 행사 또는 여행 때문에	_____ 일
④ 가기 싫어서 또는 별 이유 없이	_____ 일
⑤ 기타 _____	_____ 일

문 2)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1	2	3	4
②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1	2	3	4
③ 반에서 맡은 당번과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한다.	1	2	3	4
④ 화장실이나 급식할 때에 차례를 잘 지킨다.	1	2	3	4
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⑥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1	2	3	4
⑦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	2	3	4
⑧ 담임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문 3) 여러분은 다음의 과목을 2011년 1학기 동안 얼마나 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과 목	매우 잘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못하는 편이다	매우 못하는 편이다.
①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② 영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③ 수학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④ 과학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⑤ 사회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문 4) 여러분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아래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	2	4	5

Ⅲ. 다음은 여러분의 자신 등에 대한 생각입니다.

문 1)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친구들에게 잘 대해 준다).	1	2	3	4
②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1	2	3	4
③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④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1	2	3	4
⑤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1	2	3	4
⑥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1	2	3	4
⑦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는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⑧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1	2	3	4
⑨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⑩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⑪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1	2	3	4
⑫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	2	3	4
⑬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1	2	3	4
⑭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1	2	3	4

문 2) 다음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자주 그렇다	보통 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②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③ 친구에 대한 열등감(친구보다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④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⑥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문 3) 이번 문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응답하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문 6)으로 가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 4) 이번 문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응답하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문 6)으로 가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문 5) 이번 문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응답하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문 6)으로 가세요



문 5-1) 이번 문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응답하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문 6)으로 가세요

문 6)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와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1	2	3	4
② 나는 길 거리에서 우리 동네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1	2	3	4
③ 나는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조심)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④ 나는 우리 동네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1	2	3	4
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1	2	3	4
⑥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1	2	3	4

문 7)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나 국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1	2	3	4
② 우리 가족, 학교, 사회,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	1	2	3	4
③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돈이나 물건을 기부할 수 있 다.	1	2	3	4
④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다.	1	2	3	4

문 8) 현재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얼마나 만족하나요? 아래 항목의 해당 칸에 ○표
시해 주세요.

항 목	매우 만족 한다	만족 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불만족 하는 편이다	매우 불만족 한다
① <u>해당없음. 표시하지 마시고, 아래 ④번으로</u>					
② <u>해당없음. 표시하지 마시고, 아래 ④번으로</u>					
③ <u>해당없음. 표시하지 마시고, 아래 ④번으로</u>					
④ 건강	1	2	3	4	5
⑤ 여가 및 취미생활	1	2	3	4	5
⑥ 학교생활	1	2	3	4	5
⑦ 학업성적	1	2	3	4	5
⑧ 친구관계	1	2	3	4	5
⑨ 학교 방과후 일상생활	1	2	3	4	5
⑩ 생활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1	2	3	4	5

문 9) 여러분 자신은 지난 6개월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몇 번이나 있는지 솔직하게 그 횟수를 적어 주세요.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있다면 6개월에 몇회?
① 다른 사람을(부모형제가 아닌) 심하게 때리기	1	2	회
② 일부러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타기	1	2	회
③ 학교의 학용품비, 준비물비를 다른 데 사용하기	1	2	회
④ 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1	2	회
⑤ 야한 만화/사진/동영상/영화 등 음란물 보기	1	2	회

문 10) 여러분 자신은 지난 6개월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몇 번이나 있는지 솔직하게 그 횟수를 적어 주세요.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있다면 6개월에 몇회?
① 학교에서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한 경험	1	2	회
② 학교에서 협박(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음)을 당한 경험	1	2	회
③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한 경험	1	2	회
④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심하게 맞은(폭행) 경험	1	2	회
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긴 경험	1	2	회

문 11)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공부 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1	2	3	4	5
②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앞의 내용을 떠올려 맞춰본다.	1	2	3	4	5
③ 공부를 할 때 책이나 공책의 내용을 반복하여 읽는다.	1	2	3	4	5
④ 읽은 내용을 그림, 표 등을 만들어 요약하고 정리해 본다.	1	2	3	4	5
⑤ 공부할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본다.	1	2	3	4	5
⑥ 공부할 때 내용을 요약하거나 실제 예들을 들어본다.	1	2	3	4	5
⑦ 공부할 때, 먼저 목표(계획)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1	2	3	4	5
⑧ 밑줄을 치거나 공책을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 까를 생각한다.	1	2	3	4	5
⑨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을 찾는 것보다 내용을 많이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	2	3	4	5

문 12)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칸에 ○표시 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모르는 말이나 내용이 생기면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②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전에 겪었던 비슷한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	1	2	3	4	5
③ 문제를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본다.	1	2	3	4	5
④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⑥	문제가 생기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결방법을 찾는다.	1	2	3	4	5
⑦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문제를 푼다.	1	2	3	4	5
⑧	내가 생각했던 해결방법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 풀어 나간다.	1	2	3	4	5
⑨	내가 찾아낸 답이 정확한지 확인해 본다.	1	2	3	4	5
⑩	내가 문제를 푼 방법을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1	2	3	4	5

IV. 다음은 여러분이 생활하는 시설(복지시설) 서비스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 1) 여러분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하는 활동이나 내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생활시설 에서 하는..	해보았음	해보지 않았음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① 숙제와 같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해당없음		1	2	3	4	5
② 국·영·수·과학 등 주요과목을 배우는 것	1	2	1	2	3	4	5
③ 놀이나 문화, 취미활동을 하는 것	1	2	1	2	3	4	5
④ 시설의 선생님과 일상적인 상담이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해당없음		1	2	3	4	5
⑤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	1	2	1	2	3	4	5
⑥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지내는 것	해당없음		1	2	3	4	5
⑦ 식사를 하는 것	해당없음		1	2	3	4	5

문 2) 여러분이 생활하는 시설(집)의 선생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우리집 선생님들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 주신다.	1	2	3	4	5
② 우리집 선생님들은 친절하시다.	1	2	3	4	5
③ 우리집 선생님들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	1	2	3	4	5
④ 우리집 선생님들은 우리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1	2	3	4	5
⑤ 우리집 선생님들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1	2	3	4	5

문 3) 다음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휴식하는 생활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공부하고 생활하는 곳이 깨끗하다.	1	2	3	4	5
② 공부하는 곳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1	2	3	4	5
③ 화장실이 깨끗하다.	1	2	3	4	5
④ 식사하는 공간이 깨끗하다.	1	2	3	4	5

문 4) 다음 질문들은 생활시설이 나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다음 항목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 해 주세요.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학교성적이 올랐다.	1	2	3	4	5
② 학교생활이 즐거워졌다.	1	2	3	4	5
③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1	2	3	4	5
④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	2	3	4	5
⑤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	2	3	4	5
⑥ 행동이 차분해졌다.	1	2	3	4	5
⑦ 성격이 밝아졌다.	1	2	3	4	5
⑧ 건강이 좋아졌다.	1	2	3	4	5
⑨ 다양한 문화생활(영화, 연극 관람 등)을 하게 되었다.	1	2	3	4	5
⑩ 나의 특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1	2	3	4	5
⑪ 남을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	2	3	4	5
⑫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겼다.	1	2	3	4	5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기록 사항(※ 빠짐없이 기록할 것)													
여러분 ID									여러분 성명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실사 사무실	1. 서울 3. 대구 5. 대전 2. 부산 4. 광주												
조사 일시	: 2011년 월 일 시 분 ~ 시 분(총 분)												

1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1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2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1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코딩 기록 사항							
코더 성명		코딩 월 일	2011년 월 일	코더 ID			

검증원 기록 사항				
검증원 성명		검증 월 일	2011년 월 일	
검증 결과			처리 결과	

4. 아동양육시설 패널 인적사항 조사지(종사자 응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1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인적사항 (종사자 응답)

	유형	지역번호	시설번호	ID
ID	3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일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는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조사의 첫 번째 조사에 해당됩니다.

이 조사지는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생활시설(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중 조사 대상자(패널)로 선정된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 신상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일로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 조사의 결과가 패널 청소년 및 아동의 복리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대해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록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1.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황진구 / 이해연



[조사관련 문의처].

(주) 동서리서치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4 신태양빌딩

담당연구원 이영민 연구원 ☎ 02) 2188-9649 lym@dsrgroup.co.kr

실사연구원 신현정 대 리 ☎ 02) 2188-9788 hjshin@dsrgroup.co.kr

SQ2) 시설명	()
SQ3) 패널 아동 성명	()

면접원 기록 사항(※ 빠짐없이 기록할 것)												
학생 ID									학생 성명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실사 사무실	1. 서울 3. 대구 5. 대전							2. 부산 4. 광주				
조사 일시	: 2011년 월 일 시 분 ~ 시 분(총 분)											

1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1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2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1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코딩 기록 사항							
코더 성명		코딩 월 일	2011년 월 일	코더 ID			

검증원 기록 사항				
검증원 성명		검증 월 일	2011년 월 일	
검증 결과			처리 결과	

5. 종사자용 설문지(지역아동센터)

아동 ·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조사 1 조사시설 종사자용

	유형	지역번호	시설번호	ID
ID	1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www.nypi.re.kr 원장 : 이재연)은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11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단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지는 조사대상에 포함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업무에 대한 의견을 조사(2011년만 실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일로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여러분이 시설에 종사하시면서 느끼는 문제나 시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을 기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록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1. 8



아동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황진구 / 이해연



[조사관련 문의처]

(주) 동서리서치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4 신태양빌딩

담당연구원 신현정 대 리 (전화 : 02-2188-9788)

실사연구원 이영민 연구원 (전화 : 02-2188-9649)

I. 다음은 중사자 여러분이 느끼시는 일상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 다음은 선생님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 선생님의 경험이나 느낌에 가장 가깝게 해당하는 곳에 'O'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매우 만족
① 기관장(사무국장 등 상사)의 지지와 인정					
② 업무 대상 아동·청소년과의 친근감					
③ 개인적 성장과 발전 기회					
④ 직장 동료와의 협력 정도					
⑤ 급여 및 임금 수준					
⑥ 승진 기회					
⑦ 근무 시간 등 복무 여건					
⑧ 담당업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⑨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⑩ 지역사회 유사 분야 전문가들의 인정					
⑪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⑫ 아동·청소년을 위해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들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					
⑬ 본인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감					

문 2) 다음은 선생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느낀 본인의 역할 등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생님의 경험이나 느낌에 가장 가깝게 해당하는 곳에 'O'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항목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① 내가 근무하는 시설에는 혼란스런 운영방침이나 규정 등이 있다.					
② 나는 아동·청소년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					
③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④ 내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⑤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기 너무 힘들다.					
⑥ 담당하는 업무가 끝날 때(사례관리, 아동관리)까지 계속 신경 쓰는 것이 너무 어렵다.					

문3) 다음은 선생님이 업무를 맡으며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문항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선생님의 경험이나 느낌에 가장 가깝게 해당하는 곳에 'O'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항목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① 나는 맡은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② 나는 하루 일과가 끝날 때면 몸이 녹초가 된다.					
③ 나는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기운이 빠진다.					
④ 나는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감정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⑤ 나는 아동·청소년을 '물건'처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느낀다.					
⑥ 나는 다른 동료들과 하루 종일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다.					
⑦ 나는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⑧ 나는 맡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⑨ 나는 현재의 직업을 선택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⑩ 나는 내 직업 때문에 짜증이 나서 걱정이다.					
⑪ 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느낀다.					
⑫ 나는 내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⑬ 나는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⑭ 나는 아동·청소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⑮ 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직접 대하면서 일하는 것을 큰 스트레스로 느낀다.					
⑯ 나는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⑰ 나는 아동·청소년에게 편한 분위기를 쉽게 조성한다.					
⑱ 나는 이 직업을 통해 가치 있는 일을 많이 성취했다.					
⑲ 나는 아동·청소년과 친밀하게 일하고 나면 매우 흐뭇하다.					
⑳ 나는 일을 할 때 감정적인 문제들을 매우 침착하게 다룬다.					
㉑ 나는 활기가 넘친다.					

문4) 다음은 선생님의 업무환경과 업무경험을 묻는 항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선생님의 경험이나 느낌에 가장 가깝게 해당하는 곳에 'O'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항목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① 나는 동료로부터 고립감을 느낀다.					
② 이 직장은 모든 직원에게 공평한 인사정책을 펴왔다.					
③ 나의 동료들은 내 판단을 존중한다.					
④ 내가 일하는 시설은 직원의 성별, 연령, 혹은 다른 배경 등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직원을 평가한다.					
⑤ 나는 시설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⑥ 이 시설은 종사자의 기술과 능력에 맞게 업무를 배정한다.					
⑦ 나는 이 시설에서 나의 종교, 성, 혹은 연령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다.					
⑧ 나의 동료들은 나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⑨ 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					
⑩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업무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나와 같이 결정한다.					
⑪ 이 시설은 해고를 결정할 때 직원의 성별, 연령, 혹은 다른 배경 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한다.					
⑫ 나의 업무 배치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⑬ 나는 기관장(센터장, 시설장)으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는다.					
⑭ 이 시설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⑮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내 말을 경청한다.					
⑯ 나는 상사(슈퍼바이저)로부터 업무상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다.					

문 5) 다음은 업무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알아보려는 항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선생님의 경험이나 느낌에 가장 가깝게 해당하는 곳에 'O'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항목	전혀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저 그렇다	어려움이 있다	매우 어렵다
① 아동·청소년의 생활지도 업무					
② 아동·청소년의 문제 상담업무					
③ 부모교육, 상담 등 서비스 업무					
④ 회계관리나 공문작성 등 행정처리					
⑤ 직원들과의 관계					
⑥ 근무시간					
⑦ 지역연계, 후원사업 개발					
⑧ 보수(급여)					
⑨ 각종 평가사업 및 사업관리업무					

문 6) 귀 시설에서 종사자들의 이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2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하여 그 번호를 기록하여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처우(봉급, 복지후생 등)에 대한 불만 ② 직장 내 대인갈등(상급자와의 갈등)
- ③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④ 대학원진학이나 배움의 기회
- 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⑥ 자신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 ⑦ 기타 (_____)

7) 귀 시설에서 종사자들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 2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하여 그 번호를 기록하여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 ① 처우개선 (봉급, 복지후생 등) | ②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 강화 |
| ③ 시설내 정서적 지지 강화 | ④ 업무량 감소 |
| ⑤ 직원평가체계 개선 (예, 인센티브 강화 등) | ⑥ 대학원진학 지원이나 배움의 기회 제공 |
| ⑦ 직무역량 강화 기회 제공 | ⑧ 기타 () |

II. 다음은 중사하시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 귀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아래 표에서 골라 □안에 모두 V표 하십시오.

☐ ① 심리검사	☐ ② 상담	☐ ③ 일상생활 습관지도	☐ ④ 학습지원
☐ ⑤ 진로상담 및 지원	☐ ⑥ 자립준비지원	☐ ⑦ 직업 및 기술 훈련	☐ ⑧ 경제교육
☐ ⑨ 예체능활동	☐ ⑩ 독서지도	☐ ⑪ 문화체험 활동	☐ ⑫
대인관계향상			
☐ ⑬ 심리·정서·행동치료	☐ ⑭ 사례관리	☐ ⑮친가족 연계 및 복귀 지원	
☐ ⑯ 부모상담 및 교육	☐ ⑰ 기타()		

문 2) 귀 시설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아래 표에서 골라 □안에 모두 V표 하십시오.

☐ ① 심리검사	☐ ② 상담	☐ ③ 일상생활 습관지도	☐ ④ 학습지원
☐ ⑤ 진로상담 및 지원	☐ ⑥ 자립준비지원	☐ ⑦ 직업 및 기술 훈련	☐ ⑧ 경제교육
☐ ⑨ 예체능활동	☐ ⑩ 독서지도	☐ ⑪ 문화체험 활동	☐ ⑫
대인관계향상			
☐ ⑬ 심리·정서·행동치료	☐ ⑭ 사례관리	☐ ⑮친가족 연계 및 복귀 지원	
☐ ⑯ 부모상담 및 교육	☐ ⑰ 기타()		

문 3) 위 문 2)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 2개는 무엇일까요?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하여 그 번호를 기록하여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 ① 전문인력 및 예산투입 | ②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강화 |
| ③ 업무매뉴얼 개발 및 교육 | ④ 직원의 처우개선 |
| ⑤ 시설장의 의지 | ⑥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 |
| ⑦ 기타 (_____) | |

문 4) 선생님의 시설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 2개는 무엇일까요? 순위
별로 2가지를 선택하여 그 번호를 기록하여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환경(시설 등)
 - ② 전문 인력 투입
 - ③ 운영 인력 확충
 - ④ 투명한 시설운영
 - ⑤ 업무의 표준화
 - ⑥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⑦ 직원의 처우개선
 - ⑧ 기타 ()

문 5) 선생님이 종사하시는 시설의 아동과 청소년이 처음 시설을 이용할 때(입소, 참여)
보다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이나 발달수준, 적응수준 등이 향상된다고 느끼십니까?

- ① 현저하게 향상된다. ② 대체로 향상되는 듯하다. → 문 6)으로 가세요.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향상되지 못한다. ⑤ 전혀 향상되지 못한다. → 문 7)로 가세요.

위의 문 5)에서 ①번과 ②번에 응답하신 분들만 답해주세요

① 애정어린 보살핌 ② 전문적인 서비스 ③ 아동개인의 욕구와 문제에 기초한 서비스
④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호환경 제공 ⑤ 기타 (_____)

① 열악한 생활환경 ② 전문적인 서비스의 부재 ③ 친가족의 부정적 영향
④ 부정적 사회적 인식 ⑤ 개별 아동의 특성 ⑥ 종사자의 양육능력 부족
⑦기타()

성 별	☐ ① 남 ☐ ② 여
연령	만 ()세
최종학력	☐ ①고졸 ☐ ②전문대졸 ☐ ③대졸 ☐ ④대학원졸 ☐ ⑤기타()
전공	☐ ①사회복지학 ☐ ②아동복지학 ☐ ③청소년(지도,상담)학 ☐ ④기타()
자격증 소유	☐ ①사회복지사 ☐ ②보육교사 ☐ ③청소년지도사 ☐ ④기타()
종교	☐ ①개신교 ☐ ②천주교 ☐ ③불교 ☐ ④없음 ☐ ⑤기타()
혼인상태	☐ ①미혼 ☐ ②기혼 ☐ ③이혼/별거 ☐ ④사별 ☐ ⑤기타()
직위	☐ ①기관(센터)장 ☐ ②생활복지교사(PM,SM) ☐ ③행정담당자 ☐ ④기타()
올해 평균 월수입	()원
현재 시설의 근무경력	()년 ()개월 근무
주당 평균 근무시간	(1주일 평균)시간 근무
지난 1년간 관련 교육이수 시간	()시간

면접원 기록 사항(※ 빠짐없이 기록할 것)													
여러분 ID									여러분 성명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실사 사무실	1. 서울 3. 대구 5. 대전 2. 부산 4. 광주												
조사 일시	: 2011년 월 일 시 분 ~ 시 분(총 분)												

1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1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2차 에디팅 기록 사항							
에디터 성명		에디팅 월 일	2011년 월 일	에디터 ID			
에디팅 결과							

코딩 기록 사항							
코더 성명		코딩 월 일	2011년 월 일	코더 ID			

검증원 기록 사항				
검증원 성명		검증 월 일	2011년 월 일	
검증 결과			처리 결과	

Abstract

A Panel Survey on Children & Youths in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II – Focusing on the Community Child Centers, After-School-Academies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longitudinal survey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among the children and youths in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and to collect and analyse the data o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life changes in their growth proces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m.

For this purpose, 1,000 children and youths from the Community Child Centers, After-School-Academies,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nationwide were selected to establish the study panel in 2011, and the data on their everyday life and attitud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Especially, this data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KCYPS) in order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these two samples. The comparative analyses with the participants from

the low income families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were also conducted. In addition, the survey on 517 workers in these facilitie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overall features on facility managements.

The main results from the comparison of this panel with tha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those in the KCYPS panel, the proportion of those living with parents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was lower, and the educational attainments of their parents were found to be lower. Secon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did not attend any private educational facilities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was 76.8%, while the percentage in the low income families in KCYPS was 24.2%, and that in the general KCYPS was 11.5%. Third,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ir own health statu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across those comparison groups, which implies the positive influence of meals and activity-managements provided in the facilities on the health of children and youths. Fourth, in relation to the media use, the percentage of those who did not use computers at all was 10.4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while they were 2.9% in the low income families in KCYPS, and 3.5% in the general KCYPS. This shows the information divide acros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ies. Fifth, those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were found to have higher tendency to observe school rules compared to those in other panels. Sixth, those in KCYPS have higher levels of resilience than those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In addition, the Community Child Centers and After-School-Academies were found to have the trusting environments in which parents could leave their children after school, and those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had more active attitudes towards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cares and services to the children and youths from the socially disadvantaged backgrounds, it is imperative to conduct a systematic longitudinal study on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which the national policies on them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nd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should be continued.

Key Words : panel survey, children & youths,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Community Child Centers, After-School-Academies, Residential Care Facilities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교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무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가나다 순)

김도균 (보건복지부 사무관)
김은정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김호순 (대원과학대학교 교수)
나성웅 (보건복지부 과장)
박영숙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단장)
부청하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신인호 (보건복지부 사무관)
왕형진 (보건복지부 사무관)
유원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단 간사)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이지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단 간사)
이혜경 (한국아동복지협회 팀장)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한도희 (여성가족부 전문위원)
황정아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팀장)
이외에도 조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종단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전국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260개소 관계자 여러분과 패널로 참여해주신 1,000명의 아동·청소년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집 필 진

황진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혜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유성렬 (백석대학교·교수)

박은미 (서울장신대학교·교수)

장소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보고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조사 II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리 드 릭 전화 02)2269-191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957-8(93330)